



원조를 바라는 바이다.

올해는 총회 31주년에 해당하므로 30년을 인생의 한 세대라고 한다면, 올해가 제2대째에 해당하는 셈이니 신대에 당선된 총회장은 새로운 기분으로 모든 방면에 걸쳐 새로운 발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앞으로의 중대사건은 헌법개정 출판사업, 교파 합동 문제 등인데, 그중에서도 교파 합동 문제가 가장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포부)

(기독교의 일본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549(天文18)년 8월 15일 스페인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중국 범선을 타고 가고시마(鹿兒島) 만에 상륙한 것이 일본 기독교 전래의 시작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401년 전(조선에는 약 100년 전)의 일이다. 오늘날까지 유교가 약 1661년, 불교가 1391년을 각각 경과한 데 비하면 아직 새로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서구문화를 경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래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사실에서 보건대 일본화가 필요한 수많은 요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점에서 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1. 교파를 합동해야 한다.

일본의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하여 합동 일치해야 한다. 기독교에는 3백 수십에 달하는 많은 교파가 정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만 보더라도 40여 개에 달한다. 이들 교파의 기원을 보면, 그것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구미의 역사적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분파된 것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비기독교적, 구미교파 분파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소위 교파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옛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리사이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기초는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있다. 따라서 소위 각 교파 합동은 기독교로 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일본 내지의 교회는 10여 년 이상 복음주의 각파들 간에 종종 합동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1940년 10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황기(皇紀) 2600년 봉축 기독교 신도대회에서의 교회 합동 선언에 관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듬해 1941년 6월 24일 도쿄에서 조직 총회를 개최하여 지금은 34개 파의 교파가 완전히 합동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 반도의 교파 수는 매우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각 파로 나뉘어 존립하고 있다는 점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규칙을 통제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기독교의 일반 규칙은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적, 공리주의적, 유물적, 자유주의적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로 인해 하층계급의 질서가 없고, 온건해야 할 종교단체가 불평불안으로 언제나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종래의 무질서적인 데서 완전히 해탈하여 일본적으로 귀일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서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3. 경신숭조(敬神崇祖)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고전에 따르면 우리 일본은 신이 국토와 국민을 생성화육(生成化育)시킨 특성을 지닌 나라이다. 그로부터 수천 년 이래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신의 광대한 정신이 신에서 신으로, 역대(歷代)에서 역대로, 신민에서 신민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신을 대어친(大御親)'으로 하여 우리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질서정연하게 차례로 이어받아온 것이다. 이 어조신(御祖神)의 어심(御心)에 보답하는 마음은 경신(敬神)이 되고 숭조(崇祖)가 된 것이다. 이 경신숭조의 정신은 수천 년간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도 똑같이 신의 어심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고 깨끗하고 밝고 올바르게 유지해온 것이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멀리 황조(皇祖)의 신을 경외하고 사모하며 받들고 가르침에 따른다.

요컨대 이 땅의 재래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 반도에도 일본정신에 기초하여 일본적 기독교가 새로이 탄생해 수립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지만 노력할 작정이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실행함으로써 나아가야 한다.

이상의 훌륭한 소감과 포부를 듣고 신임회장의 건강을 빌면서 돌아왔다.

편집부 기자

〈출전 : 「朝鮮邦國總長會新任總會長新森一雄氏抱負」, 『基督教新聞』 제30호, 1942년 11월 18일〉

(2) 귀금속 헌납의 건

위의 건에 관해 지난 4월 7일 전체 상치위원회에서 결전체제 하 국민총력을 다하는 데 있어서 신도들은 솔선수범하여 귀금속류를 국가에 헌납할 결의를 하였는 바, 귀 관하 각 교회에 통달하여 각 교회 미헌납의 중, 각 신도들 가정의 금속류 헌납을 실행하도록 할 것.

덧붙여서 헌납 후 숫자 및 중량을 총회에 보고할 것.

(1942년, 1943년 4월 이전 헌납분도 보고하기 바람)

〈출전 : 「貴金屬獻納の件」(總聯發 제84호), 『基督教新聞』 제49호, 1943년 5월 5일〉

5) 조선예수교장로회 전시포교지침 선서

취지

대동아전쟁은 그 고원(高遠)한 목적과 규모의 웅대함은 세계사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어능위(御稜威) 아래 우리 충성용무(忠誠勇武)한 황군장병들의 용전분투는 연전연승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전과의 확대와 더불어 대동아 건설도 착실히 진척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일억 국민들 모두 감격해마지 않는 바이다. 그렇지만 건설의 앞날은 아직 요원하고 국민 부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더 필승(必勝)의 신념을 양양하고 견인지구(堅忍持久) 총력을 기울여 싸움으로써 성전 목적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회의 사명이 더욱 크다는 점을 통감한다. 따라서 여기에 전시 포교 지침을 정해 이를 공포한다. 각 교역자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투철한 시국 인식으로 협심·협력함으로써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정성을 다할 것을 기한다.

강령

1. 국체의 본의(本義)에 철저를 기하고 대동아전쟁 목적 완수에 매진할 것.
2. 일본적 기독교 확립을 도모하고 본회의 사명 달성에 노력할 것.

실천요목

1. 충군애국의 정신 함양에 노력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멸사봉공 실천자가 되도록 할 것.
2. 경신숭배(敬神崇拜)의 국풍(國風)을 중하게 여기고 보본반시(報本反始)의 정성을 다할 것.
3. 우리나라의 순풍미속(淳風美俗)을 존중하고 국민정신의 양양에 노력할 것.
4. 선전(宣戰)의 조칙(大詔)을 받들어 자진해서 국책의 진행에 협력하는 동시에, 사상국방(思想國防)의 완벽을 기할 것.
5. 언제나 필승신념(必勝信念)을 양양하여 전시생활의 확립에 노력하고, 견인지구(堅忍持久)로써 최후의 승리를 확립하는 견고한 의지 함양에 노력할 것.
6. 대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고 질실강건한 기풍을 기르고, 행여 도의의 퇴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7. 신도들로 하여금 이웃사랑의 실천에 노력하여 총후(銃後)의 활동에 정신(挺身)하도록 할 것.
8. 말세심판, 재강림을 세속적·물질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제거하여 진정한 종교적·영적으로 해석할 것.
9. 파벌적 관념을 청산하고 일본 교학의 연찬(研鑽)에 노력하고, 일본 기독교의 수립에 매진할 것.
10. 교역자로서의 교양을 높이고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여 술선수범하여 국민의 사표(師表)가 될 것.
11. 강연회 및 기타 집회에서 징병의 의무에 관한 정신을 강화할 것.
12. 대동아 건설에서의 기독교의 사명을 고려해 국내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해외 포교의 발전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신도들의 관심을 환기하여 청년신도들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할 것. 이상

1943년 3월 일

〈출전 : 『朝鮮耶穌教長老會戰時布教指針宣誓』, 『基督教新聞』 제49호, 1943년 5월 5일〉



6)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

(1)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1)

제1학기 하나님 아들의 복음, 마가복음(1월~3월)

제1과 청년기의 수련(1월 2일)

〈본문〉 마가복음 1 : 9-13, 6 : 1~3, 누가복음 2 : 40, 52

〈성경구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 : 40)

〈연대와 장소〉 한글 교안을 참고하라.

〈가르침〉 ①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건강도 지혜도 키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그리고 마치 신의 나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물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릴 적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일요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일요학교 외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구약성서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열심히 출석하셨고, 예수님은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에는 언제나 친절하고 결코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도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집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는 아버지 일을 잘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목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물건은 사람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고 모두 예수님께 주문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유소년기를 허비하지 않으시고 수련에 수련을 쌓아 훗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수련을 쌓아서 나라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싸움만 하면서 훌륭한 국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잘 수련해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② 예수님은 이제 청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르단이라는 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뒤 강가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도 정신도 훌륭히 성장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큰 사업을 하게 되시었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



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강한 각오를 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수련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곤장 일어나 용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제2과 새로운 시대(1월 9일)

〈본문〉 마가복음 1 :14~15, 21~34; 2 :1~12

〈성경구절〉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가복음 1 :15)

〈가르침〉 ① 오늘은 예수님 이야기를 세 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일요일 예수님은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는 매우 힘 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 안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잠잠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지만 곧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여겼습니다.

② 두 번째는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과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와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자고 있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나 된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알고는 그녀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놀라 예수님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③ 세 번째 이야기는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며칠 뒤, 다시 그곳으로 가서 신비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위대한 선생님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베드로의 집에 모였습니다. 집 안에는 물론이고 문밖 거리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네 명이 중풍에 걸린 병자 한 명을 들것에 들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은 밖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유대인 집 지붕은 평평하고 거기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는 참으로 가엽게 여기셨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어 “너의 죄는 용서 받았느니라. 안심하라”라고 친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듣고 있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참으로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병을 고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④ 예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시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낡은 시대의 이기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봉사주의, 진실주의를 가르치시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한다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봉사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아야 하는 표시입니다.

〈출전 : 『日曜修鍊會 幼年部教案(一)』, 『基督教新聞』 제74, 75 합병호, 1943년 10월 27일〉

(2)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2)

제1학기 하나님 아들의 복음, 마가복음(1월~3월)

제3과 신구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1월 16일)

〈본문〉 마가 2 :23-3 :6, 7 :1-23

〈성경구절〉 저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마가 7 :18)

〈가르침〉 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우리 일요일과 같은 것인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도 인식일이라면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안식일을 맹목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보다는 인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안식일보다는 올바른 일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밀 이삭을 잘라 가져간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잘라서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탈곡기로 곡물을 탈곡한 것과 마찬가지로 썩습니다. 이를 본 바리사이 사람은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사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데 가장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물론 사람이 중요하겠지요.

② 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과연 이 사람의 병을 고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한 가운데로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이냐, 죽여야 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잠자코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





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사이 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돕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낡은 시대에 얽매어 형식이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③ 형식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리사이 인은 예수님과 충돌하였습니다. 바리사이 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밖에서 돌아왔을 때도 반드시 씻은 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말 뿐,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지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먹은 것은 위 속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안에서 나오는 것은 욕과 싸움과 온갖 나쁜 것들 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④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이 시대에도 이런 충돌이 있습니다. 대동아 건설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신앙을 갖고 우리 기독교 신자가 출발하려고 할 때, 완고한 사람들은 영·미적 신앙에 사로잡혀 새로운 신앙을 배척하거나 방해합니다. 우리는 낡은 생각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4과 심전(心田) 개발(1월 23일)

〈본문〉 마가 4 :1-34

〈성경구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마가4 :8)

〈가르침〉 ① 어느 날 예수님은 해변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행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세 가지를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으로 나갔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새가 날아와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싹을 틔울 수는 있었지만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이 올라오자 이내 말라죽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도 싹을 틔울 수는 있었지만 가시나무가 그 싹보다 커서 싹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없었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흙이 적고 돌이 많은 곳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자란 땅과 같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듣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이기심이나 욕심이 가시나무와 같이 무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랄 수 없고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잘 자란 뒤 많은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②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면 어느 샌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크게 자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기다리면 어느 샌가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묵자흑(近墨者黑), 곧 사람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③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를 땅에 뿌려두면 싹을 틔우고 크게 자라 여러 야채들 중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겨자 같이 작은 씨앗도 자라면 새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작은 선행일지라도 잘 실천하면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 말에도 “선이 작다고 해서 아니 행하지 말고, 악이 작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큰 실패를 맞볼 수 있습니다.

④ 앞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밭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밭은 잘 가꾸는 것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국민이 되어 천황(君)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출전 : 『日曜修鍊會 幼年部教案(二)』,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3) 일요수련회 유년부 교안(6)

제8과 종교생활과 사회봉사(2월 20일)

〈본문〉 마가 9 :2-8, 17-18, 25-29

〈성경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안에 내가 저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 :5)

〈가르침〉 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문제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6일 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옷은 눈부실 정도로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느 샌가 예수님 외에 두 명이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 제자는 놀라 자세히 보니 그 옛날 유명한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계속 살도록 하시죠.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도 성스러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홀연





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예수님과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피해 조용한 산 위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산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불교에서는 절을 산속에 지어 거기서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 생활을 선택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도 생활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입니다. 기도 생활로 얻은 힘으로 사람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기도 생활입니다.

②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얻은 성령의 힘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을 만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산 위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이빨을 깨무는 등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는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공교롭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곧장 그 아이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쩌서 자신들은 고칠 수 없었는지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읍시다. 기도를 올려 사회봉사를 합시다.

제9과 철저한 헌신의 요구(2월 26일)

〈본문〉 마가 10 :17~27, 12 :41~44

〈성경구절〉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마가 6 :21)

〈가르침〉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선생님, 저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은 당신이 돌아가 당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없는 행동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귀한 은혜를 입고자 한 사람입니다. 작은 대가를 치르고 큰 보답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큰 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신전력(全身全力)을 다해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황국(皇國)에 충의(忠義)를 다한다고 하지만 전신전력을 다해 충의를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황국을 위해서라면 몸도 재산도 모두 바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충의를 바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재산보다 자신의 귀한 의무를 소중하게 여긴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루살림의 커다란 성전에 있는 현금함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10원짜리 지폐나 반짝이는 금화를 자랑하듯 거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 자신이 많은 현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없는지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보였지만 구두쇠로 보이기 싫어서 살짝 작은 동전을 넣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입은 옷에서 과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현금함 앞에 와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뒤 자신이 들고 온 동전 두 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를 보았느냐. 저 과부는 누구보다 현금을 가장 잘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이나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현금하였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다.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쌀의 대금을 아낌없이 바쳤으니 저 과부의 현금은 그 누구의 현금보다 값진 것이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활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아들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보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있는 단 하나의 낫쇠 식기라도 기꺼이 나라에 바칩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 자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전 : 『日曜修鍊會 幼年部教案(六)』, 『基督教新聞』 제83호, 1944년 2월 2일〉

7) 정춘수(禾谷春洙) 관련 기사

(1) 임명기(통고문)

공보

통고문(제2호)

임명기



교단 통리(統理) 정춘수(禾谷春洙)

1943년 11월 8일 발령

임 황해교구 황동(黃東) 지교구장(支敎區長) 平松錫源

임 " 황북(黃北) 지교구장

명 " 사리원(沙里院)교회 주관자 大山慶云

명 " 연안읍(延安邑)교회 주관자 金海靈淳

명 " 취야(翠野)교회 주관자 茂元明德

명 " 신계(新溪)교회 주관자 江草鎮惠

명 " 남본정(南本町)교회 金島萬植

명 " 서해주(西海州)교회 주관자 安田熙哲

의원면(依願免) " 이목(梨木)교회 주관자 대무(代務) 安川明浩

명 황해교구 이목교회 주관자 松本聖柱

명 " 신막(新幕)교회 주관자 金村成烈

(휴직 중, 복직함)

임 평양교구 평남(平南) 지교구장 豊川鎮一

임 " 평북(平北) 지교구장 白川學信

명 " 신의주(新義州)교회 주관자 平津正

명 경기교구 정동(貞洞)교회 주관자 高原 憲

명 " 인천내리(內理)교회 김광섭(金光永燮)

임 교단본부 주사(회계) 장기형(長田基衡)

임 " 서기 이기태(李基台)

명 경기교구 중앙교회 부목사 오창희(吳昌熙)

1943년 11월 9일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통리 정춘수(禾谷春洙)
각 교회 주관자 전(殿)

(출전 : 禾谷春洙 「任命記」, 公報 通告文(第2號)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2) 애국기 헌납자금 송금 독촉의 건

지난 1943년 3월 21일 일요일을 기해 애국기(愛國機) 헌납 자금으로서 특별헌금을 하여 이 모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송금 예정이었지만, 본 교단의 사정상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까지 송금할 것을 이에 통지하는 동시에 독촉한다.

추신

귀 교회의 애국기 헌납 자금 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기입해 두니 참조하여 송금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일금 〇〇〇원

1943년 11월 5일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통리 정춘수(禾谷春洙)

농촌 각 교회 주관자 전(殿)

〈출전 : 禾谷春洙 「愛國機納金送金方督促ノ件(公文)」,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3) 신상제(新嘗祭) 감사 곡물 헌상의 건

올해도 예년과 같이 세 번째 일요일(11월 21일)에 추수감사절의 예배일을 지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는 11월 23일 신상제²⁸⁾ 날을 기해서 우리의 진신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신궁에 신곡(新穀)을 헌상하는 데 있어서 농촌의 각 교회에서는 금년의 신 곡물 중에서 한 되씩 오는 11월 18일 이내에 본 교단 본부에 송부할 것을 통지하는 바이다.

추신

송품을 할 때는 소포로 하고 표면에는 ‘조선신궁 헌납미’라고 기입할 것

1943년 11월 21일

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통리 정춘수(禾谷春洙)

각 교회 주관자 전(殿)

〈출전 : 禾谷春洙 「新嘗祭感謝穀物獻上ノ件」,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4) 교단 규칙을 실시하도록 통달하는 건

지난 1943년 10월 14일 일보교단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제정된 교단 규칙(일본기독교 조선감리교단 규칙)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당일부터 실시한 바, 위의 신 규칙 및 세칙이 들어간 책자(별책 송부함)를
28) 천황이 신곡(新穀)을 천신지기(天神地祇)에 바치고 직접 그것을 먹는 의례.

송부하니 받아본 뒤 동(同) 규칙에 따라 명칭 변경(간판 글자 변경), 교회 임원제도 변경(임원 개선) 등 조속히 실시하도록 이에 통달한다.

추신

신 규칙은 다시 인쇄 출판한 뒤 발매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별책 프린터한 규칙에 첨부한 정오표에 따라 정정한 뒤 사용하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출전 : 禾谷春洙 「敎團規則實施方通達ノ件」,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8) 임시특별지원병 채용제 취지 철저의 건

위 건에 관해 지난 1943년 11월 6일 경성부민관에서 각 종교단체의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시보국회(戰時報國會)를 결성하고, 별지에서와 같이 실시 사항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이에 통고한다.

삼가 아뢰옵기는 쌀쌀해지고 있는 가을 날씨에 더욱 발전하시길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임시특별지원병 채용제가 실시되어 조선반도 청년들과 학도들이 황국에 봉사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단지 적격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반도의 이천오백만의 무한한 영광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 종교단체 전시보국회 일동은 께기하여 전 신도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철저하게 알리고, 취지에 충분히 응답하기 위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후원 아래 조선 전체에 운동을 일으켜 미·영을 격멸하고, 또 신동아 건설을 위해 진충(盡忠)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 조선의 모든 종교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아래와 같은 행사를 시행하기를 바라 이에 말씀드립니다.

기(記)

1. 11월 14일(일요일) 오전 예배의 집회를 기해 임시특별지원병 채용제의 취지 철저, 미영 격멸, 사기 고양을 도모할 것.
1. 조선의 도청 소재지에서 거행되는 본회 주최의 적개심 고양 강연회에 모든 신도들이 참석할 것.
1. 지방 각 교단의 주관자들이 진두에 서서 적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번 특별지원병 채용제를 권유할 것.

1943년 11월 8일
조선 종교단체 전시보국회
각 교회 주관자 전(殿)

〈출전 : 「臨時特別志願兵採用制趣旨徹底ノ件」, 『基督教新聞』 제77호, 1943년 11월 17일〉



9) 황종률(黃鐘律) 관련 기사

(1) 징병제도 실시 감사, 강연 및 영화의 밤

광영의 징병제 실시, 혼희(欣喜)에 찬 반도의 방방곡곡 세기적 감격에 날뛰는 2천 4백만 동포에게도 전하의 적자(赤子)로서 순국지성(殉國至誠)의 불길을 가슴에 안고, 나라의 방패가 되어 전선에 출동할 날이 가까웠다. 대동아 중핵 민족의 중책을 새로이 같이 느끼고 끌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억제할 수 없어 징병제도실시감사강연회를 5월 17일 오후 8시 아현회관에서 초만 원리에 개최하다. 먼저 국가의식을 마치고, 단가(團歌), 성서낭독, 기도한 후, 회원(檜原)총무의 감격에 넘치는 개회사가 있었다. 이어 국민총력연맹 우에다(上田龍雄) 씨의 애국열에 불타는 강연이 있었고, 야마다(山田) 재무부장의 감사전보 피로와 타마야마(玉山) 부장은 단장 대리로 진충보국(盡忠報國)으로 정전관철(征戰貫徹)에 매진할 각오의 신념을 피력하는 결전문 낭독이 있는 후 히라야마(平山) 교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이어 경기도총력부 영화반의 호의로 『해의 환(日の丸)』, 『혈의 전령(血の傳令)』 등의 영화가 있었으며, 성수만세(聖壽萬歲) 봉창으로 대성 황리에 산회하다. 익 18일 오전 9시에 각부 대표자가 회집하여 조선신공을 참배한 후 총독부를 력방하다.

감사결의문

1942년 5월 8일 아(我) 반도 2천 4백만 동포에 대하여 1944년도부터 징병제도 실시를 내각 각의에서 결정발표하게 된 것은 깊은 감격을 환기하게 하는 바로써, 특별히 기독교를 신봉하여 종교의 체험을 통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봉공의 적성을 현현(顯現)할 각오를 한 오등(吾等) 조선구세단 신도 일동은 광대무변(宏大無邊)하옵신 성은에 감읍하며, 황민의 책무를 통감하여 일의전심 성지(聖旨)에 봉부(奉副)할 결심을 굳게 하였다.

아등은 집회 때마다 황국신민서사와 ‘바다로 가면(海征かば)’을 근창하고 왔지만, 이제야 그 감격이 안전에 실천되는 광영을 생각하고, 옛적 가인의 감口에 ‘천황의 신민인 나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천지가 빛나는 시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만엽집의 가사(みたまねれけるしるしあり, 天地の榮ゆる御代にあへらくおもへば)’를 나의 흥중에 깊이 느껴 감격의 혈조(血潮)가 고조됨을 깨닫고 있다. 이 성대(聖代)에 생을 향(享)하여 유사 이래로 미증유의 성스럽고도 웅대한 사업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또한 황군에 응소하게 된 광영을 얻은 폐하의 적자로서 그 숭고한 실무 앞에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바이다. 아등은 금후 가일층 황민으로서 연성에 정진함으로써 과일(過日) 총독각하의 설명에 보여주신 사항을 실천할 그 요망에 응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이에 징병제도실시감사신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조선구세단 일만 오천의 신도를 대표하여 이와 같이 삼가 결의함.

1942년 5월 17일





조선구세단장 사카모토(坂本雷次)
동 총무부장 회원정의(檜原正義, 황종률)

〈출전 : 『徵兵制度實施感謝 講演及映畫의 밤』(在京救世團員聯合), 『基督教新聞』 1942년 5월 27일〉

(2) 열혈남아는 결전장으로 나서자

조선교세단 본부 회원정의(檜原正義)

세계사상에 신기록을 지은 1941년 12월 8일에 대조(大詔)를 봉대(奉戴)하온 황군장병을 어릉위하(御稜威下)에 부식(扶植)된 곳으로 용진(勇進)하여 영미의 세력이 장구한 세월인 백년간에 부식(扶植)된 곳으로 용진하여 영미 격멸(擊滅)에 철추(鐵鎚)를 내리자 개전(開戰) 수주 만에 전고미증유의 대전과를 거두었음을 누구든지 알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이 신속 또는 과감한 전과를 획득한 요소는 시기를 잃지 아니 하고 용감히 싸우는 황군이 평일에 훈련 받은 정신과 열철일환력(熱鐵一丸力)과 신의 도우심을 받음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때는 왔습니다. 결전의 때에 황송(惶悚)하게도 지식층에 있는 열혈남아인 학도에게 황군지원병제도의 은전(恩典)이 내렸습니다. 우리 일본이 대동아의 맹주로서 신질서를 건설함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됨이 아니요, 멀리 일청(日淸), 일러(日露) 전쟁과 만주사변, 지나사변(支那事變)을 때를 잃지 않고 열혈을 뿌려 쌓은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격멸의 전쟁을 성전(聖戰)이라 함은 대동아 10억 민중을 악마의 이빨에서 구출하여 하늘 정하여 주신 행복을 조선(祖先)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이 땅에서 잘 살도록 우리 일본의 전 국력(國力)을 들여 싸움함을 성전이라 합니다. 이 전쟁에 관계없는 자라도 의분(義憤)이 있으면 참가할 성전인데 특히 황국신민이 된 반도청년이리요. 「이제야 전 동아민족은 맹주 일본의 지도를 받고 이 성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 아니함은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에 하는 일은 장래에 가질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시인은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옳은 말씀이외다. 물실회기(勿失好機)하라. 학도 제군이여 제군이 지체치 아니하고 급속정신(急速挺身)함에서 반도 2,500만 민중이 누릴 광영은 이 위에 더 큼이 없는 바외다. 지금으로부터 660여 년 전 후우다(後宇多)천황 때에 원(元)나라 14만 대군이 일본을 습격하다가 전멸을 당하고 근근이 생명을 부쳐 귀환한 자 불과 3인이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일본인으로서 삼척동자라도 모두 통쾌히 여기지 아니할 자 없을 것입니다. 집권직(執權職)이든 북조씨(北條氏) 팔대집권인 시종조(時宗祖) 선선사(先禪師)에게 「집쟁이 시종(時宗)을 버리라」는 소리에 비로소 결심을 하고 원나라 사신을 참형함으로 전 국민은 거국일치(擧國一致) 국난에 결사부진(決死奮進)하여 국방에 정신(挺身)하였으므로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신국(神國)을 도와 적선이 모두 전복될 대에 황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원군은 전멸을 한 것입니다. 정의의 성검(聖劍)은 고금을 물론하고 다름없이 천우신조와 아울러 용감히 전투에서 승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인 호기회를 물실(勿失)하는 자의 후손에 미칠 영광과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 자의 수치와 천추에 유한(遺恨)을 풀을 길이 없는 후손의 불행과 원망을 비교하면 기회를 잃은 것이 어찌 가련하지 않으리오.





1. 동아의 화근(禍根)을 결전에서 격멸하자

속적 영·미가 인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황색이종을 멸시하며 압박하며 훼손(毀辱)하는 것은 이제 다시 논할 것도 없고 그 노획한 술책을 써서 저희들의 노예로 영원히 삼으려는 야심을 생각할수록 살이 떨리고 이가 갈립니다. 고로 이 성전에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하여 적영미를 격멸합시다. 의분을 발휘합시다. 적령자(適齡者)는 전선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가서 훌륭한 전사가 됩시다. 나도 살고 우리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대동아공영권 완수를 위하여 전열에 참가합시다. 열혈남아들 천추의 영광과 또 유한을 비교할 것 없이 남아의 의분을 이 전쟁에 발휘하여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2. 성은(聖恩)의 보답도 이 결전에서 된다

우리 반도인은 30여 년간 황은에서 성육(成育)한 바를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으로 은혜를 망각하면 사람이 아니다. 배은망덕함으로 그 말로가 비참히 된 자들을 거울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황은보답은 바로 이때입니다. 조선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세계인종의 이목을 경동(驚動)시킬 만큼 갱생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에 의함외이다. 고로 우리가 생명을 바쳐 결전에 봉답(奉答)함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3. 내선일체실행도 이 결전에서 된다

반도인은 대일본 제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병참기지로서 대륙정책상 관문이며 30여 년간 황민의 훈련을 받은 2,500만 인이 있는 곳외이다. 반도인이 황국을 위하여 열혈을 뿌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더욱 또 중대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민된 의무나 반도인 된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서 이 큰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선조가 피와 땀으로서만 그 보패(寶貝)를 간수하고 보존할 의무와 그 보패를 빛내게 할 사명과 후손에게 복리(福利)가 되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에 성전, 이 결전에 공훈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국민이 가질 권리와 복리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수치를 자자손손에게 끼치게 되는 것이외다. 일본인은 이미 국민의 3대 의무를 준행(遵行)하여 당당한 권리와 복리를 누림은 당연하나 반도인은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번 결전에 용진분전(勇進奮戰)하여 필히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에 말

이제야 전국은 처참가열(悽慘苛烈)하여 정(正)히 결전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억 국민은 열혈의 결의로 전투배치에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학원(學園)에서 전선으로 펜을 던지고 총칼을 잡을 반도학도의 결연(蹶然)히 일어설 때는 마야흐로 박도(迫到)했습니다. 학도들이여 일어서라. 동아의 영원한 평화를 두 어깨에 지고 유구한 3천년의 광휘에 빛나는 황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높고 귀한 사명이 제군에게 있는 것이다. 아 학도제군이여. 진정의 평화와 복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영·미를 격퇴(擊催)하고 응





징하여 황은에 보답해 드리자.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만이 더 높고도 귀한 미래의 사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아 열혈에 날뛰는 학도제군이여 물실표기(勿失好機)하라. 주저(躊躇)말고 괴의(怪疑)말고 단연히 군문으로 나아가자.

〈출전 : 檜原正義 「熱血男兒는 決戰場으로 나서자」, 『基督教新聞』, 1943년 11월 10일〉

10) 김진수(金城珍洙), 긴급 실행해야 할 애국사업에 관한 건

공문

1944년 1월 12일

조선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장 김진수(金城珍洙)

교회 귀중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나날이 깊이 결전 단계에 돌입하면서 희망에 찬 신년을 맞이하여, 종교보국을 다짐한 우리 교회는 그 내실을 최고도로 고양시켜야 한다. 특히 제1선에서는 한 대의 비행기라도 더 많이, 한 척의 함선이라도 더 많이, 게다가 이를 하루 한시라도 빨리 보급하기를 바라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노회상치위원회(老會常置委員會)는 이번 달 11일 회의한 결과 우리 교회가 모두 진심으로 국가 제반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실제적으로 아래와 같이 애국사업을 실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본 노회 관리하의 각 교회부터 출선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이에 통지한다. 각 교회는 열의를 갖고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記)

1. 제2차 애국기(愛國機) 헌납기금 모집의 건

1941년 8월 14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앙상치위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애국기 헌납의 건을 결의 하자 조선의 모든 교회는 기꺼이 이에 호응하여 가난한 과부의 동전 2푼을 바치는 정성을 다한 까닭에, 육해군에 비행기 각 1대, 육군에 고사기관총 3정, 또 조선군 사령부에 상이군인용 자동차 3대를 각각 헌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는 옛 일입니다. 현재는 그 당시에 비해 전황이 얼마나 치열해졌는가는 세상 사람들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2차 애국기 헌납운동을 제창하는 동시에, 먼저 평북노회(平北老會)는 그 기금으로서 일금 만 원을 관내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하 각 교회로부터 모금하기로 하였습니다.

- 1) 모금 방법 : 1943년 3월 말 현재 보고한 세례교인 숫자에 비례하여 각 교회의 목표액을 정해 모금하기로 한다. 세례교인 1명당,





- (1) 도읍 교회(선천읍, 철산읍, 차련관)는 5원의 비례로(1인당 5원씩)
- (2) 지방 및 농촌교회(전자 이외의 각 교회)는 1원 이상.
- 2) 모금 기간 : 통지문을 발송한 날부터 오는 노회(老會) 개최 일까지(단 오는 노회 예정일시는 1944년 2월 1일)
- 3) 회계 : 선천읍 동교회(東教會) 康川日鉉 장로
단 편의를 위해 지회계(支會計)로서 철산(鐵山)은 高山應善 장로(차련관), 구성(龜城)은 黃原善伊 목사(造岳)

2. 징병제 실시에 따라 국민 태세를 정비하는 운동에 관한 건

오랜 동안 유지들이 요망한 바의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즉 징병제가 드디어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조선반도의 민초들도 크신 황은(皇恩)에 보답할 기회를 부여받아 크게 감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로써 조선반도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떠맡을 인식과 적령자 및 적령자의 가정, 특히 부인층의 이해가 아직 충분히 철저하지 않은 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시 첫해의 연두(年頭)에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 및 직접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자의 이해를 더욱 높여 국민 태세를 훌륭하게 정비하여 각 교회 특히 교직자는 다음의 여러 항목을 참고로 하여 그 위에 각자 독특하고 효과적인 안을 더하여 활발하고 신속히 힘써 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1) 교직자는 각자 교회에서 신속히 또한 편리한 기회를 이용하여 징병제에 관한 경연 혹은 연성(鍊成)을 하고, 신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이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시킬 것(횟수가 많으면 더욱 좋다).
- 2) 교직자는 각자 직접 또는 유능한 직원이나 교사를 동원하여 적령자가 있는 가정을 호별 방문하여 서로 무릎을 맞대고 이에 관한 격의 없는 환담을 나누는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극력 노력할 것. 한두 번에 그치지 말고 상대가 진실한 이해에 이를 때까지 끈기 있게 반복할 것. 이에 관해서는 교직자 자신이 특별히 진두지휘해서 신도, 비신도를 불문하고 상대할 것.
- 3) 징병제에 관한 책자를 배포하고 식자들의 술선수범을 독려할 것. 이에 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방면과 연락을 취하고 책자 소개 및 구입을 돕는 것도 좋다.

위의 실행 상황을 상세히 노회장에게 보고하기 바란다.

애국기 기금 모금 결과 보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상)

〈출전 : 金城珍洙 「緊急實行スベキ愛國事業ニ關スル件」, 『基督教新聞』 제83호, 1944년 2월 2일〉





11) 국민징용령 -어떤 것인가?(2)

◇징용 해제 및 변경, 기타

징용기간이 다되거나 또는 육, 해군인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징용이 대상 밖이 된 사람은 당연히 해제되고 않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일할 수 없게 된 때는 소관 대신 또는 관리 지정공장주로부터 조선 총독에 청구 또는 신청이면 총독이 징용해제명령을 낸다. 징용업무 장소, 기간변경도 마찬가지로인데, 징용변경, 징용해제, 모두 총독의 명령에 의해야 도지사가 명령서를 발행하면 명령서는 피징용자를 쓰는 관청 또는 공장의 사업주를 거쳐 본인에 교부된다. 징용수속에서 주의할 점은 징용변경과 징용해제의 중요한 권능은 조선총독에만 있고 출두변경과 징용취소의 처분권은 도지사에만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징용의 가부를 판정하고자 국민징용관이 출두를 명할 때 징용할 때나 징용해제를 할 때는 여비를 주고 징용집행기관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이고 국민징용관은 그 보조사인 점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중대한 것으로 국가가 얼마나 징용을 신중히 취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징용 부조 징용은 국가전력에 의해야 피징용자를 직접 전쟁에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인 만큼 병역에 다음가는 중요하고도 영광스런 의무이므로 그 가족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뒷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작년 구월 30일부터 조선에도 국민징용 부조규칙이 생겨,

1. 징용되어 가족과 살림을 따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이 곤란한 때는 그 가족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하거나 병을 받아 징용해제가 되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가족
3. 징용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병을 받아 죽기 때문에 유족의 생활이 곤란할 때는 그 유족에게 생활부조, 의료, 국산, 생업부조, 매장비의 다섯 가지 보조를 한다.

지난 9월 30일의 법령개정에 의하여 징용을 직입소개 또는 노무자 모집의 보조적인 방식이 아니고 전시국가의 요청에 의해야 발동된 국민총동원이라는 국가성이 일층 명확히 되었고 따라서 징용된 사람은 충성을 다 해야 명한 바 일에 충실하여야 되는 성스러운 의무를 가지고 있어 민간공장에 배치된 사람은 그 이름도 응징사(應徵士)라는 국가적 신분이 보장되었다. 그 공장의 경영책임자인 사장 또한 일반종업원과 같이 징용되어 상하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필승전력을 증강하기로 된 만큼 내 지에서는 전기와 같은 부조 외에 작년 5월 22일 국민징용원호회를 조직하여 국가에서 상당한 경비를 보조하여 취직한 사람이 징용되었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가 있는 때는 일정한 보조금을 원호회에서 주어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징용원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선에서도 정보과장 담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용하는 공장, 사업장의 숙사설비, 기타에는 충분한 주의를 시키고 징용하여 취업하기까지 두 주일동안 예비 훈련을 하여 어디까지든지 적재적소주의로 나가기로 되었으므로 반도의 청, 장년은 아무런 걱정없이 징병으로 총칼을 메고 멀지 않아 미영격멸에 출진할 아우나 조카에게 비행기, 무기, 탄약을 대여주어 마음껏 싸워 이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출전 : 「國民徵用令-어떤 것인가?(二)」, 『基督教新聞』 제83호, 1944년 2월 2일〉





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

1) 1938년 9월 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중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설명

9월 9일 저녁 8시에 평양의 서문외교회에서 장로회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모든 총대(총회에 참석할 목사와 장로들)은 세 노회 노회원들의 연합 단체에서 보낸 한 문서(취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그들 단체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즉 총독부가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표한 만큼, 그렇게 인정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신사에 참석하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참배가 모든 일본 신민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총독부의 요구에 대해 교회의 공식적인 동의를 이번 총회에서 공개적으로 결정하고 선언하기를 이 단체는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총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소속된 노회에서 적절한 절차로 선임된 조선인 목사나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총회에 참석이 허락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스스로가 신사 참배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런 결정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참석이 저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실제로 구금되었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총대들인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은 평양부의 경찰서장으로부터 반드시 그 가 해야 할 말이 있으니 그의 말을 들으러 경찰서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니 모임들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모임에 불참한 사람들은 같은 목적으로 다음날 다시 불러 왔기 때문에) 경찰서장은 비록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공식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 명령은 총회의 발언대에서 그 문제가 상정되면 외국인 선교사들은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는 그들은 강제로 추방될 것입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그들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합법적인 자격이 있는 총회의 총대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명령에 그들이 꼭 복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총회가 열렸지만, 개막 당일 밤에 진행된 유일한 일은 사회자를 뽑고 다음해의 임원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에 총회는 다시 회무를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전국 총대들이 일장기에 절하고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기 위해서 건물 밖에 모였었고 그 후 그들은 교회로 입장하여 시작하기 전 9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동안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모임이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경찰의 손아귀에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총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통제하기 위해 최소한 열 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방청자들은 아주 소수만이 가까스로 들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복을 입은 경찰과 형사들이 30명이 약간 넘게 있었는데, 그들은 양쪽 벽면을 따라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사회자 오른쪽으로 강대상 앞에 있는 연단 위에는 도 경찰부장과, 도 보안과장(the Head of Thought Section of Province) 그리고 평양부 경찰서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왼편의 일반좌석에는 몇몇 경찰과 형사의 엄호를 받으며 평양부 보안과장이 있었습니다. 이들 경찰 관리들은 옆에 칼을 차고 있는 완전한 정복 차림을 했습니다. 그 30분 동안 그들은 명백하게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최종 정리를 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9시 30분에 도지사가 도착하였으며, 그 총회에 대한 공식적인 개회인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었고 국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합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총회는 기도 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11시 30분까지 통상적인 회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한 대표자가 신사 참배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가 평양노회장이라고 소개 했으며 그리고 3개 노회가 32개 소속 노회의 모든 총대들에게 보낸 문서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위에서 언급한 그 문서) 그는 세 노회 총대들의 모임은 위험적인 것이었으며 강요 하에서 모였던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언급했으며 이 총회에서 그 사안을 결정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목사가 일어나서 총회가 그 문서에 표현된 의견을 승인해 줄 것을 재청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인 총대들은 누구도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 박사가, 그는 원로이면서 존경받는 선교사 인데, 조용히 일어나서 말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자의 왼편에 앉아 있던 시 보안과장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앉아.” 이에 사회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교사들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우 조용히 그러나 용기 있게 블레어 박사는 “앉기 전에, 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아마 모두 25명쯤이, “조심해” 와 “앉아.”라고 하는 큰소리가 계속 되는 가운데도 차례차례로 일어나서 “나 역시 이의를 제기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자는 급하게 원래의 의견에 찬성 의견을 표하고는, 설득력 없고 반 강제적인 투표 결과를 인정하여 수용하면서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아 보이는 관계로, 나는 이것을 이번 총회의 결정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프란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 목사가 선교사 집단의 대표로서 일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항의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면서 그 총회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 동안 브루스 헌트(Bruce Hunt) 목사는 그가 외국인 선교사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노회의 총대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서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의 저지소리에 맞서기 위해서 다소 커다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위에서 언급한 보안과장은 그를 체포해서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형사들이 다가와서는 그를 가능한 한 가장 뒤쪽자리로 끌고 갔는데 그때 도 경찰부장의 명령으로 그는 풀려





났습니다. 그는 단지 모자를 가지러 제자리로 되돌아갔다가 조용히 그 총회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른 조선인 목사가 총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다소 긴 연설을 한 후에 다음 안건이 제청되었습니다. 그 안건은 조선의 장로교회의 대표자로서 평양시 신사를 방문하고 참배하도록 총회장과 임원들과 모든 노회장들과 함께 총회에서 대표로 지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건은 토론에 부쳐지지 않았으며 전과 마찬가지로 이미 통과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이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기 전에,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그리고 아마 몇몇 조선인들도 합세 했을 것이고) 크고 강한 목소리로 “안 돼”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일을 상관들 앞에서 성공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안과장은 매우 격양되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나는 당신들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곧바로 그는 그 자신의 냉정함을 회복하였고 다른 쪽에 있던 사복을 입은 부하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몇 분 동안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측과 달리 그 건물을 떠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선교사들을 괴롭히거나 질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휴회 후에 조선인 총대들은 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조선인 목사들은 총독과 일본의 총리에게 조선예수교장로회의 결정을 선언하면서 전보를 보내자는 결의가 제안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안건은 통과되었지만, 채택된 조치들이 정말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부 목사들은 전심전력으로 경찰과 총독부에 협조해서 이것이 역지로 통과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목사들과 장로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비록 극심한 압박 속에서 저항을 하기에 너무 약했지만, 가슴 깊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와 공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러한 교회의 조치가 배교의 행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몇몇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양심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 총회는 끝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교사 집단은 그 조치에 반대하고 그 조치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그들이 받은 억압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글로 쓴 문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들은 총독에게 대표를 보낼 것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려합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일본에 있는 고위 당국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실로 영향력 있는 고위층의 일부는 이 모든 것들이 매우 명예롭지 못하고, 신사와 일본 제국의 위엄을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나라 전체를 통 털어 선교사들과 많은 조선인들은, 이 핍박과 배교의 잔인한 시간들이, 인간들의 분노를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왕국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과 허용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하기로 결의한 노회

평북노회-----1938년 2월 9일
용천노회-----1938년 4월 17일
순천노회-----1938년 4월 25일
제주노회-----1938년 4월 27일
전남노회-----1938년 5월 6일
경남노회-----1938년 5월 6일
충청노회-----1938년 5월 18일
전북노회-----1938년 6월 8일

(위 정보는 총독부 보안과(Government-General Peace Preservation Section)에서 조선인 목사에게 제 공하였다.)

2) 조선에서의 사업에 관한 1935년에서 1940년까지의 편지들과 조치들로부터 발췌(증거물A)

〈홀드크로프트(J.G. Holdcroft) 박사의 편지, 1935년 9월 27일〉²⁹⁾

1 단락-로즈(Rodes) 박사와 나는 (만일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라는 말이 각 학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도 당국자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간 날은 23일이었습니다. 모든 학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며, 의례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고, 신직(神職)의 집전은 없을 것이며, 봉헌은 필요 없고, 절하는 것은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지 신을 참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 단락-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총독부의 대변인은 우리에게 의례가 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과 기타 등등을 단언했습니다. 또 일본의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나 그리고 이곳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잘 따라왔고 명령이 있으면 참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부의 지시에 따랐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양심에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나 조선에서나 남녀와 국적을 불문하고 선교사들 중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들의 태도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만일 당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고 영혼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언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9) 이하 본문에 표시된 밑줄은 원문과 동일함.

〈맥아피 박사(Dr. McAfee) 선교부에 보낸 편지, 1936년 4월 5일〉

3 단락- 해외선교부는 기독교의 원칙에 대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타협에도 동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원칙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경배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독교적 의미에서 경배하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4 단락-(조선)선교부가 지상의 지도자, 특히 일본제국의 천황에 대해 마땅히 드러낼 존경과 애국심을 표하고, 이에 걸맞게 영웅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해외선교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선교부가 이러한 존경과 관심을 표하기를 거부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5 단락-총독부에서 요구하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해외선교부(선교본부)가 (조선)선교부에 바라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신사참배와 관련된 행동 때문에 걸끄러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깊게 주의하면서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선교부는 다음의 사실을 당연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원칙이 아닌 것을 요구하고, 기독교적 원칙으로만 항상 해석할 수는 없는 세속 권위 하에서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부가 “종교” 그리고 “애국심”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당국이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이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 용어들은 다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신사참배 의식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선교부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신사참배에 관한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과 차이가 있는 선교부 자신의 해석을 알리면서, 동시에 그들이 요구하는 행동을 할 때 선교부 자신의 해석을 적용시킬 방법들은 없는지도 반드시 생각해 야 할 것입니다. 총독부가 받아 드릴 수 있는 어떤 타결 책이나 절차의 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선교부의 실행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외선교부는 확실히 인정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당국이 받아드리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동안의 활동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시도로 그 용어를 드러난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을지 연구할 것을 조급히 촉구합니다. 보통 기독교를 믿는 정부하에서는 선교부의 조치들에 기독교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그들의 조치들에 부여하지 않고 총독부의 요구에 복종할 수 있는 길을 선교부가 찾아내는 것은 가능할까요? 일단 이것이 가능하다면, 선교부가 당국의 요구에 복종하는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널리 공표하게 됩니다.

6 단락-지금까지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면 나타날 결과에 대하여 이미 선교부가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해외선교부도 알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얻을지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도 선교부나 조선의 교회 그 두 단체는 그 때문에 손해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교부도 혹은 직접적으로 조선의 교회조차도 그 대가를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피해자는 폐쇄되어야 만하는 학교들에 등록된 기독교신자 학생과 다른 학생들입니다. 이들 학생들은 교



육의 기회가 박탈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반드시 신사 참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에 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그 의례들의 의미에 관하여 어떠한 적절한 가르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관점에서 볼 때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총독부가 그들의 요구 사항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점에 대해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선교부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젊은이들은 신사참배를 하러 가야만 합니다. 당연히 선교부는 학생들이 신사에 갈 때 기독교적인 해석과 보호 기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을 진지하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7 단락—해외선교부는 선교부가 그들의 힘과 권한이 닿는 한 조선 교회의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 받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일부 신자들의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하고 있고 부모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교회 내부에서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양의 학교에서 신자 집단들이 의례에 참여하라는 강요에 항의하여 저항했다는 보고서도 위에서 언급한 합의 부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심하게 압박하는 명예롭지 못한 강요로 지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경우를 현장으로부터의 편지를 통하여 알고 있으며, 이런 절차에 대한 그들의 저항에 동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불공정한 압박 없이 사람들이 순응한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부는 애국심의 문제가 논의에 끼어들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선교부는 선교부가 가능한 한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해외선교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선교부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는 고도의 유익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8 단락—해외선교부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기독교 세력들이, 특히 조선에 있는 지도적인 선교사들이 날카롭게 대답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부는 당연히 올바르고 정당한 방법을 찾으려합니다. 선교부는 여러 방법 중에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동기에 의해 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 피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다른 신자나 다른 단체가 어떠한지 개인 혼자 혹은 단체 홀로 독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때가 있고 아마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독교 원칙을 타협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과 다른 단체의 비슷한 지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방법만이 옳고 정당한 것이라는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채택하기 전에 다음의 과정을 밟도록 하십시오. 다른 동료들을 비판한다는 것에 내포된 의미와 결과까지도 포함하여 그 선택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신앙심으로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조치가 그들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혹은 교회의 일꾼인 그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택하여 그 결과를 함께 감수하자는 것이라면, 이것은 더욱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9 단락—“양심”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도덕적 판단”과 혼동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양심은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판단은 우리 양심에 명백하게 주어진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믿음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양심의 명령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서는 안 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어진 행동이 그러한 타협을 의미 하는가는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양심을 거슬리는 죄는 중죄입니다 : 양심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진지한 노력 한 가운데서조차 도덕적 판단에서의 차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 도덕적 삶과 기독교적 삶의 두 단계가 밀접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즉 근본적인 도덕 원칙에 대한 복종의 단계와 주어진 상황에 이 원칙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선교부는 아주 명백하게 이 문제를 “양심”의 관점과 분리하여 혼동하지 않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사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원하는 만큼 명확하게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앞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삶의 광범위한 원칙은 양심이 우리 앞에 분명히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겸손히 청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빛을 주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와 동일하게 신실한 신앙인의 것과 다를 때는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선교부 결정사항, 1936년 6월〉

10 단락-1. 미션 스쿨을 유지하고 또 설립되어진 원래의 목적과 이상을 유지하는 것 역시 점차적으로 어려워짐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부에게 세속 교육의 영역에서 손을 떼는 정책을 받아드릴 것을 권합니다. 질서 정연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 그리고 학교를 미래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학교 재산의 처분과 사용문제도 포함됩니다. 총독부 관료들과의 밀접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11단락-2. 우리는 더 나아가 선교부가 시간과 방법을 포함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권한과 함께 실행 위원회에 넘기기를 권합니다.

12단락-(1) 실행위원회와 관련된 선교지부는 서로 상의할 것입니다.

13단락-(2) 실행위원회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그의 결정을 선교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만일 15일 이내에 어떤 선교지부도 반대하지 않으면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어떤 선교지부라도 반대하면 그 사항은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투표에 부치기 위해 선교부로 보내지거나 실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에서 투표합니다.





14단락-(3) 해외선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실행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해외선교부에 지침서의 요구에 따라 제출될 것입니다.

〈해외선교부의 결정 사항에서 발췌, 1936년 9월 21일〉

15단락-물론 해외선교부는 이 말씀 많은 문제에 관하여 선교부가 내놓는 미래의 정책까지 포함하여 어떤 제안이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부의 회의록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파견 위원(the Commission)의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미션 스쿨이라는 표현에서 연희전문학교(Chosen Christian College)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는 다른 범주로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에 대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 뿐만 아니라 해외선교부도 그 구분을 공식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선교부가 그 두 기관에 서 다른 선교부와 매우 직접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구 분을 공식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숭실전문학교(Union Christian College)에서도 여러 선교부들이 유사한 협력을 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평양의 이 학교에 관해서는 해외선교부가 호주 장로회 선교부와 남장로회 선교부 실행위원회와 공조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질 적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다른 어느 곳에서 따를 수 없었던 방법을 서울에서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적절한 변화가 있기 전에 남장로회 선교부 실행위원회 및 캐 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해외선교부, 남·북감리회 선교부와 이 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실천에 대해 계속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거부해 야 하는 정책을 다른 한 경우에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어떤 한 경 우에는 고려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이것은 근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가 아니어야 만합니다.

16단락-학교 폐쇄와 관련하여, 기독교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바라는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결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는 것에 대해 해외선교부 역시 선교부와 파송 위원 과 마찬가지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정책들이 충분한 고민과 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기에 이 정책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추후 당국이 강경한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는 다면, 선교부가 제시한 타월한 타협안 중 하나를 채택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외선교부는 제 안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무조건 폐쇄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실행위원회의 권한은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관련된 선교지부와 협의하면 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는 실행위원회의 재량사항인 “시간과 방법”에 대한 언표에 의 해 확인됩니다. 기독교적 원칙에 대한 가치 없는 타협이 학교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학교 폐쇄 이외의 다른 방법을 해외선교부가 고려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17단락-지금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해외선교부의 자산에 대해 선교부의 관심을 환기 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부분 이 자산은 전 세계 선교 사업을 위하여 해외선교부에 기부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팔아야만 한다면 전 세계 선교 사업의 급박한 요구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들 재산 중 어느 것도 매각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라지만 만일 기금이 조성된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조선 교회가 그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선취권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혹은 새로 교육사업에 관심을 둔 개인이나 자치단체 누구라도, 총독부의 감독 하에서 선교부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당연히 이 자산을 대부, 임대, 혹은 불하 받을 수 있다고 기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선교부가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폐쇄했다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단체 역시 동일한 한계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기독교 교육을 위해 주어진 자산을 선교부가 다른 단체에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만일 다른 단체가 이 자산을 이용해서 기독교 학교를 가치 있게 운영한다면 선교부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선교부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다른 어떤 단체도 잘할 수 없습니다.

18단락-만일 하나씩 혹은 한꺼번에 학교들을 폐쇄 할 경우가 도래할 때는 그 과정에서 잠정적이거나 비용이 증가됨을 해외선교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1936년 6월 솔토 씨(Mr. Soltau)가 쓴 선교부 회의록〉

19단락-교육에 관한 선교부의 정책. 애보트(Abbot) 박사 그리고 로저스(Rogers) 박사와 함께 구 실행 위원회 구성원이 몇 번의 비공식 모임을 가진 후에 다음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개인 의견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개별적인 접촉도 하였고 선교회의 구성원들과 토론도 하여 몇 번의 편집을 거쳤습니다. 비록 처음에 찬성 19표를 얻었던 언더우드(Underwood) 박사가 제안한 대안은 우리 학교를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당면한 상황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선교부가 일치하여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대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아닙니다.

20단락-비상 교육정책(An Emergency Educational Policy). 이 조치 안에 있는 두 권고 사항의 첫 부분에서 미션 스쿨을 유지하는 것과 학교를 세웠을 때의 이상과 목적을 지키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해외선교부도 잘 알고 있듯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적 부담도 막대한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총독부가 그들의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라는 요구를 강화시킴에 따라 학교들이 충족시켜야할 교육적인 기준은 의심할 것 없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의 기독교적인 성격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독부 기준에 맞는 교사 자격과 동시에 진정한 기독교 교육 수행에 필요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남녀 교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1단락-지난 몇 년 동안 선교부의 많은 회원들이 느끼고 있었던 무거운 재정 부담과 이 모든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어떤 결과들이 학교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사람 그리고 비용의 지출을 보상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22단락-학교 운영 기금을 후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산을 사겠다는 제의를 할 만큼 학교 폐쇄를 반대하는 여론과 정서가 강합니다. 재산문제에 대한 우리와 위원회의 이익 방어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속히 구해야합니다. 단지 어떤 형태로 어려움이 닥칠지 그것이 언제 일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아담스(Edward Adams)의 편지, 1937년 8월 3일〉

23단락-해외선교부에서 다루어졌던 몇몇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비록 소수의견으로 투표한 적은 있지만, 해외선교부 총무로서의 나의 개인적인 관점을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육제도에 관하여 비록 다수 의견에 찬성하여 투표 했지만, 나의 의견은 여러 면에서 다수의견과 다르고, 사실상 소수의견에 대해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소수의견이 비록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선교사들과 전국 교회의 지도부의 궁극적인 의무는 최상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한분이시고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실함을 위협하는 그 어느 것과도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동시에 모든 면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어린이들에 대한 각 단계 교육을 통제하려는 행보에 대항하고 싸우는 기독교 신자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무입니다. 3.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국이 사립학교에 재량권을 더 허용하는 한 한 학교라도 폐쇄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24단락-따라서 이런 이중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기준을 세우고자 합니다. 현재의 기독교 학교들은 그들의 재단, 즉 선교부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학교의 장래를 위해서 기독교 선교를 학교에서 계속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에 저항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관대한 개인이나 단체를 찾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25단락-나는 더 나아가 1936년 선교부의 기본강령 안에 잘 반영되었던 시간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수표를 얻었지만 후속 조치에서는 경시되었습니다. 나는 '철수'와 '시간'을 따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교부에게 1937년의 동의안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혹시 책략이 있나 의심하여서 부결되었습니다. 나는 해외선교부가 긴 안목과 큰 관점으로 폐쇄나 철수보다는 양도하는 것을 더 고려해보고 또 이 결정을 천천히 수행하는 것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1936년 제임스 로저스(James B. Rogers) 박사와 폴 애보트(Paul R. Abbot) 박사의 진술〉

26단락-증언의 문제에 대해선 타협하지 말아야하며 당국과 지속적으로 갈등하기보다 학교를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관점을 교회와 선교부가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진정으로 학교 폐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혹은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학교를 인수하거나 재산을 임대 혹은 구매하기 위해 단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이 방향이라고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강령은 성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미래에 관해 깊이 고려하고자 통과된 것입니다.

선교부는 이 문제를 하나씩 분리해서가 아니라 전체로 접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원칙을 약간 다양하게 적용할 것도 대비합니다. 그들은 총독부가 '분리해서 지배'하기를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학교'라는 표현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다른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찰스 레버(Charles T. Leber) 박사와 도즈(J. L. Dodds) 박사의 편지, 1937년 4월 12일〉

27단락-다른 한편, 이 상황에서라도 강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른 단체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인상은 학교가 꼭 폐쇄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실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학교들은 복음 선교의 매개체로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하기 쉬운 지도자의 양성에 학교가 실로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렇게 훌륭한 소년 소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우울합니다.

28단락-실행위원회에 평양 소재의 학교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4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9단락-1.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고 자산을 다른 선교 목적에 사용합시다.

30단락-2. 선교부가 학교운영에서 손을 떼고 학교와 자산의 양도를 원하는 조선인 단체에게 학교와 학교 재원을 넘겨줍시다(부록 9, 10, 11, 12, 13, 14, 15, 16을 참조).

31단락-3. 선교부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자산은 다른 선교 목적을 위해 보유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총독부의 학교 운영인가와 (선교사를 제외한)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조선인 단체에게 넘겨줍시다.

32단락-4. 3번과 같으나 추가로 선교부에서 현재 소유한 세 필지의 조선인 기부금은 넘겨줍시다. 셋





중 두 개는 조선 시민이 학교를 위해 선교부에 준 것이고 하나는 조선 총독부가 준 것입니다. (부록 17 참조)

33단락-3단락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 감사하고 있음을 재차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일본 제국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 학교에서 공동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복음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많습니다.

34단락-(2) (4) 그리고 (5) 단락에서 해외선교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한 조선에서 기독교 교육의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몇 선교사들과 조선인 들은 지난 6월의 선교부의 강령을 해외선교부가 승인 한 것을 보고 해외선교부가 조선에서의 교육사업에서 손을 뗄 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35단락-우리는 1번 제안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교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을 실행하면 총독부와 조선국민 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분노는 선교부와 조선교회의 사업에 치명적이지는 않아도 심각한 상처를 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의 지도력에 명백하게 타격을 가할 조치를 추천 할 만큼 이문제가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매우 혼돈스럽기 때문에 선교부가 학교운영 허가권 양도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의 문제를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6단락-학교운영 허가권 양도를(제안 1과 관련되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거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안 3과 4를 호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선교부가 조선인이 기증한 자산의 수탁자가 아니라면, 아마 그 자산에 관해서는 조선인이 올바른 권리를 가진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 제안 3을 받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이 있는 관계로 우리는 4번 내용의 제안을 선호합니다. 어떤 조선인 신자가 4번 제안을 건의 했고 지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황상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닙니다.

〈찰스 클락(Charles A. Clark) 박사의 편지, 1937년 1월 5일〉

37단락-우리는 이 학교들을 조성을 위해 초기 자금을 넣었고, 수업비 등등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제공했고, 일정 수의 선교사 선생님을 파견했다고 해서 이 학교들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곳으로 보낸 송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자본금으로 사용했음을 해외선교부가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초창기 우리는 마펏(Moffett), 리(Lee)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돈으로 이 모든 토지를 구입했고 해외선교부에 주었습니다. 원래 가격과 정확한 목록이 만들어진 때는 약 10년 후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진 기록에는 원래의 가격과 추정치로 계산한 현재 가격의 항목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치의 전부 혹은 대부분은 땅 값 상승이 준 공짜 선물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치의 자연 증가분까지 더해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닌 한 미국교회는 개인적으로 잃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38단락-우리는 이들 학교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세 당사자가 힘을 합해 이들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즉 우리와, 교회와 조선사회입니다. 지난 40년간 학교들은 이 나라를 위해 공헌했고, 단순히 우리 선교부나 교회의 기관이 아니라 이 사회의 기관이 되었으며 사회가 의지하게 된 기관이 되었습니다. 만일 이 학교들이 폐쇄 된다면 당국이 새 학교들을 허가해 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그들은 아마 거절할 것입니다. 2천 2백 만 인구를 가진 조선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을 합해 약 1백 만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다섯 명 중 한 명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학교를 폐쇄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훈련시키던 학생들 숫자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9단락-이것이 사회가 이 문제를 보는 방식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의 반만큼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교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곳 사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선교부는 우리가 학교를 그들에게 빌려주거나 세를 주거나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팔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우리가 알아내려고 애쓰는 점입니다. 해외선교부는 (혹은 사적 기금의 대변자) 일정한 양의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만일 해외선교부가 모든 투자금을 회수 한다고 지난 몇 년간 사회 덕택에 얻은 토지의 자연 가치 증가분조차 반드시 회수하고 몰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40단락-믿기지 않지만 개인적인 이득 없이도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국뿐 아니라 이곳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은 이 도시의 훌륭한 사업가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약을 수행 할 능력과 의지가 있습니다.

41단락-우리들로서는, 지난 40년간 토지가격 상승에 의해 형성된 모든 이익을 학교를 넘겨받는 형제들에게 준다면 엄청난 기부를 한 것처럼 느낍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선교부를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했던 현재 지출의 부담을 영원히 질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커다란 부담을 은혜라고 받아드립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친 제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이하의 조건은 없고 해외선교부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기관을 양도하면, 교회를 위해 도덕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창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936년 3월 31일 조선에서의 신사 참배에 관한 추가 기록〉

42단락-만일 선교사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면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학교는 폐쇄 될 수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최종 교육 당국인 총독부 관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학교가 폐쇄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못가고 새로 시작한 조선교회는 아이들을 가르칠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학생들은 공립학교로 가게 되고, 다른 공립학교 학생들처럼 말할 것도 없이 신사 참배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사참배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판단할 지점도 없이 말입니다. 선교사들을 대신해 조선인 교장이 학교를 운영할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교장들은 학생들을 신사참배를 하도록 해야 하고 조선인의 지도력으로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해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길게 보자면 북중하기를 거절하는 대가를 선교사가 치루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교회의 젊은이가 치르게 됩니다. 어느 방향이건 지금 위치 설정을 잘못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조선의 젊은이를 잘못 인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마찬가지로 조선의 젊은이를 포기하는 것 역시 심각합니다.

43단락-“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학교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진실은 이 일에 대해 실질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가운데에서 기독교적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진짜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절대 필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어떠한 대가든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기독교적인 방법 안에서 피할 수 있고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외선교부와 선교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리 이점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불필요한 희생을 위하여 값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있는 언덕이라고 해서 모두 갈보리 언덕은 아니며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희생이라도 구원 사업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로즈 박사의 편지, 1937년 5월 17일〉

44단락-만일 해외선교부가 이 문제를 평양 선교지부에 넘긴다면 그 선교부는 아마 조선인의 요구를 따르라는 강한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해외선교부에 회부된 이상 해외선교부가 매듭지어야 합니다.

45단락-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연례회에서 우리는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구의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시험 투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선교부는 교육사업에서 철수하는 문제는 선교부의 뜻에 따라왔습니다. 만일 해외선교부가 이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내년 가을이후로 미루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내년의 연례회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례회 이후에 조선을 떠나는 선교사들의 휴가기간 중에 선교사들의 간담회를 열 수 있습니다.





〈마우리(E. M. Mowry) 목사의 편지, 1937년 4월 30일〉

46단락-당신이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나는 그것에 관해 어떤 이야기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도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을 바라고 있는 조선인과 분명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 친구들에게 학교를 운영권을 양도 하려한다는 희망 사항을 비친 후에 이 지역에서는 학교가 존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제안서의 미비점으로 인해 실패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있었고 처음처럼 실패할까 두려워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것을 멈추거나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였습니다. 성심을 다해 그 제안을 지지하는 이 도시 시민들은 운영권 양도를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론은 나빠질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너무 많이 일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양도 협상의 진실성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47단락-동양인의 심성은 교육제도를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는 거의 보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 소유로 봅니다. 이를 고려하면서 자산에 관한 우리 해외선교부의 규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현재의 시세를 다 반영하여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자산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판다는 것을 일반 민중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조선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과 땅 가격 대신에 감사의 사례를 하겠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 총액은 건물과 땅에 초기투자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양자를 만족 시킬 방법처럼 보입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의 편지, 1938년 2월 7일〉

48단락-나는 해외선교부가 그 자신의 신념을 약간이라도 표시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로교에게 그들이 반드시 학교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몇 마디 만 더했었더라면, 해외선교부는 다음의 사실을 관련된 모두에게 밝혔을 것입니다. 즉 해외선교부는 절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한다하더라도, 선교부에 의해 결정되고 해외선교부가 재가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두 가지는 해결 되었을 것입니다 : 즉 해외선교부의 선교부에 대한 지지를 의심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장로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선교부 내에서 두 가지 정책을 가지지 말고 1. 해외선교부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혹은 모두에게 다수의 의견을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만일 어떤 의견이 다수에 의해 지지받았으면 2.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복종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임하거나 그들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단체에서 수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의 편지, 1938년 4월 8일〉

49단락-3월 21일자 해외선교부의 조치는 미국에서 내가 만났거나, 내게 이야기를 전해준 선교부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후퇴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학교를 조선인에게 양도하는 문제를 재차 제기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미 결정했음에도 그 일을 조선인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만났던 모든 선교부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읽은 후에 확연히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50단락-동시에 나는 솔토 씨와 내가 보냈던 글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행위원회의 조치가 해외선교부에게 '그러한 요청이나 주장에 대해 내리는 최종 결정'이라고 통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51단락-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원회가 언급한 것을 읽어보면 실행위원회는 분명히 그 문제에 관해서 해외선교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았지만 해외선교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 선거를 하라고 그 문제를 선교부에 위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실행위원회의 권한을 침해 한 것입니다. 실행위원회가 정상적인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직접 그 사안을 선교부에 넘겨 투표하게끔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사업을 승인하고 추천할 수 없음을 알고 해외선교부에게 최종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52단락-내가 말하고 싶은 것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2/3의 구성원이 1/3의 구성원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선교부는 오래 지속 될 수 없으며, 원치 않더라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합의와 그리고 믿음의 명령까지도 파괴합니다.

53단락-나는 해외선교부가 조선에서의 교육사업을 그만두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결정하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해외선교부에게 위임된 수정과 통제에 관한 일반적 권한으로 해외선교부는 그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교부의 모든 성원에게 모든 교육 사업을 동시에 그만두자는 안건을 새롭게 제안해서 투표에 부칩시다. : (무슨 일이 일어나건 재정은 철저히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현 상황은 우리의 신념에 반대 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국으로 모든 선교부를 데려와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자유롭게 논의해 봅시다. 이런 비현실적인 시도조차도 지금 상황보다는 비용도 노력도 절감하고 더욱 신앙에 충실하려 노력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마우리 목사의 편지, 1937년 3월 1일〉

54 단락-해외선교부가 이곳에서나 다른 곳에서 수립된 계획을 승낙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계획이 승낙되지 않는다면 해외선교부나 현장에 있는 그들의 대변인이 언제 될 이로움보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앞으로 처할 곤란이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에서 수립된 계획 중 어떤 것이라도 해외선교부가 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무척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레버 박사와 도즈 박사가 특별한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한 해외선교부의 의견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이 이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해외선교부의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알아내야 합니다. 만일 학교가 양도 된다면 이 학교를 인수 받을 사람들은 그들이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4월 초순까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문제의 급박함을 인식하듯이 그곳 멀리에서 문제의 다급함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만일 그 문제가 해외선교부에 제출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정적인 답변이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우려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이 문제가 조속히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스 스티븐슨 박사(J. Ross Stevenson)의 편지, 1936년 11월 13일〉

55단락-조선에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 심각한 문제는 신사 참배 문제였습니다. 나는 총독과 그리고 평양의 지역 책임자와 그리고 경성의 학무국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맥켄지(Mckenzie) 박사를 통해서 호주선교부의 입장을 얻었는데 그것은 타협이었습니다. 나는 대구, 안동, 서울, 평양, 강계 그리고 선천선교부의 회원들과 만났고, 전주의 모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준 솔토씨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와 로즈 박사와 그리고 실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과 전체적인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선교부는 소수의 반대자는 있지만 만일 그들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명령받는 순간 모든 학교를 폐쇄 할 것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대해서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전제적인 정책으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 듯이 보여서 나는 평양의 당시 상황에만 그들이 관심을 두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선교부의 조치 안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관련된 학교를 폐쇄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학무국에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56단락-해외선교부는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선교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교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양의 몇몇 사업가들은 학교를 완전히 폐쇄하면 학교 설립 허가서가 재발급 될 수도 없고 혹은 비슷한 조건의 설립 허가장도 받을 수 없기에 굉장한 재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학교가 지금 폐쇄 된다면 총독부는 그들에게 학교의 재 개교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블레이 박사와 나는 두 명의 평양지방의 유지와 만났는데, 그들은 부자이고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해외선교부의 명예를 손상시킴 없이 학교가 새로운 기업이나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게 인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학교를 인수한 사람들은 해외선교부의 합리적인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예를 들면 막대한 기부금 증액 등과





같은 총독부 요구 조건도 충족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땅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장로교회의 기금에서 투자된 양만큼의 돈을 해외선교부에게 돌려 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관련된 건물이나 땅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외선교부가 투자한 자산만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일 것입니다. 선교지부가 신사 참배와 관련되지 않은 기관과 자산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해외선교부가 자산을 최고의 시장가격으로 팔아 조선에서 이익을 실현한다면 조선기독교 신자들에게조차도 나쁜 인상을 줄 것이고 선교사들은 일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해외선교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한 것은 아닙니다.

57단락-조선 기독교 교육의 미래에 관하여 선교사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동안 교육 문제로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와 겪었던 경험들을 연관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모든 세속교육으로부터 은퇴하고 싶어 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성경 공부 인도자들과, 교사들, 혹은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국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미래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교육 없는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지식인들의 증가에 대비하여 미래의 성직자들이 이들의 논리에 대처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와 솔토(T.S. Soltau) 목사의 편지, 1937년 6월 27일〉

평양과 관련된 결정은 일반인과 관리들의 마음에 모든 조선의 문제에 대한 선례로 각인될 것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평양의 경우에는 허락해주고 대구나 서울의 경우에 거절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고 그 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말 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 할 것입니다.

59단락-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해외선교부가 9월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한 결정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결정은 단지 평양의 학교에 관한 제안을 거절할 뿐 만 아니라 유사한 이유로 폐쇄될지 모르는 선교부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사한 제안들이 계속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로서 선교사들의 무거운 부담과 책임감을 줄일 수 있으며, 협상과정의 마음 아픈 걱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킵니다.

〈언더우드 박사의 편지, 1937년 6월 8일〉

60단락-이리하여 오랜 숙원이던 교육사업의 전국적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학교들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학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튼튼한 조선기독교 학교로 거듭나는 것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들에서는 선교부들이 서로 협력하여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선교부가 조선교회는 너무 유치해서 그들이 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허락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





한다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대중들은 당연히 선교부가 조선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이 전문한 학교에 보낸 후에는 지금과 같은 호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솔토 박사, 1936년 7월 4일〉

61단락-이번 조치에 있는 두 권고 사항의 첫 부분에서 미션 스쿨을 유지하고 설립되게 된 취지와 이상을 지키는 것이 점차로 어려워졌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해외선교부도 잘 알다시피, 그 학교들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으며 그렇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중압에 시달렸습니다. 총독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라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의심할 것 없이 학교에 높은 교육적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징은 유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동시에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남녀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입학시험의 경쟁이 심화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신자 학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 3년간은 주일에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이나 운동경기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허락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과 지난 몇 년간 선교부 회원들의 마음속의 부담을 관련해 봅시다. 지금의 결과를 볼 때 학교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적합한 것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세속 교육의 영역에서 물러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도 아니며, 혹은 즉각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클리랜드 맥아피(Cleland B. McAfee) 박사가 스코트(Scott)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6년 12월 17일〉

62단락-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박사에게서 온 편지와 오려낸 기사는 내가 보기에 신사 참배와 관련된 파일에 첨부 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내 견해로는 우리 선교부와 이제 그들의 선교부의 조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철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해외선교부의 선언에 달리 선언했을 것입니다.

〈클리랜드 맥아피 박사가 스코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7년 4월 12일〉

63단락-당신의 8일자 편지는 조선인 형제와 교신했던 많은 편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해외선교부가 (조선)선교부의 입장에 동조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처음부터 해외선교부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쿤스(E.W. Koons) 박사 편지, 1937년 1월 23일〉

64단락-목요일에 겐소(Genso) 씨가 나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토요일인데- 솔토 씨가 그에게 다음





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장로회 총회장(평양 숭실중학교의 사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쿤스)이 선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평양 선교지부는 서류에 싸인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대학 건물과 부속 대지, 체육관과 부속 대지를 제외한 자산을 300,000엔에 조선인에게 양도하기를 해외선교부에 권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65단락-학교를 여전히 미션 스쿨의 상태로 남겨둔 채, 훌륭한 건물과 우수한 장비를 완비하고 그리고 선생님 처우도 향상시키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조선인이 학교를 유지하게 하는 멋진 계획을 희망합니다. 선교지부 교육위원회(The station Educational Committee)는 최종 결정을 위해 다음 월요일에 만납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두 학기는 근사했습니다. 지난학기 성적은 지난 몇 년 중 최고였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한 435명 중 -우리는 지금 505명이 등록했는데- 내가 아는 한 가장 적은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헨더슨(H. H Henderson) 목사가 스코트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6년 12월 29일〉

66단락-당신이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절차에 관한 깊은 의견 차이가 주된 어려움입니다. 우리 선교부의 교육 분과 회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회원들과 견해가 다릅니다. 사실 지금 교육자들은 소수자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단합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부의 실행 총무의 편지, 1936년 12월 8일〉

67단락-평양 학교들에 대해. 나는 며칠 내에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는 교육제도의 현황에 대해 당신에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양에 있는 지도적인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방문한 스티븐슨 박사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학교를 유지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민중의 정서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의 상황 하에서 선교부와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현재 다니는 학생과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자산을 원래의 가격으로 사서 조선인의 관리하에 두겠다고 잠정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해외선교부에 편지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제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그 당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실행위원회의 모임에서 전보를 해외선교부에 보내달라는 평양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보의 내용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투자 금액으로 그곳에 있는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팔겠다는 잠정적인 제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승인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한 결과, 우리가 해외선교부에 연락할 만큼 명백한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학교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반대가 그렇게 심하기 때문에, 학교 폐쇄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학교 폐쇄는 의심할 나위 없이 어려운 일이고, 아마 일반 대중의 반응은 매우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평양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지부와 이 문제를 토론하고 또 동시에 선교부와 해외선교부를 대표하여 관련된 조선인 지도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결과에 관해서 그곳에서 알려주도록 힘쓰겠습니다.

〈솔토 목사의 편지, 1937년 3월 24일〉

68단락-이미 당신에게 실행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사본과 필요한 주석을 첨부해서 함께 마무리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변한 교육상황을 정리해 보내려고 합니다. 주로 평양과 그 지역의 학교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레버 박사와 도즈 박사의 조언에 따른 해외선교부의 조치가 끼친 결과를 요약하려 합니다.

69단락-승실중학교는 이(종만)씨에게 그리고 승의여학교와 승실전문학교는 한(인보)씨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한 청원을 번역본을 동봉해 보냅니다. 이씨는 평양의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친구이자 몇 년간 장로회 총회의 회계로 일했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원로 이춘섭 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서울에서 경성제대를 조만간 졸업할 예정이고 내가 아는 한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그의 제안은 안주지방의 기증된 농장의 1/3과 평양에서 강 건너에 있는 기증된 농장의 1/10을 포함한 승실중학교의 자산에 대해 해외선교부에 62,770엔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학교에 대해 요청한 신사는 한인보 씨입니다.

70단락-처음부터 레버 박사는 너무 일이 너무 과열되어서 현명한 결정 혹은 최선을 다해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선교부 혹은 두 명의 (특파)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뉴욕(해외선교부)에 의뢰하여 그곳에서 조심스럽게 토의 하여야 할 것 같다고 이런 청원을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몇 해 동안이나 그렇게 이야기 해왔으나 일반 대중이나 우리의 조선인 친구들은 희망에 의거해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가 그 제안들과 청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도록 준비할 것을 그는 강력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71단락-나는 이런 조치가 우리의 실행위원회가 초창기부터 해왔던 노선에 부합되며 옳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세속 교육으로부터 철수하기로 한 결정했을 때 평양에 있는 세 학교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선교부와 교회가 더 이상 학교운영과 관련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조선인들과 일반 대중 때문에 우리가 학교들이 어떻게든 조선인들의 경영 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72단락-나는 미국에 간 두 명의 위원이 돌아오기 전에는 그리고 아마 여름 전에는 해외선교부가 어떠한 최종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38년 경신학교(John D. Wells School)에 관한 특별 조치〉

73단락-선교부 조치 976호, 경신학교에 관한 긴급 교육 정책의 적용, 21쪽의 대안 조치가 아래와 같이 통과 :

경신학교 이사회에 있는 선교부 대리인들(선교부 파송 이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해야 합니다. 즉 긴급교육 정책에 관한 선교부의 연례회의(Annual Meeting on Emergency Educational Policy)의 결정에 따라서 선교부가 1937년 3월까지 그 학교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이사회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74단락-선교부 조치 978호, 경신학교 학생 입학에 관해, 양도 계획에 관해 해외선교부가 올해 12월 20일 까지 승인하지 않으면, 경신학교로부터 철수가 절차에 따라 진행 될 것이고, 1938년 4월까지 신입생을 뽑을 수 없습니다.

75단락-선교부 조치 887호, 경신학교 이사회의 질문에 관한 답변. 학교 경영을 이사회에게 허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선교부의 실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대답합니다 :

76단락-1. 이사회의 규약은 특별히 선교부가 협동운동을 그만둔 후에, 잔여 집단에 의해 학교를 유지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실행위원회는 판단합니다.

77단락-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이나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선교부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1938년 4월까지 새로운 학생을 받지 않기로 한 (선교부) 연례회의 결정은 전적으로 준수 될 것이고, 즉시 총독부의 허락을 요청하는 신청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78단락-"적절한 시기"에 선교부에게 반환 할 때까지 자산을 그들이 사용 할 수 있기를 허락 받고 싶다는 이사회의 요청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선교부의 결정을 이해하는 한 우리에게 자산을 임대 하는 권한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9단락-이사회와의 의사 소통과정에서 언급된 다른 사항은 위에서 제공되고 언급되었던 핵심 사항



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지금 대답할 수 없습니다.

80단락-정관(定款) 해석에 대한 전신 요청. 정관 해석을 위한 전신 요청에 대한 1938년 6월 실행위원회 회의록.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81단락-경신학교 정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1) 해외선교부의 실행위원회의 권고 없이 첨부 진술을 포함한 정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 이러한 진술이 만들어지는 동안 해외선교부는 그 당장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조치와 권고에 관한 문제는 현장에 위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현장 조치는 1936년 9월 21일 취하고, 1938년 5월 16일 재차 확인된 해외선교부의 조치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로즈(H.A. Rodes) 박사의 편지, 1938년 5월 21일〉

82단락-나는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83단락-오늘 경신학교의 조선인 설립자인 최씨가 와서 그의 청원을 당신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청원은 당신이 그에게나 혹은 그가 대표하는 다른 조선인에게 경신학교의 자산을 팔라는 것입니다.

84단락-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산을 임대하고자 요청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거나 파는 것 어느 것이든지 그들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85단락-가격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그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미루어보아 공정한 가격이 제시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86단락-나는 그들에게 선교부가 임대나 판매 그 어느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그 일은 해외선교부의 소관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팔고 싶어 하더라도 심중할수록 당신은 선교지부(Mission Station)의 의견을 먼저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사용에 대한 계획도 알고 싶어 한다는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매우 좋은 사람이며 우리가 철수하는 것에 진심으로 협조하여 가능한 한 선교부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젠소 씨의 편지, 1938년 3월 18일〉

87단락-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서는 1936년 9월의 해외선교부의 조치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말자는





것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몇몇 특별한 경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여 투표를 하고자 했습니다.

88단락-비록 경신학교의 이사들은 법적 권한은 무한합니다만, 조선인 설립자는 매우 사귀기 쉬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선교부에게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산을 사겠다는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로즈 박사의 편지, 1939년 1월 27일〉

89단락-우리는 학교가 선천에서처럼 조선인 교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장로교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출 했지만 어떠한 재정적인 책임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설립자이자 교장인 최씨는 매우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독교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의 모든 선생님은 기독교인이고, 매일 예배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계속 될지는 의문입니다.

〈로즈 박사가 오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8년 12월 3일〉

90 단락-실행위원회는 오해로 인하여 해외선교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지를 교환 할 때까지 학교에 관한 해외선교부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을 지연해 주십시오. 아마 2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해외선교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조치, 1938년 11월 29일〉

91단락-해외선교부에 다음 사항을 알릴 것을 가결합니다. 즉 해외선교부의 서울의 (정신)여학교에 관한 1938년 9월 19일의 결정은 선교부를 지지했던 해외선교부의 과거의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실행위원회는 판단합니다. 해외선교부의 (조선)선교부에 대한 지지는 긴급 교육 정책 문제를 다루었던 편지에 있습니다. 또한 선교부가 철수 할 경우, 학교는 학교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인 규정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선교부가 과거의 결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를 재고하기를 요구합니다.

〈조선선교부의 실행위원회의 편지, 1938년 12월 10일〉

92단락-정신여학교에 관한 해외선교부의 제안은, 만일 그것이 수행된다면, 해외선교부의 과거의 정책이나 조치들에 정반대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해외선교부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해외선교부가 그들의 정책에 그렇게 반대 되는 행위를 의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823번 편지에서 서로 상충하는 두 문장을 인용하려합니다. 서울의 정신여학교에는 이사회도 없고 조선인들의 참여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해외선교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그 조치는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절차는 조선에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공식적 참여로부터 손을 떼려한다는 점에서 해외선교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선교부의 조치에 관한 당신의 설명에서 인용하자면, “대구와 선천의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과 일치한 조치를 해외선교부는 취했습니다. 그 학교들은 연합 학교(united school), 그러니까 선교부와 교회가 연합해 만든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미션 스쿨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지역의 이사회를 조직했을 당시에, 일반적인 연합 학교의 상태로 변질될 정도였습니다. 즉 우리 선교부의 감독권이 제한될 정도로 말입니다.”

93단락-지금 두 가지 것은 분명함에 틀림없습니다. 첫째 서울에 있는 정신(여자)학교는 이사회를 가진 적이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학교에 대한 감독권 행사에서 제한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부는 그러한 학교에서 철수할 수 없으며 오직 학교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지금까지 이해되고 실행되었던 (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의 정책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제안은 해외선교부가 생각하고 선언해 왔던 만큼 “전적으로 부합” 하는 것일 리 없습니다.

94단락-해외선교부가 그 제안을 서울의 학교와 관련되어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단독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는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선교부가 가능한 한 빨리 잘못을 시정하고 선교부에 가해진 압력을 경감시킬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해외선교부가 서울의 (정신)여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에서는 전에 1936년 9월 21일 조치에서 취했던 입장을 계속 견지함을 선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선교부가 그렇게 하도록 단순히 승인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95단락-당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기를 원할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당신이 충분한 정보를 알았을 때 당신은 당신의 제안이 실행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추후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을 줄 때에는 매우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편지를 볼 때에 또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당신과 해외선교부가 견디고 있는 모든 무거운 책임에 대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실행위원회의 조치, 1939년 5월 24-27일〉

96단락-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맡을 수 없다고 해외선교부와 본국교회(미북장로교회)에 통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조치는 서울





의 여학교를 조선의 기독교 대리인에게 양도하는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선교부의 조치의 결과 때문에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해외선교부가 직접 처리하기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실행위원장의 논평〉

97단락-이 조치는 그 전문과 함께 자명한 것이고 나는 아무 것도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듭니다. 만일 이 학교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해외선교부가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실행위원회는 우리들에게 역시 입장을 번복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외선교부가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우리는 선교부의 입장을 훼손함이 없이, 또한 우리가 이미 끝냈던 것까지 재고하여야만 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고는 해외선교부의 결정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황에서 손을 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선교부와 협상할 뜻이 있는 선교부의 몇몇 구성원이 당신에게 보낸 제안처럼 해외선교부가 이 정신여학교의 양도를 직접 완결하도록 합시다.……우리가 해외선교부의 결정과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그러나 우리 역시 양도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조선인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할 것도 없이 선천의 경우와 경신학교 자산을 처분한 경우처럼 그 가치의 1/3을 지불하고 이 자산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에 다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세 계약은 종결 되었습니다.

〈로즈 박사가 교장인 Y. C 한 교수에게 보낸 편지, 1939년 3월 30일 날짜로〉

98단락-선교회의 실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우리가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이유로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해외선교부와 본국교회 (home church, 미북장로교회)에 통보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그 조치는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조선인 대리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선교부의 조치의 결과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해외선교부가 직접 다루기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학교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누구에게도 뉴욕에 있는 해외선교부에 그들의 입장을 직접 전하는 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1939년 10월 까지 학교는 아마 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것이지만 만일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학교를 폐쇄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가 이루어질 공산이 매우 큽니다.

〈로즈 박사의 편지, 1939년 4월 24일〉

99단락-아래의 사람들에게 사본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 해외선교부의 장이신 어드만(Erdman) 박사,





총회에 선교부 대표로 파견된 블레어 목사 : 해외선교부의 위원인 홀코스(Foulkos), 에몬스(Emmons), 맥 کن키(McConkey), 다운스(Downs), 스티븐슨, 맥케이(Mackay), 테일러(Taylor) 박사. 그리고 평양에서의 사업을 위해 피츠버그 제일교회가 준 막대한 기부 때문에 맥카트니(Macartney) 박사.

100 단락-내가 조선에서의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냈지만 해외선교부의 지시를 수행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선교부의 긴급교육정책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결정이 서로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수문제에 대하여 해외선교부가 지지하는 것 이상을 해주기를 원했으며 해외선교부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했습니다. 선교부는 그들이 폐쇄할 수 있는 모든 학교를 폐쇄해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해외선교부는 평양에서 학교 폐쇄를 지지했고 서울에서는 같은 과정을 망설였습니다.

101단락-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이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미래에 다시 이견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는 없고, 항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로즈 박사가 어드만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9년 4월 25일〉

102단락-조선선교부와 해외선교부가 서울의 정신여학교에게 취했던 긴급 교육 정책 조치들의 사본들을 당신에게 동봉합니다. 동시에, 해외선교부에 보낸 실행위원회의 편지 사본들과 또한 이후의 모든 해외선교부의 조치가 기반을 두게 될 1936년 9월 21일 해외선교부의 조치의 사본들도 보냅니다.

103단락-해외선교부와 조선선교부 간의 장황한 편지와 많은 전보들의 사본, 실행위원회의 편지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답변, 조선에서의 교육 상황에 대한 다른 조치의 사본 등이 해외선교부의 파일과 1936~1938년의 선교부의 연례회의 회의록에서 발견 될 수 있으며, 그 사본들은 해외선교부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104단락-그 일에 관해서 해외선교부와 선교부 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위해 당신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이를 총회에 항의 차 보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최소한 해외선교부의 몇몇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 그대로를 알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105단락-우리는 해외선교부의 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부의 어떤 멤버들이 학교를 양도 받고 자산을 사기위하여 조선인들이 제안한 것들을 해외선교부에 전송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해외선교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106단락-이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당신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해외선교부가 자신과 자신의 결정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 기대만큼 선교부를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과 관련되어 또 다른 반대되는 결정이 6월의 연례회의에서 채택될 것입니다.

〈코엔(R. C. Coen) 목사의 편지, 1939년 10월 11일〉

107단락-나는 이씨에게 해외선교부가 자산을 판매하는 것을 거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럴 뜻만 있다면 해외선교부가 거절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사건의 내력을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부는 2대 1의 다수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은 1939년 10월 1일전에 학교를 넘겨줄 적당한 개인 혹은 여러 사람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허락해 달라고 해외선교부에 청했습니다. 해외선교부는 소수의 요청을 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자산의 문제는 따로 추후에 다루어 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선교부의 2/3의 해당하는 회원 다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해외선교부의 이 명령을 실행 하는 것을 실행위원회는 거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선교부는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조선인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시도하였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는, 그는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해외선교부가 고려해야 할 3가지 제안을 넘겨주었습니다. 몇몇 지침에 대해서 해외선교부는 서울 선교지부에 항의했습니다. 그 지부는 학교를 이 씨와 경성노회에 양도하는 것에 찬성하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투표할 결과 대다수가 매각 대신에 3년간 임대 할 것을 제안 하면서 자산의 매각을 반대 하였습니다: 해외선교부의 입장에서는 그 지부가 충분히 숙고했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 지침에 따라 행동하면서 승인된 조건에 따라 학교를 이씨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씨는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일은 끝났습니다. 협의한 바대로 정해진 시간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선교부는 선교지부의 도움을 받으며 모든 제안들을 접수하였고, 그중 한 제안을 서울 선교지부의 의해 조율된 조건하에 채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씨는 학교를 인수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 청원자들과 해외 선교부에 의해 정해졌던 시간)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제안은 실패했고, 해외선교부 스스로 쓴 문서에 의거하여서 학교는 폐쇄되어야만 합니다.

108단락-만일 해외선교부가 무조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학교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서울 선교지부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제안에 동의하여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해외선교부는 다음의 상황에 부딪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외선교부가 추진하는 일은 전체 (조선)선교부의 2/3 다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후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처하게도 다수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하고 극소수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며 일을 처리한다고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현장(한국)에서나 고국(미국)에서나 화합을 위한 일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행동은 불쾌한 공공의 질타 속으로 그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것인데, 누구라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렇게 질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현장 학교문제와 미국의 (북장로회) 총회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문제 양자에 대한 책임을 다 맡고자하는 의욕 있는 선교사를 당신은 아마 알지 모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원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행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신여학교와 관련된 거래의 역사는 그런 항의 사례의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정신)여학교를 계속 하려고 하는 협상을 그만두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가치 있고 매우 필요로 한 자산을 매각하기위한 협상을 중지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기회를 해외선교부가 잘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의 편지, 1939년 10월 13일〉

109단락-그러나 실행위원회가 무엇을 했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건 간에 이 모든 절차가 엉망이고 비극적인 실수였다는 나의 신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해외선교부가 이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나는 항의합니다. 그 것은 폐쇄 될 수 있었으며, 또 폐쇄 되어야만 하며 그리고 내 생각에 폐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만일 폐쇄되지 않으면, 1936년 선교부 교육 정책에 대한 해석이 교육에서의 철수는 양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그 정책이 만들어질 당시 그 정책은 그렇게까지 제한 적이지 않았습니 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 특히 한 사례에, 즉 대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지금은 4개 선교지부 중 3개 선교지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되고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항상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패배주의와 소수에 의한 지배입니다. 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학교를 계속하는 것은 이전에 공식적으로 해외선교부에 의해 발표된 원칙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총독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행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치에 항의하며 만일 조치가 실시된다면 나는 내 이름을 항의하는 쪽에 넣기를 바랍니다.

110단락-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격심한 반대를 야기 했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의 많은 교회가 이미 배교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의 도움을 받아 통제되고 있는 기관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를 그만두고 언덕이나 동굴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는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남아 있기를 바라던 일부 교회도 바보짓을 하여 가장 어려울 때 당연히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는 쓰디쓴 결과를 맞볼 때까지 이 상황에 순응할 것입니까?



〈해외선교부에 보낸 전보, 1940년 1월 13일〉

111단락-후퍼(Hooper)의 편지에 관하여. 서울 선교지부 11월 21일. 실행위원회는 해외선교부의 정신여학교 양도에 관한 희망을 단념시키고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도덕적으로 잘못이고 우리의 증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항의함. 크로더스(Grothers).

〈실행위원회의 조치, 1940년 3월 8~11일〉

112단락-1월 13일 해외선교부에 보낸 전보에 관한 988호 서울 선교지부의 항의

서울 선교지부의 조치에 관한 답변하면서(정신여학교의 양도에 관하여 크로더 씨가 1월 13일 해외선교부에 보낸 전보의 용어를 재고할 것을 서울 선교지부가 실행위원회에게 요구해 투표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선교지부는 전보의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보의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누군가 느꼈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행위원회의 항의가 심각함을 해외선교부에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서 선교부에 동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신실함을 공격하려는 의도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로 교육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학교를 양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보에 적힌 어구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선교부에 가는 전보, 1940년 4월 13일〉

113단락-선교부의 5명의 구성원의 사직서에 관한 찬반 투표는 불가능함을 발견. 해외선교부의 조치를 중지할 것. (해외선교부) 총무들의 편지는 선교회의 위기를 촉진했음. 5개의 사직서를 중지할 것. 이미 다른 사람들도 (사임이) 임박했음. 선교부의 67명 회원의 청원에 의거한 조치 중지할 것. 실행위원회는 블레어, 로즈, 코엔을 9월 이전에 해외선교부에 이 심각한 상황을 알리도록 만장일치로 지명했음. 편지를 보낼 것임. 크로더스.

〈언더우드 박사의 편지, 1936년 5월 31일〉

114단락-나는 며칠 전 저녁에 조선의 최북단이 고향인 원로 목사 중의 한 분과 아주 긴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조선의 기독교 신자들의 아이들도 강제로나 학교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기껏해야 일부 기독교 교회의 의미 없는 몸부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훈련시킬 기독교 교육기관을 일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혼을 잃고 전 세계를 얻는 것은 거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당당



한 몸짓이 세상에 있는 학교들과 대학들과 다른 제도에 진실로 가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로서 그러한 몸짓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리성에 때문인지를 면밀하게 고려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헨더슨 목사의 편지, 1938년 7월 14일〉

115단락-나는 이곳 대구에서의 학교 상황의 진전과정에 관한 정보를 주기 위해 때때로 레버 박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곳 사무실의 파일에 그 편지들이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1936년 10월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택하라고 강요받았을 때 충성의 인사는 하기로 하지만 너무나 일본 신도의 색채가 농후한 (Shintoistic)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1937년 계성학교 보고서(the Academy Report for 1937)에 이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었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총독부의 양해를 얻을 수 있었고 이곳 남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선인 지도자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선교부의 조치와 해외선교부 파송 위원회의 보고서에 잘 일치하여 행동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장이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 장로교(경북노회)와 해외선교부 간의 15년 된 기본 규약에 대한 협정이 선교부가 이곳 학교를 폐쇄조치를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116단락-이 상황과 관련된 몇몇 사실을 이곳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교회들은 미션 스쿨이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나는 선입견 없이 조사를 하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서 기술합니다. 나는 이와 반대되는 정보가 해외선교부에 전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즉 남부 장로교회와 평양의 사람들이 그들의 학교를 폐쇄하면서 그들의 최고 조선인 지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조선교회의 의견을 잘 종합하여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으로 조선인은 그가 생각하기에 선교사가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선교사에게 하는 것은 비밀비재합니다. 집단과 조직이 의견 표출을 시작할 때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속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동안 대구, 서울, 그리고 선천의 장로교인들은 미션 스쿨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오늘날 교회가 이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117단락-여러 종류의 주장과 의식 중에서 천황을 신성시하는 주장이 두려움의 근거입니다. 독일과 이태리와의 조약이 이 두려움을 더하게 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국가비상사태"(Great National Emergency)"라고 부르는 이 시기의 군사적 지배는 천황의 신성성의 사상에 많은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하게 압도 할 것 같은 폭력과 파시즘의 위협은 모두 우리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된다면 제국을 통 털어 기독교 세력은 개신교이건 가톨릭이건 단결할 것입니다.





118단락-왜 일본인 선교사들과 기독교 신자들은 이 순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너무 겁쟁이여서인가 혹은 그들의 양심이 너무 무뎠서 일까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슈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비록 위협 받는다 해도 피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을까요?

119단락-총독부는 애국적인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비종교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들은 그들 자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애국심과 종교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집단에 의해 주입된 많은 종교적인 요소와 종교 분야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매우 혼동시키는 힘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매우 비일상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애국주의는 거의 광란의 상태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은 작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것이 철폐될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이 폭풍에 의해 시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더 큰 기회의 시간으로 들어 갈 가능성도 모두 있습니다.

120단락-대구(계성, 신명여) 학교에 관한 선교부의 조치에 관해서, 처음에는 우리는 1939년 3월 선교부의 철수 조치를 받아 들였고 그래서 장로회에 통제를 일임했습니다. 조선인 교회에 학교의 통제권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선교부의 조치가 약간 시기상조여서 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의 편지, 1938년 10월 24일>

121단락-당신의 10월 1일자 편지를 받았고 변함없이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이 두 번째 단락에 언급한 아래의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신은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제외하고 선교부와 선교사들이 모든 일상적인 접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들에게 부과되는 제재 하에서도 조선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선교부가 학교를 조선인들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역시 확립되어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신여학교에 대한 계획과 직접적으로 일치합니다. 나는 선교부의 실행위원회에 막 제공하려고 했던 요청의 사본을 여기 함께 동봉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책임질 준비가 된 조선인 친구에 대한 진솔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나는 만일 해외 선교부가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선교부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인에게 학교에 대한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마지막 단락에서 표현한 희망이 실현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선교부의 조치에 의해서라는 것도 강조하려합니다.

맥그리거(R. G. McGregor) 박사가 레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 1937년 9월 16일)

122단락-물론 몇몇 선교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외선교부에게 가해질지 모르는 그리고 아마 확실히 가해질 공격에 대해서 내가 개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들





의 문제이고 누가 공격하건 안하건 간에 관계없이 대처해야만 하고 그리고 숙고하여 풀어야합니다.

〈맥아피 박사가 솔토 씨에게 보낸 편지, 1936년 8월 3일〉

123단락-자연적으로 이 문제는 선교부를 보강하는 문제에 영향을 줍니다.

만일 모든 학교가 폐쇄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놓여나게 됩니다.

10쌍의 기혼자	20명의 사역자
5명의 미혼 여성	5명의 사역자
4명의 의학 교사 부부	8명의 사역자
2명의 간호사 교사	2명의 사역자
	총 33명

〈헨더슨 목사의 편지, 1940년 3월 18일〉

124단락-실행위원회는 처음으로 여기 있는 학교와 나와의 지속적인 관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다루었으므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25단락-실행위원회에 출석을 위해 나는 서울로 소환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 가지 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말을 망설이면서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모두 짐작게 말했으며 어떤 격렬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지시를 현재 시간까지 수행할 수 없었고 아직까지도 언제 내가 그것을 수행할 지 시간을 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불복종이라고, 그리고 반항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명목의 문제입니다.

126단락-그들이 기소한 두 번째 것은 내가 대구 학교를 경북노회(the Presbytery)에 양도하는 것을 방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중 하나가 학교를 경북노회에 양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논쟁은 흥미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1) 어떤 학교든 총독부 앞에서의 책임은 교장과 설립자에게 있다. (2) 총독부는 조선교회나 선교부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는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3) 그래서 헨더슨 씨가 설립자이자 교장으로 남아있는 한 선교부가 이들 학교의 운영에 계속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27단락-이점에 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1)과 (2)는





사실에 부합되지만 이로부터 그런 결론이 이끌어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결론은 단순히 설립자인 개인이 (아마 교장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총독부 앞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택된 결론은 그 자체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나는 20년이 넘도록 설립자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독부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지었습니다.

128단락-학교의 양도를 내가 방해 했다는 진술과는 반대로 우리는 양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경북노회가 학교의 운영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운영되는 한에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프로그램이 훼손되면 선교부는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선언 할 수 있으며,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친구들이 주목한 점들은 (1) 우리가 신사 참배에서 우리의 입장을 유지 할 수 있는가 (2)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3) 우리가 성서를 계속 가르칠 수 있으며 채플 프로그램(예배)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가였습니다. 선교부의 다수 구성원들은 계약이 파기되어 자산이 반환되고 학교를 폐쇄 할 때까지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학교입니다. 가장 쓸모 있는 조선인이라도 현재의 압박 하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조선인 형제들, 선교부의 다수 모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20년간의 협상과 교제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치 않았던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해외선교부가 조선인 교회에 학교를 운영하라는 허가를 했을 때 우리는 당신들이 그들에게 기독교 학교를 계속하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크로더스(John Y. Crothers) 목사의 편지, 1940년 1월 1일〉

129단락-언더우드 박사와 밀러(Miller) 박사에게 보내는 1939년 11월 21일자 당신의 편지의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10월 16일에 당신에게 편지를 썼을 때 무엇이 분명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즈 박사에게 보낸 6월 19일자 편지에서 당신이 왜 “이 조치를 취하면서 해외선교부는 -양도를 성사시킬 가능한 방법과 양도 노력을 관철할 현명한 방도 양자에 대한 실행위원회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지 그 당시에 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즈 박사의 부연 설명 문장에서 당신이 인용한 “그러나 우리 모두 양도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의 문장은 당신이 왜 실행위원회가 현명한 방도를 제안 했다고 느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줍니다. 그러나 나는 유감스럽게도 로즈 박사의 그 문장은 그의 보통 때의 정확성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말하려 합니다. 제우스신조차 동의할 것입니다. 나는 다수의 위원도 그가 자신이 생각을 잘 표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130단락- 로즈 박사를 인용한 단락의 첫 문장은 동의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위원회는 1938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한 가지 생각, 즉 여학교를 조선인이 운영하게 한다는 생각을 추구해 왔습니다.” 나는 당신 편지의 2쪽에 있는 문장에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해외선교부에 제시되기 전에 해외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토론 되었고 이 문제는 여러 번 해외선교부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실행위원회로서는 그들이 더 이상의 제안을 자유롭게 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많이 상충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만족될 만큼 설명 되지 않은 “상충하는 조치”라는 것은 1938년 9월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1936년의 해외선교부의 조치와 반대되고, 해외선교부의 명령으로 행한 1938년 봄의 선교부의 투표와도 모순되며 1938년 5월 16일 해외선교부의 조치와도 (조선선교부) 연례회의 v.999조치와도 모순됩니다. 5월 16일 조치를 부연 설명한 편지에는 이 조치는 “학교 임시 운영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조치를 폐기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외선교부나 (조선)선교부 양자의 1938년 조치는 “양도”가 아니라 “폐쇄”입니다.

131단락-당신의 편지에는 내가 진심으로 동의하는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만일 상황이 달랐었다면,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경영을 넘기려는 해외선교부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은 최적의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만족스러운 상황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당신들과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아주 경건한 조선 사람들이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 돈을 기부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라고 당신은 썼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한 가장 통탄할 만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문제에 인하여 선교부는 학교를 폐쇄하는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스페인의 종교 재판과 같은 고문을 감내하는 아주 경건한 조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아직도 이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약하고 두렵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마지막 문장은 종교 재판관들의 손에 채찍을 쥐어 주는 것입니다.

〈크로더스 목사의 편지, 1940년 5월 18일〉

132단락- 핸더슨 씨가 계속 대구 (계성)남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의 역할을 사임하라는 선교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선교부의 어려움에 관하여 해외선교부에 통보하라고 실행위원회의 의장에게 요청할 것을 가결합니다.

〈조오지 윈 여사(Mrs. George H. Winn)의 편지, 1936년 4월 28일〉

133단락- 그동안 사이 좋게 잘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나의 신앙심을 의심받는 슬픔 때문에 나는 최근에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사 참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록 다른 것을 의미하더라도) 기독교 학교에서는 애국적인 행사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기에 그곳에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절하는 것을 본 어느 누구도 잠시 동안이라도





다음과 같은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즉 이곳 기독교 대성전 안에서 조지 왕의 집 전으로 예배를 할 때 예법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이 안고 서고 인사합니다. 누구라도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듯이 나의 행동도 그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로더스 목사의 편지, 1940년 1월 15일〉

134단락-나는 서울의 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미리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파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당신이 소수의 의견을 따르고 싶더라도,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부에는 학교를 양도하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국식 의회 체제라면 그런 조치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 명이 사임하는 것과 미국에서의 대중 캠페인을 보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나는 나중에 조선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 반응은 다른 학교가 양도된 후에 다시 말하면 경건한 조선인들이 예서(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형)가 느꼈듯이 염증이 나는 결과라도 과거에 일어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모든 제안을 거부하고 학교를 폐쇄한다면 우리 앞에는 매우 어려운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을 가지고 쉬운 길을 가느니 깨끗한 양심으로 고초를 겪는 편이 더 좋습니다.

〈크로더스 목사의 편지, 1939년 8월 15일〉

135단락-조선 교회와의 행정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손으로 쓴 회의록의 24쪽에 있는 선교부가 행한 조치는 영구적인 정책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시기에 영구적인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현장 선교지부에 따라 상황은 매우 다르고, 같은 현장이라도 달달이 다릅니다.

〈홀드크로프트 박사의 편지, 1939년 11월 20일〉

136단락-조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최상의 권력을 가지려 하고 또 국가는 그 사실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거나 인정하려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점이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지금처럼 총독부에 아첨하고 총독부의 하수 기관으로 행동하기를 계속한다면 분열이 필연적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 분열은 이 방침을 고수하려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분리되려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은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몇 번의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끼친 영향력이 우상 숭배 쪽으로 교회를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평신도들이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이 교회 전체를 이미 벗어난 이상 승배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전에 그들을 지켜달라는 청원기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사)참배하는 것을 묵인하는 목사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구히 기도한다는 사실은 이미 교회가 얼마나 유감스러운 사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만일 언제라도 분리될 때에는 참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도 총독부의 도움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총독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찰스 어드만이 제임스 후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신학교 뉴저지 프린스턴
1940년 10월 29일

제임스 후퍼 목사, 신학박사
5번가 156, 뉴욕시

친애하는 후퍼 박사님—

한국에서 온 김길창(Kil Chang Kim) 목사의 활동에 반대하며 위원회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 도착했고 성서 연구소를 위한 기금 마련이라는 표면상의 목적을 가지고 뉴욕과 우리 위원회로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밀사로 신사 참배에 참여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태도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박사가 써주었다는 “미심적은” 소개장을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해결해 간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위해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충실한 벗
찰스 어드만

4) 해외에서 당신에게 호소하는 목소리

동료 감리교도들에게

당신은 이교도 신들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照大神)와 그녀의 후손인 신들에게 신도(神道)의 신사(神社)에서 경의를 표하고 절하시겠습니까?

이교도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한 후에도 명백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고 아직 충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한국에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감리교의 해외선교 위원회 임원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 신들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할 것을 강요하여, 일본의 신도 관리들(神職)을 간접적으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거절했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구속되었고, 고문당했고, 수족절단을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교들, 교회들, 여성들, 남성들, 소년 소녀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더 이상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미션 스쿨이 폐쇄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 이른바 “책임있는 임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성서의 가르침들 -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의 가르침들조차도 (불복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왜?

5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가 미신과 조상의 영혼에 대한 숭배, 우상숭배, 불교 등등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충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교사들은 즉시 그들의 새 개종자들을 분리하였고 그들에게 비개종자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축복 받았습니니다. 한국의 인구는 일본 인구의 1/3보다 적습니다. 반세기 안에 - 두 배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으며, - 그렇습니다, 오늘날 일본보다 한국에서 기독교 신자가 두 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였기 때문이고 -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신념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고 충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받은 기독교인이고 받은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이 우리들의, -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 감리교 해외선교 위원회의 임원들과 허버트 웰치(Herbert Welch) 감독처럼 타협적이며,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고, 원칙에 유화적이며, 태만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들 임원들은 말하길 - 오 - 신도의 신들에게 신도의 신사에서 절하고 복종하는 것은 민족적인 것이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일본의 신도 신직(神職)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신도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





스 오미가미와 그의 후손 신들의 가르침과 명령을 받아야하는지를 우리가 물어 봐야하는 것인가요? 정말? 언제부터 감리교도들이 신도 군국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존하였는지요? 우리 자신의 양심과 판단력은 없는 것입니까?

감리교 임원들의 그들 자신의 기독교 형제들에게 반하여 행한 가증할 만한 행위에 대해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감리교의 가르침에 반하고 극동에서의 백인의 영향력과 안정성에 반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반해서? 그 어떤 가치로? 그 어떤 가치로?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935년까지 기독교 신자는 신도 신사에서 신도의 신들에게 절하고 복종하도록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왜?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을 병합하였습니다.

만일 신도 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이라면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한세대 - 네, 30년이란 기간을 기다렸다고 어떤 제정신인 미국인들이 믿겠습니까?

사실은 최소한 일본의 헌법에는 그들의 신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였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도가 그들의 국가 종교였고 항상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관리들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지금처럼 강요하는 것을 삼가왔습니다. 최소한 1935년, 혹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한국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적인 영향력과 선교사들로부터 분리되게 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주면서), 감리교 임원들이 일본의 신도 군국주의자들에게 복종하기로 타협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시작 되었을까요

1935년 12월 14일 일본의 문부성 종교제도조사회는 교육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정하고 일본 헌법에 명시된 신민들의 권리 - “신앙의 자유” - 를 내팽개치는 종교단체법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문부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도움 없이 교육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제도를 개선하려는 새로운 정책의 기초는 아마테라스 오미가미(天祖大神)에 대한 숭배이고 제국의 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각 학교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즉각적으로 많은 종교 집단들은, 감리교도들조차도, 이 전격적인 법안에 항의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앙의 자유의 침해다”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 철의 통치가 느껴지는 - 1936년 1월 - 미국계 미션 스쿨의 두 교장이 교장직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허가장을 박탈당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학생들이 신도의 신사에 가서 신도 신도에게 절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프고 눈물어린 투쟁의 어두운 나날 가운데 -보십시오. 감리교 감독인 허버트 웰치와 해외 선교위원회의 위원들은 갑자기 타협하고, 기독교를 팔아버리고, 모든 감리교도들은 신도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일이 시작된 경위이고 - 더 깊은 어둠의 나날이 뒤따랐습니다.

허버트 웰치 감독은 1936년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이 결정은 "잠정적"인 것이고 - 오직 "잠정적"인 것 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 아직도 그것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감리교 감독 아베(阿部 : Abe)를 새롭게 구성된 '종교단체법률위원회(Board of Law Governing Religious Bodies)'의 핵심 위치에 앉혔습니다. 왜?

답은 명백합니다.

4년의 긴 기간 동안 한국의 의지할 데 없는 감리교도는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항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도구가 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 신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명백하게 만주와 중국 남 북부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일본 군국주의적 지배가 득세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앙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당신 - 우리 동료 감리교도들인 당신들에게 호소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들은 속을 것인가?

지도적인 일본 관료와 언론은 다 같이 국가 신도(National Shinto)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기회도 없고 이야기할 기회도 없지만, 극동에서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비 기독교적인 세력과 싸우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당신들이 조속히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나는 이 방법을 택해서 우리의 탄원, 우리의 호소, 우리의 기도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국가 신도 경전과 중심 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신도의 의례, 신도의 기도 그리고 신도의 신관 등등에 관한 몇몇 중요 요소들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도의 경전 : “일본서기(Nihonshoki : 日本書紀)와 고사기(Kojiki : 古事記)는 일본 정신의 본질이고 이것은 현대의 일본뿐만 아니라 고대의 일본의 종교적인 삶의 근본이었습니다. - 일본인들은 신도 경전을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민족정신을 양성하는 그들의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주석 - 그들은 “성전(聖典)”이라고 부르는 신도의 신·구약인 이 책에는 중심 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와 그녀의 후손 신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조 - 땅과 물의 분리 등등 -

참조 : 이 진술은 궁내대신(宮內大臣), 총리대신, 문부대신, 육군 해군 및 다른 지도적인 관료들로 구성되고 현재 일본 국왕의 형제가 대표로 있는 일본의 준 국가 기관인 국제문화진흥회(Kokusai Bunka Shinkokai : 國際文化振興會)에 의해 1937년에 발간된 “일본 연구 안내서” 140쪽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들 관료들이 잘못일 수 있습니까? 신도주의(Shintoism)에 대해서 감리교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전문적입니까? 그러나 감리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일본의 군국주의적 행위를 옹호합니다. 왜? 왜?

『신사 신도, 신사(神社)』
(일본정부 철도국, 관광산업위원회, 1938년)

신도 신사에 관해서 이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신사가 일본인에게 의미하는 것은 교구의 교회가 서양인들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이 성스러운 건축물은 황실 조상의 영혼, 유명한 전사, 그리고 황제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헌정되었으며 - 이 봉헌은 신도의 중요한 성격을 규정한다.”(“신들의 길”)

“그들은 국민들의 지도자겸 보호자들로서 보편적으로 숭배되어진다.

“모든 신도의 신사 중에서 위대한 이세 신궁(the Great Shrine of Ise : 伊勢), 내궁(the Naiku : 內宮)과 외궁(Geku : 外宮)은 그 성스러운 점에 있어서는 더 비할 대가 없다 - 내궁(Inner Shrine)은 황실의 여자 조상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에 봉헌되었는데, 그 여신은 모든 다른 신에 비해 가장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

『절참배』

이 출판물에 의하면, 신도 신자들은 처음에는 겉옷을 벗고 신사에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참배하는 동안 조용히 계속 서있다. 일상적인 신도 예배의 양식은 간단하고 조용하며 항상 겸손한 숭배로 이루어져 있다. : 그들이 하는 기도는 크게 소리내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기도실 뒤편으로 보통은 긴 회랑에 의해 그것과 연결되었는데, 본전(Honden : 本殿 : 주 신사)이나 모든 신도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성한 건물 중의 가장 신성한 건물이 서있다.”

『축사(Norito : 祝詞) 혹은 신도의 기도』

“신도 예배는 의식 뿐 만아니라 크건 작건 축제에서도 거행된다, 제단 앞에 미계(봉헌 음식물)라고 하는 신성한 음식을 봉헌하는 것과 그리고 축사의 암송이나 공식적인 신도의 의식사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래는 ‘축사’란 용어는 ‘기원하는 언어들’이란 의미의 “축사말(Norito -goto : 祝詞ごと)”의 축약어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도 신성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도하는 용어는 인간의 미래를, 좋게 또는 나쁘게 통제하기에 충분한 어떤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일상적인 신도의 의례는 제물(幣帛)을 제단에 바치고, 축사 기도를 읽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들의 영원한 성스러운 거주지로서 신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질이건 영적이건, 봉헌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 신사에서의 신도의 사제(神官)』

“하라이(Harai : 祓 : 驅魔)와 미소기(misogi : 禊 : 淨化)의 수행은 신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 신관은 자신을 예배 전에 신의 은총에 적합한 존재로서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여성 역시 여 신관으로서 봉사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통상적으로 처녀로 살아야한다.”

“신관들은 일반인들과 외모에서는 구별되지 않는다. 단지 예식을 거행 할 때만 그들은 신관의 복장을 한다.”

일본의 유력한 반(半)기관지인 신문은 국가 신도는 종교라고 한다.

1939년 오사카 마이니치(Osaka Mainichi : 大阪毎日)와 도쿄 니치-니치(Tokyo-Nichi-Nichi : 東京日日)라는 유력지는 - 매일의 발행부수를 합하면 5백 만 부가 넘는데, 「교류와 무역에서 본 미국과 일본 (America and Japan in Amity and Trade)」이라는 그들의 간행물 안에 이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명쾌한 사실을 썼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1939년의 일입니다. 즉 이는 감리교 지도자들이 신도의 군국주의자들과 타협하기로 결심한 후 3년 뒤입니다.

“한 종파의 것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것이든 신도는 지난 그리스나 로마의 종교와 같이 죽은 종교가 아니라 불교나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뒤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일본에서 번성하여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이 줄지 않고 있는 바로 그런 종교이다.”





우리가 자신을 속여서 지옥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결코 자신을 속여서 천국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책임있는 감리교 해외선교부의 임원들과 감독 허버트 웰치는 4년 이상이나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양심적인 감리교도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계속 속일 수 있고 속이려는 것입니까?

우리의 호소와 탄원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에 있는 감리교 연합회의(the United Methodist Conference), 뉴욕시에 있는 해외선교위원회(the Foreign Mission's Board), 아틀란트 시에 있는 감리교총회(the General Methodist Conference)에 의해 외면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청원과 호소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거절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몇몇 미국 감리교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용기를 내어 사실을 크게 말하리라는 것과 그리고 해외선교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요하리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에게 충실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충실하십니까?

일본 신문은 선언합니다.

“교파신도든 국가신도든 신도는 죽은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결코 뒤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다.”

기본적인 종교 개념을 비교한 도표

	기독교	국가신도	교파신도
신 ?	하나님	태양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태양여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문서로 된 경전 ?	성서 구약 신약	신도 경전 고사기(구약) 일본서기(신약)	신도 경전 고사기-구약 일본서기-신약
예배 장소 ?	교회	신도 신사	신도 신사
기도하는 사람 ?	목회자와 개인이 예배 중에 기도한다	개인이나 신관에 의해 축사 기도 봉헌	개인이나 사제에 의해 축사 기도 봉헌
봉헌 ?	기독교 봉헌	“페백(Mike)” 봉헌	“페백(Mike)” 봉헌
가족 제단 ?	?	가미다나(Kamidana :神棚)라고 하는 “신들의 가정 선반”(Family Shelf of Gods)	가미다나(Kamidana :神棚)라고 하는 “신들의 가정 선반”(Family Shelf of Gods)





신도 신에게 참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당신은 신도의 신사에서 신도의 신에게 참배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그런 후에도 당신을 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참배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간행물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참배하는 동안 침묵하면서 서있다. -신도의 예배는 간단하고 조용하다-그들에 의해서 기도는 행해지는데, 크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오직 이루어진다.”

충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은 감리교 지도자들이 우리가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신도의 신들에게 참배하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국인들은 감리교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리교나, 해외선교부의 어떤 개인, 혹은 웰치 감독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들 지도자들을 사랑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하나님과, 감리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감리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극동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촉진시키면서 백인의 특권, 영향력, 그리고 유익함 지키기 위함입니다.

감리교의 교육 기관, 교회 그리고 병원은 결코 단순한 물리적 도구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관들이 진실하며 충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냉혈의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리교 해외선교부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감리교 역사상 어느 시기에도 감리교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반기독교적인 이교도 관리들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기독교의 정신과 도덕 그리고 협조를 깨뜨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리교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감리교도 입니까? 기독교인 입니까? 당신이라면 이 문제에 관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공할 만한 문제를 미국 전역의 감리교도들이 알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투쟁에 당신들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양심을 혼드시고 당신의 마음에 용기를 가득 채우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길수(Kilsoo K. Haan, 韓吉洙)

한중국민동맹(韓中國民同盟)

워싱턴 대표

101 D Street, N.E.

워싱턴, 디, 씨.

색인

조선의 일반 교육에서 철수하는 문제에 관한 해외선교부의 조치

- 1936년 9월 21일 교육상황 전반
- 1937년 2월 15일 평양 학교들
- 1937년 4월 19일 레버 박사와 도즈 박사의 보고서를 기다림
- 1937년 5월 4일 평안남도 도지사로부터 온 전보에 대하여
- 1937년 5월 17일 평양의 학교들에 관하여 - 레버 박사와 도즈 박사의 도착을 기다리며
- 1937년 6월 14일 파견원(commission) 보고서에 관한 언급 - 레버 박사와 도즈 박사
- 1937년 6월 30일 특별 위원회에 보낸 학교 문제에 관한 언급
- 1937년 9월 20일 해외분과위원회의 특별 연구 진행에 관한 보고서
- 1937년 9월 29일 평양학교들의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 충당금 20,000엔
- 1937년 10월 18일 로스 스티븐슨 박사의 보고서
- 1937년 12월 20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S.U.M.C)와 연희전문학교(C.C.C)에 대한 문제는 1938년 1
 월 17일까지 연기했다
- 1937년 12월 28일 학교의 폐쇄에 필요한 비상 지출을 위한 특별 호소
- 1938년 1월 17일 플레처(Fletcher) 박사, 홀드크로프트 박사, 솔토 씨 그리고 언더우드 박사의 설
 명 - 연합 사역(Union work) 관련 - "당분간" 계속하기를 원함
- 1938년 2월 1일 평양 (학교) 건물을 정부에게 빌려주는 것에 대한 현지에서의 요청
- 1938년 2월 21일 평양에 관하여 조선과 주고받은 전보에 관한 보고서 - 정부에 건물을 빌려주
 는 일에 대한 투표
- 1938년 3월 21일 평양의 건물을 정부에 빌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에 지도하에 경신학교
 를 계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1936년 조치에 관한 선교부 회람(서면) 투표 요구



- 1938년 3월 21일 한국인들이 서명한 청원서로 만든 기록
- 1938년 5월 16일 회람투표에 대한 답변 - (선교부규칙) 제8조(Class VIII) 총당금의 축소 - 이는 학교자산을 매각하여 학교 폐쇄에 필요한 지출
- 1938년 6월 13일 신사 참배에 대한 1938년 총회의 조치
- 1938년 6월 22일 선천 학교에 대하여
- 1938년 9월 19일 일반 교육으로부터 선교사들의 철수
- 1938년 9월 19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S.U.M.C)와 연희전문학교(C.C.C)로부터의 철수에 관하여
- 1938년 9월 19일 서울 (정신)여학교에 관한 제안
- 1938년 9월 19일 학교 자산을 매각한 대금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 1938년 9월 19일 학교로부터 철수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정치
- 1938년 10월 17일 평양 학교 폐쇄에 들어간 비용의 지불
- 1938년 10월 17일 (선교부 규칙) 제7조(Class VII)를 위해서 제8조(Class VIII)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 1938년 10월 19일 재단법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S.U.M.C)에 관하여
- 1938년 10월 19일 1941년 3월 31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S.U.M.C)와 연희전문학교(C.C.C)로부터의 철수
- 1938년 10월 19일 선천 남학교(신성학교)의 매각
- 1939년 1월 16일 선천 여학교(보성여학교)의 매각
- 1939년 1월 16일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한국인에게 경영권을 넘기자는 제안에 관하여
- 1939년 1월 16일 서울 여학교의 현재의 지출(1937~1938)을 보상하기 위한 지불
- 1939년 1월 16일 위원회의 회계가 교육 전반에서 철수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지불 하기 위해서 계산한 금액 총액
- 1939년 1월 16일 대구학교(계성)에서 철수하기 위한 비용에 관하여
- 1939년 6월 12일 사적인 용도로 평양의 건물들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한 거절
- 1939년 6월 12일 선교부에 신학교 사업을 한국장로회 총회로 이관하기 위한 요청 언급
- 1939년 6월 12일 서울의 (정신)여학교를 한국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1939년 1월 16일 조치를 확인
- 1939년 6월 12일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nference)를 소집할 것
- 1939년 7월 5일 학교를 폐쇄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금마련
- 1939년 7월 12일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nference)의 시간, 인력
- 1939년 9월 18일 1939년 6월 12일과 7월 12일에 행한 투표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연기함
- 1939년 9월 18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S.U.M.C)와 연희전문학교(C.C.C)로부터의 철수를 번복 했던 조치에 관해서, 1941년 3월 31일 철수
- 1939년 9월 18일 서울 여학교를 교회와 관련된 집단에게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 1939년 11월 20일 서울 여학교에 관한 1939년 9월 18일의 조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투표함

1939년 12월 18일	세브란스 병원에 사역자들을 할당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1940년 2월 19일	서울 여학교의 양도에 관한 조건들
1940년 3월 18일	서울 여학교 양도 계약이 승인됨
1940년 5월 20일	이사회와 협의하여 선교부의 3명의 구성원 지명을 승인함
1940년 5월 20일	1939년 7월 12일의 조치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투표

5) 1940년 10월 3일 조선 경성의 한국감리교회 감독 정춘수가 만들고 한국감리교의 이사회에서 채택된 선언문

민간인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정신과 조선과 일본의 융합정책(내선 일체)을 깨닫는 것은 긴급하고 적절한 일입니다 : 따라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이사회는 이렇게 하여 아래의 취지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을 실천수범하여 행할 것입니다.

기독교조선감리회 혁신조항

I. 사상선도

1. 신동아 건설과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시킨다.
2. 기독교의 일가주의가 팔괘일우(八紘一宇)에 의하여 구현되어야 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주의, 팔괘일우 혹은 보편 가족의 사상, 이것은 2,600년 전에 제국을 건설한 신무 천황(Jimmu Tenno, 神武天皇)의 이야기라고 한다)
3. 충군애국의 정신은 기독교의 희생주의와 일치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4. 우리 제국 국체에 반(反)하는 민주주의를 금단(禁斷)한다.
5. 이기주의화된 개인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6. 약육강식화된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7. 폭약무도한 공산주의 사상을 근절한다.

II. 교학쇄신

1. 국학(國學) 보급 진흥을 도모한다.
 - (a) 신학교에서
 - (b) 대학교와 전문학교에서



- (c) 수신과목을 통해서 중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2. 군사 훈련

- (a) 신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할 것이다.
- (b) 이미 대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가르쳐 왔지만 새롭게 강조할 것이다.

3. 신학교육

신학교육은 복음(그리스도의 훈시와 시범)을 본질로 하고 유태의 역사와 서양문화의 진화과정에서 몰래 들어온 이교사상 및 관습을 분리시켜 동양성현의 유혼과 철학으로 이를 천명한다.

III. 사회교육

1. 황도선양에 노력한다. 이것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행해질 것이다.

- (a) 신사 참배에 참여함으로써
- (b) 교회기구 안에서
- (c) 인쇄 매체를 통해서
- (d) 강의를 행함으로(강연회)
- (e) 집단 토론 회의에 의해서(좌담회)
- (f) 성서공부 교실에서(성서강의회)
- (g) 특별전도회에서
- (h) 개인전도 및 기타 기회에서

2.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반공), 국방 :

- (a) 국민정신총동원연맹(the Union of National Spiritual Mobilization Movement)을 통해서
- (b) 각 개교회 애국반에서

IV. 군사 후원

- 1. 신도로 하여금 지원병에 될 수 있는 한 다수 응모하게 한다.
- 2. 신도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존중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 3. 신도들로 하여금 첩보행위의 멸절을 기하게 한다.

V. 기관통제

- 1. 신도로 하여금 지원병에 될 수 있는 한 다수 응모하게 한다.
- 2. 신도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존중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 3. 신도들로 하여금 첩보행위의 멸절을 기하게 한다.

제5 기관통제

1. 기독교조선감리회와 일본메소디스트교회의 합동을 실현할 것(단, 합동위원의 보고는 별지와 같다).
2. 조선감리교회 남녀전도사업 및 미국감리교회와 연락을 가지는 여러 기관은 재정의 독립을 도모할 것.
3. 교회 및 교회내 기관에서 외국인 선교사는 모든 지도적 대표적 지위를 피할 것.
4. 감리교회 신학교의 혁신을 단행할 것.
5. 선교부와 공동연락을 위해 조직된 중앙협의회는 해산할 것(단, 선교사회에 대한 교섭위원 5인을 두고 감독은 그 일원으로 할 것).
6. 이상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무위원 약간 명을 두고 감독은 이를 선임한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

1940년 11월 10일 조선의 일간 신문으로부터 비공식적인 번역 12-33

총회의 상치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됨—11월

1. 지도원리
국제에 본의에 기초하여 국책에 순응하고, 과거 구미의존의 사념(邪念)을 금절(禁絶)하고 일본적 기독교의 순화 갱정에 노력하는 동시에 교도로 하여금 각각 그 직역에서 멸사봉공의 성의를 받들어 협심육력(協心戮力), 동아 신질서의 건설에 용왕매진하기를 기한다.
2. 강령
 - 1) 우리는 과거의 구미의존주의로부터 벗어나 순정 일본기독교의 확립을 기한다.
 - 2) 우리는 외국 선교사가 경영하는 교육, 성경 기타 모든 기관을 점차 접수하고 이의 재정적 자립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후퇴를 기한다.
 - 3) 우리는 과거 민주주의적 교단의 헌장·의식·포교 기타 모든 기구의 일대 혁신을 기한다.
3. 실천방책
 - 1) 국체명징의 철저
 - A. 교도는 일반 민중과 마찬가지로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사참배를 실행할 것.
 - B. 기독교계 여러 학교 직원 및 생도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실행할 것.
 - C. 교회당마다 국기(일장기)게양탑을 설치하고 또 교도는 각각 집에 국기를 갖추어두며, 축제 일 기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할 것.
 - 2) 국가적 행사의 실시
 - A. 궁성요배의 여행(勵行)

B. 4대절 기타 이유 있는 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국가를 봉창할 것.

C. 황국신민서사의 제창

4. 기구 개혁

- 1) 재단법인인 중앙기구를 설립하고 각종 사업의 통일 강화를 도모할 것.
- 2) 총회장 이하 각 수뇌부의 직제를 개정할 것.
- 3) 중앙 기관의 구성원 자격은 제국신민으로 할 것.
- 4) 포교자 자격은 총회에서 면허할 것.
5. 헌법·교리·교법 등 개정위원회의 설치
 - 1) 제29회 장로회 총회의 결의에 기초하여 설치된 헌법개정위원회의 강화를 도모하고 개정 헌법의 초안 작성을 촉진할 것.
 - 2) 교리·교법·의식 기타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하여 민주주의적 색채를 배제하고 순정 일본적 기독교가 되도록 할 것.
 - 3) 찬미가 기타 모든 기독교 관계 서적 출판물의 검토를 하여 국체에 배반되는 자구를 개정할 것.

6. 시설사항

- 1) 교역자의 재교육 기관 설립
목사·장로 기타 교역자를 때때로 소집하여 국체명징, 신사참배, 시국인식, 국민총력운동 참가, 방공방첩, 기타 일본정신 함양에 노력할 것.
- 2)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발행
현행 기관지 내용을 정비하는 외에 모든 출판물을 통하여 국체관념의 파악과 시국인식을 철저하게 하도록 적극적 활동을 개시할 것.

7. 기관 회수 운동

- 1) 교육·의료·사회, 기타 제반 사업을 회수하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선교사를 철퇴하게 할 것.
- 2) 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발행되는 성서·찬미가, 기타 각종 종교서적 출판물의 저작 발행권을 일체 회수할 것.

8. 재정 자립

총래 전도본부 또는 개인으로부터 받았던 일체의 재정적 원조를 사절하고, 자주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회수 기관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공고한 재단을 확립하기에 노력할 것.

9. 일본기독교와 연계

내지(일본기독교)와 연계를 한층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교역자 양성기관, 교수의 인사 교류, 기타 위원을 교환하고 양자가 제휴하여 신동아 건설에 즉응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에 매진할 것.

12월 23일 월요일 조간

버지니아, 리치몬드-남부 침례교의 해외 선교 정기 간행물인 『임무(the Commission)』의 1월호에 의



하면, 그것은 독자들에게 오늘 전달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그들의 통제권을 한국에 있는 교회 전반에까지 확대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임무(the Commission)』에 실린 글은 조선의 감리교 교회에서 10월 2일 발행된 “혁신 선언(Renovation Manifesto)”의 발췌문인데, 우리는 그것 사본 하나를 한국에서 몰래 빼내어서 미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언은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유대이즘을 비난하고, 신사 참배를 고양시키고 기독교인들이 이교적인 동양 철학에 통합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신학교와 다른 학교들에서 군사 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일본 정부는 이미 10월 17일 일본에서 교회 연합을 억지로 강요하여, 1941년 3월 31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했었으며, 그리고 한국에서의 개신교를 손아귀 안에 쥐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자들은 다음에는 그들이 점령한 중국 일부에서 자유로운 기독교를 없애 버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완역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7) 감리교 이사회에 의해 1940년 10월 2일에 발표된 혁신성명

A. 사상선도

1. 우리는 신동아 건설과 내선일체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시킨다.
2. 우리는 기독교의 일가주의가 팔굉일우에 의하여 구현되어야 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3. 우리는 충군애국의 정신은 기독교의 희생주의와 일치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킨다.
4. 우리는 우리 제국 국체에 반(反)하는 민주주의를 금단(禁斷)한다.
5. 우리는 이기주의화된 개인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6. 우리는 약육강식화된 자유주의를 철저히 배격한다.
7. 우리는 폭약무도한 공산주의 사상을 근절한다.

B. 기관통제

1. 우리는 교회 및 교회내 기관에서 외국인 선교사는 모든 지도적 대표적 지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 우리는 남녀전도사업에 교회와 관련을 가진 모든 기관의 완전한 재정적 독립을 준비할 것이다.
3. 우리는 선교부와 공동연락을 위해 조직된 중앙협의회는 해산할 것이다(단, 선교사회에 대한 교섭위원 5인을 두고 감독은 그 일원으로 한 것은 유지한다).
4. 우리는 감리교회 신학교의 혁신을 단행할 것이다.
5. 우리는 기독교조선감리회와 일본메소디스트교회의 합동을 실현할 것이다.
6. 이상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독은 상무위원 약간 명을 임명할 것이다.





C. 교학쇄신

1. 국가 교육-우리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신학교육 전 교육 과정에서 일본 정신을 함양할 것이다.
2. 군사교련- (a) 신학교에서도 군사 훈련(교련)을 계속 가르쳐야 할 것이다. (b) 모든 중등교육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존의 군사 훈련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신학교육-우리는 신학교육은 복음(기독교의 훈시와 시범)을 본질로 하고 유태의 역사와 서양문화의 진화과정에서 몰래 들어온 이교사상 및 관습을 분리시켜 동양성현의 유혼과 철학으로 이를 천명할 것이다.

D. 사회교육

1. 황도선양 (a) 신사참배 장려 (b) 교회기관지 발간 (c) 인쇄물 출판과 반포 (d) 강연회, 좌담회, 성경공부, 특별전도회, 개인전도
2. 반공 국방. 조선기독교연합회,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통한 활동,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각 개교회 애국반의 활동에 의해,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제국 신민으로서 그들의 임무를 충분히 자각하도록 할 것이다.

E. 군사후원

1. 우리는 신도로 하여금 지원병에 될 수 있는 한 다수 응모하게 할 것이다.
2. 우리는 신도들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존중할 것을 철저히 인식시킬 것이다.
3. 우리는 신도들로 하여금 첩보행위의 멸절을 기하게 할 것이다.

아취볼트 맥밀란(ARCHIBALD M McMILLIAN)
『임무(THE COMMISSION)』 편집장

8) 해외선교부와 조선 문제

존 메케이 목사(Rev. John A. Mackay, D. D.)

조선에 있는 모든 교육 기관의 교사와 학생들이 신도 신사에 참배해야 한다는 1936년 일본 정부의 결정은 장로회 해외선교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루어야 했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냈다.

1936년 가을에 선교부는, 새로운 그 포고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연구한 후에, 선교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을 폐쇄하고, 그리하여 조선에서 일반 교육으로부터 철수할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참배 행위는 기독교의 정신과 성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선교본부의 확고한 확신 때문이었다. 조선 선교부와 전국 교회에





서 일어난 신사 문제에 대한 이후 대립적인 논쟁들 때문에, 그리고 조선에서 교회의 선교 사역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현명하고 결정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선교부는 1940년 9월에 조선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를 소집하였다.

조선 선교부, 선교본부, 실행 요원의 대표들과 다른 성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발전하여, 많은 그룹과 위원회 회합들에서 조선에서의 사역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9월과 10월 동안에 선교본부의 세 번의 전체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10월 21일 선교본부의 월례 회의에서 마침내 한 문서를 승인하였다.

나는 선교본부의 해외 부서 위원회 의장으로서, 그리고 문제의 문서를 기초하기 위해서 임명된 특별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교계와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선교본부의 선언의 현저한 특징들을 요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문제의 문서는 선교본부와 조선 선교부 이외에는 흥미나 관심이 없는 사적이고 행정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인쇄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일반적인 흥미와 관심이 있는 것들이고, 나는 이것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간단명료하게 취급할 것이다. 나는 먼저 현저한 언급들을 인용하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논평을 할 것이다. 관련된 문제들은 네 가지 문제 주위에 중심을 두고 있다.

I. 신학적 문제(Theological Issue)

그 문서에서 세 개의 구분된 문단들이 신사 문제에서 선교본부의 입장을 설명해 준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

“기독교가 조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 특별한 국면이다. 민족주의적인 열정의 영향 하에 있고, 메시아적 운명감에 고무된 어떤 나라들은 그들의 국경 안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에게 그들의 존립을 조건으로, 해외선교부의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는 충성과 대립되는 충성의 상징적 표현을 강요한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세계에 기독교의 주된 경쟁자들이 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선교본부가 인식한 진술이다.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은 다음과 같다. :

“이 문제의 취급에 선교본부는 주요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선교본부가 설립하거나 선교본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나 그 대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내포된 어떠한 의식에도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양심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이유 때문에 선교본부는 조선에서의 교육사업에 모든 공식적 협동적 참여에서 철수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해왔다.”

이것은 선교본부 정책의 포괄적인 표현을 구성하고 있으며, 신사 문제에 선교본부의 태도의 논리적인 결과이다. 그들의 존립의 조건으로 신사참배가 요구되는 모든 학교들로부터 철수하라는 지시가(조선) 선교부에 내려졌다. 어떤 경우에 학교들로부터 즉시 철수하는 방식에 지역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정부 법규들과, 지방적 조건들과 정서, 노회들과의 특별한 관계들이 어떤 경우에 철수 과정을 어





럽게 했다. 그러나 이제 선교본부가 관련을 맺고 있고 지원하는 남아있는 학교들과 대학들에서 최종적인 철수를 할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 세 번째 언급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선교본부는, 계속적으로 세속 정부들에 충성하고 정치적인 일에 본부의 일부나 그 요원들이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다른 기독교 기관들, 특히 조선 교회를 위한 표준에 결코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조선에 있는 기관들에게 공식적인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하는 조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 중에 고려했던 후에 그 같은 참배는 다른 신들과 영혼들을 상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선교본부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다. 선교본부는 기독교 신앙 이해에 충실하여, 1938년 9월 19일에 취한 조치를* 다시 확인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대표들을 인정할 수 없다.”(* 1938년 9월에 취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선교본부는 선교사는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신사 의식들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이해한다.”)

이 문단들 가운데 첫 두 문단은 선교본부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문서 부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세 번째 문단은 선교본부의 입장에 대한 새로운 진술이다. 선교본부는 신도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잘못임을 분명히 하고, 선교부의 선교사들이나 선교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어떤 사람이나 언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기에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서, 선교본부가 같은 양심과 관심으로 신사참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도달한 결론과 다른 결론에 이를지도 모르는 조선이나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기독교 기구들을 지도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교본부는 특별히 강제로든 신념에서든 신사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배교자”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 자신들의 주님에게 그들이 서거나 넘어질 것이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권한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II. 행정적인 문제

1. 선교본부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동정과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조선 선교부에 감사한다.

“선교본부는 그 역사상 조선 선교부가 이룩한 현저한 봉사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선교본부는 조선 선교부가 하려던 계획들의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파괴되고 최근에 그 사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한 (조선) 선교부를 깊이 동정한다. 선교본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에 그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려는 조선 선교부에 충실한 지원을 약속한다.”

조선 선교부는 현대 선교 노력의 연대기에 부러운 봉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조선 선교부는 반세기 조금 넘는 기간에 가장 신도수가 많고 생명력 있는 민족 교회 중의 하나를 탄생시키는 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왔다. 조선 선교부는 그 구성원들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이 시기에 선교 본부와 교회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2. 선교본부는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와 조선에 있는 그 대표들 사이의 회담들이 비정상적인 조건 아래서 수행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안 문제에 관련된 조선에 있는 분파들은 그룹들이 의견을 공식화하고 결정에 이르는 데서 그 나라에서 이전에 가졌던 자유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자유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들과 태도들을 존중하며 진리를 진술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 문서는 또한 몇몇 유능한 총무들의 거의 동시적인 퇴임 때문에 선교본부 자체가 그 역사에서 가장 큰 변천기의 하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3. 어떤 제안들은 또한 선교본부의 규정과 다른 선교부들의 경험에 비추어 그 내부적 조직에 관하여 조선 선교부에 선교 본부에서 제안한다. 우리 장로교 제도 하에서 각 선교부는 자체 조직과 그 자체의 일을 지도하는 일에서 매우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선교본부는 지금 조선 선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체 결정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해 선교부의 주의를 환기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

III. 한국 교회 문제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은 극히 어렵고 비극적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결속과 인내의 필요성에 관하여 선교본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한다. :

“선교본부와 (조선) 선교부는 모든 상황 아래서 조선 장로교회의 전적인 권한과 자치를 인정하는 데 유의해야 하며, 특별히 지금 그 교회가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가장 깊은 기독교적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려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본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본부는 (조선) 선교부가, 요청에 따라 권고하고 격려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봉사를 하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접 전도에 의한 봉사를 하고자 하여 그(한국) 교회와 유익하고 협동적인 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는 조치를 승인할 필요가 있다.”

IV. 영적 문제

그 문서는 선교본부 자체의 성원들, 그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왕국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은 엄격하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그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선교본부의 표현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 본문은 다음 고백과 호소로 끝을 맺는다.

“그것은 분명히 선교본부와 (조선) 선교부에게 중대한 자신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런 때에 함께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 전역에 걸쳐서 기독교 운동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죄악이 우리의 가장 의식적인 태도와 노력에 존재할 수도 있어, 영적 시각을 흐리게 하고 동료 기독교인들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선교본부는 사회적 영적 수련회를 계획하여 본부의 성원들과 직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 왕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려고 한다. 또한 모든 소속 선교부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선교부에 비슷한 수련회가 그들에 의해서 준비되어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오해가 극복되며, 숨겨진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다루어지며 새로





운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고취되어지기를 권고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둠이 뒤덮인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에 걸친 선교 사업의 관리는 그만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나는 진심으로 이 인용들과 논평들이 매우 곤란한 한 문제에 대한 해외선교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에 수행하도록 부과하신 위대한 일을 조선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부분들에서 현재 시간에 알맞게 전적인 상호신뢰로 지금 분발하도록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뉴저지, 프린스턴.

〈출전 :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한국선교문서(신사참배문제 영문 자료집 2)』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회사료관 소장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p.301~556

8. 기타 기독교 관계 친일논설

1) 갈홍기(葛弘基)

(1) 문화, 기독교의 일본화를 논한다(1~4)

(1) 국민총력연맹에서는 만주건국 10주년 축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만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른 일본기독교 총리 토미다 스스무(富田萬)씨를 맞이하여 지난 7일 조선포털에서 내선 기독교 각 파의 대표 수십 명을 초대해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일본화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하다(波田)□장의 인사에 이어 토미다 총리가,

“내지에 비해 조선의 기독교에는 미·영적 색채가 농후합니다. 현재의 국가정세 상, 우리에게는 단호하게 일본적 기독교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각 파가 오래된 전통을 파괴하고 대동 단결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지의 기독교는 우리의 손으로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쪼록 반도의 기독교 각 파도 열렬한 국민적 지원 아래 하루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실제로 반도에 있어서 기독교의 일본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의 일본화가 특히 최근 격렬하게 논의되는 까닭은, 대동아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적 정세가 우리 국민에게 ‘일본화’에 대한 자각과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일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써 주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나아가 그것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양양하기 위해 □□하고 있다. 요즘 일본 내의 모든 존재 혹은 세력—그것이 정치적 경제적인 것이든 혹은 문화적인 것이든—은 이 하나에 집중해 행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기독교의 일본화는 첫째, 기독교의 일본적 자각을 의미하며 둘째, 이러한 본질적 자각을 □한 기독교가 거꾸로 국가를 통해 세계로 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42년 9월 15일)





(2) 외래종교인 기독교가 일본적으로 되려면 기독교에 일본화를 가능하게(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하며, 또 외래적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일본문화가 그만큼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문화는 우리 민족고유의 신도(神道)를 기초로, 중국 인도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왔고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주로 서양문물을 많이 수용해 자신의 것을 □□하고 있다. (바로)여기에 일본 문화의 포용적 전체성과 창(?)조적 □□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문화는 그 독특한 특수성, 부동(不動)의 중심□을 견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맹목적 배타성은 소유하지 않은 채, 다른 것을 자신의 내용으로 포용할 수 있었던 □□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문화는 다른 문화와 배타적 대립관계에 있는 하나의 특수문화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문화를 자신의 내부에 포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가장 고귀한 일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중심에는 우리 황실(皇室)이 있다. 현대와 같은 세계적 대 동란(動亂)기에 우리 일본인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황실을 중심으로 현현되고 있는 팔괘위우(八紘爲宇)의 대 구축(構軸)을 토대로, 혼돈스런 세계문화에 어떤 통일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기독교를 보건대, 기독교의 □□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이면서, 그것이 역사적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위해 반드시 그 지역 혹은 민족의 전통적 피복(被服)으로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의 적응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처음에 그 발상지인 유대적 전통의 외피를, 회람에 건너가서는 그 로고스적 사상형(思想型)을, 로마에서는 그 법률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영에서 볼 수 있는 □□로, 각각 그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9월 16일)



(3) 물론 기독교의 □□가 왜곡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 생명적□□□로서의 기독교적 가치가 발휘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자각적으로 그 의복을 □□한다.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일본적이어야만 한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천문(天文) 18년으로 지금부터 약 401년 전(조선에는 약 백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유교가 약 1661년 불교가 1391년을 경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얼마 안된 외래문화라고 할 밖에 없다. 구미(歐美)-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래 후 날이 갈수록 천박해지는 사실로도 기독교가 일본화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수도 없이 많다. 이것은 토미다 총리의 □□가 없어도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이렇게 기독교는 일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어떠한 부분이 일본적으로 변화해야만 하는 것인가. 개개의 상세한 내용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먼저 다음의 두 가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개혁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시 하의 일본의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해 하나가 되어 부여된 직역(職域)에서 봉공을 다해야 한다. 기독교에는 백 수십에 달하는 다수의 분파와 교파가 □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만도 삼십 여개가 넘는다. 이들 교파의 기원을 보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구미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것이 많다. 이처럼 비기독교적이고 구미적인 교파, 분파를 편애해서 소위 교파주의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분명히 기독교의 소아병자인 바리사이주의자임이 틀림없다. 교회의 기초는 교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다.





그러니 소위 교파합동은 교파적 바리사이주의를 초월해 그리스도 아래 일체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곧 국가에 봉공하는 일이다. (9월 17일)

(4) 둘째, 서양적 특히 미·영적 사고방식을 기독교 신학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최근 기독교의 근본적 사상이 마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논자(論者)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아직 미·영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속히 개혁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것은, 기독교를 의식적으로 일본화 하는 것이 기독교가 일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살아있는 동력이 되려면 기독교의 일본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교와 불교가 일본의 문화적 내용이 되기 위해서 유교는 그 근본이념의 하나인 □□□대의 사상을 폐기하였고, 불교는 ‘정법(正法)을 바로 세워서 국가를 평안케 한다.’를 외치며 “……판독불가……”

돌아보면 종래의 세계는 문자대로 서양적 세계였다. 지금 우리는 점차 서양적 무명(無明)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 시대는 괴벨스의 선전용 말을 빌어본다면, ‘가혹한 세기’이며 ‘힘으로 제도해야 하는 때’이다. 이렇게 □한 시대에 기독교가 국가총력의 일익이 되려면 일본화를 달성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토미다 총리의 내선을 계기로 제기(?)된 조선기독교의 일본화 문제가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9월 18일)

〈출전 : 葛弘基 「文化, 基督教の日本化を論ず」(1~4), 『京城日報』, 1942년 9월 15~18일〉

2) 신흥우(申興雨)

(1) 조선기독교의 국가적 사명

- 1 -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국가는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곧잘 자기 편리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종교라는 것이 국가를 초월한 혹은 국가에 대립한 무엇일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국가로부터의 종교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것으로 국가와 일반 종교도를 이간질하여 그들의 반국가적인 운동에 종교(를 믿는) 대중을 끌어들이려는 간교한 책략에 불과하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표어를 가장 열렬하게 주장해 온 것은 명백히 혁명적인 제정시대의 러시아공산당이였다. 그들은 제정시대의 러시아 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 여러 가지로 종교에 간섭하는 것에 크게 반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일반 종교신도를 반국가적 운동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단 혁명을 달성하여 그들 자신이 국가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그런 표어를 아주 간단히 망각해버렸다. 이번에는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그들 자신의 새로운 국가권력을 동원해 모든 종교를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어떤 소비에트 종교가가 종교는 사적인 것이라는 표어를 주장한다면 아마 현대의 소비에트 권력이 가장 증오하는 트로츠키적인 반역행위로(찍혀) 반드시 엄벌에 처해질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종교정책으로 인해 가장 곤란을 겪는 것은 일반 민중과 종교인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어떠한 것이든, 즉 그것이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혹은 회교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경제나 정치에 좌우되는 현실세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무엇보다 일정한 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일 뿐이다. 환언하면 우리는 관념세계의 종교인이기 이전에 현실세계의 한 국가의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일정한 국가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조건이 되어야 한다.

현실생활에서 국가적 혹은 국민적 의무를 방기하고 대체 어떤 종교생활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마치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빵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 2 -

또한 종교생활과 국가적 생활은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등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서로 대립하고 모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교주 예수도 무엇보다 먼저 ‘나라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동포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최상의 감정이다. 이 감정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국가는 대일본제국이다. 그리고 우리 조선기독교인도 대일본제국의 신민(臣民)이다. 물론 우리가 조선어로 말을 하고 조선옷을 입고 또 수많은 조선적 문화와 전통과 풍습 속에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민중의 행복을 기원하는 향토적 감정을 잠시도 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을 사랑한다는 것은 일본제국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일본제국의 충실한 신민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우리는 종교인이고 조선인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일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의 일본은 단순히 일본인을 위한 일본일 뿐만 아니라, 전 동아를 위한 일본이며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일본을 맹주로 한 동아신질서 건설과정은 무엇보다도 명백히 우리의 이러한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동아 모든 민족의 공존공영을 기조로 한 신동아의 건설이야말로 우리 일본 및 일본국민이 짊어진 영광스러운 임무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특히 이 신동아건설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민족간의 평등과 전 동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상이야말로 신의 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가 일본을 위해 산다는 것은 동아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전 세계를 위해,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신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도가 일본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충실하게 이행해가며 현실세계





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신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황폐하의 충실한 적자(赤子)로서 일본을 사랑하자! 그리고 일본을 사랑하기 위해 제국의 국책에 충실하게 순응, 협력, 매진하자. 이것이 우리 조선기독교도에게 부여된 신의 사명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출전 : 申興雨, 「朝鮮基督教の國家的使命」, 『東洋之光』, 1939년 2월, 73~75쪽〉

3) 양주삼(梁柱三)

(1) 내지 기독교계의 동향 - 내지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조선기독교서회 총무 전 감리교회총리사 양주삼

1. 내지 기독교 출판계

지난 6월 5일에 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 총무 정인과(鄭仁果) 씨와 본서회 편집총무 백낙준(白樂濬) 씨와 동 영업총무 오문환(吳文煥) 씨와 필자 네 사람은 내지 시찰의 길(途)에 올라서 동월 24일에 귀성하였다.

금번 시찰의 목적은 주로 내지 기독교 출판사업 시찰이었으나, 삼천리사의 주문에 의하여 내지 기독교계의 동향과, 조선 기독교계와의 금후 제휴 및 조선 기독교의 장래에 언급하려 한다.

그런데 이번에 내지를 시찰하면서도 절실히 느껴지는 것은 조선 기독교가 내지 기독교에 비해서 양으로는 단연 우세를 점하고 있으나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는 점이 너무도 큰 것이다. 내지 기독교는 8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30만 교도를 포용하고 있으며, 조선은 20년이나 뒤떨어져서 60년 역사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50만이라는 교도를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양으로는 압도적 우세에 있다 하겠으나 조선의 기독교 출판물이란 실로 그 양으로나 질로는 엄청나게 뒤떨어지며 독서열이 전혀 콤파 이하라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내지는 조선보다 20만이라는 수의 교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종의 설교집, 성서주석, 신학서류, 전기, 번역물, 명상록, 종교소설, 종교시집, 아동독물, 기타 제종류의 서적이 막대한 수에 달하겠지만 조선의 기독교 출판계는 빈약하기가 짝이 없다. 이에 있어 우리는 문서 전도의 중대함을 더욱 절감하는 바이다.

2. 내지 기독교계의 동향

내지에서는 지난 6월 24, 25일 양일간 전 일본 프로테스탄트 제 교파가 합동하여 '일본기독교단'을 창





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합동운동이야말로 세계기독교사상에 미증유(106)의 획기적 일대변혁으로서 이 광휘있는 기독교의 신체제의 수립은 바야흐로 세계 기독교에 공헌하는 바가 클 것이라 믿으며, 및 이 위대한 신발족에 경의와 경축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구교(舊敎) 가톨릭파(天主敎), 성공회, 안식교, 3종파는 신교파와 교리 및 의식문제에 있어서 상위(相違)되는 바가 너무 커서 부득이 합동을 못 본 것은 유감된 일이나, 신교파에 속하는 제 교회는 전부 합동되었으며 이제 합동된 교회명과 정교인(洗禮敎人) 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준교인 즉 미세례교인은 약함)

- 일본기독교회(장로파) 62,708
- 성원교회(聖園敎會, 감리파) 46, 199
- 미보교회(美普敎會) 3, 161
- 조합기독교회 34, 172
- 동포교회 3,402
- 복음교회 2,994
- 기독교회 2,663
- 빠푸테스트교회(침례교) 7,200
- 루-터-교회 7, 111
- 성교회(聖敎會) 16,350
- 전도교회 9,532
- 성화교회(聖化敎會) 7,519
- 키요메교회(きよめ敎會) 7,361
- 독립교회와 보급교회 7,998
- 구세단 16,425
- 성결교회 619
- 동경기독교회 2,240
- 일본일치기독교단 875
- 일본성서교회 584
- 기독우회(基督友會) 757
- 일본일요학교협회(단, 교회가 아님).

이상과 같이 신종파소속 제 교회의 합동은 실로 역사적 거보(巨步)라 앓을 수 없다. 이제 신합동교단의 성격과 그 기구를 초록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교단의 성격

신교단은 그 신앙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을 표방한다.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는 「빨





력식」의 교단으로 하였다. 종래 30유여에 분파되어있던 교파가 11부로 통합되어 각각 자치적으로 교무를 행한다.

신교단은 또 회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단체법의 건전상(建前上) 교단 통리자를 두고, 그 統率 하에 교무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통리자는 결코 독재자는 아니다. 교무의 운용은 총히 회의의 결의에 의하기로 되었다.

신교단의 성격으로서 또 하나 들 것은 소위 ‘일본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신 교단은 금회의 합동을 계기로 하여 우리 일본 국토에 발생한 일본국민의 교회로서 출발하려는 것이다.

2) 신교단의 기구

신 교단의 기구는 대체로 종교단체법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본부교구, 교회의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 교단의 통할자인 교단 통리자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선거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교단 통리자 밑에 총무, 국내전도, 국외전도, 교육재무, 부인사업, 후생, 출판의 8국이 있다. 각 국의 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빨력제에 있어서는 각부로부터 대표로써 참여가 선출되며, 참여는 본부기관과 각부와의 연락의 절충에 당하는 자로 필요상 국장과 함께 교무회를 조직한다.

그타 법제, 교사검정, 인사, 기획, 교학, 심판의 6상설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은 상의회에서 선거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교구는 국내에 9교구, 외지에 2교구로 하였으며, 만주와 중화민국과 남양에는 포교구를 두고 전도를 하기로 되었다.

교구회는 교단 규칙상으로 말하면 극히 중대한 역할을 점하고 있다. 교사시험, 안수례와 같은 것도 교구회의 처리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빨력제에 있어서, 교구회의 권한의 대부분은 사실상 각부의 기관에서 집행되는 것이며, 개개의 교회는 대체로 종래의 조직관례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지 교회주관자의 임명수속은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빙제도 참작하여 주관자 후보자를 교회에서 뽑아 교단통리자의 임명을 받도록 되었다. 그리고 교사는 정교사와 교사보의 2종으로 놓여 있는데, 정교사는 안수례를 받은 자, 교사보는 안수례 미료의 자다. 이제 신 교단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108〉

참여는 당분간 각부를 총리하며 이를 대표로 함.

각부는 당분간 각기 종래의 규정에 쫓아 부총회, 부교구회 등을 개최함.

3. 조선기독교의 장래

조선기독교의 장래라 제목은 부쳤으나 별반 특기할 무엇이 없다. 내지 기독교와 조선기독교가 장차 약수하여서 한 교단으로 일하리라는 것이 일반이 가지는 관측이나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안이 양편에 없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한 내선 결합은 쌍방이 요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위선 조선 기독교도 내지의 신 교단 합동실현과 같은 역사적인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인은 조선기독교의 장래를 낙관하는 바이며 영미 등 외국의존을 청산하는 금일에 있어서 자주적인 가장 활발한 신발족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110>

<106-110>

<출전 : 梁柱三 「内地基督教界의 動向—内地를 視察하고 돌아와서, 『三千里』 제13권 제9호, 1941년 9월>

(2) 전열, 제4년의 각오 - 총후는 총무장, 임전무퇴의 결사대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³⁰과 반도의 성장(成長)은 말로나 기록으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역사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싸우는 반도가 총궐기한 역사였다고 하겠다. 대동아전쟁 4년의 감격을 어찌 나 한 개인의 필설로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2천 6백만이 이 성전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을 찾았고 황국에 태어난 신민으로서의 참다운 길을 걸어 나가게 된 것이다. 이 싸움은 곧 전투인 동시에 건설의 성전인 것이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는 반도 민중이 황민(皇民)으로서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조국에 충렬을 다한 새생명을 받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대동아전쟁의 의의가 큰 것인가.

첫째로 나는 반도의 지대한 광영이고 환희이며 의무인 징병제의 감격을 든다. 벌써 반도 청장년은 황군으로서 이 역사의 결전에 용사로 나섰다. 지난날 육군특별지원병의 길이 열리고 학도병으로서의 역사적인 출진이 있었으며 이에 연달아 징병제가 실시된 것이다. 이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대하(大河)의 흐름을 중심으로 총후에 있어서는 증산전(增産戰)에 응징사(應徵士)들이 출진하고 온갖 증산에 심혼을 바치어 싸우는 반도의 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22억 원이라는 저축목표액을 돌파하기에 분전하는가 하면 농촌은 식량전에 농병(農兵)으로서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감격의 사실을 들어 볼 때 대동아전쟁 4년을 마친 반도의 적개심과 전의(戰意)는 2천 6백만의 총력으로 뒤끓고 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

더욱이 이번 특별공격대에 참가한 우리 반도가 나온 종정(松井) 오장 가네하라(金原) 군조, 그리고 하야시 군조……이렇게 만고불멸의 총령이 계속되어 나온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격이 새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의 무훈이 헛되지 않도록 그 뒤를 받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용맹 과감한 우리 황군은 생사를 초월하여 특별공격대원으로 공정대(空挺隊)원으로 나설 그 순간의 결의를 우리는 다 같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 결의 이 감투정신 적을 마실 듯한 그 투혼을 체득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결전은 바야흐로 가열 처창한 속에 성전 제4년을 마친 것이라 1억 총무장을 갖추고 전투배치에서에서 필승으로 돌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고 황국에 바치는 국민된 바 책무의 전부이라 하겠다. 이 4년째의 결전 상을 우리는 눈앞에 그리고 전장에 나선 결의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히 이 싸움에 한 몸 덩어리를 바치는 총후의 특별공격대원이 되고 '공성대'원이 되

30) 태평양전쟁을 일컬음.





어야 할 것이다. 황군장병의 수고는 살을 찢기고 피를 뿌리는 가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후의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기기 위한 한 국민의 연마와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숭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시 생활에 참고 나가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승의 신념을 기르자'(培養必勝之信念)는 것을 전시 생활의 지표로 하고 신조로 하는데서 우리는 이번 전쟁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은 야나하라 씨와 그의 휘호)

〈출전 : 梁柱三, 「戰列 第4年の 覺悟—銃後は 總武裝 臨戰無退의 決死隊로」, 『매일신보』, 1944년 12월 14일〉

(3) 조선의 징병제 실시 발표를 어떻게 느꼈는가

1944년도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되어 반도민중도 국민의 최고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전하는 소식을 듣고 황송한 가운데에서도 천황폐하의 일시동인의 무한한 은덕을 깊이 감사히 받들며, 광영무상한 감격이 가슴속에서 벽차올랐다.

과거 30여 년간 반도민중은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할 목적으로 이날이 도래하기를 애타게 기다려왔으나 정말로 이날이 왔다. 반도청년은 깊이 감격하여 이 時局을 기뻐하며 자신의 양어깨에 짊어지고 왔던 중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한 가운데 대화심(大和心)으로써 일사보국(一死報國)하기를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출전 : 梁柱三, 「朝鮮に徵兵制實施發表を如何に感じたか」, 『內鮮一體』 1942년 6월호, 32쪽〉

4) 오금선(吳兢善)

(1) 시국과 기독교 교육

황기(皇紀) 2600년(1940년)동안 계속해서 황운(皇運)이 융성했던 것은 국사(國史)에도 나타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국가를 발전시킨 중심 추진력이 팔굉일우(八紘一宇)의 황도정신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황민 각자의 활동분야가 어디이든 모두 이 숭고한 정신으로 귀일해야 한다. 여기에 우리 국민성의 특수성이 있으며 우리 국사의 특수성이 있다. 특히 근대에 이르러 점점 이 정신이 내외로 발양되어 그 은택이 이제 세계로 확대되려 하고 있는데, 요 수년래의 성전(聖戰), 나아가 신동아건설이라는 대성업(大聖業)도 이 정신이 발로된 일단에 불과한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모든 생활분야에서 현 시국이 점점 진척되면서 발로될 근본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국민적 특수성을 자각하고 각오를 한층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교육의 기본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교육칙어(教育勅語)가 반포되었는데, 이 칙어의 성지(聖





습)를 배찰(拜察)해보면 여기에는 동양도덕의 정수, 우리의 고유한 도덕관념이 전부 그리고 정연(整然)하게 담겨 있으며 우리 국민교육의 진로가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만고불마(萬古不磨)의 성훈(聖訓)이자 우리 모두 성지를 받들어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본디 교육과 종교는 별개의 것이다. 하지만 상호간에 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여지가 없다면 무슨무슨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독교교육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사회 아니, 기독교교육조차도 왕왕 그 본질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 요점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대담하게 학문과 종교의 구별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하여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며, 종래의 물질편중을 교정하고 정신진작을 주장하며 소위 물질세계를 정신세계로 견인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독교는 종교와 도덕을 적절히 융합해 현실에서 순수한 선행을 수행하고,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자기존재의 의의로 삼았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본질이 망각되고 불순한 가공물이 활개를 치기도 했다. 본질에 대한 통찰 없이 서구인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관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려 했기 때문에 폐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무리부정(無理不正)은 신속히 개혁해야 할 것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재인식해야만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동양에는 동양 고유의 도덕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세계무비(世界無比)의 황도정신이 엄연히 존재한다. 여기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명시되어 있으니 그에 순응하는 교육이어야만 비로소 의의가 있고 또 존재할 수 있다.

현 시국에 즈음하여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정신을 토대로 마땅히 시국인식에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히 요 몇 년간 정신과 물질 두 방면에 관련된 논의가 많았으니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논의를) 반복해도 폐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황국신민으로서의 본분을 확고히 자각하고 현 시국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생활전체를 그것에 순응하도록 교육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즉 황국신민의 서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 시국하의 교육지침이다.

〈출전 : 吳兢善, 「時局と基督教教育」, 『朝鮮』 제303호, 1940년 8월 71~72쪽〉

5) 오문환(吳文煥)

(1) 반도 기독교의 일본적 회전

1) 장산리(長山理)사건

1937년 10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였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도연선(沿線)에는 양손에 국기³¹⁾를 흔들며 용약(勇躍)출정하는 황군을 영송(迎送)하는 남녀노소로 하루 온 종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단체는 국기를 선두에 앞세우고 천지가 울릴 정도로 만세를 외치며 용사의





사기를 북돋아주었고, 애국부인 전원은 진심어린 봉사를 하며 충후의 열성을 보여주었다. 상류계급인 양반도 길가의 노동자도 검은 조선 갓을 쓴 시골노인도 젊은 청년학도도 또한 불교신도는 물론 시천교(侍天敎) 천도교(天道敎)같은 유사종교단체까지 모두 참여해 실로 반도는 인파와 히노마루 일색이었다. 그런데 반도인 기독교도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평남 중화군 중화면 장산리는 조금 산촌이다. 마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기도교도가 살고 있어서 그다지 크지 않은 시골풍의 교회당에서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밤에 정례 참배가 있었다. 같은 달 17일 중화군 동부일대 각 교회임원이 결성한 ‘중화군 제직회(中和郡諸職會)’를 그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경찰서에서도 이를 기회로 그곳에서 시국좌담회를 열어 시국에 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좌담회 처음에 국기경례, 궁성요배(宮城遙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제창이 있었다. 과거 50년간 서구 선교사에게 지도를 받아 여태껏 이러한 국가적 행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각 교회의 임원들은 이런 의식이 교의(敎義)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고민하며) 주저했는데, 끝내 무리 중 30여 명은 이를 거절하였다. 국기에 경례를 한다든가 궁성요배 같은 것은 기독교도가 예배(禮拜)하는 신 이외의 대상에 예를 올리는 것이어서 교의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그 30여 명만의 해석이 아니라 아마 당시 반도 내에 있는 전 기독교도의 해석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한 종교의 교의문제라 해도 또 아무리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고 해도 시국이 중대한 때인지라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킨 30여 명이 전부 중화경찰서에 구속되면서 반도기독교도에게 유명한 장산리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반도기독교의 일본 화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은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실 것이다.

2) 내선 양쪽 교회의 친선방문

장산리사건은 반도에 있는 전 기독교도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국민으로서 국기에 경례를 하는 것이 과연 교의에 반하는 것이냐, 또는 궁성을 향해 최상의 예를 올리는 것은 반도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사람들에게도 응당 실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며 각계의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특히 당시 평남경찰부장 세토 미치카즈(瀨戶道一)와 고등과장 기타무라 류키치(北村留吉)같은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도기독교의 일본적 회전(일본화)을 도모하고자 도내 기독교 각 계 인사와 접촉하며 거듭 이를 설명한 결과 드디어 기독교 혁신운동의 봉화가 평양에서 타올랐다.

관계당국의 친절한 지도와 혁신운동가들의 힘찬 활동으로 이 운동은 착착 좋은 결과를 거두어 과거 50년간 견지해 온 구미의존의 미몽으로부터 벗어났다. 파죽지세로 다음 해 4월 1일에는 내선교역자(內鮮敎役者) 친목회가 결성되고, 같은 달 17일 부활절에는 이 모임의 주최로 내선교회직원 부활절예배가 집행되었으며, 4월 29일 천장절(天長節)³²⁾에는 평양에서 각 교파의 모든 신도 4천여 명이 부내(府內)에 있는 광성중학교 운동장에 모여 장산리 사건 당시 거부했던 국기경례, 궁성요배를 실시하고 그 외에 성수만세(聖壽萬歲)를 고창(高唱)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던 성황을 이루었다.

31) 日の丸旗(히노마루하타).

32) 일본왕의 생일.





5월 24일 반도기독교의 일본화는 우선 내지의 교회를 살펴보는 데 있다는 표어 아래,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내선의 형제가 지금까지 그다지 교섭이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되어 필자는 평남·황해도의 교직원 세 명과 함께 내지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 당시 일반에서는 이장도(壯途)를 찬성하며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비난하고 공격했으며 심하게는 반도의 교회를 내지교회에 팔러 간다는 악평을 해대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일행은 예정대로 도쿄의 각 교회본부를 비롯해 지방의 교회까지 방문하여 인사를 올렸는데 어느 곳에서든 열성적으로 맞아 주어서 내선교회의 교환(交驩)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이 방문에서 친선도모의 사명을 완수한 이외에 국기경례, 궁성요배는 물론 신사참배까지도 기독교 교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교회의 의견을 선물로 갖고 온 것은 특기(特記)할만한 일이다.

이에 대한 답례라고 해야 할지 내지의 일본기독교회 대회의장 도미타 미치루(富田) 목사가 복음신보 주필(主筆) 히다카 젠이치(日高善一), 일본신학교 교수 고지(郷司) 樋爾) 두 목사와 함께 반도내의 관하(管下)교회시찰과 반도장로교회에 인사를 하기 위해 6월 하순 조선에 건너왔다. 부산, 대구, 경성에서도 각종 집회가 있었지만 같은 달 29일부터 7월 2일까지의 평양방문은 더욱 성황을 이루었다. 신막(新幕)역에서 평양에 도착하기까지 각 역에서는 부근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敎役者) 및 임원들이 운집해 환영을 해주었고, 사리원(沙里院)같은 데에서는 300여 명의 남녀회원이 환영기를 선두에 앞세우고 흠뻑 들어와 뜨겁게 환영을 해주었으며, 평양역에서는 조선의 서쪽 삼도(三道)에서 올라 온 250여 명의 교역자가 역귀빈실에서 세 명의 사절(使節)과 뜨겁게 악수를 교환하였고, 역 앞 광장에서는 400여 명의 남녀회원이 환영을 해주었다. 평양, 평서, 안주, 황해 사로회(四老會)연합주최, 평양연합제직회주최, 평양감리교회주최의 각 환영회도 충분히 뜻 깊은 자리였지만, 30일 밤 신사참배문제를 중심으로 산정현(山亭峴)교회당에서 열린 사로회 교역자간담회에서는 더 큰 성과가 있었다. 그 전날 밤 숭실학교 대강당에서 있었던 내선교회 각 파(派) 합동대강연회에는 7천여 명의 대청중이 몰려들어 강당 안은 물론 운동장 구석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보다 앞서 경성에서 결성된 조선기독교연합회나 같은 해 8월 6일 평양에 생긴 평양기독교친목회도 이 운동의 프로펠러가 되어 반도기독교의 일본화운동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3)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극적광경

같은 해 9월 9일에는 반도 및 만주에 36만의 신도를 보유한 반도 내 최대교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제27회 총회가 평양부서문 밖에 위치한 교회당에서 총회 회장 이문규(李文圭) 목사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관하(管下) 각 노회(老會)에서 신사참배는 기독교의 교의에 반하는 일이 아닌 기독교도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참배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결의를 한 곳이 꽤 되는데, 이번의 총회에서는 총회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결의를 해야만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10일 오전 개회처음에 평양로회장 박응률(朴應律) 목사가 긴급동의로써 이 결의안을 제출하자 회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회장이 이 역사적인 결의를 발표하고 이어서 신사참배실행에 대한 긴급동의가 상정되어 총회관내의 각 노회장이 즉시 평양신사에 참배하기로 했다. 지난 장산리사건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중화유내 교회의 목사이자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평양로 회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처리했던 박응을 씨가 신





사참배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은 기이한 인연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뒤에서 반도의 기독교를 조종하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만이 그 자리에서 이 충격적인 결의를 듣고 낭패스러운 나머지 항의를 뜻을 표했는데 그것이 고별사 같은 느낌이 들어 어쩐지 허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반도의 기독교도 구미의 존에서 일본적으로 회전하여 신행(信行)을 완전히 일신해 일본적기독교로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 기회에 1937년부터 1939년까지 각 교회의 국가행사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이를 근거로 과거 3년 동안 반도의 기독교도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38년 12월 26일 평양기독교 친목회 주최로 필자가 조선 서쪽의 세 남도에서 세력이나 재산이 있는 12명의 목사, 장로를 인솔해 북중국에 있는 황군을 위문한 일은 상당히 주목을 받은 일 중의 하나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작년 총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총회연맹을 결성하고 다른 교파에서도 각자의 연맹을 결성하여 정동운동(精動運動)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4) 평양신학교(설립)인가를 받다

폭풍우와 같은 기세로 진척되어가는 반도기독교의 일본화운동이 전 교파로 확산되어 작년 9월 신의 주에서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28회 총회에서는 총회직영 신학교를 새로 평양에 설립하는 일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종래 평양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경영하던 신학교가 있지만 신사참배문제로 일년 이상 휴교 중인데도 곧 개교하게 될 것이라는 역선전(逆宣傳) 때문에 이 일을 실현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었다. 설립위원의 헌신적 노력과 관계당국의 적극적 성원으로 지난 2월 9일 드디어 순조롭게 인가가 나왔다. 설립자대표자로는 기독교혁신운동의 총대장인 이승길(李承吉) 목사, 교장으로는 일찍이 조선 전국에서 명망이 높았던 도쿄대학출신 문학박사 채필근(蔡弼近) 목사, 교원으로는 내지인 전임교수 한 명과 강사 두 명을 필두로 각 계의 권위자를 망라하는 진용이 갖춰졌는데 그 위풍이 실로 대단하다. 이곳이야말로 반도기독교 일본화운동의 최고봉이며,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총본영(總本營)이다. 지난 4월 11일에 평양서문 밖에 있는 교회당에서 천여 명이 참석해 개교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평안남도 지사각하의 고사(告辭)를 비롯해 학무국장각하, 평양부윤, 일본기독교회 대회의장대리의 축사가 있었으며, 국내외 각지에서 천여 통의 축전과 축문을 보내 이 경사스러운 날을 축복했다.

5) 실로 감개무량하다

3년 전 장산리사건이 있었던 당시를 회고하며 지금의 변천을 돌아보니 정말로 감개무량하다. 제 일 반세기를 과거로 하고 제 이 반세기를 맞는 반도의 기독교가 이렇게 훌륭하게 전향하여 재출발하게 된 것은 오로지 신의 뜻이며 신의 섭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내지의 교회는 반도의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내지의 교회도 처음에는 서양 선교사의 제안으로 조선전도를 계획하고 청국(淸國)에 전도를 착수한 일이 있지만, 외부 보다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모든 것을 일본적으로 소화하고 일본적 신학을 설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메이지 30년대(1900년대)의 유명한 신(神)과 불(佛) 두 종교와의 문제, 종교와 교육의 충돌 같은 고비를 넘어 일본적 신학사상을 부흥시키고, 민족적 정신을 발휘해 독립자치를 기초로 헌법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선교사와의 관계를 조정했던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1894년 청일전쟁이 시작되자 도쿄의 기독교 각 파(派)는 기독교도 동지회를 만들어





황군위문사파견, 선언서 발표, 시국강연회 개최 등을 결의하였고, 러일전쟁 때에는 종교가대회가 활약하였으며, 이번 중일전쟁 때도 전쟁발발 2주일 후 일본기독교연맹은 비상시국에 관한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황군위문 사업을 개시하였다.

반도의 기독교도는 결코 신도의 수를 자랑할 요량이 아니라면 산동선교, 만주전도를 자만(自慢)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장산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우리는 내지의 기독교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일본적으로 연구, 소화하여 국가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도 내지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일말의 손색이 없는 재생 반도기독교의 새로운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출전 : 吳文煥 「半島基督教の日本的回轉」, 『總動員』(종교와 精動 특집) 제2권 6호, 26~29쪽〉

6) 윤치호(尹致昊)

(1) 시국과 반도 기독교도의 사명

참사(參事) 윤치호(尹致昊)

조선의 기독교도는 조선민중의 일부분이며 조선민중은 일본국민의 일부로 모두 천황폐하의 적자(赤子)이니 일신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 아래 일본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폐하의 적자인 한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던 종교를 믿는 이상 그 만큼 더 폐하를 받들어 모시고 충의를 다해야만 한다. 이것은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는 자명(自明)한 진리일 것이다.

‘국민은 통치자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듯이 기독교도의 관념 속에는 전혀 국가에 대한 이견(異見)이 없다. 그래서 사변 이래 우리 반도의 기독교도는 충후보국(銃後報國), 종교보국(宗教報國)의 구호 아래 국민으로서 응분의 의무를 다해왔다. 그저 말만이 아닌 실행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사변의 처리, 장기(長期)건설, 신동아재건설을 위해 국민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만 한다. 금후 기독교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의 충성을 한층 강화하고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독교도로서 국가에 더 충성을 바치고 있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도가 일반 국민에게 뒤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국에 대처할 수 있게 더 분발해야만 할 것이다. 간단하기는 하나 반도의 기독교도에게 바라는 바는 이와 같다.

〈출전 : 尹致昊 「時局と半島基督教徒の使命」, 『總動員』(종교와 精動 특집) 제2권 6호, 21쪽〉





7) 정춘수(禾谷春洙)

(1) 기독교와 신체제운동

화곡춘수(禾谷春洙)³³⁾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한문 글방에서 ‘胡馬는 北風口’ ‘越鳥는 巢南枝’라는 글구를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새롭다. 호(胡)나라 말이 다른 지방에 가 있을 때에 북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자기 고향이 생각나서 저절로 울게 되고, 월나라 새가 다른 지방에 가 있으면 자기 고향인 남쪽 가지에 깃 드리는 것이다. 생물 전체에 있어서 기후풍토와 생활습관이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종교, □□, 문학 등이 다 그러하다.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의 도리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민이던지 다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할 것인바 수입하기를 구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기철(基哲)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어렵고 우리의 정조(情操)와 의지에 조화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의 핵심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제도에는 불합리하나마 붙잡고 내려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者間에는 동양적 기독교를 운운함이 벌써 수년 전부터였다.

과거세기 동안 외국 선교□의 보조로 교회 □□을 창설하고 지금까지 □□하여 우리 사회에 신문화를 소개한 □□은 자못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동시에 수시로 부끄럼을 마지않는 바이다.

남을 의뢰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50여 성상(星霜)을 지내온 우리 교회는 본래 동양의 미풍양속을 잊어버리고 조화되지 않는 구미류의 외식(外飾)만 취하기를 일삼고 진정한 기독교(基督)만을 찾기에는 어두웠던 것이다.

이것은 동양의 교화전통을 도외시하고 기독교를 전하려든 선교사들이 주장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난미(曖昧)하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영리(伶俐)치 못하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회는 자립하지 못하고 심□고락(沈□苦樂)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마치 16세기 때에 □馬에서 수많은 교도들의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의연히 일어난 마틴 루터를 잊지 동정(同情)하지 아니하라. 이때가 흡사 그때와 방불하여 마땅히 어떠한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각자의 머리를 섞이던 것이었다.

성전 4주년의 긴 세월을 지내면서 영미인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동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동야의 공영권을 확립하고 일보 나아가 세계의 신질서가 차차로 건설되어가는 이때를 제회(際會)하여 기독교각파에서는 신체제에 순응하여 종래의 고루하던 인습을 타파하고 출선(率先)하여 역할을 다하려 한다. 기독교조선감리회, 조선예수교장로회, 동양선교회, 교세단(敎世團), 그 외에 기독교회, 오순절교회, 성공회 등등 각 종파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에 가맹하여 세포단체로서의 충성을 다하고 내선일체와 종교보국을 다하려 하거니와 나의 관계하는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에서는 재작년 10월 혁신□을 발표하고 작년 3월 총회의 결의로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의 구각(舊殼)을 탈각하고 기독교 조선 감리교

33) 정춘수의 창씨명.





단으로 개신을 단행하여 10만의 교도와 천에 가까운 교회는 신 발족(發足)을 시작하였다.

과거의 구미 의존주의를 청산하고 자립적으로 □연히 걸어 나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선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 혁신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표하는 동시에 이를 실행하는 중에 있거니와 그의 대강을 소개하면(세목 생략),

- 제1. 사상선도
- 제2. 교학쇄신
- 제3. 사회교육
- 제4. 군사후원
- 제5. 오□□통제

등으로 종래의 낭만적인 자유주의를 일소하고 신체제로 가장 기민(機敏)하고 규율적이면서 정연한 교단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교회와 신도들은 교단본부를 중심으로 □絡이 관통하여 임전태세에 적응하게 된 機口는 유사지추(有事之秋)에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정비되었다. 종래 구미에서 오던 약간의 보조를 거절하는 동시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도단에서는 심혈을 경주하여 모든 사업을 확장유신(擴張維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순수한 동양적 기독교 즉 일본의 기독교를 재건하여 전 기능을 발휘하기로 하였다.

태평양 위의 파도는 높을 대로 높아졌고 전고 미증유의 비상시를 당하였으니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희생정신으로 충군애국과 멸사봉공을 다하여 방향을 찾아 국민훈련의 일익(一翼)이 되어 복잡 다단한 시국을 돌파하고 동방의 광휘를 세계에 빛냄이 기독교자(基督者)의 책임이다.

〈출전 : 禾谷春洙, 「基督教과 新體制運動」, 『國民文學』, 1942년 3월호, 73~75쪽〉

8) 채필근(蔡弼近)

(1) 종교와 동양

1. 동양의 종교성

우리가 얼른하면 동양이니 서양이니 구별하여 말하지마는 그 구별이 그다지 단순한 것은 아니다. 대륙지형에 의하여 구별하기도 하고 인종의 차이에 의하여 구별하기도 하고 언어의 계통에 의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쉽고 또 본원적으로 구별한다면 대서양에 주입되는 하천의 유역은 서양이라 하고 대동양 즉 태평양에 주입되는 하천의 유역은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아직 명료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대륙적으로 구별하여 아시아 이동(以東)을 동양이라 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양대주(兩大洲)의 이서(以西)를 서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고구(考究)할 때에 동양사와 서양사를 구별하는 것은 또 이것과 일치하지 못





하는 점이 없지 아니하다. 고대사에 있어서는 바빌론과 파사(波斯)³⁴⁾까지 서양사에 넣는 것이 보통이라 하겠고 근세사에 있어서는 인도와 남양(南洋)군도까지 서양사에 붙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문화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되는 것뿐인즉 정당한 구별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제 종교사를 일별(一瞥)하면서 종교가 동양에서 많이 일어났는지 서양에서 많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게 될 것이다. 유교·도교는 중국에서, 브라만교(婆羅門教)·불교·자나교(者那教)는 인도에서, 조로아스티교·마니교는 페르시아에서, 유대교·기독교는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교(回教)는 아라비아에서 일어났다. 그밖에 라마(喇嘛)교·시크교·바하이교·샤머니즘 등 다 아시아에서 생긴 종교들이다. 종교란 종교의 전부는 다 아시아 대륙에서 발상(發祥)한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기원이 고대의 동방국가에서 있지 아니한 것이 그 무엇인가? ‘빛은 동방에서’라고 말하거니와 물질세계의 태양이 동방에서 떠오르고 정신세계의 태양인 종교도 동방에서 빛을 발한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양문화를 구가(謳歌)하고 서양인 못된 것을 유감으로 여긴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동양문화를 찬미하고 동양인 된 것을 광영으로 여기게 된다.

정치방면으로 볼지라도 동양에서는 고대에 있어서 발정일치제(發政一致制)이었으므로 종교미(宗教味)가 풍부하였다. 인도인의 마누법전이나 바빌론인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유대인의 모세법전이 모두 이 발정일치의 산물임을 잘 알 수 있다. 또 사상방면으로 볼 것이면 더욱 그런 경향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인도철학이나 중국유리는 종교를 떠나서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 법률 등의 생활방면이나 철학유리 등의 사상방면이나 기타 각 방면에 걸쳐 동양인은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는 동양인의 종교성은 서양인의 그것보다 우월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2. 종교의 동양성(東洋性)

동양에 종교성이 풍부한 반면에 종교에는 동양성이 풍부하다고 할만하다. 지리적으로 보나 사상적으로 보나 가장 서양에 가까운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이다. 유대교도 현재의 유대교는 서양문화에 젖은 유대교이요, 기독교도 현재의 기독교는 서양문화의 중심사상이 된 기독교이니만큼 현재의 유대교나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종적(踪跡)을 찾기가 곤란한 일까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시(原始)유대교와 원시(原始)기독교를 연구하여 보면 동양적 특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류의 조상(祖先)을 창조하시어 동방 에덴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생활하게 하셨으며(창세기 208) 그 동산 동편에 거룩들을 두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창세기 3024)

그 후에 유대인이 성막(聖幕)을 지으며 성전을 세울 때에 모두 동방을 향하여 설비한 것은 동방을 고귀하게 본 표징(表徵)이다. 남북(南北) 미주(米洲)를 제하고 서양이라고 칭하는 구주(歐州)에서는 극서(極西)에 위재(位在)한 대영제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 있거니와 동양이라고 칭하는 동주(東洲)에는 극동에 위재한 대일본제국이 그 패권을 잡은 것은 참말 우연한 유사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과거에 있어서 물질문명은 서양이 우수하였거니와 미래에 있어서는 정신문명이 물질문명보다 우위를 점하여야 할 것인 동시에 동양의 정신문명이 전세계를 지배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신앙(信仰)한다.

34) 波斯 : 페르시아.





기독교에서는 천지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 화복(禍福)을 주재(主宰)하시는 유일의 신이 존재하신 것을 신앙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천사장과 천군이 있어 모든 천사와 천군을 영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사도 아래로는 개인을 맡은 천사까지 있고 그 위에는 군현과 국가를 맡은 천사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천계의 지배적 법칙이 제국주의적으로 운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헬라의 개인주의나 게르마니아의 평등제도보다는 판판이다. 고대의 동방국가와 유사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악마의 휘하에도 사귀(邪鬼)와 귀졸(鬼卒)들이 있어 마치 행정의 조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그리고 악마는 최고의 천사장이 모방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이것도 확실히 동양국가의 정치기관의 구성방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낙천관(樂天觀)을 가지는 일이 많거니와 염세관(厭世觀)을 가지는 일도 결코 적지 아니다. 인생관 중에 염세주의가 동양에서만 생겨나고 서양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적으로 고구하면 암만하여도 염세사상의 기원은 인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승니(僧尼)제도와 명상(冥想)·고행(苦行)과 단식(斷食)·염주(念珠) 등은 대부분 인도에서 생긴 것과 같다. 불교의식과 기독교의식 가운데에 유사한 것이 이 밖에도 많은데 그중에는 우연히 유사한 것이 있지만 피차에 영향(影響)된 것도 적지 않다. 기독교 측에서 서교(西敎)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 사도 도마가 인도에 선교한 관계로 기독교의 영향이 불교에 미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나 이것은 암만하여도 대부분 역설이 되기 쉬운 것이다. 불교만 하여도 기독교보다 5세기 전에 성립된 것이지만 불교의 의식이나 그 교의(敎義)의 대부분은 불교이전의 인도교에 이미 있던 것인데 그 영향이 서방에 미치기 용이한 방면으로 보아서도 기독교에는 동양적인 형식과 내용이 없지 아니하다.

3. 현대 기독교의 지나친 서양성(西洋性)

현하(現下)에 우리 동양인은 과거 몇 십년간을 너머 지나치게 서양문명에 도취하여 동양문화를 등한(等閑)히 한 것을 뉘우치지 않으면 아니 될 때를 맞이하였다. 서양각국이 정치로 경제로 학문으로 종교로 세계에 향하여 활보(闊步)를 개시한지 수백 년에 세계가 거의 그들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아시아로 보더라도 토지의 반 이상이 그들의 영토가 되며 금은보석이 그들을 부요(富饒)하게 하며 물산의 대부분이 그들의 상품이 된 것이 아닌가. 그중에 가장 신성한 교육과 종교도 오늘에 와서는 자기네 명예와 이익을 안중에 두는 것이 얼마까지는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직접간접, 유형무형의 압박과 모만(侮慢)³⁵⁾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숭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이라는 것을 절규(絶叫)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직 윤리의 범위가 얼마나 하고 종교의 범위가 얼마나 하고 정치 법률이 어떻게 응용 되는지 학적(學的)으로 연구하기 전에 우리보다 학적으로 우월한 선교사들이 만사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면 산타클로스가 북극에서부터 북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나눠 준다는 북구 미신의 말이라도 기독 교리와 같이 알고 받았다. 부모를 존경하며 조선(祖先)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성서원리에 적당한 것이지만 그네들의 풍속습관에 없는 것인 한 금지까지 하였다. 그밖에도

35) 남을 업신여기고 잘난 체함.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 동양인화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동양미(東洋味)에 풍부한 기독교는 수건(手巾)에 가리우고 만 것이다.

벌써 옛날 일이지마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일본에 들어올 때에 외국종교를 받자거나 말자거나 전란(戰亂)까지 났던 것을 우리가 국사에서 잘 알고 있다. 그때에 불교는 일본 국민정신에 합치(合致)하게 일본화한 후에야 위대한 발전을 본 것이다. 지금에 서양인이 불교를 연구하려면 인도에 가지 아니하고 중국에도 덜 가고 일본에 많이 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이지마는 일본 불교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가진 줄도 알아야 한다. 이제 기독교도 동양에 와서 진정한 성공을 하려하면 동양정신에 합치하도록 국민화한 연후에야 위대한 발전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정신과 종교 신앙에 관하여 한마디 부가하고자 한다. 교도(教徒)들이 흔히 국가와 종교를 대립시켜서 서로 모순도 되고 피차 항쟁도 할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국가와 고대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거니와 현대국가와 현대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안다. 종교는 결코 국민 일반의 것이 아니다. 한 국가 안에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고 불교교인도 있고 기타 무슨 종교 신자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란 것은 그런 자유의 것이 아니다. 특별히 현대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에 절대복종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또 권리이다. 그 이유는 절대 복종한다 하더라도 타율의 의미라는 것보다 자율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에게 국민정신총동원이 필요한 시절에도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지 이례(異例)가 얽혀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본래 동양에서 이러한 기독교를 동양적으로 환원(還元)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도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노니 조선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도들은 처음에는 서양인의 전래한 복음을 받았지마는 이제부터는 본래 동양에서 발생한 기독교를 동양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재래(在來)에 생각하던 것보다 다르다는 견지(見地)에서 이단(異端)시 될지 모르거니와 먼저 자기네가 과거에 생각하고 행하여 온 것이 벌써 이단적이었던 것을 반성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출전 : 蔡弼近, 「宗教와 東洋」, 『青年』 제4호, 1938년 8월 1일, 3~6쪽〉

(2)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 있느냐. 이 문제는 벌써 옛날부터 상당히 논의된 바이다. 히랍(希臘)의 대철인(大哲人) 플라톤의 윤리학을 읽어 보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생관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고려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중점을 둔 것과 같고 또 다시 보면 사회에 귀결점을 둔 것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적 국가는 민본주의의 국가가 아니었고 소수의 현인(賢人)이 치자(治者)가 되어야 하겠다는 귀족적 국가였다. 그 의미는 현인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것도 아니었고 현인이 보통 인민보다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현인은 국민 전체의 선복(善福)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국가를 치리(治理)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





설(學說)에서도 그 국가의 선복은 어떤 개인의 선복보다도 더 존중하고 더 완전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여러 가지의 도덕에는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요 사회적 가치가 있었나니, 곧 도덕이란 것은 사회의 전체적 선복 때문에 이성의 통제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플라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개인이 사회적 책무에 능력을 부여하기는 완전한 하나의 전체 중에 존재한 각 부분의 정제(整齊)적 동등관계의 관념을 합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 동등의 관계는 그 자체가 선(善)이 됨으로써 국가나 개인은 그것을 희망하였으니 그것은 곧 실현되는 공정(公正)이란 덕(德)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러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하였던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전체와 개체와의 관계를 정당하게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공공생활에 합격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전체와 개체와의 정당한 관계를 인식하는 곳에 현대의 불안과 번민(煩悶)을 극복할 기초가 확고하여 질 것이다. 개인주의적 경향에 타락하여 사회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 동시에 단순한 전체주의로써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착오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체에 잡혀서 전체를 망각하지 말 것이요, 또 전체에 얽매어서 개체를 전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여도 안 될 것이다.

개체를 무시하고 전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명료한 반면에 전체를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서는 개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도 확실하다. 필경 전체는 개체로 말미암아 성립되거니와 그 각 개체는 또 전체를 내용으로 하여서만 존재한 것을 재인식하자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자기의 천직(天職)을 충실히 발휘하기에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의 목적과 혼연한 조화를 보전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사회는 진보할 수 없거니와 또 사회라는 기초와 배경이 없이는 개인이 문화적 내지 인격적 의의를 보유할 수가 없다. 한번 더 바꾸어 말하면 사회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천직을 최고한도까지 사회를 위하여 발휘할 수가 있고 개인은 최고 한도까지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말미암아 전체의 표현자(表現者)된 자기를 최고 한도까지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회에 대하여 몇 마디 요점을 말하고자 한다. 사회는 작게 말하면 내 가정도 한 사회요, 씨족도 한 사회일 것이며 크게 말하면 인종도 한 사회요, 전 세계 인류도 한 사회이다. 그러나 현대를 직관(直觀)하고 말한다면, 가정이나 씨족과 같은 것은 너무 편협하고 인종이나 인류와 같은 것은 너무 우월(迂闊)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사회의 대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 여기는 두말 할 것 없이 국가가 대표적 사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국가 위에도 국제연맹과 같은 사회가 있지 아니한가 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완전히 조직된 사회도 아니거니와 지금과 같이 인종평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인(白人)의 절대 우월권을 지키고 있는 기관과 같은 것은 족히 말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파한 우리 제국은 벌써 탈퇴한 것이요, 독일도 뒤따라 탈퇴한 것이다. 좌우간 사회의 대표는 국가라는 것보다도 국가 외에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신동서(舊新東西)의 여러 가지 문화를 발전시킬 만한 완전한 사회가 없는 것이다. 혹 생각하기를 인민 없이는 국가가 성립될 수 없으나 국가가 없어도 인민은 생존할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본질과 인간의 생활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전체가 없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론이 서지 아니하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열국이 대립하여 서로 경쟁하는 판에는 국가가 없이 하루라도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맹호(猛虎)가 왔다 갔다 하고 악귀가





들락날락하는 무서운 곳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이유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가장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국에 대한 우리 신민(臣民)된 자들이 가질 태도이다. 동양에 우리 일본제국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어 오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동양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지역이 되었을 것인가. 중국은 열국에 분할이 되었을 것이오, 우리 반도는 소련의 독니(毒牙)에 씹혔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의 일이다. 그리 되었다면 동양은 저 시베리아(西伯利亞)나 인도(印度)와 같이 되어 아시아 전주(全州)가 아프리카나 호주와 같이 백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기 만한 중국은 서양에만 추파를 보내고 선진자(先進者)인 제국과 협력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의 응징(膺懲)을 면할 수 없는 바이다. 이제부터 중국은 제국으로 말미암아 갱생하고 동양은 제국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여 전 세계 인류는 진정한 평화를 얻고 공존공영(共存共榮)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큰 포부와 큰 이상을 가지고 상하가 협력하고 견인지구(堅引持久)하여 목적을 완성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보자.

(무한삼진(武漢三鎭)³⁶⁾의 완전공략(完全攻略)을 축하하는 날에)

〈출전 : 蔡謨近 「個人과 社會의 關係에 對하여」, 『青年』 제7호, 1938년 11월 1일, 3~5쪽〉

(3) 기독교회의 장래

1. 국가와 종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건대 지금부터 1400년 전에 불교가 백제를 경유하여 내지에 전포(傳布)되기 시작하였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흥(勃興)한 종교이니만큼 외국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옳으나 옳지 않으나 큰 논의의 문제가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쟁란(爭亂)의 이유까지 되라 일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가 종교로서 가치가 있었고 일본인은 종교를 신봉하는데 우합(遇合)한 색질(素質)이 있어, 불교를 일본화하고 일본인이 불교화하여 현금(現今)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상(發祥)하고 지나(支那)에서 발달하여 반도를 경유하여 가지고 내지에 수입되었으나 현금 세계에서 불교를 고구(考究)하라는 학자는 인도나 지나에 가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였으나 일본에 와서 결실을 맺었고 일본인은 처음에 불교를 응어(應誦)하고 혹은 배척하였으나 깊이 고구하고 굳게 신봉한 나마에 피차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기독교가 동양에 전파된 시기는 지나로 보든지 내지로 보든지 반도로 보든지 서양인이 절대적 우세를 가지고 임하는 때였다. 정신적 문명로나 물질적 기계(機械)로나 권위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오는 때이니만큼 처음에는 거의 비판하며 고구할 여지도 없이 주는 대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황국의 급속한 발전은 영구히 서양에 추수(追隨)하며 외국에 의존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이

36) 허베이성(湖北省) 동부의 도시인 우창(武昌)·한구(漢口)·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무한삼진(武漢三鎭)이라 함.





든지 종교이든지 무엇이든지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화하지 아니한 것은 존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도 황국의 한 종교로 존속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발달할 것인가 아닌가. 고구하며 연토(研討)할 대상이 되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작년에 종교 법안이 성립되면서 기독교도 황국신민의 신봉하는 한 종파로 확인함을 받았고 따라서 신체제하에 어떻게 지도할까가 문제화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무한의 생명과 진리를 가진 절대의 종교요. 황국신민은 진정한 종교의 진리를 용납하고 신봉하는 색질(素質)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는 우리는 기독교의 장래를 낙관하고 또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양에서는 우리 일본제국을 맹주로 하여 신질서를 건설하게 되는 금일(今日)에 있어서 이 신체제하에 기독교도 재확인을 받고 재출발을 하여 금후(今後)의 재 활약을 하게 된다. 우리 황국(皇國)은 태양을 국기로 하여 『光은 東方에서』라는 표어(標語)를 표현한다. 여기서 팔굉일우(八宏一宇)의 이상은 착착(着着) 현실이 되는 중이다. 아시아는 본래 희랍어(希臘語)대로 동방(東方)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참말로 아시아를 떠나서는 인생의 생명이 되며 빛이 되는 종교가 발생한 일이 없다. 유교(儒敎), 도교(道敎), 바라문교(婆羅門敎), 불교(佛敎), 기나교(耆那敎),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회회교(回回敎), 시크교, 바하이교가 모두 아시아에서 났다. 기독교도 역시 아시아에서 났다. 기독교가 발상한 유대는 아시아의 서부(西部)에 있어 서양에 가장 가까운 지방이다. 이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서 동양과 서양을 초월한 세계적 종교인 기독교가 일어났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서부 아시아에서 발상하여 거기서 삼백년 동안 기초를 닦아가지고 서방으로 전파되어 로마제국에 들어갔다. 빛은 동방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기독교는 동방으로 가지 아니하고 서방으로 갔다. 로마에서 수백 년 동안 실력을 길러 가지고 또 서방으로 갔다. 갈리아(佛 : 프랑스) 게르마니아(獨 : 독일), 앵글로 색슨(英 : 영국)등의 서방민족에게 확보(擴布)되었다. 다음에는 영불(英佛)등 국가를 기지(基地)로 삼아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인 미국(米國)으로 들어갔다. 미주(米洲)로 들어갔다. 미주에서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삼백년 동안 준비하여 가지고 다시 서방으로 태평양을 건너 동양으로 왔다. 지나로 인도로 일본내지로 전도(傳道)하였다. 그리하여 아시아 서부에서 일어난 기독교는 지구를 거의 일주하여 아시아의 동부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가 동양에서 다시 얼마 동안 새로운 발전(發展), 새로운 준비(準備)를 해가지고 또 서방으로 광포하여 지나로 인도로 파사(派斯)로 유대까지 가야 한다. 이 지구 일주가 다 되는 날은 기독교의 이상인 기독재림(基督再臨)이 될 줄로 나는 신앙(信仰)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과된 큰 임무는 기독교의 본령을 동양적으로 완전히 발휘하여 다시 서방으로 전파할 일이다. 황국은 본시 신국(神國)으로 또 일출처(日出處)의 나라로 영혼의 태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정당(正當)히 해석하고 서방으로 광포시킬 임무를 가진 것이다.

2. 선교사와의 이연(離緣)

과거 수백 년 사이에 서양인이 동양에 와서 광대한 영토를 점유하고 풍부한 물산(物産)을 획득하여 정치적으로 고문(顧問)이 되고 교육적으로 사표(師表)가 되며 경제적으로 주인공이 되며, 종교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특수한 치외법권(治外法權) 아래서 일종의 우월감을 가지고 각 방면에서 자유롭게 활보를 하면서 지나왔다. 그중에 전도자나 교육가나 자선사업가가 동양에 와서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망각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우리 반도와 같이 오랫동안 양이쇄국(攘夷鎖國)의 보수 정책을 잡고 있던 뒤 끝에 들어와서 끼친바 사혜(思惠)가 결코 적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운동(運動)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아니 할 수 없었다. 소극적으로 과거의 미신과 악습을 타파한 점으로 보든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수입시킨 점으로 보든지, 그 실속에 있어서 훌륭한 것이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가는 것이요, 시대는 바뀌는 것이다. 모친이 자녀에게 젓을 먹여도 1~2년에 한하는 것이요, 선생이 도제(徒弟)에게 학예(學藝)를 가르쳐도 십 수 년에 한하는 것이다. 언제까지든지 젓을 먹이며 학예를 가르칠 것이 아니다. 성서(聖書)의 말씀과 같이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반도에서는 이런 심리와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언제까지든지 붙잡고 있고자 하였다. 가령 처음에 와서 학교를 설립하고 설립자가 되며 교장이 되며 교사가 된 것은 거의 의례히 그러할 일이거나 반도인 중에 자기네보다 지식이 앞선 이가 생기고 사정(事情)에 적합한 이가 있는 다음에까지 자기네가 그냥 그 지위를 움켜잡고 있는 것만은 큰 유감이었다.

근년에 와서 어떤 교파(教派)에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여 학교든지 다른 기관이든지 모두 반도인에게 넘기었다. 그러나 어떤 교파의 선교사들은 끝까지 고집하여 가지고 그만 학교를 거의 다 폐지하고 말았다.

심지어 금전을 내면서 사자고 하여도 팔기까지 아니하며 명의(名義)만 넘겨달라고 애걸하여도 거절까지 한 일이었다. 그들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교리(教理)의 위반이나 양심의 비난이 얼마까지 있는지는 모르거니와 거의 감정적으로 변화하여 과거의 은혜가 현금의 반목으로 전일(前日)의 공헌이 금일의 방해로 옮겨져 참말로 전공(前功)이 가석(可惜)하게 되고 심지어 전일의 은혜가 도리어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일까지 없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日)·독(獨)·이(伊), 삼국동맹(三國同盟)과 제국의 남진정책에 대항하여 적성(敵性)을 표시하는 영국과 미국에서 자국인을 동양에서 초환(招還)하게 되는 현금에 와서는 전일의 불행이 도리어 다행으로 생각된다. 만일 서로 저어(齟齬)하게 된 사정(事情)이 없이 애별리고(愛別離苦)를 만난 것 보다는 낫다고 할 수도 있다.

3. 기독교의 동양성(東洋性)

최근에 기독교를 선전하러 동양에 온 선교사들이 거의 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독일의 서양인이었기 때문에 속단(速斷)적으로 기독교를 서양종교로 아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상술(上述)한 바도 있거니와 기독교는 결코 서양종교가 아니요, 차라리 동양종교이다.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자녀더러 부모에게 효경(孝敬)하라고 가르치나 것은 서양적이 아니요, 동양적이었다. 장례(葬禮)를 후하게 한 것이나 조선(祖先)의 분묘(墳墓)를 존중이 여기는 것이나 조선의 유족(遺囑)과 교훈을 기억한 것이 모두 동양적이다. 연소(年少)한 자가 장상(長上)에서 머리를 땅에 대이기까지 꿇배(跪拜)한 것도 서양적이 아니요, 동





양적이었다.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사상이나 종교의 의식이 대부분 동양적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전이 동방을 향한 것이나, 신전의 막리(幕裡)에는 등대(燈臺)가 있고 그 등대에는 항상 성화(聖火)를 켜 둔 것은 순전한 동양적의 것이었다.

이와 같이 동양성이 풍부한 종교가 왜 동양에도 먼저 오지 아니하고 서양에도 먼저 갔는가는 한 가지 큰 문제였다. 물론, 기독교가 발생할 때에 그 동편(東便)에 파사(派斯)제국과 흉노(匈奴), 만족(蠻族)이 가로막혀 기독교가 동방을 뒤로 미루고 서방으로 갔었지만 그 근본적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빛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섭리에 의하여 서진(西進)하게 된 것이다. 도 당시에는 동방국가들은 서방(西方)의 만족(蠻族)에 비하여 진리에 풍부한 종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지나의 한조(漢朝)에는 유교가 있었고, 인도에는 불교가 있어 도덕과 종교가 찬연(燦然)한 시대였다. 구주(歐洲)의 서북(西北)의 만족(蠻族)은 참말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련한 시대였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동진(東進)하지 아니하고 서점(西漸)한 것은 천리(天理) 우합(遇合)한 일이었다.

기독교가 서방으로, 서방으로 전포(傳布)되는 동시에 점차로 서양화하게 된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구주(歐洲)에서 로마제국이나 서북 만족이나 기독교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혹은 의식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기독교가 그들의 풍속습관을 혼용(混用)하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가령 로마인들이 동지(冬至)가 가까운 12월 25일로 태양신의 탄일(誕日)이라 하여 전국적으로 경축하던 명절이 영계(靈界)의 태양이 되시는 기독교의 탄강일(誕降日)로 변한 것이든지 일주간의 7일을 과거에 봉사(奉祀)하던 일월화수목금토의 7신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든지 북구주(北歐州) 민족의 산타클로스 신화라든지 크리스마스 수목(樹木)이나 크리스마스 상자의 풍습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그들에게 기독교에 전래되었다. 그 반면에 기독교의 동양성은 그만 일소(一掃)되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구주 10여세기간의 과거 기독교는 지나치게 동양성을 떠나 서양성만을 발휘하게 되었다.

4. 서양화(西洋化) - 기독교의 동래(東來)

기독교가 서양에 있어서 서양화한 것은 거의 필연의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가 서편(西便)으로 전진하여 지구를 일주하여 다시 동양의 동부에 도달하게 된즉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서양인의 과거 미신이나 재래습관이 기독교에 허용되어 온 것 전부를 기독교자체와 같이 여기게 된 것이다. 산타클로스는 우상같이 꾸며가지고 성극(聖劇)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금요일이나 13 수의 금기와 같은 것도 서양 사람의 하는 그대로 따라갔다. 교회의 의식이나 송가(頌歌)같은 것이나 심지어 악수 인사를 하는 것까지 거의 무비판, 무사고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부모께 효도하며 조선을 기념하며 장상(長上)에게 배례(拜禮)하며 제왕(帝王)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서에 배치(背馳)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적합한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서양인의 풍습과 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까닭으로써 기독교에 모순되는 것인 줄로까지 알았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들이 정치와 도덕과 종교의 한계와 분야를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마치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국가의 정치율법이 되고 사회의 윤리도덕이 되고 종교의 교리의식이 되어 아무 분야가 없이 그저 혼화(混和)되어 있었던 것과 같았





던 것이다. 가령 실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의 십성명(十誠命 : 십계명)에는 현대적으로 본다면 국가의 율법도 있고 사회의 도덕도 있고 종교의 신조(信條)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재세(在世)시대에 와서는 벌써 법률, 도덕, 종교는 분사(分事)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시며 부모께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명(誠命)과 율법의 대강령(大綱領)은 사랑이라 하시고 상애(相愛)를 새로운 성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 후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모두 다 사랑은 성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명언(明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복음을 믿노라 하는 신자라도 구약율법 아래에 매와 영자(影子) 때문에 본체를 파악(把握)하지 못하고 예표(豫表) 때문에 응험(應驗)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유대인과 같이 얼굴에 수건(首巾)을 가리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이 반도에 와서 진정한 행복을 가르치면서 거기다가 너머 상고(上古)의 율례(律例)사상을 첨가하였다는 말이다.

5. 기독교의 동양적 환원(還元)

기독교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사이에서 발상하여 동양과 서양을 초월한 세계적 종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0여세기를 서양에서 신봉된 기독교가 동양적인 교리와 의례를 엄폐(掩蔽)하고 지나치게 서양화하였던 것은 이미 여러 번 명언(明言)한바 이다.

그렇게 된 그대로 동양에 전래되어 우리 반도에서는 5~60여년 이래로 그것을 추수(追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정법(政法)과 도덕과 종교의 분야를 구별하고 더욱이 동양은 동양인의 동양으로 신질서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외적 자전(刺戟)과 내적 각성(覺醒)이 반도의 신자들로 하여금 종교적, 신체제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 현금의 기독교, 각 파가 합당한 준비를 하며 새로운 헌장(憲章)을 제정하며 신학교와 성서학원을 자력으로 설립하는 등 새로운 활약을 개시하였다. 신자가 아닌 외부에서 이것을 제 3자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도의 현재 동향은 외부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같이 볼지 모르거니와 기독교, 내부에서 이것을 볼 때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선진자(先進者)로 말미암아 이미 맹(萌)口되고 발육(發育)되고 있던 사실이 이 좋은 기회에 실현되는 데서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선견자(先見者)나 예언자가 아닌 한 10년, 20년 후의 장래를 역도(逆觀)할 수도 없고 단언할 수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10년만 지나면 반도의 기독교회는 내지의 교회와 연락을 취하여 황국에 적합한 완전한 종교로 발전될 것이다. 반도에 있어서 혹 양적으로 현금보다 몇 배나 되리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질적으로 보아서 펍 진화(進化), 선화(善化), 미화(美化), 성화(聖化)할 것을 나는 기뻐한다. 성서의 원리에 의하여 사상으로든지 습속(習俗)으로든지 기독교에 풍부한 동양적 색채를 잘 발휘하고 도 성서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동양재래의 순정(純正)한 사상과 미풍양속을 잘 준수(遵守)하게 할 것이다.

현재에 반도의 기독교회는 혼상례(婚喪禮)를 보든지 심지어 친우를 만날 때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든지 우스운 서양식이 많다. 진정한 서양식도 못되고 종래의 고전 식은 다 없어지고 참으로 우스운 서양식뿐이다. 그렇던 나마에 급하게 시국에 맞는 기독교의 신질서를 건설하여 보려고 하는 현상에 있어서는 얼마만치 혼란한 감이 없지 아니하다. 이 과도기, 전향기(轉向期)에 있어서 얼마 동안 곤란한 방면



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얼마만 지나면 기독교는 내적 풍부한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아 황국에 맞고 시대에 맞는 도정(道程)을 차차 건보(健步)를 내어드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진로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노력이다.

〈출전 : 蔡弼近 「基督敎會의 將來」, 『朝光』 제7권 제1호, 1941년 1월, 134~143쪽〉

Ⅱ. 천주교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XIV





1. 경성교구연맹의 설립과 활동

1)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 결성

천주교회 경성교구에서는 이미 작년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가맹한 이래 각 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여 오던 바 이번에는 그 사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금 5월 14일 조신신부피정이 끝나는 날 오후 4시에 시내유지남녀교우가 신부일등과 함께 중현 계성소학교 강당에 모인 중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 연맹의 결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조선연맹총재대리 전전(前田)소장, 경성부윤, 김석원 소좌 기타 내빈이 참석하였고 결성식이 끝난 후 북지에서 분투하던 김석원 소좌의 시국강연이 있어서 일반에게 시국에 대한 깊은 인식을 주었다고 한다.

천주교경성교구연맹역원

이사장 : 원주교 각하

이 사 : 감목대리 김 신부, 약현 요셉 김 신부, 바오로 신 신부, 바오로 노신부¹⁾, 흑천(黑川)신부

간 사 : 장면, 암곡이랑(岩谷二郎), 박병래, 조종국, 김산후, 정남규, 박대영

〈출전 : 「국민정신총동원경성교구연맹 결성」, 『京郷陳誌』 제33권 제902호, 1939년 5월 28일, 235~236쪽〉

2)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새 역원과 제1회 역원회

천주교경성교구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중현 대강당에서 황기 2600년 봉축식과 아울러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을 결성하였음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당시 새로 선정된 역원은 이사장 바오로 노 신부·이사 감목 대리 김 신부·요셉 김 신부·바오로 신 신부·베드루 구로가와신부·요셉 오 신부·금구장신부와 간사, 내선인 유지교우 10인으로서 지난 11월 23일 역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여 각 지방 교회에 통첩 하였다.

1. 성탄 침례 안으로 각 지방 교회에 연맹을 조직할 것, 성탄 때는 시국에 의하여 외부적 축하행사를 중지하고 시국에 관한 강연회나 영화회를 주최함이 좋음. 매월 제1주일을 교회 애국일로정하여 애국일예식을 행하고 신사참배를 행할 것, 국민서사를 일반에게 보급 인식시킬 것, 본 연맹 신규약 중 매월 행사록을 신도에게 인식시킬 것, 매월 각 지방 교회연맹의 행사를 본 연맹에 보고케 할 것-

〈출전 :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새역원과 제1회 역원회」, 『京郷陳誌』 제35권 제929호, 1940년 12월 12일, 304~305쪽〉

1) 노기남.



3)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총회 개최에 관한 건

1940년 11월 14일, 경기도 경찰부장

관하 경성부 명치정(明治町) 이정목(二丁目)에 위치한 수□연맹에서는 이번 달 10일 오전 11시부터 명치정 천주교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출석자 400명이 □각□ 참석하고, 미야마 □이치(三山口一)신부가 총회를 선언한 후, 본 연맹은 신체제에 의거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연맹의 기구를 개혁하니 신도 여러분은 더욱 더 새로운 각오로써 국책수행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는 식사(式辭)를 했다. 이어서 1939년 6월 연맹에 가입한 이래의 모든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오카모토 □지(岡本□治)신부가 별지(別紙)선언을 낭독했는데 일동이 박수로써 찬성의 뜻을 표했다. 오후 6시 5분 해산했다.

〈별지〉

선언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 팔굉일우의 황(口)를 크게 넓히는 것은 우리 제국의 부동의 국시(國是)이다. 바야흐로 성전(聖戰)이 4년이 다 되어가고 시국은 세계적 일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독·이 세 나라가 연맹을 맺고 제국은 특별히 결심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보와 세계신질서 건설에 매진하려는 참이다.

이에 우리 천주교신도 일동은 더욱더 단결을 공고히 하여 국민으로서 총력을 양양하고 집결해 신체제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인고할 각오를 굳게 다져서 난국을 극복하고, 각자의 직역(職域)에서 봉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완수해 성려(聖慮)를 편안히 모실 것을 맹세한다.

1940년 11월 10일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출전 : 「國民總力天主教京城教區聯盟總會開催仁關する件」(京高秘 제2980호), 1940년 11월, 14일, 『思想二關スル新聞(14)』〉

4) 경성에 시국강습회

국민총력경성교구연맹에서는 관내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시국을 더욱 잘 깨닫고 국민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실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적 입장에 있는 인물들을 충실히 총망라하여 시국강습을 시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난 달 28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 동안 포교지 시국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거니와 경성교구 평양교구 춘천교구 모든 방□ 신부와 각 지방대표 신자 포함 140명이 참가하였는데 개강식에는 천안(川岸) 조선연맹총장 각하의 훈사가 있었고 폐강식 겸 경

성교구연맹총회에는 금천(金川) 매일신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개강식 당일 후에는 일동이 교외에 있는 지원병 훈련소를 견학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다.

〈출전 : 「경성에 시국강습회」, 『京鄕雜誌』 제36권 제946호, 1942년 5월 15일 38쪽〉

5) 경성교구연맹 역원연성회

경성교구에서는 현금 시국이 더욱 긴박하여짐에 따라 일반의 각성을 더욱 촉진시킬 목적으로 동교구연맹역원 전부를 망라하여 지난 6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연맹역원연성회를 개최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총장 한상룡(韓相龍)·본부 교학연수 부장 조사생구(鳥飼生駒)·경성제대 교수 송목중언(松木重彦)·군사령부 보도부장 장거상작(長屋上作)·본부 사회과장 영정염종(永井炎鐘) 제씨를 초빙하여 적절한 연성을 받아 더욱 현금 시국에 일심협력하기로 되었다 한다.

〈출전 : 「경성교구연맹역원연성회」, 『京鄕雜誌』 제38권 제971호, 1944년 7월 15일 59쪽〉

2. 경성교구연맹의 전시총동원 협력

1) 국민총력

세계의 정세가 시각으로 긴박하여가는 지금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일억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갈진히 할 시기이므로 본 잡지에도 이제부터 「국민총력」난을 두어 모든 교형자매에게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철저히 깨우쳐 알리는 동시 국책에 응하여 우리의 힘써 행할 바를 두루 알리기로 되었습니다.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본부에서 본 「국민총력」난을 통하여 종종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를 따라 일반적으로 말할 것도 있고 직접 동 연맹원에게 말할 것도 있을 것이라 합니다.

매월 제1주일은 교회 애국일로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에서 매월 제1주일을 교회 애국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애국일을 정한 취지는 우리가 평소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비상시국을 당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구하고 거국일치 국난을 돌파하여 나가는데 합심 진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루를 정하고 그날 특별히 국가를 위해 기구하고 국가에 봉사하려는 신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비상시국에 처한 우리 천주



교신자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벌써 수년전부터 정부당국에서도 같은 취지로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날 특별한 애국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정부당국에서 제정한 애국일을 아니 지킬 바가 만무하고 오히려 다른 국민보다 솔선하여 애국일 모든 행사를 실행할 것은 물론이지마는 우리는 다른 국민보다도 특별한 신분으로 즉 천주교신자라는 신분으로 제국의 국민이 되어 다만 일개국민으로서만 천황폐하와 국가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천주교 신자로서도 또한 폐하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폐하와 제국의 엄연 현명한 통치가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천주교회 신자로서 교회의 모든 본분을 안온하게 지켜가고 있었을 지가 의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의 역사와 사실을 보더라도 정권이 확실치 못하고 정치가 문란한 나라일수록 그러한 나라에서 종교는 특히 우리 천주교회는 많은 파란과 처참한 타격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한 국가 안에 있어 종교는 종교로서도 국가의 혜택을 직접 간접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국가 유사지시에는 종교로서도 자기의 신앙과 교리를 따라 국가에 충성을 더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제국에 있어 지나사변(支那事變)²⁾을 완전히 처리하고 한걸음 더 나가 대동아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억 일심으로 만민익찬의 신체제를 강조하는 이때 우리 천주교신자로서 우리는 국가정책에 관여할 바가 없다하고 무둔착주의³⁾로 있다면 이는 잠시라도 용허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교리와 신앙상으로 보아도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은 매월 제1주일을 교회애국일로 정한 것입니다.

애국주일을 위하여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현금 국책수행을 위하여 정부당국에서 명하는 일체 행사는 물론이고, 교회당국으로부터서도 교회행정을 위해서나 시국극복을 위하여 명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 사적 개인적 무슨 불편이 다소 있을지라도 봉사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솔선하여 모든 행사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회 애국주일에 행사로 말하면 특히 이날에 ‘무운장구 기원 미사제’를 거행할 것과 미사전후하여 애국식(연맹상회 : 常會(상회))을 거행할 것과 미사 중 시국에 대한 강론과 미사 후 신궁 혹은 신사참배를 단체로 할 것과 교회 저축조합 저금을 수합 할 것 등 이런 행사들입니다. 여기서 교회 저축조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축조합이라는 것은 저축보국을 위하여 한 단체 한 회사에 속한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개인 명의로 저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매월 각 사람의 저축액을 정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월 개인별로 수집하고 처리하기가 곤란하므로 우리가 저축보국의 정신으로 평소에 근검절약하였다가 매월 애국주일에 이것을 수집하여 교회 명의로 자기 교회 유지 기분을 위하여 저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교회로서 저축보국을 실행하는 일편 각 교우들에게 자기 교회 유지를 자기가 힘쓰는 아름다운 일이 될까 하여 이런 교회 저축조합을 시작한 것입니다.

2) 중일전쟁을 뜻함.

3) 無頓着 : 전혀 무관심함을 뜻함.





1941년 2월 애국주일
국민총력천주교 경성교구연맹이사장

〈출전 : 「국민총력」, 『京郷雜誌』 제35권 제931호, 1941년 2월 15일 39~41쪽〉

2) 군기 헌납운동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에는 각 방면으로 총력운동에 힘써오던 중 일지사변 제4주년을 머지않아 맞이하게 된 이때 국가에 대한 충성을 더 한층 드러내고 저 군기⁴⁾를 헌납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는 금년에 매월 매인 1전씩 헌금할 것 외에 유지의 기부를 접수하기로 각 지방 교회연맹에 통첩하였던 바 각 지방연맹에서는 흔쾌히 이에 찬성하여 이미 헌금접수를 시작하였다는데 장차 어떤 군기를 헌납하게 될지는 헌금의 총액이 이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바 금년 12월분까지를 6월안으로 미리 헌금하기로 되었다한다.

〈출전 : 「군기헌납운동」, 『京郷雜誌』 제35권 제931호, 1941년 2월 15일 42쪽〉

3) 오늘의 시국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시작된 지 이미 3년 10개월이 되었으나 아직도 어느 때 종식될지 예상키 어려운 이때 구주전쟁이 다시 일어나 이미 2년이 지났고 점점 그 전국은 확대되고 격렬하여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이 서로 동맹을 체결하고 중국(支那)에는 새로이 중앙정부가 성립되어 제국과 더불어 동아건설에 보조를 같이하고 있는 중 특히 이번 송강외상의 구주방문을 기회로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 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고 일소중립조약이 체결되어 제국의 큰 이상과 방침의 전도는 더욱 명확하고 심각하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세에 반응하여 국제간 정세는 더욱 복잡하여 집니다. 구체제의 민주국과 신체제의 전체주의국 간에는 더욱 심각한 마찰과 상극이 생기게 되어 현재 아메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그 선봉이 되어 모든 대항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극동정책에 있어서도 제국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고 있는 것도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계는 일대전환기에 봉착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내외정세가 이렇게 다사다난한 시국을 당하여 우리 총후 국민으로서 반드시 가져야할 각오는 전일에 우리정신과 실천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과 실천방법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의 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각오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4) 군용 비행기를 뜻함.





일본에 있어서 대정익찬 신도실천이라던가 조선에 있어서 국민총력연맹이라는 일대 국민운동이 새로이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것은 결국 시국이 점점 중대하게 되어가는 데 따라 일익 국민이 일심일력으로 총력을 발휘하여 국난에 대처하자는 심각한 의사 외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시각으로 변화 되어가는 데 대응하여 우리는 다시 방침을 새로이 하고 기구 조직을 더욱 완비 강화하여 유감없이 사업달성에 최대의 노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까.

1억이라는 다대수의 국민이 동일의 국체의 정신을 가지고 일사 문란이 없도록 훈련을 가하는 동시에 종래의 자유사상과 명리욕망을 찾는 자기본의적 행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대정익찬 신도실천이라는 국가본의의 정신을 가지고 황국신민의 본분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모든 연맹원의 당연한 급무라고 생각하나이다.

1941년 5월 1일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장

〈출전 : 「국민총력-오늘의 시국」, 『京郷雜誌』 제35권 제934호, 1941년 5월 15일 112~113쪽〉

4) 병기헌납기금 응모상황을 보고

금년 시초에 본 교구연맹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병기헌납을 목적하고 전교구연맹원에게 1인 매월 1전씩을 헌금시키기로 결의하고 방금 전 교구적으로 그 실행 중에 있는 터입니다.

지난 5월 18일 각지방교회연맹이사장들이(각지방본당신부들) 본부에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교구연맹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와 장래계획과 기타사항의 결의가 있는 후 병기헌납기금모금 응모상황(5월 18일 현재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발표된 보고를 보면 어떤 지방에서는 많이 노력하여 교우 총수에 대한 표준액이 완납된 지방도 있지만은 어떤 지방에서는 아직 그 표준액에 반액도 수합되지 못한 지방이 또한 많았습니다. 전교구적으로 5월 18일까지 수합된 비례를 보면 총 표준액에 반도 채 수합 되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본시 병기헌납금 수합완료기한이 6월 말일까지로 한 것이 5월 18일 현재에 있어 반이 채 수합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합성적이 좋다고 볼 수 없는 현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 매월 1전 헌금이었던 지방에 한하여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말하면 극히 적은 헌금이라 하겠습니까. 또는 물론 지방마다 극빈한 교우도 있고 성사를 잘 받지 않는 교우도 있을 터인즉 어떻게 전 교우 총수에 대한 표준액을 완납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편 또 생각하면 지방마다 다소 여유가 있는 교우도 있고 열심히 한 교우도 많을 터인즉 일치 단결이 되고 열성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든 지방마다 그 지방교우총수에 대한 표준액을 수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나이다.





병기헌납을 위한 우리의 이번 이 계획은 우리 경성교구연맹으로서 처음 착수한 계획이고 또한 최소 정도의 계획인 만큼 이 계획이 처음 계획대로 성사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교우연맹이 너무도 빈약하다는 것과 일치단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뿐인즉 전교구연맹원은 우리의 미약한 힘이나마 총동원하여 우리의 적은 계획일지라도 실현시키는 동시에 우리 경성교구 6만 3천여 연맹원의 일치단결을 더욱 굳세게 하여 현하 중대한 시국이 요구하는 교화단체가 되고 제국의 국민이 되기로 자각과 결의를 가지시기를 간곡히 바라나이다.

잡지 표지에 5월 10일 까지 병기헌납기금응모 상황을 소개하오니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라나이다.

사변 4주년인 7월 7일은 이제 임박하였나이다. 그동안에 제국의 안태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탄환이 비 오듯 하는 가운데 혹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혹은 아직까지 악전고투하는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어찌 이만한 정성을 아끼려는가!

1941년 5월 27일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이사장

〈출전 : 「국민총력-병기헌납기금응모상황을보고」, 『京郷叢誌』 제35권 제935호, 1941년 6월 15일, 132~133쪽〉

5) 경성교구연맹총회

국민총력경성교구연맹에서는 현하 시국이 점점 더욱 중대하여짐에 따라 모든 연맹원의 분발을 촉진코자 금년 봄 조선 신부 피정을 기회로 지난 5월 17, 18일 양일간 각 지방교회연맹이사장 47인과 각 지방교회 대표 60여 명이 회집하여 협의회와 총회를 열기로 되어 17일 오후 3시에는 일동이 조선신궁에 참배한 다음 주교관 강당에 모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미 시작한 근기헌납운동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실행할 것과 사변 4주년인 7월 7일을 가장 의미 있게 지내는 중 각 지방교회가 일치하여 황군 위문품을 보낼 것 등을 협의하였으며 18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종현 대강당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경성교구연맹 본부역원 각위, 각 지방교회연맹이사장과 대표 각위, 기타 시내 남녀교우연맹원이 만당한 중개회사, 일동경례, 궁성요배국가봉창, 묵도, 경과보고, 식사, 선언문 낭독결의문낭독, 천안(川岸) 조선연맹사무국장 각하(대리) 훈사, 황국시민서사, 우미유까바 봉창 등 순서로 진행한 후 조선연맹 문화부장 시와(矢鍋) 각하의 「시국의 심득(心得)」⁵⁾이란 연제로 한 시간이 넘는 열렬한 강연이 있어서 일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한다.

〈출전 : 「경성교구연맹총회」, 『京郷叢誌』 제35권 제935호, 1941년 6월 15일, 138~139쪽〉

5)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사항.



6) 대동아전쟁의 경위

지난 12월 8일 제국은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속적국가인 영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제국 황군은 도처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루어 생각컨대 이번 전쟁의 책임은 영미양국에 있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본시 제국이 지나사변(支那事變)에 착수한 것은 동양에 영원 평화를 확립하려는 데 있던 것입니다. 즉 우리 동양에서 영미의 지배 압박을 배격하고 동양인의 손으로 동양을 지배 건설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개석 정권은 제국의 진의를 몰라해하고 영미와 부동하여 제국의 이상을 타파하려고 갖은 수단을 써왔습니다.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시작된 지 이미 5년, 이렇게 장기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오로지 영미 역성국가들의 배후책 등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영·미 양국이 그 적성행위를 폭로하여 군비확대 경제 교통단절 등 정책으로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언제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제국은 미국으로 전권특사를 파견하여 여러 가지로 교섭을 하였으나 완악한 미국은 끝까지 제국의 도의를 무시하고 도무지 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러 제국으로서도 더 참는다는 것은 동양영원평화를 위해서만 아니라 제국의 존재와 위신을 보하기 위해서도 용허할 수 없는 일이므로 부득이하여 12월 8일에 항공하게도 대원수 폐하로부터 선전포고의 대조서가 환발되게 되었습니다. 선전포고의 조서가 환발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제국환란은 이미 적군의 주요세력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적진을 협박하여 이미 지난 12월 25일에 영군의 중요 근거지인 향향(香港)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번 전쟁이야말로 우리 제국으로서 아니할 수 없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또는 개선 후 전과를 보아 이미 최후 승리는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정부당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각자 자기 본분을 완전히 함으로 직역봉공 일치단결의 정신을 일층 더 굳게 새겨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천주교신자는 모든 총후국민 의무에 있어서 솔선하여 나가고 타인의 모범이 되기로 노력하기 경요하는 바입니다.

〈출전 : 「국민총력-대동아전쟁의 경위」, 『京郷雜報』 제36권 제942호, 1942년 1월 15일, 1쪽〉

7) 경성에 천주교 결전대회

지난 12월 8일 동양 만년의 앞길을 결정하는 대동아전쟁이 돌발하자 부내 4본당 만 여 명의 교우들도 분연히 일어나 교우결전대회를 열고 정전(征戰) 목적 관철에 일심협력하기로 되었는데 동 대회는 국민총력경성교구연맹의 주최로 18일 주일에 개최되었던 바 오전에는 각 본당에서 전승기원 미사성체를 엄숙히 거행하고 오후 3시에는 4본당 교우들이 총현 대성당으로 모여 전승을 기원하는 장엄한 성체강복식에 참여한 후 연이어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장면선생의 대동아전쟁에 대한 의미심장한 강연을



들어 필승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한 후 연맹기를 선두로 모두 국기를 손에 들고 장사진의 행렬을 지어 남대문통을 지나 조선신궁에 참배함으로써 애국의 충성을 크게 발휘하였다 한다.

〈출전 : 「경성에 천주교 결전대회」, 『京郷陳誌』 제36권 제942호, 1942년 1월 15일, 6쪽〉

8) 대동아전쟁 기구

만민의 구원자이신 천주여. 이제 대동아건설을 목표로 하고 매진하는 우리나라에 강복(降福)하시며 우리나라에서 나신 성인성녀들은 우리 기구를 전달하사 하여금 제 1선에 나선 장병들에게는 무운(武運)이 날로 날로 혁혁하게 하여주시고 총후를 지키는 우리에게는 억조 일심으로 각기 직역봉공에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일사보국(一死報國)하려는 결심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욱 치성케 하시어서 하루라도 속히 대동아 영원한 평화를 확립케 하시고 따라서 세계가 평화한 중에 주의 성명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천주경성모경각3번

(매일 각 성당에서는 미사 끝에 신부 교우들과 다 같이 염하고 각 가정에서는 모든 교우 조과나 만과 끝에 염할 것)

국민총력 천주교경성교구연맹에서는 대동아전쟁이 개시된 이래 각 연맹원의 애국적 충성을 더욱 분발시키고 천주의 풍부한 강복을 일심으로 빌고자 우기 「대동아전쟁기구」문을 반포하는 동시 동 기구문을 공과에 세우기 좋도록 인쇄하여 각 교회에 배부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성당과 모든 공소에서 우기 경문의 합송을 듣게 된 것은 실로 당연한 바로서 일반은 열심히 우기 경문을 염할 것이다.

〈출전 : 「국민총력-대동아전쟁 기구」, 『京郷陳誌』 제36권 제944호, 1942년, 3월 15일, 17쪽〉

9) 반도민중의 각성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시작됨으로부터 대동아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반도 민중이 표시한 애국정성의 결과를 보면 4개년동안 국방현금이 1천 2백만 원이요 비행기 헌납이 77기이러니 한 번 대동아전쟁이 일어나매 그 애국정성은 아연 폭발하듯 하여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작년 12월 8일부터 금년 3월 8일까지 불과 석 달 동안에 현금은 2천백만 원에 달하고 비행기 헌납은 230기를 돌파하고 그 후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반도 민중이 시국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들이 반드시 밟아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것인지 점차 잘 깨달아 간다는 증거로서 실로 다행하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국민 된 자는 누구든지 자기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명백한 진리이요. 국가에서 당





하거나 행하는 일이 클수록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도 그만큼 커지는 것도 변할 수 없는 도리이다. 이런 의무를 실행하여 나감은 국민이 반드시 밟아야 할 길ियो. 국가와 국민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런 도리를 반도 민중이 잘 깨달아 실행하여 나감은 국가의 번영을 꾀하고 그에 따라 반도 민중의 행복을 한 걸음 한 걸음 증진시켜 나감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갈 길을 버리거나 등한히 하고 나서 행복에 도달 할 수는 없다.

자기의 반드시 할 바를 아니하면서 풍부한 결과를 바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욕심ियो, 질서도 없는 혼돈 상태 가운데 헤매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정신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똑똑히 깨닫고 그 깨달은 의무를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갈 길을 굳세게 행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교우들은 일반적으로 의무 관념이 더 낮다 할 수 있는즉 이 애국행진에 있어서 남의 발자취나 따르거나 함으로써 만족하려 들지 말고 다른 민중 앞에 나서서 모든 이의 모범이 되기로 힘쓸 필요가 있다.

〈출전 : 「국민총력-반도민중의 각성」, 『京郷雜誌』 제36권 제945호, 1942년 4월 15일 25쪽〉

10) 사변5주년을 맞이하여

지나사변(支那事變)이 시작된 지도 어언간 5주년이나 되었다. 노교구사건이 돌발하였을 때 황군 측에서는 극력 불확대방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은 뜻대로 아니 되어 결국 일·중 전면적 충돌로 확대되어 해를 거듭하여오다가 드디어 작년 12월에는 대동아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때까지 세상은 황국 일본의 진의를 몰라주었고 제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력을 몰라보았다.

이에 때는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 온 세상은 황국의 진의를 인식해야만 되고 황국의 위력 앞에는 놀란 가슴으로라도 모든 적성 국가는 굴복하게만 되었다. 과연 일지사변이래 북지, 중지, 남지 등 그 광대한 전역에서 4주년이나 넘도록 그만큼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나서도 대동아전쟁이 시작되자 불과 반년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반도, 미얀마 지에서 적군의 그림자까지 없애는 동시 태평양, 인도양을 제압하고 있는 것은 일찍이 인류전쟁의 역사에 볼 수 없는 위대한 사실이다.

이는 위로는 천황폐하의 어능위 하에 황군장병들의 끊는 충성과 충후 국민의 일심협력함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는 사변 5주년을 당하여 실로 감사함을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큰일은 이것으로서 끝난 것은 아니니 우리는 지나간 결과만 보고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기고 나서도 투구 끈을 줄라매라」는 예전 격언은 지금 모든 충후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겨둘 바이니 이미 시작된 큰일의 성패는 과거에 보다는 장래에 있음을 생각하여 비록 제국의 불패 태세가 확립되었을 지라도 이로서 만족하여 방심하지 말고 오로지 성전목적달성에 정신과 힘을 통째로 바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국에서 지휘하는 바에 무언복종 할 것이요, 복종할지라도 마지못하여 하거나 겉으로 하는 체만 하거나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여 나갈지니 특히 이점에 있어서 모든 교우들



은 다른 이의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7월 7일 경성 오카모토 교구장

〈출전 : 「국민총력-사변5주년을 맞이하여」, 『京郷雜誌』 제36권 제948호, 1942년 7월 15일 49쪽〉

11) 징병제 실시 1주년

오는 8월 1일은 반도청년들로 영예로운 군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징병제도가 실시된 제 1주년이다. 이날의 감격을 더 한층 새롭게 하고 징병제의 취지를 더욱 깊이 인식시키는 동시 금일과 같은 난국에 처하여 일사순국의 결의를 더욱 굳세게 가지게 하려 국민총력조선연맹·경기도연맹·경성부연맹, 3연맹의 공동주최로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하여 이날을 의미심장하게 지내기로 되었다.

이날의 행사로는 우선 한 집도 빠지지 말고 국기를 달아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 오전 10시에 각종 연맹대표자들이 조선신궁에 모여 참배하고 오후 7시 반부터는 부민관에서 군국의 저력의 □□□□과 그 가족을 초대하고 강연·음악·무용을 약 3시간 동안 군국일색의 찬란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여러 가지 □□□□ □□를 화려하게 꾸미는 동시에 길거리에서는 이동전람회가 개최될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번 징병제실시 1주년을 맞이할 때 이를 무심히 지내지 말고 그 징병제의 뜻을 더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남자는 누구나 다 한 번 받아야 할 군사훈련을 내지⁶⁾청년만 받고 있었다는 것은 반도에 대하여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지원병훈련소 출신들을 보면 알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그 기개가 씩씩하여지고 몸이 튼튼하여 졌던가. 입소 전에 비해 아주 판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아직까지의 반도 남자들은 받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구석에 묻혀서 늙어가지 않았던가. 이제 대망하여 오던 군문은 반도 인에게도 열려져서 그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반도전체가 경하할 바이며 우선 제 1기로 군문에 들어갈 청년들을 격려할 것이다. 이들은 반도남아의 명예를 위해서도 진충보국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출전 : 「국민총력-징병제실시1주년」, 『京郷雜誌』 제38권 제971호, 1944년 7월 15일 49쪽〉

6) 일본을 뜻함.



Ⅲ. 불교

친일반민족행위관계자료집
XIV





1. 이회광(李晦光)

1) 운동적 맹약(기사)

원흥사(元興寺) 중(僧) 이회광(李晦光)이 수년 전부터 소위 종무원을 설립하여 13도 내의 각 사찰을 조종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백반(百般) 운동(運動)을 하되 여의치 못한지라, 작년 가을경에 동경에 가서 조선 원종의 대표라 자칭하고 조동종(曹洞宗) 종무원에 대하여 원종 종무원의 설립인가를 의뢰할 새 아래와 같은 내약(內約)을 체결하였다더라.

- 一. 조선 전체의 원종 사원 대증은 조동종과 완전히 또 영구히 연합동맹하여 불교를 확장할 것.
- 一.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종무원에 고문을 의뢰할 것.
- 一. 조동종무원은 조선 원종 종무원의 설립인가를 득함에 알선의 노(勞)를 취할 것.
- 一.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종의 포교에 대하여 상당한 편리를 도모할 것.
- 一.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종무원에서 포교사 약간 명을 초빙하여 각 수사(首寺)에 배치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승려의 교육을 촉탁하고 또는 조동종무원이 필요로 인하여 포교사를 파견하는 시는 조선 원종 종무원은 조동종무원의 지정하는 땅(地)의 수사(首寺)나 혹은 사원에 숙사하여 일반 포교 및 청년승려 교육에 종사케 할 것.
- 一. 본 체맹은 쌍방의 의가 불합하면 폐지변경 혹 개정을 위할 것.
- 一. 본 체맹은 기 관할처의 승인을 득한 일로 효력을 발생함

조동종종무원 대표자 홍률설삼(弘律說三) (印)
1910년 10월 6일 조선원종 대표자 이회광(李晦光)(印)

〈출전 : 李晦光, 「運動的 盟約」, 『매일신보』, 1911년 4월 2일〉

2) 조선불교의 각성과 사회사업

해인사 주지 이회광(李晦光)

조선불교의 기원을 소급해 살펴보면, 불교가 전래된 것은 지금보다도 무려 1700여 년이나 앞선 옛날, 저 고구려시대이다. 때문에 불교 전래 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역사상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으니 새삼스럽게 여기서 떠들어댈 필요는 없으나, 특히 신라, 고려 시대의 불교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융성하여 일상의 모든 사물이 불교색채일색이었다. 군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





교에 귀의했는데 현재 각지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고적에서 당시의 전성기를 엿볼 수 있다. 신라, 고려 시대의 문화는 전부 불타(佛陀)의 교리를 토대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기원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운(時運)과 기연(機緣)의 불가사의는 이렇게 왕성했던 불교를 하루아침에 쇠퇴시켰다. 이조(李朝)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승(度僧)¹⁾을 금하고 심하게는 승니(僧尼)의 입성(入城)을 금지하는 폭거까지 자행된다. 그 때문에 오랜 동안 사원(寺院)의 탑 앞에는 초목만 무성하고 늦가을 석원(釋苑)에 불일(佛日)이 저물어가는 형세였다. 그런데 1911년에 사찰령이 발표(發布)됨으로써 조선 전국의 사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6천명 승니의 인권도 회복되어 소위 반도 불교계에 다시 서광이 비추지면서 한국(寒谷)에 다시 봄이 찾아와 마른 나무에 꽃이 피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인간의 권위와 종교의 광휘를 유린당하면서도 불교도는 마음과 힘을 모아 종문(宗門)의 지덕과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조선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며 쉬지 않고 백년대계를 강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고루과문(孤陋寡聞)하며 심산유곡에서 독선생활(獨善生活)을 해서 세상만사에 어두웠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니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

지금의 조선불교는 조선의 문화, 조선인의 생활처럼 퇴폐해 세상에 나와서 국가의 법칙과 사회의 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구제에 뜻을 두고 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았던 석가모니의 성지(聖旨)와는 달리, 오히려 산에 숨어서 퇴영자몰(退嬰自沒)상태에 빠져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시대의 잘못도 제도의 잘못도 아닌 오직 우리 교도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달으면 손바닥 안에 감춰지고 열면 우주를 채우는 불타의 교리는 철학의 근원이며 종교의 진수이기에 마음의 부동, 정(精)의 안정, 육체의 건전, 혹은 지식의 해박 등을 전부 불심으로 구할 수 있다. 문예의 현묘함도 이를 본떠 얻을 수 있으며 과학의 정확함도 이에 준한 것이니 불교야말로 세계문화의 대 지침, 그리고 인류생활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 불교의 현재 상황으로 장래를 논한다면 전도가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까닭에 용맹한 정신으로 떨치고 일어나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여 근본적 개조를 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조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의 공론(公論)도 있기는 하지만, 나는 세계문화를 위해 조선 불교를 산중에서 세상으로 끌어내 사회화하여 민중의 불교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승니의 것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불교를 사회화하고 민중의 불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하는가. 물론 많은 명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조선불교 자체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원래 조선의 불교는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수백 년 동안 산중에 칩복(蟄伏)하면서 보통의 인권조차 빼앗긴 채 허생량사(虛生浪死)의 본보기로, (개중에는)다행히 수양에 정진하여 불조(佛祖)의 성지를 깨달은 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을 제외하고는 한 시대를 교화할 도덕이 부족하고 학식이나 경력(經歷)에서 세상 사람을 지도하거나 민중의 사표(師表)가 될 자격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시대에 적응시키는 사업을 베풀어 국가, 사회에 공헌한 실례(實例)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우리 조선불교도를 일종의 무용지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불교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심도 박약해져 종교의

1) 도승 : ① 사람을 제도하여 중으로 만들. ② 조선시대 관에서 도첩(度牒)을 받은 중.





권위가 실추되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불타교도는 발분망식(發奮忘食)하며 항상 전진의 방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으나, 실상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사찰령이 시행되고 몇 십 년이 지난 오늘, 발전의 흔적, 사업의 결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나 역시 말단 승려, 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할 따름이다. 30년간 본산(本山)의 주지열(住持熱)과 구백말사(九百末寺)를 감수(監守)하는 데 허망하게 세월을 보내며, 불교는 사회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사찰은 민중을 감화해야만 하는 장소인 것을 잊고 이것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며 높고 큰 누각에서 온포안일(溫飽安逸)하게 포복장와(抱腹長臥)만을 일삼고 있는 오늘날, 조선불교계의 6천여 명의 승중(僧衆)은 무슨 염치로 사회에 얼굴을 내밀려고 하는가. 도식유민(徒食遊民)의 소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또한, 어느 산에 있는 어떤 절(寺)이나를 불문하고 주지(住持)의 자리에 있는 자가 불교의 발전이나 사찰의 흥망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사찰의 전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오인하여 시대적인 사업 즉 불교의 발전책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천하를 호령하는 망상과 절대자존(絕對自尊)의 위치만을 꿈꾸며 세도인심(世道人心)을 교화하기는커녕 일반의 꾸지람과 조소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교 자체에 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를 위해서도 실로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조선불교를 사회화하고 사람들을 귀의시키려면 무엇보다 위에 언급한 폐습을 타파하고 승려는 독성자각(獨省自覺)하여 모든 중생을 평등구제(平等救濟)하는데 뜻을 두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천명한 대성불타(大聖佛陀)의 본지(本旨)를 깊이 체득하여 도덕으로 몸을 갖추고 수행을 근본으로 삼아 한 시대를 동화시킬 수 있는 자격을 양성해, 준비귀천을 불문하고 사류입해(四流入海), 동일(同一)해야 한다. 독선적 생활에 뜻을 두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중생과 접촉한다면 새로운 조선불교가 탄생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불교는 보수(保守)에서 해방으로, 협적(狹的)에서 보편(普遍)으로 변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해야 하는 사업이야 물론 많이 있겠지만 내 소견으로는 아래의 것이 긴급하다고 본다.

- (1) 치료원(治療院)
- (2) 교육장려원(教育獎勵院)
- (3) 무료숙박소, 직업소개소, 목욕탕 및 세탁소
- (4) 소작인 교화원(小作人教化院)

이 사업내용과 시설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재 공사를 불문하고 조선각지에 있는 치료기관의 수는 많아야 수요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골은 물론이고 경성에도 특히 빈민굴에는 생활이 어려워 삼순구식(三旬九食),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들이 어떻게 진찰비를 조달하며 치료비를 벌수 있겠는가. 병이 들어도 진료를 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시일을 보내기 때문에 사소한 병도 점차 심해져서 결국은 죽는다. 우리가 무료치료원을 설치하여 이들





을 수용해 밖으로는 육체의 병을 치료해 인간백세의 행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안으로는 망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수련시켜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닫게 만들고 싶다.

교육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인의 상태를 보면 모두 수궁할 것이다. 조선의 아동은 가정에서 대충 교육을 받기 때문에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때문에 주로 일요학교 및 유치원 등을 설립해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종교정신으로 인생의 본위(本位)를 학습시켜 장래 학문에 취미를 갖도록 만들고 싶다. 이러한 한편 보통과 중등 교육기관을 각처에 설립하고 이와 연계해 불교전문 연구과를 만든다면 장래 반도의 정신계에 공헌할 일이 많을 것이다.

또한 교화대상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자와 그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숙박소와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나아가 목욕탕, 세탁소를 만들어 일반의 편의를 도모하고 싶다.

그리고, 소작인 교회는, 각 사찰이 소유한 임야를 개방해 이것을 개척, 보식(補植)하여 잠업 등 기타 생산개발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소작인을 지도해 농사(農事)를 개량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근검저축의 미풍을 양성하고, 그들의 청소년 자녀에게는 보통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해 공존공영의 열매를 얻게 된다면 단지 조선인만의 행복이 아닌 동양평화의 영원한 기초로, 또 조선불교의 계몽책만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물론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다. 원래 조선 사찰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일사일암(一寺一菴)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기본재산은 다 갖고 있다. 현재 조선에 있는 사찰의 소유재산을 대략 계산해보면 전답이 약 200만 두락(斗落)(일 두락은 백오십 평) 임야는 약 4십만 정보(町步)나 되는 거액이다. 만약 이것을 경제인의 수완에 맡겨 정리한다면 세입으로만 이백여 만 원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조선에 산재해 있는 종교계의 각 파(派)중 자력(資力)면에 있어서 우리만한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천만사위(千萬事爲), 사람 탓이지 자력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승려의 손에 맡겨 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당국의 편달과 사회의 여론이 우리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책일 것이다.

조선불교를 산중에서 세상으로 끌어내 사회적인 종교를 만들기 위해 내 소신을 간단히 피력했다.

〈출전 : 李晦光, 「朝鮮佛敎の覺醒と社會事業」, 『朝鮮』, 1921년 6월〉

3) 조선불교운동상 2대 조류의 충돌, 강대련 대 이회광, 조선불교를 일본 임제종에 병합하려는 중대 문제!(기사)

조선의 불교는 일찍이 조선의 문화에 적지 아니한 공헌을 하여왔으며 조선의 문화가 조선의 불교로부터 손목을 잡고 혁혁한 문화를 일으킨 것은 오랜 역사가 밝혀 증명 하는 바이라. 조선의 불교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조선 민족의 퇴폐와 발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여도 과도한 말이 아닐 듯하다. 일찍이





조선의 문화가 찬연하였을 그때에 조선의 불교가 또한 발흥하였으며 스러진 문화의 남은 불꽃을 그리워하던 조선민족의 퇴폐시대에 불교—그것도 또한 산골에 물러나 잠자듯 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넉넉히 조선민족의 신앙은 곧 불교에 몰리어 있었으며 그동안 오래 동안에 조선 민족의 흥망에 따라 일어나던 조선 민중의 정신적의 비애를 불교 그것으로 더불어 한 가지 울고, 한 가지 웃고 하여, 은연중 그 불교에게만 한 정신적인 위안을 받아 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실로 조선의 찬연한 문화에 아름다운 빛을 들여 주던 조선의 「조형미술」, 조선의 ‘조각’은 실로 불교의 (종교적)정신을 한껏 발휘하였나니 그것을 보아도 능히 알겠거니와, 조선민족은 불교에 신앙을 바친 지 이미 오래되었고 불교에 위안을 받아 온지도 또한 오래되어 새로운 성명의 영광이었다.

지금에 조선민족의 머리에 비침을 따라 오래 잠들었던 조선불교에 새로 공공등이 일어나 불교에 대한 집회가 새로이 되고 불교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는 기관이 생기어 조선불교에 부활의 서광이 비치어 조선 민중은 그 아름다운 불교의 진리 아래 따뜻한 위안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근일에 조선의 불교로 하여금 일본 불교에 합병을 하려 한다는 일반 민중의 부르짖는 바가 있어 불교계에 중요한 지위에 있는 모 불교신자에게 그 자세한 사실을 알아본 즉 조선불교계에 중추 지위에 있어 조선 불교로 하여금 생명을 한 가지 하고자 하는(합천 해인사)의 주지 이회광(李晦光) 씨가 지금 30본산 연합사무소 위원장(三十本山聯合事務所委員長) 강대련(姜大蓮) 씨와 더불어 조선의 불교로 하여금 한층 더 발흥을 시키고자 하여 무한한 진력을 하여 오던 중에 피차에 의사 충돌되는 바가 있어서 점점 지내올수록 사이에 한 장벽이 가로막게 된 고로 그들의 개인상의 정의는 여전하다고 하더라도 불교계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조선의 불교로 하여금 발흥하게 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들의 피차에는 한 장벽을 사이에 두고 지내오던 터이라. 그러한 뒤 그 후에 이회광 씨는 조선의 불교를 통일하게 하는 목적으로 조선의 불교는 일본의 불교와 계통이 같다 하여 그는 일찍이 경성에 있는 조동종(曹洞宗)파의 일본 불교와 연락을 얻고자 하여 왕래가 잦았으며 은은한 양방 의론이 자주되었고 뜻하던 바를 물거품에 흘려 보내인 뒤에 그는 오랜 번민(煩悶)과 고통 속에서 오래 머리를 썩이며 오랜 방황을 하다가 제 2회의 계획으로 진종(眞宗)이라는 일본 불교에 또 그와 같은 연락을 맺고자 하는 의미 있는 교섭을 하였으나 마침내 그 또한 패의 탄식을 하게 되어 그는 아주 낙망과 절망의 깊은 함정 속에서 두루 있기를 오래 하면서 생각하여 오던바 조선의 불교를 다시 생각하며 또 한 번 머리를 썩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하다가 이회광 자신과 조선의 불교를 위시하여 행인지 - 불행인지 - 임제종 묘심사파(臨濟宗妙心寺派) 포교사 후등서암(後藤瑞岩)과 피차에 의미 있는 악수가 합의한 웃음 속에 자주 되어 마침내 이회광 자기로 하여금 성공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었나니 그것이 곧 지난봄부터 몸소 그 묘심사에 나아가 의미가 있는 설교를 오륙차한 것이며 그 동안에 백여 명 되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바 신도로 하여금 그 묘심사에 입사하게 한 것이라.

그는 그 뒤에 말하기를 조선 불교의 계통은 임제종이니 마땅히 묘심사파의 임제종과 연락을 맺는 것이 하등의 관계가 있으려 하여 더욱 더욱 힘 있는 활동을 계속하여 소위 암중비약(暗中飛躍)을 하다가 오륙인의 동지를 얻어 일본에 건너가 교토에서 후등서암을 만나 장래의 진행할 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말하고 그 후등서암을 따라서 도쿄에 들어가 문부대신을 방문하여 조선의 불교와 사찰에 대한 자기를





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뜻하는바 사업을 이루어 달라는 뜻을 고한 뒤에 그들은 다시 교토에서 내려 임제종의 모심사파와 두 사이에 모모한 방침은 다시 협의하고 조선 전도의 각 사찰은 일본의 임제종 모심사파에 부속하기로 한 뒤에 조선에 들어온 그 사실에 대하여 일반 민중은 더 한층 분격하여 그들 민중의 부르짖는바 여론이 자못 크게 된 고로 삼십본산 연합사무소의 위원장 강대련씨가 재무부장 이훈성씨와 한 가지 학무국에 종교과장 반정청 씨를 방문하고 위와 같은 이회광의 사실을 말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종교과장의 말은 그것은 결코 되지 못할 일이라, 사찰령이 허락하지 않는 바라 하였으며 더욱이 일찍이 일본 각파의 불교에서 조선 문의 30본산을 넘어다보고 침을 삼킬 때에도 정무총감은 그것을 허락하지 못한 바이라 하며 이회광이 뜻하는 바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러한대 이회광은 뜻하는바 사업을 철저히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종무원'이라는 불교 연합단체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왕직으로 고등관의 서기로 □□문의 대□ 경운궁 안에 약 7천 평의 토지를 27만 5천 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고 우선 2만 원을 먼저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회광은 경상남도의 팔본산을 연하여 그 중부 □의 사업에 후일 하기로 각각 서약을 받았으며 승낙하였다는 뜻으로 도장까지 받았는데 그 종파의 □□을 일본 불교의 □□□□고□라 하기로 하였다더라.

〈출전 : 李晦光, 「朝鮮佛教運動上 二大潮流의 衝突, 姜大蓮 對 李晦光, 朝鮮佛教를 日本臨濟宗에 併合하려 하는 重大問題」, 『朝鮮日報』, 1920년 6월 24일〉

4) 간판은 조선불교총본산, 주지는 일선융화와 정교일치(기사)

아직까지도 혼돈상태에 있는 조선불교계에는 연전에 이회광(李晦光) 일파가 일어나 조선불교 전체를 일본불교의 한 종파인 임제종(臨濟宗)과 병합을 하려던 사실이 있던 후로 그 동안 뒤를 이어 그 같은 기괴한 사건이 종종 있던 중 최근에 이르러서는 매불사건(賣佛事件)으로 면직당한 전 위봉사(威鳳寺) 주지 곽법경(郭法鏡)과 김보운(金寶雲, 一名 사바하, 88), 이회광(李晦光), 김구하(金九河) 등 일파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일본인 정목일랑(正木一郎)과 송진옥(宋鎭玉) 등과 의논하고 소위 조선불교를 개혁한다는 이름 밑에서 일선융화(日鮮融和)를 목적으로 한 소위 종교운동을 또 다시 하려고, 우선 그들의 대표자인 곽법경은 장문의 건백서를 휴대하고 십여일전에 동경으로 건너가 귀족원 의원 와타나베(渡邊) 모(某)와 모 통신사(某通信社) 사장 우좌언태랑(宇佐彦太郎)과 결탁하여 그 건백서를 내각에 까지 제출하려고 와카즈키(若槻) 수상(首相)을 방문하는 등 맹렬히 암중 비약을 하고 있다는데 그 건백서의 내용은 현재 조선불교의 모든 기관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이 경성 안에 조선불교총본산을 건설하고 그 본산 법당 안에는 석가여래(釋迦如來)와 메이지 천황(明治天皇)과 고종태황제(高宗太皇帝)를 한 자리에 안치(安置)하여 정교일치(政教一致)로 일선융화를 철저히 실행하겠다는 것인 바, 전기 곽법경은 동경에서 재류하는 조선불교학생들에게 무슨 위해나 당할까 하여 동경 경시청에 보호원(保護願)을 제출하는 동시에 불교 유학생을 여러 가지로 모함중상을 하여 오던 중 수일 전에는 동경을 떠나 어디로인지 중





적을 감추어 버리었다더라.

음모의 발단

전기 광법경 사건의 최초 발단은 일본인 정목(正木) 등이 작년 가을부터 선승(禪僧) 임해봉(任海峯, 68)을 앞에 세우고 소위 조선불교부흥회(朝鮮佛教復興會) 또는 조선불교임제종연합회(朝鮮佛教臨濟宗聯合會)를 조직하여 회관을 시내 견지동(堅志洞)에 두고 정목과 임해봉은 그동안 수삼차 동경으로 건너 다니며 역시 우좌연태랑의 소개로 조야(朝野) 모모(某某)를 방문하고 조선불교를 일선융화에 공헌할 터이니 임해봉에게는 수원 용주사(龍株寺) 주지를 임명하고 그 외 다른 절도 수야 모야에게 맡겨 달라는 등 별별 운동을 다 하다가, 전기 임해봉이 그 동안 전후 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원 용주사 사유전답 소작사음권(小作舍音權)을 청주 이종태(李鍾泰) 외 5, 6명에게 팔아 수천여 원을 편취한 사실이 최근에 발간되어 월전에 경성으로 건너온 임해봉이 시내 모 경찰서에서 구류까지 당하여 그 동안 계획 하던 운동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정목은 또 다시 광법경 일파로 그 음모를 계속하게 한 것이라더라.

〈출전 : 李晦光, 「看板은 朝鮮佛教總本山, 主旨는 日鮮融和와 政教一致」, 『東亞日報』, 1926년 5월 12일〉

2. 김구하(金九河)

1) 이세대묘(伊勢大廟)

정성을 다해 대묘 찾아가는 길 비 내리는데
수없이 늘어선 푸른 나무는 갈수록 깊어지네
신전 앞에서 배알하니 천지가 엄숙해지고
음악 소리에 신선들 사는 곳임을 깨닫게 하네

輸誠廟路雨中尋
碧樹森羅轉轉深
拜謁神前天地肅
笙歌一曲覺仙林

〈출전 : 金九河, 「伊勢大廟」, 『朝鮮佛教叢報』 7호, 1917년 11월, 34쪽〉

3. 강대련(姜大蓮)

1) 데라우치 수상을 뵈옵고(見寺內首相)

거듭 용문에 오르니 영광이 함께 하고
조복 입고 알현하는 모습 안연히 소리도 없네

重上龍門與有榮
摺笏凝然不動聲





많은 황금과 오색 실로
주조한 공의 모습 공의 이름을 아름답게 수놓네

百鎰黃金絲五色
鑄公像貌繡公名

〈출전 : 姜大蓮 「見寺內首相」, 『朝鮮佛教叢報』 7호, 1917년 11월 34쪽〉

2) 불교옹호회와 법려(法侶)의 각오

우리 조선에 유불(儒佛)이 병행하여 천여 년 간을 상안무사(相安無事)하더니 고려 말경에 이르러서야 주자(朱子)의 학파가 성행하여 우리 불교의 도(道)를 지적(指斥)²⁾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조(李朝)의 유가(儒家)는 이를 계승하여 “기세멸륜(棄世蔑倫) 무부무군지학(無父無君之學)”이라고 표방(標榜)하여 지적하였으니 약간의 승려는 ‘고봉절정(高峯絕頂) 위암고사(危庵孤寺)’로 내쫓겨 인민이 근접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법도(法道)를 천양(闡揚)³⁾하는 능력을 모두 전실(全失)하여, 저 유가의 적대적 군기(群起)⁴⁾ 공격은 구실을 주게 되고 우리 불도의 소극적 독선주의(獨善主義)는 사실을 성(成)하였다. 비록 그러하나 이조(李朝) 중엽에 이르러서 ‘청허(淸虛)⁵⁾, 송운(松雲)⁶⁾, 허백(虛白), 벽암(碧岩)⁷⁾’ 등 모든 대사의 근왕(勤王)의 훈공(勳功)과 축성(築城)의 노적(勞績)을 보여서 위로부터 조정(朝廷)에서 아래로는 여서(黎庶)⁸⁾에 이르러서 불교의 효력을 흠경(欽敬)하여 해남(海南)의 표충(表忠)과 향산(香山)의 수충(酬忠)의 정표(旌表)를 사전(祠典)이 있어야 300년 이래의 불교가 영불타지(永不墮地)함은 저들 제사(諸師)의 공력(工力)을 전뢰(全賴)하였고 1901년에 이르러서 조선불교가 정부의 보호하시는 은덕(恩德)을 의지(仗)하여 다시 중흥의 기운을 만났도다.

비록 그러하나 최근에 불교 상태를 논할진대, 구병지인(久病之人)이 의사를 만나 효험을 얻었으나, 원기(元氣)가 쇠약하여 정신은 자약(自若)하나⁹⁾ 지체(肢體)는 무력하여 자기자행(自起自行)치 못하고 결의 사람의 부호(扶護)를 필수로 하여 일보전진(一步前進)하는 모양과 흡사하다. 근경(近頃)에 이르러서야 귀족(貴族) 제씨(諸氏)의 발기(發起)로 불교옹호회(佛教擁護會)가 성립되었음은 본보(本報) 전호(前號)에 이미 보도하였던 바이다. 이러한 시절에 있어서 우리들 법려(法侶)는 불교정신으로써 수양방법을 인사(人士)에게 권도(勸導)하여 이 세기에 행복을 향수(享受)하면 다른 생에도 극락을 가히 점칠 수 있으니 집경문난(執經問難)¹⁰⁾에 석의(釋義)를 더불어 함은 희망의 노력이 되며, 간화공부(看話工夫)

- 2) 웃어른의 언행을 지적하여 닦함.
- 3) 드러내 밝혀서 널리 퍼지게 함.
- 4) 많은 사람이 떼를 지어 일어남.
- 5) 서산대사로 더 잘 알려진 휴정(休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한양을 수복하는 데 공을 세운 인물.
- 6) 조선중기 승려 유정(惟政).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휴정의 휘하에서 활약했고, 정유재란 때도 울산 도산과 순천 예교에서 전공을 세웠다.
- 7) 조선중기 승려 각성(覺性).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활약했으며 남한상성 축조 시에도 힘을 보태었다.
- 8) 보통 서민을 뜻함.
- 9) 큰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다.
- 10) 불경을 들고 어려움을 묻는다는 뜻.





의 법문(法門)을 말함은 선사의 책임이 될지나 그중에 제 1작으로 대강령(大綱領)을 지을 것은 우리 불교의 교리에 충효이사(忠孝二事)가 유설(儒說)에 양보할 수 없음을 극변(極辨)해야 저 유자가 배척을 하던 구실을 세척(洗滌)하고 가리왕(歌利王)의 인욕경계(忍辱境界)를 광설(廣說)하여 기독교의 정사구세(釘事救世)한다는 복음을 압도치 아니하면 아니될 지로다.

충어군일사(忠於君一事)에 대하여 일례를 들면 신라시대에 원광(圓光)법사는 속자(俗子) 귀산(貴山)과 추항(筓項) 두 사람의 문도(問道)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불교에는 보살계(佛有菩薩戒)가 있어 그 구별이 열 가지가 있으나 너희들은 신하된 자이므로 능해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하나는 사군이충(事君以忠)이요, 둘은 사친이효(事親以孝)요, 셋은 교우이신(交友以信)이요, 넷은 임전무퇴(臨戰不退)이요, 다섯은 살생유택(殺生有擇)이라.”하니 귀산과 추항 두 사람이 종신토록 봉행(奉行)하여 과연 임전불퇴(臨戰不退)하여 충신이 되고 신라 김유신(金庾信)은 유명한 장군인데 매번 출병하는 때에는 반드시 삼일 간을 참선(參禪)하여 정신을 수양하여 전필승(戰必勝) 공필취(攻必取)한 행적이 있으니 일러전쟁(日露戰爭)에 일본의 승려(僧侶)가 다수 종군(從軍)하여 출전군인의 심혼(心魂)을 위안(慰安)하였다 함도 조선 고대의 불교는 이를 이미 행한 바이니 조선 법려(法侶)는 이 점에 대하여 크게 각오(覺悟)할 것이요.”

〈출전 : 姜大蓮 「佛敎擁護會와 法侶의 覺悟」, 『朝鮮佛敎叢報』 4호, 1917년 9월 22~23쪽〉

3) 불교기관 확장 의견서

조선 통치가 시작된 이래로 문화가 일신하였고, 비로소 30본산연합의 중무기관이 있게 되었고 또 중앙학림 기초를 설립하였으니, 불교진흥의 첫 번째 기회이다. 지금 총독각하가 부임한 이래로 정치가 개선되었고, 교화가 더욱 밝아졌다. 불교의 중무기관은 이때를 당하여 확대할 수 있고 불교의 교육기초는 이때를 당하여 공고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불교진흥의 두 번째 기회이다. 불교의 운이 바야흐로 태양이 동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방편이 없다면 이 기회에 부응할 수 없다.

故本職既在三十本山委員長之任, 多年經營之擴張方針蘊籌胥窩而未敢發者, 待此機會而然也. 幸當千載一遇之秋, 敢陳

조선승려는 전부 선종이다(임제종 맥을 전한다). 선종은 일본과 조선승려는 물론이고 아내를 취하고 고기를 먹는 등 계율을 어기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은 없어야 한다. 또 불교를 위해서는 금단해야 한다. 그러나 내지승려 중에서 동·서 본원사의 법주(法主) 승려는 조정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황실과 인척관계에 있으며, 그 밖의 승려도 일반서민과 서로 결혼하고 있다. 지금 재운니(材雲泥)전하는 황실에서 출가하여서, 황실출신이 출가한 즉 황실과 승려 사이에 직접적으로 통하는 관계가 있고 서민과 승려들도 역시 버릴 수 없는 관계가 있으니, 이로 말미암은 불교의 감화는 바람이 불을 크게 일으킴과 같아 동·





서 본원사 법주(法主)나 승려는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서 교화를 한다. 그러므로 조선 왕족의 여자나 귀족의 여자, 그리고 일반 서민의 여자에게도 이러한 예를 준용하여 일본 승려나 조선 승려와 결혼을 시킨다면 이는 불교의 감화를 정교롭게 하고 향상시키는 첫째 요소가 될 것이다. 또 조선의 왕족 남자나 귀족 남자로 출가한 승려로 하여금 일본의 왕족 여자나 귀족여자와 서로 결혼하게 한다면 이는 불교 감화의 둘째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내선승려가 서로 설법하여 깨달음을 열고 마음을 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언어가 통하는 것으로서 세 번째 요소가 된다. 조선 승려는 먼저 일본어를 급선무로 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승려도 조선어를 통한 연후에만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계진할 수 있으니 정신상의 융화가 멀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어찌 同感同化的 一大 하나의 큰 主楮가 아니겠는가? (후략)

〈출전 : 姜大蓮 「佛敎機關擴張意見書」, 『朝鮮佛敎叢報』 20호, 1920년 3월, 1~10쪽〉

4. 김태흠(金泰洽)

1) 법려의 자각과 사회교화의 유의

“동아인(東亞人)의 동아건설과 영원한 동양평화수립에 공충(公忠)한 사이에 세서(歲序)는 천역(遷易)하여 1939년의 신춘을 맞게 되었으므로 강내(疆內) 7천의 법려(法侶)와 24만의 신도와 같이 삼가이 성수 무궁을 기도하며 국운융창(國運隆昌)을 봉축하고 법려의 자각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교화의 유의(留意)를 중용(中用)하는 바이다.

회고하건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로 국민정신의 순화계배(醇化啓培)에 대하여 위대한 공헌이 있으며 또는 사원이 신앙의 중심 문화의 전당으로서 인심의 계발(啓發)과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대(多大)한 공헌이 있어 온 것은 찬언(贊言)을 불요(不要)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의 현상을 볼것 같으면 만근(輓近) 사회정세의 변화에 건(件)하여 신앙의 동요가 심하며 사찰과 민중의 관계가 전일과 같지 아니함은 부지(不知)하고 의연히 구태(舊態)를 하여 은수주의(隱遁主義)에서 일보를 부진(不進)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천만(遺憾千萬)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불교도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불교 선포(宣布), 포교(布敎), 교화(敎化)에 있는 것이거늘 이를 망각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고로 그간에 유사 종교의 사교(邪敎)가 발생하여 민중을 준독(蠱毒)시키는 위법행위가 속출하지 않는가.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며 누구의 죄악인가.

이는 아국(我國)의 국교로 자임하는 우리 불교도가 불교 본래의 면목을 발휘하지 않고 국민정신교화에 유의치 않은 관계라고 하겠으니 우리 법려는 현하 시국다단(時局多端) 국민정신총동원을 강조하는 급일에 있어서 더욱이 건전한 신앙의 고취와 국민정신작용에 관하여 분기(奮起)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본보(本報)가 창간된 후 지금 5년의 신춘(新春)을 맞게 된바 그간에 비록 큰 성숙(成績)은 없었으나 항상 사회화에 유의하여 자수자리(自遂自利), 이타겸제(利他兼濟), 대은보사(大恩報謝) 이와 같은 3대





강령하에 범등계소(法燈繼紹)의 헌신적 희생, 불교시사(佛敎時事)의 보도충실, 교화운동의 전력철저, 이러한 삼대 사명을 위하여 그야말로 악전고투하면서 꾸준하게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본보는 금년부터 또 일순(一瞬) 사회교화에 유의하여 매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바이니 범려는 자각하여 본보와 같이 동일한 보무(步武)로써 답진(踏進)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욱이 기묘(己卯)년인 본년 내에는 전 조선의 불교 사찰을 통제할 만한 총본산의 기구조직이 합법적으로 인가되어야 법령으로써 공포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만반 시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고로 본보도 이 총본산을 보좌하여 내적으로는 여론을 광정(匡正)하고 외적으로는 불교 흥포(弘布)에 주력하고자 하는 바이니 일반 범려도 그와 같이 양찰(諒察)하고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출전 : 金泰洽, 「法侶의 自覺과 社會敎化의 留意」, 『佛敎時報』 제42호, 1939년 1월 1일, 1쪽)

2) 신동아건설과 내선일체

천업회흥(天業恢弘)¹¹⁾의 성전(聖戰) 제4년 동아 신질서 건설의 완수를 기한 신춘(新春)을 맞이함을 당하여 삼가 성수무궁(聖壽無窮)을 축도(祝禱)하고 황실의 어번영(御繁榮)을 봉축하여 마지않는다. 이와 같이 경사스러운 전첩(戰捷)의 신춘을 하영(賀迎)하게 된 것은 넓고 크신 어릉위(御稜威)¹²⁾ 하에 충용의열(忠勇義烈)한 황군 장병제씨(諸氏)의 분전역투(奮戰力鬪)한 적성(赤誠)에 의한 힘이라.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바치어서 더욱이 무운장구(武運長久)를 기원하여 또는 호국충령(護國忠靈)에 대하여 그 명복을 빌며 언젠지 보은일념(報恩一念)을 불사(不捨)하고 충후봉공(銃後奉公)에 지성을 다하여 어성지(御聖旨)에 봉부(奉副)¹³⁾하고자 한다.

회고하건대 우리 조선인은 소질상(素質上)으로 보아서 결백(潔白), 용감, 의협(義俠), 독창성이 풍부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조선은 대륙에 붙은 한 반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본과 병합전(併合前)까지도 사대주의, 모화(慕華)주의, 문존무비(文尊武卑)주의에 마비되고 중독이 되어서 개인생활에 있어서 독립진취, 활발 용감 등 기상과 훈련이 전혀 상실되고 의뢰심 증장(增長), 타력생활(他力生活)이 본위가 되어서 말할 수 없이 가엾은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세계 대세(大勢)의 전환에 따라서 조선민중이 대일본 제국 신민(臣民)의 일분자(一分子)가 되어서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일시동인(一視同人)¹⁴⁾의 대이상 하에 대화(大和)¹⁵⁾ 민중과 흥망을 같이 하는 동시에 선천적으로 품수(稟受)¹⁶⁾한 조

11) 천업(天業) : 임금의 사업, 회흥(恢弘) : 넓고도 큼.

12) 존영, 천자의 위광을 뜻함.

13) 받들어 맞이함.

14) 모든 사람을 하나로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한다는 뜻인데, 일제가 조선인을 일본인과 차별없이 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5) 야마토. 일본국을 일컫는 말.

16) 품부(稟賦)와 같은 말. 선천적으로 타고남을 뜻함.





선남아의 정기를 고작 발휘하게 되었다. 보라 이제부터 조선민중 앞에는 압록강만 건너서면 일찍이 고향이었던 대륙이 전개(全開)되어 있지 않은가. 조선은 일동제국(日東帝國) 동아건설에 병참기지이니만큼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서 활약하고 성공할 무대(舞臺)와 기회가 얼마든지 혜여(惠與)¹⁷⁾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선민중으로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대화민족과 일체가 되어서 한편으로 수천 년간 혼란된 바의 용감과 단합과 능률을 가진 대화민족으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아야 할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질에 고유한 전통적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지속하여야 내선인(內鮮人)의 장처(長處)를 합해가지고 동아신질서 건설에 매진하여야 될 것이다. 장기 건설수행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는 내선일체라고 하겠으니 미나미(南) 총독이 내선일체와 선만일여(鮮滿一如)를 표방하고 강조함도 이에 큰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내선일체의 정의란 무엇인가. 일본인도 폐하의 적자이지라 일시동인 하에 다 같이 생활하는 것 내선일체의 기초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상에서 내선일체를 실현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즉 우리 내선국민이 한 가지 자아를 멸각(滅却)하고 황실의 변영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전시체제하에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천업회홍의 성전을 위하여 멸사봉공(滅私奉公)이 일대 목표라고 하겠으니 우리 국민이 사적 생명을 거두어서 무량무궁한 황실의 어대생명(御大生命)에 몰입함이 근본요체라고 하겠다.

(출전 : 金泰洽, 「新東亞建設과 內鮮一體」, 『佛敎時報』 제54호, 1940년 1월 28일, 1쪽)



3) 황군장병 노고에 대한 감사

건곤일척(乾坤一擲) 세월이 바뀌어 성전(聖戰) 제5년을 맞이하여 희망의 불이 타서 광명이 떠오르는 1941년 황기(皇紀) 2601년 27세기의 초년두(初年頭)를 봉영(奉迎)함에 제(際)하여 우리들은 생명(生)을 황국(皇國)에 드린 것을 무상의 광영으로서 믿고 감격함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러 조국(肇國)의 정신과 성口의 어(御)변영을 돌아보고 현재 금일의 국운의 융성을 목도(目覩) 할 때에 국민으로서 누가 황국의 광피(光被)¹⁸⁾에 공구(恐懼) 감격하지 아니할 자가 있겠는가.

최근까지 서양문명의 수입에 의하여 수많은 사상적 여폐(餘弊)가 우리나라에 풍미(風靡)하여 개인주의의 유물사상(唯物思想)이 황국 일본의 건전한 국민사상에 이완(弛緩)을 준바 적지 않아 실로 유감된 일이 적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미 일시적 악몽을 보는데 불과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본연한 황국정신의 용자(勇姿)는 일단 완급(緩急)의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에는 신국(神國)시대의 본연한 건국정신, 황국성자(皇國聖姿)로 돌아가서 희생봉공(犧牲奉公), 충효일관(忠孝一貫), 군민일덕(君民一德)의 실(實)을 닦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지나사변 이래에 거국적 애국운동은

17) 은혜롭게 무엇을 줌.

18) 빛이 널리 비친다는 뜻으로, 덕(德)의 광택이 세상에 널리 퍼짐을 이르는 말.





국가생활에 대한 일본국민의 본능적으로 전통되어 충군애국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4년간에 단속하여온 지나사변으로 말하면 각자는 사변이로되 실상에 있어서는 일·청(日淸) 전역(戰役)과 일·러(日露)전쟁을 합한 수배 이상의 대성전으로서 전몰자(戰歿者)의 수로 본다든지 물질의 소비로써 본다든지 연월의 경과로써 본다든지 우리 국민이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연전연승의 결과로 동아고독(東亞蠱毒)의 악마인 백인의 세력을 구축하고 영구한 동양인의 동양평화의 확보를 보게 되며 황국 일본이 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는데 동시에 독일·이탈리아와 동맹하여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려고 거보(巨步)를 내딛게 되었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천황폐하의 어능위와 함께 황군의 공적이 실로 위대함을 깨닫게 된다. 충용의열(忠勇義烈)의 황군의 분전(奮戰) 미담(美談)을 들을 때마다 사자분신(獅子奮迅)의 황군 격전의 영화(映畵)를 배관(拜觀)할 때마다 우리들은 오직 감격의 암루(暗淚)로써 황군의 노고를 감사하는 바이지만 황군장병은 참으로 대남공(大楠公)의 칠생보국(七生報國)의 정신과 도고(東郷) 대장(大將)의 「황국흥패(皇國興敗) 재차일전(再此一戰)」이라는 격려의 분전과 노기(乃木) 대장의 성충무비(誠忠無比)의 희생적 봉공의 실천과 「의중산악(義重山岳) 사경홍모(死輕鴻毛)」의 각오를 가지고 수많은 곤란(困難)과 신고(辛苦)를 불고(不顧)하고 생사의 혈항(血巷)을 출입(出入)하며 연전연승의 전과를 거두기 때문에 금일에 있어서 국위(國威)가 더욱 선양되고 무운(武運) 길이 길이 장구함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 충후국민은 호국영령에 대하여 적심으로써 감사를 바치고 목도하며 출정 장병 및 전상(戰傷) 용사에 대하여 감사위문을 행하며 군인 유가족과 출정 유수(留守) 가족에 대하여 위문애무하고 적극적인 원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써 믿는 바이다. 그런고로 우리 불도는 신년을 당하여 황군장병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바치는 적성(赤誠)으로 국위선양과 무운장구를 불전에 기도하는 동시에 제국 일 역의 국민이 다시 더한층 결속을 굳게 하여 확고불발(確固不拔)의 정신으로써 황군을 후원하여 난국돌파에 매진하기를 충심으로써 빌고 사변처리(事變處理)의 전도(前途)는 극히 광명에 빛나는 바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출전 : 金泰洽, 「皇軍將兵 勞苦에 對한 感謝」, 『佛敎時報』 제66호, 1941년 1월 15일, 1쪽〉

4) 국민정신과 씨 창설

국민정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강한 자량을 느끼는 일이요, 둘째는 일본과 조선과는 절대적으로 한 몸이라는 신념(信念)을 가짐이요, 셋째로는 제 각기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여 직업을 배워서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동시에 인고 단련하여 황도를 널리 사해에 발휘하는 것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네 반도동포도 황은을 입어서 벌써 30년이나 되지만은 태고의 역사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내선(內鮮)이 한 집안이어서 이, 삼십 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지(일본)를 떠나 있다가 다시 본 집으로 돌아와서 부터의 연수이지 실상은 삼천년 동안이나 우리는 직접으로 간접으로 황은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우리는 새로이 황국신민이 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황국신민으로 있었던 것이 어떠한 사정으로 조금 분가를 해가지고 있다가 본시와 같이 다시 황국신민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불교에는 일천사해귀묘법(一天四海皆歸妙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팔굉일우(八宏一宇)의 일본중심(日本中心) 세계통일(世界統一)의 황도정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찌 일찍부터 황국신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겨우 삼십년 전에 황국신민이 되었다고 해서 신부(新附)¹⁹⁾의 백성이라든지 의붓자식과 같은 계자(繼子)²⁰⁾의 관념을 가지고 일본 동포에 대해서 공연히 서먹한 생각을 두고 간극을 두어 가지고 어름어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법화경(法華經)이라는 불경에서 보면 신해품이라는 데 사부도서(捨父逃逝) 즉 아버지를 내버리고 달아나갔다가 환가상속(還家相續) 즉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반도 동포는 꼭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도동포도 신부의 백성이나 가봉자(加奉子)²¹⁾나 서자(庶子)²²⁾ 계자가 아니라 적자(嫡子)라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그러한 신념과 자량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봉공해야 되겠습니다.

미나미 총독이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조선동포로 하여금 씨창설(氏創設)을 하여 내선동포가 동일한 씨를 갈게 한 것은 참으로 나갔던 자식이 들어와서 집의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어 주게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고로 우리는 이 기회를 잃지 말고 하루바삐 씨창설을 하여서 어느 나라를 가던지 우리 씨명만 보더라도 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인 것을 인식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창설만으로서 아직 황국신민 되기에 자격이 부족한 것인 즉 황국신민이라는 그 이름과 내 자식의 씨명인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됨에 있어서는 성의와 수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선(內鮮)은 이미 한 몸이 되었으나 진정한 몸의 열매를 맺기에는 서로 수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적 실질을 배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해서 정신을 단련하고 실질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단련하고 높인다는 것이 곧 국민정신 연마인데 이 연마라는 것은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참으로 기미가요의 국가가 솟아 나오고 일장기를 볼 때마다 감격한 생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도 동포가 모두 이렇게만 되고 보면 가정을 위해서 개인끼리 서로 싸워나가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국가를 위해서 다 사라지고 어찌하면 우리나라를 씩씩하게 할까 하는 새로운 결심 하에 청신한 기분과 깨끗한 성신과 굳은 믿음과 뜨거운 희망만이 남은 행복 된 국민이 될 것입니다.

〈출전 : 金泰洽, 「國民精神과 氏創設」, 『佛敎時報』 제59호, 1941년 6월 15일, 1쪽〉

19) 새로 복속함.

20) 양자, 의붓자식.

21) 여자가 덤반이로 데리고 온 아들.

22) 본부인이 아닌 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



5) 광영의 징병제도 실시

황국신민으로서 감격에 넘치는 광영의 징병제 실시를 보게 되니 황은의 흥대함을 감읍할 뿐입니다. 반도 2천 4백 만의 신자가 오랜 옛날부터 대망하고 갈구하던 반도 징병제도 실시가 5월 9일 각의(閣議)에서 결정되어 공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고로 반도 청년도 모두 1944년부터 황국의 간성(干城)²³⁾으로 폐하게 몸을 바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병합 이래 일시동인(一視同人)의 무변하신 황은을 받들어 온 지 30여 년 천은의 두터우심에 반도 적자들은 오늘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1938년 특별육군지원병제도가 실시되어 반도 청년들도 제1선에 나서서 충성을 바칠 수 있었지만 한걸음 나아가 황국신민으로서의 가장 큰 광영인 징병제도가 실시되기를 우리는 손꼽아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러던 터에 전첩에 빛나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²⁴⁾ 하 5월 9일로서 이 발표를 접하게 됨에 반도 민중은 감격에 넘쳐 있는 바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 반도 신민은 이 징병제도 실시를 목표로 하고 그 책임이 크고 중함을 다시금 명념하고 봉공의 대임을 완수키 위하여 일사보국(一死報國)의 큰 결심 하에 많이 배우고 정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도 청년이 1944년에 실시하기까지 그에 준비할 것은 제일 먼저 일본 정신인 충절(忠節)의 대화혼(大和魂)을 연성(鍊成)하여 제국 군인으로서 부동명왕(不動明王)²⁵⁾ 같은 건전한 정신을 가질 일이고, 둘째는 신체를 강건히 하여 동두철신(銅頭鐵身)의 장사를 만들 것이고, 셋째는 국어²⁶⁾공부를 열심히 하여 언어의 불통과 난삽(難澁)이 없이 할 것이고, 넷째는 일본문화의 예의작법을 심득(心得)²⁷⁾하여 배워서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둘 것이고, 다섯째는 언제든지 정직을 목표로 하여 거화취실(去華就實)²⁸⁾하고 순실(純實)하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전 : 金泰洽, 「光榮의 徵兵制度實施」, 『佛敎時報』 제82호, 1942년 5월 15일, 2쪽〉

5. 허영호(許永鎬, 德光允)

1) 황실의 어번영(御繁榮)을 축함

권두언

황기(皇紀) 2599년 이제야 황위(皇威)는 동아 대륙의 위에 광피(光被)²⁹⁾하니 이는 오직 만세일계무이

23) 방패와 성.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군대나 인물을 일컫는 말.

24) 태평양전쟁을 뜻함.

25) 대일여래의 화신으로 악마와 번뇌를 응진하는 왕.

26) 일본어를 뜻함.

27) 충분히 이해함. 마음 깊이 깨달아서 간직하고 주의함. 또는 그런 주의 사항.

28) 형식을 버리고 실질을 취함.



(萬世一係無二)의 국체와 운문운무(允文允武)³⁰⁾ 폐하의 어릉위(御稜威)에 기한 바를 1억 적자(赤子) 오로지 감흡 할 뿐이다. 황도(皇道)를 천하에 선양하고 국위를 팔굉(八紘)에 편진(徧振)하여 만민을 황화(皇化)에 자윤(滋潤)케하고 보토(普土)를 군덕(君德)에 귀순케 하니 위로 황실의 존엄 아래로 국민의 위대 참으로 빛나도다. 우리나라는 황실과 국민이 유자유애(維慈維愛)한 만고무비(萬古無比)의 일가(一家)로서 황실의 번영은 곧 국민의 부성(富盛)으로 국민 전체가 항상 황실의 유고(愈高)와 미영(彌榮)을 심축(心祝)³¹⁾함을 마지않은 연유(緣由)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년을 당해서 삼가 황실의 번영을 축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출전 : 許永鎬 「皇室의 御繁榮을 祝함」, 『佛敎 新』 제19집, 1939년 2월 1일, 1쪽〉

2) 황기 2600년을 맞이하여

세계는 미구(未久)에 회전(回轉)되리라 실로 수세기에 걸친 역사가 최근 이 삼년동안 동야 천지에 움직였다 할 것이다. 정확 또 강건한 동야의 성업은 수행되고 순애 또 정의인 황도(皇道)의 정신은 선양되다. 이에 우리 반도 민초는 충후(統後)의 진(陳)에서 어찌 감루(感淚)³²⁾할 뿐일까. 더욱 철저한 각오와 아울러 비상한 결심을 배전(倍前)³³⁾해야 할 터이다. 앞서 내선일체의 진체(眞諦)를 체득하여 순일무잡(純一無雜)한 황국신민이 될 것이오. 나아가 팔굉일우의 대이상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2천 3백여만은 2천 3백여만의 힘으로 일단(一團)이 되어 황은 그의 만분(萬分)중 일라도 보답하여야 할 것이며 7천여 승려(有侶)는 7천여 불심(佛心)을 일치케 하여 신양보국의 일대사(一大事)에 집중케 할 것이다. 사유권대 학제개혁 지원병제 실시, 또 씨가창설³⁴⁾을 허함은 황위(皇威) 무량대(無量大)의 덕음(德陰)이며 이는 바로 내선의 문화적 혈맥적 일원화의 서곡이다. '유사 이래 최대 그리고 최선(最善)이고, 최고 그리고 최미(最美)의 도의황국(道義皇國)'의 대이상 실현으로 맥진(驀進)³⁵⁾하는 이 반도 강산에 성재(聖哉) 황기 2600년 경진(庚辰) 원단(元旦) 휘황한 상서로움이 동쪽 창공에 있다.

〈출전 : 許永鎬 「皇紀 2600年을 맞이하여」, 『佛敎 新』 제20집, 1940년 1월 1일, 1쪽〉

29) 널리 비친다는 뜻으로, 덕(德)의 광택이 세상에 널리 퍼짐을 이르는 말.

30) 천자(天子)가 문무의 덕을 겸비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31) 진심으로 축하함.

32) 매우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

33) 이전의 갑절.

34) 창씨개명.

35)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힘차게 나아감.



3) 총본산의 운영

1.

우리 종교의 숙망(宿望)은 드디어 이루어져서 총본산(總本山) 태고사(太古寺)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은 법려(法侶)와 함께 반가워하는 바로써 확실히 조선 불교사상의 일转机(一轉機)를 지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转机를 지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총본산의 건설로 말미암아 2600년의 조선불교가 과거의 모든 불운을 청산하고 침체를 소결(掃決)하고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진로를 얻어서 융비하려는 그 점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종래에 있어서도 교단으로써 그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자체 내부의 혼란과 모순은 스스로의 진전을 저해하였고 이 사실은 서로 인과적 관계 아래서 교단으로 하여금 그 본연의 사명에서 유리된 향로의 한 편에서 방황하게 하였던 것도 지적할 필요조차 없다고 할 것이다. 이 혼란과 모순을 정돈(整頓) 양기(揚棄)³⁶⁾하고 그 혼란과 모순으로부터 따라오는 쇠퇴(衰態)와 약체를 회복보건(回復補健)하기 위함이 총본산 건설을 꾀한 중대한 일조건(一條件)이다. 중대한 일조건(一條件)이라는 것보다 총본산 건설의 소극적 방면의 유일한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총본산은 먼저 이 혼란과 모순을 철저히 정돈하고 철저히 양기(揚棄)하지 않으면 총본산 건설의 일인(一因)을 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단 자체 내부의 혼란과 모순을 철저히 정돈 양기하는 것이 총본산 건설의 소극적 방면의 유일한 조건이라 하면 교단자체에 '유기적 통일'을 주고 혼연일위(渾然一位)가 되어 불타(佛陀)의 성법(聖法)을 선양하고 국가부문의 중요한 일면을 부담하여 정신교화에 진취(盡悴)³⁷⁾하라는 것은 총본산 건설의 적극적 방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이상의 소극적 조건과 적극적 조건이 총본산 건설의 2대 여건이라 하면 총본산으로서의 힘쓸 바 방향은 스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면이 정해지고 진로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도리어 문제는 그 방면으로 어떻게 향하게 하며 그 진로를 어떻게 걸어가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곧 교단 자체 내부의 혼란과 모순—그것은 결코 단일한 것도 아니요 복잡한 것이며, 결코 현저한 것만 아니요 은미(隱微)한 것도 있어서 제도상으로 의식상으로 교육상으로 포교상으로 교리상으로 신앙상으로 내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지적하기까지 미황(未遑)³⁸⁾한 그 혼란 그 모순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능률적으로 정돈하며 또 양기할 것인가 또는 천여 사찰 7천 승니(僧尼)가 어떻게 유기적 통일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불교를 선포하고 국가의 정신문화에 진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비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를 세우더라도 교단의 현실과 승니의 생활을 전제하지 않을 동

36) 지양(止揚).

37) 몸이 여위도록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씀.

38) 미처 겨를이 없음.



안 그것은 일종의 관념적 교육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교단의 이상과 승니의 향상의 전진적 요소를 내포하지 않을 때에도 이상적 교육제도라 이를 수 없다.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부문에서 그렇게 하여야 하며 각 부분이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혼용(渾融)한 관계에서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혼란과 모순만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혼란과 모순을 구성한 사실과 현상에 질서와 조화를 주도록 할 것이다. 갑(甲)의 사실과 을(乙)의 사실이 모순되고 혼란되었다고 갑에 통일 또는 을에 획일 하는 것이 결코 그 혼란 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거기에 새로운 혼란과 모순의 원인을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원리에 의지해서 재조정, 재편성 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제도뿐 아니라 포교방법, 의식, 승규(僧規)제도가 모두 그러하여야 하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즉, 한 제도 한 양식에 외연적으로는 현실과 이상에 즉한 제도 양식을 어떻게라도 또는 어느 것이나 채용하더라도 중심에는 일관하는 관념이 없어서는 되지 않는다. 즉 조선불교 조계종에 있어서는 교육제도이고 포교형식이고, 승규의식이고 간에 조계종적에 귀일(歸一)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연성(鍊成)에 있다면 조선불교 조계종에 있어서는 조선불교 조계종(曹溪宗) 종지(宗旨)에 의한 황국신민의 연성에 있는 것이며 어떤 방식의 포교제도를 채용하더라도 조선불교 조계종지의 선포와 그 실천에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교단 자체의 혼란과 모순을 알기 위해서 또 정돈 양기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전통과 현실과 승려의 의식과정과 성격 내지 반도 민중의 생활과 지향을 깊이깊이 알아서 혼란된 현상과 모순된 사실에 그 존재 이유를 먼저 발견하고 다음에 정돈 양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오류를 반복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총본산 사업의 지난성(至難性)이 잠복(潛伏)해 있다. 그러므로 총본산의 기초 확립 내지 조선불교의 재편성은 결코 한 사람이 능히 할 바도 아니요, 결코 한사람이 주도할 바도 아니요. 대중의 지혜가 모인 곳에 비로소 그 온전함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또 적극적 방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시설(施設)³⁹⁾과 입책(立策)이 깊은 사려와 밝은 통찰을 통해서 여과된 것이 아니면 그 시설과 그 입책의 항구성(恒久性)을 바랄 수 없으니 일시의 편의와 안이(安易)를 생각해서 임시적으로 시책(施策)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극적 여건과의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 이상 일시의 편의와 안이는 절대로 금물이니, 1차의 입책은 적어도 기구(機構)와, 강령과 규약을 만들지 않으면 그 미치는 해(害)와 불편은 여러 배의 노력을 후인(後人)에게 남기는 것임을 생각하고 마음이 새삼스러워짐을 느낀다. 총무(宗務) 당국자의 책임과 고심이 또한 중차대함을 느끼게 하며 법려 일반의 기대와 신뢰가 생각보다 큼도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조(一條)의 입법, 한 개의 시책이 그 공명과 정대를 잃어버리고 그 필연과 적절을 가지지 않으면 대중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바가 되니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곳에 혼연일체가 있을 리 만무하고 또 종정(宗政) 운용의 원활을 기하기 지난(至難)하다.

총본산의 운용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도저히 다 말할 수 없고 이상에서도 너무 추상적이 되

39) 시책 또는 정책을 뜻함.





어 정작 할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 진로가 이미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단 자체의 혼란과 모순의 철저한 정돈, 합목적 양기와 시대에 적응한 불교의 현대화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총본산의 운영을 약간 말한 것으로 그친다.

〈출전 : 許永鎬 「總本山의 運營」, 『佛敎 新』 제32집, 1942년 1월 1일, 11~14쪽〉

4) 대동아전 하의 화제(花祭)를 맞아서

황망하옵게도 지난해 12월 8일 미·영(米英)에 대한 선전조서가 환발(煥發)되옵시어 이래 4개월간 동아민족의 백년구적(百年仇敵)이던 미영으로 하여금 동아의 전지로부터 구축(驅逐)하고 있는 이때에 석존의 탄생을 축하하는 화제(花祭)를 거행하게 됨은 진실로 의의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릇 대동아전쟁은 물질의 주구(走狗)인 유태(猶太)와 결합하여 세계제패를 꿈꾸던 영미의 적성(敵性)을 아시아(亞細亞)로부터 추방할 뿐 아니라 미영의 이상적 세력까지도 구축(驅逐)해 버리고 아시아로 하여금 그 본래의 면목(面目)에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모든 민족은 오랫동안 미영의 물질적 내지 이기적 사상에 마비되어 수천 년래 지켜오던 동양 본래의 사상을 망각하고 헛되이 배미영적 사상에 몰들어 왔습니다. 지금이야 이 대동아전쟁은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해독(害毒)해 온 영미 사상을 아시아의 천지로부터 구축해버릴 절호의 기회일 뿐 아니라 각각 그곳을 얻게 하는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조국(肇國)의 대이상을 동아공영권의 위에 확립할 시기입니다. 아니 세계 18억 민족으로 하여금 이 대이상의 아래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어릉위(大御稜威)의 아래 충용무비(忠勇無比)한 황군은 개전 이래 연전연승(連戰連勝) 벌써 「마닐라」, 「싱가폴(新嘉坡)」, 「랑군(蘭貢)」이 함락되고 「보르네오」, 「수마트라」, 「자바」같은 프랑스령 제도(諸島)도 이미 무조건으로 항복하여 황군이 가는 곳에 적이 있을 수 없고 국기의 휘날리는 곳에 평화가 넘칠 뿐입니다. 지금은 다만 대동아공영권의 일익(一翼)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濠洲)와 인도(印度)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영제국이 아무리 모략과 회유에 광분(狂奔)하고 있지만 정의(正義) 황군의 힘은 벌써 인도로 하여금 해방의 기치를 선명하게 하였고 호주 또한 전전공공하고 있습니다.

대동아공영권 10억의 민족은 소수의 이슬람교도와 가톨릭교도를 제하면 전부가 불교를 신봉하는 불교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동아공영권의 여러 민족을 지도해서 공존공영의 도의적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불교도로서의 책무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고성업의 완수를 협력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불교도의 의무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수양과 노력을 쌓아서 남방공영권의 불교도와 굳게 악수하여 대동아 신질서 건설에 한층 협력하게 하고 또한 긴밀히 제휴해서 조국의 성업을 완수하고 황군의 흥륭(興隆)에 익찬(翼贊)할 것입니다.

불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가비라국(迦毘羅國)⁴⁰⁾의 왕자이시던 석가세존으로부터 창설된 것으로

40) 가비라국(迦毘羅國) : 석가모니(釋迦牟尼)의 아버님 정반왕(淨飯王)이 다스리던 나라. 싯다르타(悉達多) 태자(太子) 곧 석존(釋尊)이 태어난 곳. 머리 빛이 누른 선인(仙人)이 이 나라에서 도리(道理)를 닦았으므로 가비





로서 한 줄기는 북으로 서역(西域) 중국을 지나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한 갈래는 남으로 실론(錫蘭), 미얀마(緬甸), 태국(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 자바(爪哇)등에 전해졌는데, 북방불교는 이른바 대승 불교로서 서역이나 중국에서도 위대한 교훈과 찬란한 문화를 남겼으나 우리나라에 전해 와서는 단순한 불교라기보다 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황화(皇化) 불교로서 발달되고 완성되어 세계불교사상의 고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불교라는 것은 이른바 소승불교로서 계율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가져서 북방불교와 그 모양을 달리 하고 있지만 부처의 일미법문(一味法門)인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남방민중들과 제휴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불교를 빌려서 하는 것만큼 적절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면 남방에 있는 그들은 벌써 불교를 말미암아 황국의 정신을 받아들일 심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씨만 뿌리면 잎이 나고 꽃이 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방불교는 계율을 중시하는 불교입니다. 경론(經論)을 배워 교리를 알고 선(禪)을 닦아서 마음을 밝히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나 계(戒)를 가지고 율(律)을 지키는 것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장차 그들과 제휴하고 또 지도하기 위해서는 계율불교가 무엇보다 필요하다하여 국내불교도의 계율적 방향에 대한 각성을 환기시키는 소리가 자못 높습니다. 물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하고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구현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나 남방불교의 계율주의적 경향에 대해서 철저한 비판을 지니지 않고 다만 표면상 형식상에 나타난 현상과 습속(習俗)만을 보고 계율지상주의에 추종한다는 것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대저 계율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각성과 완성을 기초하고 목적인 생활에서 표현된 도덕적 행위 또 윤리적 실천인데서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인데 그 현실생활과는 유리된 형식적인 율문(律文)행위는 산 사람이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국민답게 살아 나가려는 말하면 무한히 진행되고 발전되는 인간 또는 국가생활에 있어서는 서로 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現今) 남방불교의 계율중심이 우리 불교도에게 새로운 자극과 영향도 줄줄은 압니다마는 위에서 말한 그러한 생기 없는 형식에 흐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율의 근본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적 율문에 얽매이는 것은 단순한 전통의 묵수(墨守)로서 시대의 진전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것이 남방불교의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방불교의 특징이 동시에 국가생활 내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등의 진전도 없고 발달도 없는 침체한 생활을 가져왔다는 병폐 그것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기를 주고 밝은 희망을 주고 굳은 신념과 자각을 주는 것은 우리 북방 불교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남방민중의 문화정도라든지 신앙 형태라든지 그밖에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 정치적으로나 또는 풍토적으로 천후(天候)라든지 기상(氣象)이라든지 온도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그렇게 만들은 역사적 필연성이 있겠지마는 장차 과학으로 기술로 정치로 문화로서 그들의 모든 불행을 제거하고 풍토적 원인까지도 제거해서 새로운 생활감정 사유방법으로부터 생활양식이며 심지어 문화의 진로까지 규정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도종교로서의 불교민중지도자로서의 불교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제국은 벌써 1억 국민의 속에 든 일본이 아닙니다. 10억의 국민을 영솔하고 20억의 국민을 지도할 일본입니다. 이 세계사적 전환을 맞이한 일본국민은 물론이려니와 불교도로서 그 담당된 부문에 있어서 그들이 지도할 불교원리

라국(迦毗羅國)이라고 함. 가비라위(迦毗羅衛)라고도 하고, 가유위(迦維衛)라고도 하며, 가이(迦夷)라고도 함.





를 확립하고 지도할 인격을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종단(宗團)불교 사원(寺院)불교로서는 10억 내지 20억 민중의 인심을 파악하고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승니(僧尼)적이오, 종단(宗團)적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의 불교를 세워야 하며 세계적 일본 불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니로서 생각하는 불교, 종단으로 생각하는 불교를 떠나서 국민으로 생각하는 불교,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불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을 지도하는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불교, '세계를 지도하는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불교'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 일선에서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장병들의 신고(辛苦)를 생각하고 '대사일번악착(大死一番齟齬)'한 승니 불교를 청산해야 국가의 진군에 순행병진(順行竝進)하는 불교 또는 교단을 확립할 것입니다. (하락)

〈출전 : 德光允⁴¹⁾, 「大東亞戰下の花祭를 맞아서」, 『佛敎 新』 제36집, 1942년 5월, 6~8쪽〉

5) 오직 하나의 기대

제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도 한 개인으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일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시 기대내용도 당시의 기대에 정비례하여 무겁고 또한 크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은 학창생활을 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마음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물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한 보답이 무겁고 또한 간절하겠지요.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분량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도 그것이 만족을 느껴서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다른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시운(時運)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며 인류는 참으로 걸을 수 없는 운명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좋을 것인가요? 세계는 지금껏 상상도 하지 않았던 대 전환을 하고자 하고 있다. 아니, 전환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발족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미 의존의 모든 제도, 조직, 사상, 문화를 창성하여, 영원한 인류의 도의적인 평화를 확립하도록 숭고한 이념과 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이념과 구상은 강당에서는 체득하는 일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학도로서는 너무나도 과중한 번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사의 전환과 문화의 창성 내지 인류의 운명은 그 후 유현(幽玄)하고 정미(微微)한 의지력으로 나아갈 뿐으로, 고루(固陋)하고 청고(淸枯)한 관념의 세공(細工)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세계의 방대한 힘이 태동하고 있다는 일을 경험한 사실이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세계의 태풍 한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 고투한 일이 있는가, 말하자면 대지에 발을 확실히 딛고 미래의 대도를 돌진하는 용맹심을 느낀 일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커다란 세계사적인 격동기를 즈음하여 여러분에 대한 기대는 결코 적지 않으며 또한 단순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또는 동양인으로서 아니, 동아공영권의 지도자로서 내지는 세계 인류의 지도자로서 고매

41) 김태흡의 法名.





한 기백의 연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 새로운 생활의 설계자가 되어 세계 신 질서건설의 담당자로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불교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통감할 것입니다. 혹은 제가 하는 말은 한가로운 사람의 헛소리라고 해 두고, 관념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이상 내지는 기백으로써 정진 해 나가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또는 불교인으로서 낙오를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임무도 수행하는 것이 곤란 할 것입니다. 조선불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보다도 조선에서는 민중의 지도적인 성능의 확립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교법의 융성, 종단의 권위와 지위의 향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의 전통적인 이념에 의해서는 새로운 지도자적인 성격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새로운 연성이 있으야만 기대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종단의 일체 규례와 기구가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자적인 성격이 확립하지 않는 한, 단순한 아름다운 공낭(空囊)에 지나치지 않는 것일 게다. 이상으로써 여러분에 대한 저의 기대라고 하지만 오히려 제 본심으로부터 나오는 염원인 것입니다.

〈출전 : 許永鎬 「唯一の期待」, 『金剛杵』 제26호, 1943년 1월 25일, 77~79쪽〉

6. 권상로(權相老)

1) 승려 지원병에 대하여

조선에는 아직 징병령이 실시되지 못하였으므로 병역의 의무를 행하려 하는 자 없지 아니하나 그 길을 얻지 못하여 장지(壯志)를 품고 차탄(嗟歎)⁴²⁾하는 자를 위하여 부득이 지원병제도가 생겼는데 이번, 제3회 모집에는 지원병 수가 6만을 초과하게 되고 그중에는 청년 승려로서 지원하는 자도 있어서 설봉산(雪峰山) 귀주사(歸州寺)를 필두로 하여 오대산 월정사(月精寺)와 내금강 장안사(長安寺)에 모두 4~5 인씩의 지원자가 있다 하며 그 외의 다른 사찰에도 없지 아니한 듯하다. 후자는 이에 대하여 불교자로서의 탈선적이 아닌가 하지만 아니다. 이 또한 불교의 본령중에 하나이며 더욱이 조선불교에서 있어서는 이채(異彩)를 가지고 있는 특색의 조건이다.

석존계서도 스스로 위무(威武)의 상(相)을 다투시어서 이웃나라의 병화(兵禍)를 방어하신 일이 있으며 마나라존자(摩拏羅尊者)는 고복(鼓腹)⁴³⁾을 하여서 적병을 퇴각시키었고, 백제의 도침대사(道琛大師)는 국망(國亡)함을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켜서 복국(復國)을 꾀하였고, 이조의 서산대사(西山大師)와 그 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여러 법형제(法兄弟)는 판口(板口)을 당하여 장검립공(仗劍立功)하였고, 벽암대사(碧巖大師)는 병자(丙子)의 난에 항마군(降魔軍)을 조직하고 독보(獨步)는 홀로 명(明)에 내왕하

42) 탄식하고 한탄함.

43)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생활이 풍족하여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말.





였으며, 그 외에도 남북한(南北漢)에 치영(緇營)을 두고 승군(僧軍)을 양성하던 것이 아직 어제인 듯하니 금일과 같은 초비상시국을 당하여 의용(義勇)이 있고 지개(志槩)가 있는 청년 승려로서 분연히 일어나서 지원병에 응모하는 것은 불교의 본령을 잊지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욱이 조선불교의 고유한 색채를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이다. 비구(比丘)는 원래에 걸사(乞士), 포마(怖魔), 파악(破惡)의 삼의(三義)가 있다. 그리하여 과(果)를 성취하면 응공(應供), 불생(不生), 살적(殺賊)의 삼의(三義)가 있다. 그리하여 과를 성취하면 응공, 불생, 살적의 삼의를 가진 나한(羅漢)이 된다. 파악(破惡)의 원인을 닦아서 살적(殺賊)의 과를 얻는 데는 정진(精進)의 口를 쓰고 인욕(忍辱)의 갑(甲)을 입고 지혜의 검(劍)과 지계(持戒)의 방패로 선정(禪定)의 성지(城池)를 지켜서 자내아(自內我)로는 번뇌의 적을 파멸하고 심왕(心王)의 국(國)을 정화(淨化)하며 외적으로는 응화(應化)함에는 중생의 사생포외(死生怖畏)를 조복(調伏)시키어 안락의 피안(彼岸)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불보살(佛菩薩)이 중생을 교화함에는 지옥(地獄)에 들어가는 것을 전사(傳舍)⁴⁴처럼 여기고 생사 삼계(三界)에 손님(賓)이 되어서 순화로 역화로 잠시를 쉬지 않는 것이니 지장보살(地藏菩薩)이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거둘 시간이 없는 것도 이러한 의미이며, 3천불 중에 투전승불(鬪戰勝佛)이 있는 것도 이러한 표시이다. 이러한 본회(本懷)와 목적을 가지고 출가한 승려로서 찬심수도(懺心修道)하여 명심견성(明心見性)하여서 불언(不言)의 교(教)와 무공용(無功用)의 도(道)로 세계중생을 口탈(口脫)하면 그만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몸으로서 도솔자(導率者)가 되고 접인자(接引者)가 되어서 좋은 법과 착한 일로 일반에 앞서는 것이 당연한 바이다.

일본 각 종파에서는 군려(軍旅)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종군승(從軍僧)을 다수 파견하여서 포연탄우(砲煙彈雨)의 창황전패(蒼黃顛沛)한 틈에서도 법어(法語)와 법행(法行)으로써 위안을 주며 무양(務樣)을 보이거늘 조선불교에서는 간신히 위안대를 1회 파송함에 그치고 말았더니 열혈이 있고 애국성이 풍부한 청년 승려들이 징병에 지원하는 것은 진실로 의외의 희유(希有)⁴⁵의 일인 즉 진소위(眞所謂) '장위무인(將謂武人)이러니 뇌유일인(賴有一人)'의 격이다. 그러나 승려 지원병 제군은 의용(毅勇)한 군인의 훈련이 있는 위에 광대한 불교의 본령을 잊지 말고 자비로써 원적(怨讎)을 섭화(攝化)하며 지원(智願)으로써 국위를 선양하여 안으로 불교에 점욕(玷辱)이 없게 하고 밖으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쌍방으로 치소(耻笑)를 거듭하여서 '초불여불발(初不如不發)'의 탄(嘆)이 있을까 한다. (매일신보 일일일인에서 옮겨 실음)

〈출전 : 權相老, 「僧侶志願兵에 對하여」, 『佛敎時報』 제57호, 1940년 4월 1일, 1쪽〉

2) 비상시 반도불교의 임무

현재의 시국을 단순히 비상시국이라고만 하면 너무 평범하다. 즉, 초비상시국이다. 내가 서술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초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반도불교도의 임무가 얼마나 중대한가를 논하는 것이다.

44) 여관. 일정한 돈을 받고 여객을 치는 집.

45) 아주 드물





물론 전시체제하에서는 총동원의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임무를 운운하는 그 자체가 찬론(贊論)일 수도 있으나, 정진(精進)에 정진을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석양조순(夕陽朝詢), 잠시라도 멈추거나 방일(放逸)해서는 안 된다.

정신총동원 즉 국가총동원 체제하에서는 견마(犬馬)도 충절을 바치고 구합(鳩合)도 능력 발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인간으로서 아니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잘못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일반의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종교인의 자발적인 관찰과 엄정한 비판을 통해 시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만 한다. 불교도는 대개 다음과 같은 관념을 지니고 있다.

“불교는 자비와 인욕(忍辱)을 교조(教條)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명이 걸린 전쟁은 물론 그 어떤 쟁론(爭論)도 허락하지 않는다. 불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적자(赤子)로 보니 하물며 인류에 대해 말해 무엇하랴. 이처럼 사해동포를 일시동인시하는 것이 신조(信條)이기 때문에 서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

불교는 □친에 평등해서 적일지라도 사랑하고 아버를 죽인 원수라 해도 보복하지 않는 박애와 아량을 주지(主旨)로 삼고 있다. 따라서 너와 나를 구별해 적대시하며 살육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불교는 윤회인과(輪廻因果)를 골자로 삼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사이도 그러하다. 사람이 죽으면 양이 되고 양이 죽으면 사람이 되어 서로 보복한다. 따라서 항상 악의 원인을 제거해 악과(惡果)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인의 악을 □경(口愆)하는 것은 도리어 나에게 악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불교도의 머리 속을 점령하고 있을 것이다. 불교도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신도들도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부분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며 오해이다.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을 불러들일 수 없으며 악귀를 행복시키지 못하면 성불(成佛)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있어서도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이 여섯 가지 근원을 굳게 제어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며, 마음에 있어서도 망상망념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 외적의 유혹 혹은 외적의 입거(入據)를 경계하는 것이다. 밖으로는 몸, 안으로는 마음이 이러한 작전을 행하기 때문에 이욕(利慾), 명예, 사업을 방기(放棄)하거나 혹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귀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 파괴하지 않고는 건설할 수 없는 것이 종교 그 자체에 있어서도 거짓 없는 사실이다.

지금 대일본제국의 주의(主義)는 불교의 대승적 교의와 완전히 똑같다. 세계의 중생을 불토(佛土)에 들이고 대지의 국토를 적광정토(寂光淨土)의 불국(佛國)으로 만드는 것이 대승불교의 위대한 목적이다.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증보살(悲增菩薩)과 지증보살(智增菩薩) 등이 육도만행(六度萬行)으로 역화(逆化)도하고 순화(順化)도해서 악귀의 종자를 참멸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악귀와 부처의 구별이 없는 마즉법계(魔卽法界)이며 마즉불(魔卽佛)이다. 세계열강은 우리 동양에 □시(口視)와 낭심(狼心)을 멈추지 않는 악귀일 뿐이다. 때때로 육근문두(六根門頭)의 틈을 노려 심장의 의지(意地)에 침입해 점거하려고 한다. □□로 비둔한 육체는 악귀의 감언(甘言)에 넘어가서 순종하며 자신의 진심에 등을 돌리기 때문에 그 육체를 편책(鞭策)하여 마귀와의 연을 끊고 불성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동양의 대적광토(大寂光土)는 악귀에게 유린당하고 동양의 불자(佛子)들은 악귀





의 희생물로 바쳐질 것이다. 제국의 입장에서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 아래 어떻게든 이것을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 역화도 해야 하지만 순화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전(聖戰)으로 그들을 □□하는 것은 역화이며 대동양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은 순화이다. 이렇게 하여 제국의 이상이 관철되는 날에는 일시동인 아래 마신마민(魔臣魔民)였던 그들도 똑같이 불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4억 명의 적자(赤子)에게 성마성불(成魔成佛)의 분기점에서 일념(一念)의 반성을 요구하는 성전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당면한 비상시국인 것이다. 석가모니가 도를 이룬 역사를 보더라도 석존(釋尊)은 음력 12월 8일 전날 밤에 마왕이 자신의 신민(臣民)을 총동원하여 위협할 때 맞서 싸웠다. 그때 석존은 모든 도력(道力)과 일체의 지(智)를 다해 마왕을 정복시키는 대법전(大法戰)을 벌였다. 지금의 성전의 형세가 꼭 이와 비슷하다. 따라서 총후의 우리는 모든 심력(心力)과 모든 생명을 바쳐서 비상시국에 대처해야만 한다. 실로 대의(大義)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야만 하는 시국이다.

차분히 공부한 것을 소란스러운 시기에 사용하고, 평상시에 수련한 것을 급한 시기에 사용하려는 것이다. 조선불교도는 정중(靜中)의 공부도 오랫동안 했고, 평상시에 수련도 쌓아왔다. 지혜의 검도 있으며 정진(精進)의 투구도 있고 인욕의 갑옷도 □색(口索) 손도 있다. 다만 용맹력과 분투심(奮鬪心)만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임진역(壬辰役)에 서산대사는 선조대왕이 시국에 진력하라고 하자,

“_”

라고 대답하고 팔도에 격문을 띄워 승군(僧軍)을 일으켜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 이것이 과거 우리 조선불교의 특색이며 현대조선불교도의 유일한 모범이니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본령(本領)이다. 비심(悲心)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 자심(慈心)으로 중생에게 기쁨을 안겨준다. 그리고 해탈하게 도와준다. 불교는 안락한 중생보다도 위험과 어려움에 빠진 중생을 제도(濟度)하려하기 때문에 태평한 시대보다도 험난한 시대를 광제(匡濟)⁴⁶⁾하려고 한다. 그리고 석존의 근본취지도 항상, ‘하제(下濟)에 세 가지 고난이’ 있다며 지옥, 기아, 축생(畜生)의 세계에 있는 중생을 가엾게 여겨 구제하고, 물, 불, 바람의 세 가지 재난을 극복해 기근, 질병, 도병(刀兵)의 삼겁(三劫)을 초탈(超脫)하여 국토와 시대를 모두 극락화(極樂化)하는 데 있으니, 4억의 민중이 생지옥에 떨어진지 오래되어 도병겁(刀兵劫)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정말로 시급하다. 자비의 본령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는 지옥문전의 지장보살(地藏菩薩)과 극락계의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이 되어야만 한다.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금수(焚修)⁴⁷⁾하며 삼보(三寶)의 가호를 바랄 것인지 양 어깨에 병기를 메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인지는 각자의 재능에 달려있다 해도, 그 정신만은 총동원사상에 일치시켜 일 반대중의 지도자나 교화자가 되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급무(急務)이다.

이번 제2회 지원병모집에는 청년승려도 다수 응모하였다. 안벽관심(按壁觀心)하며 잠거수도(潛居修道)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의 기백이 있고 불교의

46) 악을 바로잡아 선으로 인도함, 즉 잘못된 일을 바르게 고쳐 구제함.

47) 부처 앞에 향을 피우고 도를 닦음.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부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보살도 금강분노(金剛忿怒)의 모습으로 화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비의 실현이며 대승적견해이다.

‘위급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해탈한다.’ 이것이 관세음의 신통(神通)이며,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한다’는 심지관경(心地觀經)의 법문이다. 모든 신명을 중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보살의 큰 덕행이기에 법문을 배워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불교도가 이러한 비상시국을 맞아 본령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불자도 사문(沙門)도 아니다. 시국을 타개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고 화평을 순치(馴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독선을 하는 것을 불교의 수치로 생각하고 심신을 모아 전력을 다해 적성(赤誠)⁴⁸⁾ 을 바치자. 종군도 좋고 행첩(行牒)도 좋다. 청허(淸虛)같은 통술자가 되고 사막(泗漠)같은 행자(行者)가 되어라. 이것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민중의 사표(師表)가 되는 일이고, 불타의 혜명(慧命)을 잇는 일이다.

어쨌든 충후의 종교인, 교화자도 최대의 임무와 건전한 정신으로 시국에 대해 몸소 자각하여 먼저 자신을 제도하고 나아가 사회의 정신지도와 사상조절 공작(工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교인에게 주어진 교화자로서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상시에 종교인의 면목을 발휘하지 않고 교화자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런 종교인은 이 국토에서 없어져도 좋으며, 그러한 교화자는 이 사회에 없어도 상관없다.

조선불교도들이여! 이 시국이 비상시임을 알고 이 시국의 광구책(匡救策)은 오로지 불교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출전 : 權相老, 「非常時半島佛教徒の任務」, 『總動員』 2권 6호, 1940년 6월 7일, 18~20쪽〉

3) 대동아전쟁과 대승불교

도(道)가 높으면 마군(魔軍)의 저희(沮戲)⁴⁹⁾가 생기고 벼슬이 높으면 소인의 시기가 깊어 간다더니 제국의 대의(大義)가 일관불변(一貫不變)하여 대동아의 공영권이 완수에 가까워 가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대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만 무저(無底)한 학욕(壑慾)⁵⁰⁾만을 품고 세계열국을 향하여 흡혈귀 노릇을 하는 각 민족의 거마(巨魔)인 미영(米英)은 드디어 일본 제국을 향하여 배전적(排戰的) 악행위를 감행하여 선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미영의 동양에 대한 야욕은 품어온 지가 오래일 뿐만 아니라 그 악랄한 수단을 마음대로 부려서 국토를 집어 삼키고 인민을 노예로 삼은 데가 한두 곳이 아닌 동시에 이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 일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즉, 새삼스럽게 말한 필요까지도 없지

48)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성.

49) 귀찮게 굴어서 방해함.

50) 학(壑) : 골, 도랑, 개천, 구렁.





마는 침침한 눈과 음험한 심장은 동양 전부를 몰탄(沒呑)⁵¹하려는 획책을 가지고 혹은 종교로 혹은 물질로 혹은 채권으로 혹은 무력으로 심지어 아편에까지 못할 짓이 없게 해 온 것은 오로지 동양에 있어서 가장 역사가 오래고 지역이 넓고 민중이 많이 살고 물산이 많이 나는 중국(支那) 그것에 침을 흘리고 꿈을 꾸어왔던 것인데, 명완무지(冥頑無知)⁵²한 중국은 그들의 내흉(內凶)한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감언과 이간에 유혹되어서 그들의 세력에 등을 대이고 그들은 비식(鼻息)⁵³ 하에 의존하려 하여 동문동족(同文同族)의 사이에 제휴와 모의는 새로이 도리어 불만과 반감을 품고 항모(抗侮)를 감행하게 됨으로 우리 제국에서는 동양의 대세를 보아 우이(牛耳)⁵⁴를 잡을 자격은 오직 제국이 있을 뿐이오, 제국이 만일 일보일태(一步一怠)이라도 소홀히 하는 때에는 중국 그것이 과분(瓜分)⁵⁵을 당하게 될 터인즉 그렇게 된다면 비특순치보차(非特唇齒輔車)에만 그칠 것이 아니오. 대동양 전부를 들어 저들의 노예를 만들게 됨으로 제국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중국을 맹호(猛虎), 독사(毒蛇)의 입에서 구출하여 가지고 공영권의 안전지대에 두지 않고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곧 중국의 일부만이 그 안정된 바를 얻지 못할지라도 ‘약기추면납제구중(若已推面納諸溝中)’하는 ‘자비민련(慈悲憐憐)한 성님과 성의를 다하여 저를 유액(誘掖)⁵⁶하며 응징하여 성업이 수성(垂成)하게 된 즉 인도(人道)에 배치되고 마심(魔心)이 탕중(撐中)⁵⁷한 저들은 자기를 욕망하던 마업(魔業)에 동요(動搖)있을까 대공포를 일으키어 일변(一邊)으로 원장(援蔣)하기에 부단의 노력을 하며 일변으로는 제국에 무리한 제시가 있었다.

광명(光明)한 제국의 정의 하에는 당연히 ‘왕손만각지(王孫滿却之)’를 하겠지마는 ‘이덕불차력(以德不此力)’으로 하려는 관대한 포용과 순순(諄諄)한 응접으로 저들의 양심자회(良心自悔)가 있기를 얻기 위하여 8개월간이나 두고두고 제안을 간단히 수정도 하며 대사(大使)를 중첩으로 파견하여 회담을 거듭하고 각서(覺書)를 수교(手交)하였으나 완만미명(頑慢迷冥)한 저들은 회감(回感)이 있음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제국의 은인(隱忍)도 더할 수가 없고 회유도 더할 길이 없어서 결국 납월(臘月)⁵⁸ 8일로써 혁노(赫怒)를 발하여 간과(干戈)로 상견하게 되었다. 성업(聖業)의 완수도 여기에 달렸고 세계의 평화도 여기 달렸다. 오직 백절불굴(百折不屈), 만난불퇴(萬難不退)로써 초지(初志)를 일관(一貫)하는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마치 석가모니께서 진세계중생(盡世界衆生)을 제도(濟度)하여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안락의 피안(彼岸)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초의 발심(發心)으로부터 역겁(歷劫)의 수행을 쌓아서 강생(降生)⁵⁹과

51) 물끼. 남기지 않고 다 먹음.

52) 어리석고 완고하며 무식함.

53) 콧숨. 기세.

54) 쇠귀. 맹주(盟主) 또는 우두머리를 뜻함.

55) 오이를 나누듯 토지를 신하에게 나누어 줌.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의 영토분할을 일컫는다.

56) (남을)이끌어 도와 줌.

57) (어떤 감정이나 심리 상태, 곧 화나 욕심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음.

58) 음력 선달(12월)을 달리 이르는 말.

59) 신이 인간으로 태어남.





내지 고행을 닦아 정각(正覺)에 이르게 됨으로 마왕 파순(波旬)이 공포와 시기를 이기지 못하여 마신(魔臣), 마녀(魔女), 마민(魔民)을 총동원 하여가지고 법보제장중(法菩提場中)을 향하여 협박과 공격을 행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에 들었으니, 석존으로 하여금 견인불발(堅忍不拔)하는 정력(定力)과 직하처파(直下觀破)하는 혜안이 없이 파순(波旬)에게 동요한바 되고 좌절한바 되었던들 무상(無上)의 법왕(法王)이 되어서 3천세계를 불국토(佛國土)로 정화하고 미래(未來) 무량겁(無量劫)에 혜명(慧命)⁶⁰⁾을 전하여 법계(法界) 중생을 성역의 낙방(樂邦)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완명(頑冥)한 일개 미국(米)이 포외심(怖畏心)을 일으키어서 감히 광명赫赫(光明赫赫)한 제국의 대주의를 향하여 발지(跋智)한 생각을 동(動)함에 영국(英國)도 거기에 협조(協助), 오스트레일리아(濠洲),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蘭印), 쿠바, 호리(扈利), 캐나다(加奈陀)등 모든 소국들이 거기에 추수(追隨)하게 된 것은 마왕의 호령에 따라 마녀, 마민들의 준동(蠢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대체(大體)를 위하고 동양의 공영을 위하여 질서의 신건(新建)을 위하여 일억일심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불굴불요(不屈不撓) 결사의 매진이 있을 뿐이지마는, 특히 우리 불교도는 어떠한 체제 어떠한 사상으로 금일의 역할을 당해야 할 것인가? 불교의 최고 목표는 단악수선(斷惡修善) 이고득락(離苦得樂) 전미개오(轉迷開悟)⁶¹⁾에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러하여 일체 중생이 다 같이 각지(覺地)에 이르는 것이 대승불교인 동시에 섭수(攝收)할 자는 섭수하고 절복(折伏)할 자는 절복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저들은 지금 악을 짓고 있으니 선(善)하게 해야 하고 고(苦)를 취하고 있으니 낙(樂)을 주어야 하고 혼돈(迷)에서 방황하고 있으니 시각이 바쁘게 각로(覺路)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금일에 급히 취할 바가 아닌가. 대승불교(大乘佛敎)에서는 육도(六度)를 가지고 자리(自利)도 하며 이타(利他)도 한다. 육도의 각자는 일반이 잘 알고 있는 터인즉 구태여 열거할 필요도 없지마는 보시(布施)와 지계(持戒)와 인욕(忍辱)과 정진(精進)과 선정(禪定)과 지혜(智慧)와의 여섯 가지를 이르는 것이니 이 여섯 가지를 단지 자기 한 사람의 작복(作福)이나 수행이나 수행을 위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은 협의적(狹義的)인 개인주의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만일 광의적으로 해석하건대 이때야말로 육도를 행할 날 이라고 한다. 보시(布施)는 간탐(慳貪)을 버리고 재력을 바치게 하며, 지계는 염욕(染欲)이 없는 것이니 성업(聖業) 조성의 청정한 욕망을 품게 하며 견인불발의 인욕으로 모든 고난을 인수(忍受)하며 용진매왕(勇進邁往)하는 정진으로 일사보국(一死報國)을 맹서(盟誓)하고 유진무퇴(有進無退)하며 질서가 정연(整然)하여 산란(散亂)이 없는 선정(禪定)으로 침착 건실한 저력을 발휘하며 필승의 신념이 명확한 지혜로 진향(進向)할 전로(前路)에 미혹이 없는 것이 불교도 된 우리의 자수(自修)할 바이며, 또한 대중에 권할 바이다. 육도를 행함에는 근행(勤行)도 있고 가행(加行)도 있다. 물론 지나사변(支那事變)⁶²⁾이 발발한 이래에 벌써 5개 성상(星霜)⁶³⁾을 출력(出力)도 해왔으며 인고도 해 왔으며 용진(勇進)도 하였으며 단결도 되었지마는 과거의 5개년은 근행에 지내지 못하였고 지금부터는 가행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보다 배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과거의 모든 것이

60) 지혜의 생명. 불법의 명맥을 뜻함.

61)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에 이룸.

62) 중일전쟁을 뜻함.

63) 별은 일년에 한 바퀴를 돌고 서리는 매해 추우면 내린다는 뜻으로, 한 해 동안의 세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힘을 다하였다면 지금부터는 실력의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힘을 내어야 하고 견딜 수 없는 데까지 견
뎌야 할 것이다.

유생(有生)이면 필유사(必有死)다. 이 세상에는 아니 죽는 수가 없다. 언제나 한 번은 죽는 것이다.
생사(生死)를 무서워하는 것은 범인(凡人)이오, 생사를 평등시하는 것은 달인(達人)이오, 생사를 초월하
는 것은 불교이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지마는 즉시생(卽是生)이 있는 이상에는 이 생(生)을 정의에 바
쳐야 하고 즉시사(卽是死)가 있을 바에는 이 사(死)를 정의에서 얻어야 할 것이나 정의의 앞에는 죽음도
없다. 강적도 없다. 1억이 모두 다 각각 생로(生路)만을 구한다면 생(生)을 얻기 어렵지마는 그와 반대
로 1억이 모두 심력(心力)을 모아서 사지(死地)를 찾는다면 생(生)이 올 것이다. 각각 찾아서 얻는 생에
는 자기 한 사람의 구제도 넉넉지 못하지마는 심력을 합하여 얻는 생에서는 전 민중과 전 국가가 한
가지 활로(活路)를 얻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중(人衆)을 모두 그 품안에서 살릴 수 있고 영
원미래(永遠未來)의 모든 인류를 그 터에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십도(十度)를 닦는 것이오, 이것이 이른바 대승적(大乘的) 불(佛)이다. 시간(時艱) 극
복이 여기 있고 전승기원이 여기 있고 성업완성이 여기 있다. 자비한 불교도여, 이것으로 사은(四愆)을
갚고 중생을 인도하라. 반근착절(盤根錯節)⁶⁴이 아니면 이기(利器)를 구할 필요 없고 험위급난(險危急
難)이 아니면 성도(聖道)를 신(信)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솔선(率先)하여 육도로써 자도(自度)하는 동시에 타(他)를 도(度)하여 가까이는 이 시국을 이
동양을 어서 빨리 건지고 멀리는 전 세계를 먼 미래를 건지어 주자.

한 음험흉완(陰險兇頑)한 마왕(米)⁶⁵이여. 간교 노획한 마녀(英)⁶⁶이여. 명완우준(冥頑愚蠢)한 마장
(魔將=蔣)⁶⁷이여. 광미(狂迷) 추종하는 마(魔: 民濠·蘭·智 등)이여. 광명한 태양의 아래에는 형영(形
影)을 오래 머물 수 없느니라. 어서 반성하여 대 자비(慈悲), 대 능위(稜威)의 아래에 굴복하라. 우리의
대승적(大乘的) 불교 견지(見地)에서는 마즉법계(魔卽法界)이다. 마가 따로 없는 동시에 불교도 따로 없
다. 마도 일념회광(一念回光)하면 곧 불(佛)이다. 모든 것을 복구(復舊)하여 평화한 마음과 얼굴로 제국
을 대하는 동시(同時)이면 그 순간에 곧 워싱턴(華盛頓)·런던(倫敦)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청정(淸
淨)·광명(光明)·환희(歡喜)·원만(圓滿)한 불국토(佛國土)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불타(佛陀)의 대성전(大聖前)에 합장(合掌)을 드리고 이것을 기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불광
(佛光)이 조림(照臨)하는 곳에 마분(魔氛)이 소멸하소서.

〈출전 : 權相老, 「大東亞戰爭과 大乘佛敎」, 『佛敎 新』 제32집, 1942년 1월 1일, 6~9쪽〉

64) 서린 뿌리와 얼크러진 마디라는 뜻. 처리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을 일컬음.

65) 미국을 뜻함.

66) 영국을 뜻함.

67) 장개석(蔣介石)을 뜻함.





4) 『임전의 조선불교』 발췌

[4-1]

성불(成佛)은 전승(戰勝)이다

석존(釋尊)의 성도(成道)하신 팔상중(八相中)에 나무아래 항마상(降魔相)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곧 성도하시기 직전 납월(臘月)⁶⁸⁾ 7일의 밤에 보제수(菩提樹) 아래 금강좌상(金剛座上)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것이 곧 항마(降魔)라는 것이다. 석존께서 종인지과(從因至果)⁶⁹⁾히 삼아승지겁(三阿僧祇劫)⁷⁰⁾을 닦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마(魔)로부터 장기전을 하신 것이다. 세밀하게 말한다면 팔만 사천 마군(魔軍)이라고 하지마는 대부분으로 분류 한다면 곧 10조마(租魔)이다. 마왕(魔王)·마신(魔臣)·마졸(魔卒)·마민(魔民)·마여(魔女)·마종(魔種)으로 편성한 10부대의 마력, 곧 10대전구에 열진(列陳)하여 있는 대마 적진을 향하여 오직 견고한 신앙과 서원(誓願)만 가지고 적신 단력(赤身單力) 즉 육탄(肉彈)적으로 용감하게 싸움을 시작하여서 한량없는 장기전을 하여 오셨다. 오온마(五蘊魔)·번뇌마(煩惱魔)·업마(業魔)·심마(心魔)·사마(死魔)·천마(天魔)·선근마(善根魔)·삼매마(三昧魔)·선지식마(善知識魔), 이러한 10대부대의 마진을 향하여 발심(發心)이라는 거탄(巨彈)을 던지어 선전포고를 내린 후로는 장원(長遠)한 기간에 불면불휴(不眠不休) 부단불식(不斷不息), 시시년년 재재처처(時時念念在在處處)에 일미(一口)허(一微口許)의 지면(地面)에나 일찰나(一刹那)의 시분(時分)이라도 악전고투하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안신(安身:色)과 안심(安心:受·想·行·識)의 오온(五蘊)이 혹(惑)을 일으키시고 업(業)을 짓게 하여서 정도(正道)에 장애(障礙)되는 것도 분쇄(分碎)하여 버리고 대번뇌(大煩惱:癡·放逸·懈怠·不信·昏沈·掉舉) 소번뇌(小煩惱:忿·覆·慳·嫉·惱·害·恨·諂·誑·橋)도 모두 제어하고 살(殺)·도(盜)·요(婬)·망(妄)의 업해(業海)에도 제패권(制霸權)을 가지시고 생사의 애하(愛河)에도 적전도하(敵前渡河)의 성공을 하시고 이번에는 마의 수뇌부인 천마(天魔:大自在天)로부터 최고전선에 서게 되었다.

앞으로 성도하시려는 순간에 대광명이 나타나며 찬란승엄(燦爛崇嚴)하던 마왕의 궁전은 석존의 광명에 은폐(隱蔽)되어서 아주 무색하게 되어버리고 대지가 진동하여 마왕의 궁전까지도 흔들흔들 동요하여서 방장(方將)에 붕괴할 것 같이 되었다. 마왕은 대공포를 내어서 자기의 부하를 총동원시키고 무비(武備)를 모두 기우려 뇌전우박(雷電雨雹)이며 도창검극(刀鎗劍戟)이 공중을 뒤덮고 암석(岩石)·사력(沙礫)·열철(熱鐵)·연화(煙火)가 운무(雲霧)같이 쌓였으나 석존께서는 시종일관하신 대선정(大禪定)에서 안연부동(晏然不動)하시는 위압하(威壓下)에 마왕은 드디어 백기를 세우고 항복을 바치었으니 이것이 석존께서 장기전을 하여 오시던 최후의 승리였고 개선(凱旋)이셨다. 이에 대한 수훈(殊勳)이야말로 이른바 등정각(等正覺)을 이루신 성불(成佛)이었고, 이에 대한 업적이 삼계대사사생자부만법(三界大師四生慈父萬法)의 왕이시다.

〈출전 : 權相老, 『臨戰의 朝鮮佛敎』, 卍商會, 1943년, 7~9쪽〉

68) 음력 선달

69) 불도의 수행에 따라 인위(因位)에서 과위(果位)에 오름.

70) 무량겁으로 수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수 또는 시간





[4-2]

계(戒)는 전투훈(戰鬪訓)이다

계(戒)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범계(犯戒)가 될까하여 십지(十指)를 부동(不動)하고 긍긍업업(兢兢業業)하는 소극적 방면으로 들어가지마는 계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계는 정순(正順)의 의(義)가 있고 청정(淸淨)의 의가 있다. 아무리 계의 조문(條文)에 촉범(觸犯)됨이 있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정순청정(正順淸淨)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지계(持戒)⁷¹⁾이고 아무리 불살생(不殺生)불사음(不邪淫)을 역행(力行)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정순청정하지 못하면, 지계(持戒)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는 십악업(十惡業)⁷²⁾도 유과무과(有果無果)를 말씀하였으니,

“다섯 가지 인연을 말미암아 비록 살생(殺生)을 하였더라도 살생의 업과 살생의 죄가 없을 수가 있으니, 이른바 행로(行路)할 때에 무심(無心)으로 개미(蟻)등 명(命)을 살상한 것은 업죄(業罪)가 없고 철물(鐵物)같은 무거운 것을 운반할 때에 무심으로 살생한 것은 비록 물명(物命)을 끊었으나 살생의 업죄가 없고 의사가 병을 다스릴 때에 이익을 위하여 병자에게 약을 주었건만 그 약으로 인하여 단명이 될지라도 약사는 악심이 없었기 때문에 살생의 업죄가 없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때리지만은 때림으로 인하여 명종(命終)이 될지라도 살생의 업죄가 없고 불을 피울(燃) 때에 미충(微蟲)을 살생할 마음이 없었지만 미충이 화중(火中)에 들어가 죽음으로 살생의 업죄가 없다.”

하였으니 그 동기가 무심에 있어서도 오히려 살생의 업죄가 성립되지 않거늘 하물며 그 목적이 일체의 마(魔)를 구축 제거하고 ‘진대지유정(盡大地有情)’들과 한 가지 낙토(樂土)에 살자는 것이다. 범강경(梵網經)에 「효명위계(孝名爲戒)」라 하였으니 효(孝)는 백행(百行)의 원(源)인즉 효가 불계인 동시에 충(忠)도 불계이며, 신(信)도 불계이며 용(勇)도 불계이며 경(敬)도 불계이며 화(和)도 불계이며 섭수(攝受)도 불계이며 절복(折伏)도 불계이며 모든 경국(經國)·이민(理民)·어적(禦敵)·치화(致和)가 선법(善法)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명교결승대사(明敎契嵩大師)의 효론(孝論) 「명효장(明孝章)」에,

“孝名爲戒니 盖以孝로 爲戒之短也라 子與戒以欲忘孝면 非戒也라 夫孝也者는 大戒之所先也오 戒也者는 無善之所生也니 爲善微戒면 善何生耶며 爲戒微孝면 戒何自耶라.”

하였으니 중선(衆善)을 구하는 데는 일살다생(一殺多生)도 있고 역취순수(逆取順守)도 있다. 문중자(文中子)의 말에,

“망국(亡國)은 전병(戰兵)하고 백국(伯國)은 전지(戰智)하고 왕국은 전인(戰仁)하고 제국은 전덕(戰德)하고 황국(皇國)은 전무위(戰無爲)라.”

함과 같이 대일본제국에서는 본래에 무위의 전을 하려고 하였다. 노구교사변(盧溝橋事變)이 일어난 후에도 1월 유여(有餘)를 은인(隱忍)하여 무사의 해결을 기다렸으나 피완(彼頑)이 무지하여 항모(抗侮)로써 역린(逆鱗)을 자영(自嬰)함에 부득이 응징을 행하나 항상 덕과 인을 주로 하고 일찍이 지전(智戰)에도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번 미영(米英)에 대하여서는 더욱이 무위를 희망하여 8개월 동안이나 불가

71)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을 이르는 말.

72) 불교에서 신(身)·구(口)·의(意)의 삼업(三業)에 해당되는 열 가지 죄악. 10불선업(十不善業)이라고도 한다. 곧 살생(殺生)·투도(偷盜)·사음(邪淫)·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탐욕(貪慾)·진에(瞋恚)·사견(邪見)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인(不可忍)할 것을 능인(能忍)하고 대사를 거둬 보내어 교섭이 비지(備至) 하였지만 노욕(怒慾)이 무저(無底)한 저들은 제국의 성의에도 감화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여 대동아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즉 저들이 제국에 자절(自絶)하여 주륙(誅戮)을 자속(自速)한 것이니 제국이 어찌 무위와 인덕을 버리고 지전(智戰)이니 병전(兵戰)을 한 것이겠는가. 열화(熱火)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나방은 금지할 도리가 없고 암벽에 스스로 부딪히는 짐승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금일에 이르러서는 임의 무위의 전이 되지 못하고 덕과 인으로써 임전(臨戰)한다 할지라도 전선에 임한 이상에는 불용명자(不用命者)를 주륙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전진에서 용기가 없이 겁나(怯懦)하거나 후퇴하는 자도 역시 대계를 파하는 자이며 효를 알지 못하는 자이다. 예기(禮記)의 한 대문(大文)을 인용하여 이것을 좌증(左證)하겠다.

‘左處不莊이 非孝也오. 涖官不敬이 非孝也오. 朋友不信이 非孝也오. 戰陣無勇이 非孝也라.’ 하였으니 다만

‘昏定晨省하며 問衣燠寒하며 問何食飲하며 出必告하며 返必面하며 不遠遊하며 遊必有方하면’ 하는 등등의 협의적(狹義的)으로 해석하는 자이나 또는 口飛口動이라도 살해치 않고 일문(一文)의 가치라도 더 붙어 능히 취하지 말라는 소승적(小乘的)으로 지행(持行)하는 계(戒)로는 금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4-3]

임전(臨戰)의 역할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漢敵이 不兩立이라⁷³⁾는 말과 같이 번뇌와 보제(菩提)가 양립되지 못하고 생사와 열반(涅槃)이 양립되지 못하고 망(妄)과 진이 양립되지 못하고 마와 불이 양립되지 못하고 제국과 적이 양립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번뇌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보제심 하나로서 그것을 익혀야 하고 생사가 아무리 오래일지라도 열반의 일 찰나(刹那)로서 그것을 익혀야 하고 망(妄)이 아무리 상속 불단(相續不斷)할지라도 일단 진심이 그것을 익혀야 하고 마(魔)가 아무리 봉기교란(蜂起攪亂)할지라도 불타(佛陀) 홀로 그것을 이겨야 하고 적이 아무리 지구(全球)에 편만(遍滿)할지라도 제국 단독으로 그것을 이겨야 한다. 마(魔)를 항복받지 못하면 성불(成佛)의 대이상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을 모두 항복받지 못하면 제국의 대 주의(主義)는 완성되지 못한다. 도력(道力)이 높을수록 마(魔)의 무리는 많아지고 국위(國威)가 강할수록 적의 무리는 늘어간다.

제국의 대동아주의가 날로 발전되고 실현됨에 따라 자기들의 복마전(伏魔戰)이 흔들거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怯)을 내어서 대도(大道)에 방해하려는 파순(波旬)⁷⁴⁾의 미영(米莢)을 서로 서로 결탁하여 가지고 광명정대한 옥일기(旭日旗)⁷⁵⁾ 아래를 향하여 감히 교란책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석존의 성도

73) 촉한은 한나라의 적인 위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는 뜻.

74) 불교에서 천마(天魔), 악마를 뜻함.

75)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태양 문양주위로 퍼져나가는 햇살을 붉은 색으로 그린 깃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제 국주의 군대 깃발로 사용되었고, 현재 자위대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成道)하시던 12월 8일 새벽의 직전 즉 세존(世尊)이 향마하시던 시분(時分)에 제국은 드디어 마의 세계를 향하여 제1성의 뇌음(雷音)을 발하여 마력은 날로 압축이 되고 마담은 날로 나약해져서 그들의 항복의 깃발을 세우기는 다만 시간문제인즉 전첩(戰捷)의 축하에 사용할 노포(露布)와 사문(赦文)을 미리 지어 두어야겠다.

문자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홍명집(弘明集) 중에 도안법사(道安法師), 일명 지정법사(智靜法師)의 저술인 「격마문(檄魔文)」과 「파마노포(破魔露布)」·「평마사문(平魔赦文)」·「평심노포문(平心露布文)」에 제대보살(諸大菩薩)로서 역할에 배당(配當)한 것이 있으므로 이것을 열기(列記)하여 여러분의 일소(一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使持節前鋒大將軍閻浮都督歸義侯薩陀波崙……領衆四十萬揚口首路
 使持節威遠大將軍四天都督忉利公導師口無竭……領衆百萬億虎眇須彌
 使持節征魔大將軍六天都督兜率王解脫月……領衆五百萬億鳴變天口
 使持節通微大將軍七天都督四禪王金剛藏……領衆七百萬億雲廻天門
 使持節鎮城大將軍九天都督八住大王口魔詰……領衆九百萬億口馬靈津
 使持節口後大將軍十三天都督小千諸軍事十住大王大文殊師利……領衆塵沙鞞鞞斯土
 使持節匡教大將軍十九天都督口魔諸軍事群邪校尉中千王觀世音……領衆不思風吟虎嘯
 使持節無化大將軍三界大都督補處王大慈氏……領衆八百萬億嚴駕特命
 (이상은 격마문에서)

廣緣將軍流蕩校尉都督六根諸軍事除惠建善王臣心
 賑惠將軍善散子都督廣諸軍事監軍臣施
 繕性將軍剋欲界都督攝志諸軍事司馬臣戒
 平忿將軍蕩恚侯都督洪裕諸軍事司空臣忍
 勇猛將軍勤習伯都督六度諸軍事行臺臣進
 安靜將軍志忿都尉都督觀累諸軍事攝散侯臣禪
 博通將軍周物大夫都督調達諸軍事監口王臣智
 (이상은 破魔露布에서)

中書令補處王臣逸多
 侍中臣文殊師利
 侍中臣薩陀波崙
 黃門臣獅子吼
 黃門臣舍利佛
 黃門臣須菩提





使持節儀同三司領十二住大將軍唯識道行軍元首上柱國晉國公臣般若
 使持節口一大將軍領四念處諸軍事奉道品縣開國公臣求知
 使持節寧境大將軍領八正道諸軍事通真縣開國公臣實知
 使持節兜率大將軍婆婆招慰大使上柱國翹頭末開國公臣阿逸多
 使持節平等大將軍兼行軍長史上柱國清涼縣開國公臣正念
 使持節遍滿大將軍兼行軍司馬上柱國常樂縣開國公臣真如
 (이상은 平心露布文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정돈하여 가지고,

擊法口二出三空하고 建慈幢以臨八難하여 講武大千하고 曜威萬城하니 神戈가 暫指則魔徒가 失膽하
 고 慧劍을 一揮則群邪가 俱口라
 (破魔露布文의 一節)

集戈盤口口度之津하고 命口車於一乘之轍하여……氛祲蕩이 若和氣之泮春冰하고 醜穢戲夷를 似涼風
 之卷秋口
 (平心露布文의 一節)

上籍三昧之士하고 下憑六度之師하여 控清方夏하고 大戡荒服하니 故로 六軍이 雷動則三有가 雲消하
 고 慈施가 電馳則四凶이 面縛이라 降附가 若口하고 生擒이 萬計라
 (平魔赦文의 一節)

이가 조금도 틀림없이 황군의 소도(所到)에 만국이 전율하고 옥기(旭旗)가 일휘(一揮)에 팔굉(八紘)
 이 명랑(明朗)하여 집과 동일한 경계이라 아니 할 수 없은즉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우리 제국에서
 는 불교 그대로 정치화하고 정치 그대로 불교화하여 정치와 불교가 비일비이(非一非異)·불즉불리(不
 卽不離)한 관계인 까닭이라고 나는 말하기를 자저(赳赳)치 않는다.

〈출전 : 權相老, 『臨戰의 朝鮮佛敎』, 畝商會, 1943년, 70~75쪽〉

7. 김삼도(金三道, 宇英生)

1) 총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일억일심(一億一心) 백억저축(百億貯蓄) 이 표어는 곧 총친화(總親和) 총노력(總勞力)의 한 부면적
 (部面的) 제창이거니와 우리가 신앙보국 혹은 전도보국을 특서(特書)함도 이 또한 그러한 총친화, 총노





력의 일면영(一面影)을 창도(唱道)함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총친화, 총노력의 근본정신을 체득하고 또 그에 입각하여 현하 동서의 풍운을 일고 다시 세계의 정세를 전망하고자 함에 정금(整襟)⁷⁶⁾하며 다시 생각할 바가 한 둘이 아닌 것이니, 첫째 총후(銃後)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간(時艱)⁷⁷⁾ 극복의 태도라든지 다음 우리의 명제(命題)인 견인지구(堅引持久)의 각오라든지 또 그리고 보국정신의 인식이라든지 이상과 같이 몇몇을 들어 말한다면 먼저 그 태도부터 전일(全一)⁷⁸⁾하다고 해서 온당하다고 해서 곧 그의 각오 또 인식 여하를 추단(推斷)하지 못할 것이요, 결정 못할 것으로 믿어진다. 제 아무리 태도만을 표현만을 아름답게 장식한들 참다운 각오에서 우리나라오지 못한 진정한 인식에서 형성되지 못한, 말하자면 태도로서의 태도, 태도만을 위한 태도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므로 태도는 각오 여하에서 인식 여부에서 우리나라와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은 여기에 우언(愚言)할 바 아니다.

오늘날 신문으로 라디오로 우리가 보고 읽고 들어서 그 위 참작할 수 있는 비근(卑近)한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북구(北歐)의 전화(戰火)가 의외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폭발하였으나 동(同) 반도는 이미 구주전(歐洲戰)의 천왕산(天王山)이 되었거니와 전국(戰局)은 혹은 다시 새로운 무대에 발전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자못 이상한 흥분과 긴장을 소리쳐 부르고 있는 금차(今次)의 북구(北歐)전쟁의 폭발은 이를테면 나치스의 전통적 전법의 태도이요, 표현이라 할 것이다. 물론 금차의 전격전(電擊戰)으로서의 독일(獨乙)측의 전과(戰果)는 문자 그대로 통쾌한 수확이었고 동시에 그 반면 영(英)·불(佛)측 특히 영국측에 있어서는 실로 치명적인 일대 통봉(痛棒)⁷⁹⁾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히틀러 총독의 참다운 각오 또 그 진정한 인식이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리라. 이와 같은 인례(引例)는 첫째 총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그 실증성이 너무 현격함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여실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 실례를 이해하여야 한다. 아니 적정하게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리냐하면 총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간극복(時艱克服)의 태도가 적어도 구주정세를 호흡하여야, 소화하여야 비로소 비상한 큰 용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는 도무지 필자의 독견(獨見)일까! 필자 스스로의 억측일 것인가! 비판보다 신념에서이므로 시비는 막론할 터이다. 그래서 그러면 유럽 정세를 도의(道義) 황국 국민인 우리들이 호흡 또 소화함에는 누구보다 먼저 히틀러 총독을 알아야 하고 어느 국가보다 앞서서 독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두 친목하고 모두 협화(協和)함은 국가사회의 원리이며 도의 황국의 시사(示唆)⁸⁰⁾이다. 흥아의 성업수성(聖業遂成), 또 황도의 정신선양을 나아가 팔굉일우의 대이상실현이라 한다면 총친화, 총노력의 시사는 우리 국민정신의 실제(實際)요, 실천을 위한 목표이다. 이에 총친화의 근본 면목을 고찰할 때 무엇보다 총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시간극복의 태도, 견인지구의 각오, 보국정신의 인식 등등 첫째 태도보다 각오 더욱 각오 보다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은 다시 재언할 것이 없거니와 그의 일면영(一面影)을 신앙보국 혹은 전도보국(傳道報國)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요, 그의 일치된 근본정신

76) 옷깃을 여미어 모양을 바로잡음.

77) 그때의 어려움, 또는 시국의 어려움.

78) 완전한 것. 또는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

79) 불교에서 좌선할 때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데 쓰는 방망이.

80)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귀뜸, 일러 줌.



에서 실제로 실천을 위한 목표로 비로소 그와 같은 실성(實性)을 파악할 수 있는 터이다.

〈출전 : 宇英生⁸¹⁾ 「統後 우리들의 日常生活에 就하여」, 『佛敎 新』 제23집, 1940년 5월, 21~22쪽〉

8. 이종욱(李鍾郁)

1) 조선 불교도의 새로운 각오

우리 조선 불교계의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사찰 수로 1,500개가 있고 승니(僧尼)수로 7천여 명이 있고 신도 수로 2만 이상이 있고 재원(財源)을 말하더라도 연 수입 150만 원을 계상(計上)할만한 대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불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렇니까. 모두 아니요, 오직 통제기관(統制機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선불교의 교계(敎界)체제를 볼 것 같으면 딱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 조직내각이 마치 형제만 있고 부모가 없는 거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1본산(本山)이 대등하게 병렬되어 있을 뿐이요, 상위에 통제하는 아무 기관이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로 그 통제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선불교(朝鮮佛敎) 종정(宗政) 운용상 또는 불교 포교발전책에 대하여 장애가 적지 않고 폐단이 첩출(疊出)⁸²⁾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방어할 도리가 없는 고로 하루 바빠 총본산(總本山)이 합법적으로 실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작년부터 총본산 대웅전의 건물을 짓고 작년도에는 기어이 총본산을 합법적으로 실현시키려고 다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법승의 무작각한 암투, 알력(軋轢)과 같은 불상사가 첩출하여 오늘 날까지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본산 실현의 책임을 가진 분자(分子)인 나로서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년 중에는 총본산의 기구가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이며 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실현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니까 제산법려(諸山法侶)의 대덕(大德)이 신년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힘써 주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현시 전시체제하에 있어서 전 국가적으로 일역일심의 단결을 부르짖고 있는 이 해에 우리 법려가 교계 발전을 위하여 일치단결이 없다면 이게 될 말입니까. 우리 법려가 일치단결하고 화애협력(和衷協力)⁸³⁾하여 통제기관을 확립시키고 그 밑에서 인재용통을 하여 흥학포교(興學布敎)를 잘해야 이것이 국가를 위한 신앙보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즉 청구(靑邱)⁸⁴⁾ 법려 대덕은 신년에 새로운 각오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李鍾郁 「朝鮮佛敎徒의 새로운 覺悟」, 『佛敎時報』 제54호, 1940년 1월 28일, 2쪽〉

81) 김삼도의 法名.

82) 같은 사물이 거듭 나옴.

83) 화해협력의 오키로 보임.

84) 조선.



2)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전체주의로

의의(意義) 깊은 황기(皇紀) 27세기의 초년두(初年頭)를 맞이하여 일억 신민이 더욱이 안으로는 신체제 확립으로 신도(臣道) 실천의 길을 얻어서 직역봉공(職域奉公)을 굳게 실행하여 밖으로는 일(日)·독(獨)·이(伊) 삼국동맹과 함께 일(日)·만(滿)·중(中)의 새로운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결실을 거두어 동아신질서 건설을 매진하는 동시에 세계 신질서 건립을 위하여 활약할 것을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삼가 황실(皇室)의 어번영(御繁榮)을 봉축(奉祝)하고 황군장병의 어노고(御勞苦)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따라서 조선불교도 신체제 하의 혁신을 단행하여 국가사업에 만에 하나라도 보좌하고자하여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대하는 차례(次第)⁸⁵⁾올시다.

그런데 이 의의 깊은 신년을 당하여 조선불교의 발전과 총본사(總本寺)에 대한 희망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선불교도의 충의를 대표한 31본사 주지가 지난 해 11월에 경성에 집합하여 총본사 건설에 대해서 회의를 열고 종래 조선불교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써 세워오던 종명(宗名)을 고쳐서 조선불교 조계종(曹溪宗)이라 하고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太古寺) 사법인가(寺法認可)를 신청하는 동시에 조계종 총본사 건립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니까는 늦어도 금년 3월 전으로 반드시 총본사 사법인가가 나게 되며, 따라서 총본사 기구가 조직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도 불교가 과거에 있어서 발전되지 못한 것은 통일기관이 없어 31본사로 통일하는 총본사가 건설하게 되는 고로 반도 불교는 앞으로 광휘(光輝)있는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 되는 것은 총본사 기본 재산 조성의 건(件)인데 이것만 소정의 규약에 의지하여 각 사(寺)에서 기부 헌납하고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成就)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출전 : 廣田鍾郁⁸⁶⁾ 「各自의 固執를 버리고 全體主義로」, 『佛敎時報』 제66호, 1941년 1월 25일, 2쪽〉

3) 총본산의 현실과 조선불교의 장래

세화(歲華)⁸⁷⁾가 바뀌어 이에 전승의 신춘을 맞이하여 삼가이 황실의 어번영(御繁榮)을 봉기(奉祈)하고 동시에 황군이 건설한 위적(偉績)을 찬양(讚仰)하여 국가의 광영을 경축한다. 그리고 신년 초두(初頭)에 임하여 조선불교 총본산의 기구 확립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선불교의 장래를 위하여 소회일단(所懷一端)을 서술하고자 한다.

조선에 불교가 유입된 지, 이미 1568년을 헤아리게 됨에 유구연선(悠久連線)한 법口(法口)의 주류는 각 시대 각 사회를 통하여 널리 口洽(口洽)하지 아니함이 없다. 의연한 불교사를 돌아볼진대 고구려의 순도, 백제의 마라난타, 신라의 아도(阿度)를 시조로 한 각 조(朝)의 불법은 국정, 민속, 口口, 문화 등

85) 이때, 때마침 주어진 이 기회.

86) 이종욱의 창씨명.

87) 세월.





백반에 걸쳐 〇〇를 지었으므로 조선의 모든 문화는 불교를 이별(離)하고 그 존재를 볼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오교구산(五敎九山)의 강성(降盛)은 더욱이 〇〇한 문화를 …… 판독불가(5줄)……과 도의(道義), 혜철(惠哲)등 구산문(九山門) 조사(祖師) 및 보조(普照), 뇌옹(瀨翁)등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부터 고려조에 이르기까지 불문으로부터 족출(簇出)한 역대의 국사(國師), 왕사(王師)의 〇오심원(奧深遠)한 덕화(德化)는 일세(一世)를 풍미(風靡)하여 그 법도가 천추에 범(範)을 드리울 뿐만 아니라 천문(天文), 지리(地理), 역상(曆象), 방술(方術), 가요(歌謠)등에 이르기까지 깊은 조예를 가져서 혹은 창조하고 혹은 중흥(中興)하고 혹은 지도하여 만반 문화의 창조발달에 기여함이 크다. 그래서 북학동전(北學東傳), 내수외화(內修外化)로써 사회의 궤범(軌範)이 되며 민중의 표(表)가 되어서 삼국으로 하여금 삼국답게 하고 고려로 하여금 고려답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조(李朝)에 있어서는 국정으로써 불교 흥룡에 배척을 〇하더니 중엽이후로는 점차 박해하여 압박하는 정도가 가혹하여 겨우 선교(禪敎) 양종(兩宗)만이 유지(維持)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각 종파의 존속이 파괴되고 사찰(寺刹)은 산악(山岳)에 격재(隔在)⁸⁸⁾하여 승니(僧尼)와 민중의 간섭(干涉)이 끊어지고 불교와 사회의 접촉이 소원하여 〇〇 5백년에 〇〇의 강성(降盛)을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래도 오히려 불타(佛陀)의 가호가 없지 않아서 청허대사(淸虛大師)같은 이가 나와서 선교 양종을 통제하고 승려를 거느리고 근왕(勤王)의 위훈(偉勳)을 세움으로써 불력의 여력을 나타내고 산중에 깊이 내재(內載)하였던 혜명(慧命)⁸⁹⁾과 법(法)은 은은(隱隱)히 보존하여 갱생의 기력을 잃지 않고 한국⁹⁰⁾ 말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건너서 뛰어서 1910년 ‘일한합병(日韓合併)’의 대업이 성취되자 지인지공(至仁至公)에 신정치는 우리 조선 불교에 출유갱생(出由更生)의 기회를 주어 다음 해 1911년에 조선사찰령(朝鮮寺刹令)을 공포하게 되어 31본산(本山) 및 그 말사(末寺)의 법적 존재를 공인함에 이르게 되었다.

조선불교는 이와 같이 오백년의 유폐(幽閉)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불교 자체 부진의 쇠미(衰微)⁹¹⁾와 민중 암매(暗昧)⁹²⁾의 누적된 습속은 아직까지 양자의 급속한 접촉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 중에 특히 외래의 사상과 특질문명의 도취는 한층 포교의 진전을 저해(沮害)하여 오기 때문에 사찰령 공포 이래 이십 하고도 9년 조선불교는 지금까지도 의연히 승니(僧尼) 전속(專屬)의 신앙인 경역(境域)에 머물러 있고 사찰령의 정신과 부처의 뜻한 바에 부합치 못하고 있는지라 우리 법려(法侶)는 한 가지 유감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당국서는 만근(輓近)⁹³⁾ 사상(思想)이 혼돈(混沌)한 민중의 심전개발(心田開發)을 부르짖고 이를 실현키 위하여 신앙 유도(誘導)⁹⁴⁾에 주력하고 있는지라. 이 기회에 제회(際會)하여 부처

88) 떨어져 있음.

89) 지혜의 생명이라는 뜻. 불법의 명맥을 이어가는 비구를 높여 이르는 말.

90) 대한제국을 일컬음.

91) 형세가 기울거나 기운(氣運)이 쇠퇴하여 미약함.

92) 일에 어두움.

93) 몇 해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94)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를 숭봉하고 있는 우리들 승도(僧徒)는 바로 조선불교 재흥의 절호 기회를 삼고 자숙정화(自肅淨化)로써 강력한 통제를 도모하고 당국의 시책에 호응하여 민중의 심전개발에 기여하고 부처 본래의 소지관철(素旨貫徹)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의 구현책으로써 먼저 조선불교 31본산이 통제방법을 논의하게 되자 재작년(1937년) 봄 31본사 주지 대회석상에서 관계당국의 어수시(御垂示)⁹⁵⁾와 어지도(御指導)에 의하여 조선불교 총본산 창건의 토의가 만장일치의 그 가결을 보게 되어 이의 전제로서 대웅전의 건립 계획이 성립되어 같은 해 봄에 그 기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뜻밖에도 저 폭력(暴戾)한 중국 군권(軍權)의 도전에 의하여 지나사변을 유발하게 되었는데 완미(頑迷)한 口정권의 배후에 있어서는 호시탐탐 집요하고 교활한 마수를 희롱하는 제 3국의 이口(異口)은 더욱더 전화(戰禍)를 장기에 이르게 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제국도 또한 장기전과 장기건설의 체제에 들게 되어 국민정신총동원의 진용이 견고하게 되었음으로서 반도 민중의 정신 진작상 한층 조선불교 통제기구의 급속 실현을 요구하게 되어 대웅전의 공사를 급히 하여 작년 10월 중에 준공을 고하게 되었으니 전각 건평이 225평이나 되고 건축비가 15만 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현대 조선건축으로서는 정교를 다한 것으로서 굉장하고 웅대함이 동양 유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선불교 총본산의 불전으로서 상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당은 훌륭하게 건축되었으나 총본산의 기구가 법적으로 공인을 얻기까지 각 본산의 합력이 중차대한지라 31본산 주지 제위 용상대덕(龍象大德)과 7천의 범려는 조선불교의 내일의 장래를 위하여 그중대한 사명을 반성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써 어디까지든지 화합과 협력하여 조선불교 통제의 제 일보를 전진하기 바라는 바이다. 오인(吾人)은 조선불교의 장래 발전은 총본산이 실현되고 아니 되는데 있다고 믿으며 또는 조선불교의 운명도 역시 그러하다고 믿는 것이니 각위 침덕(僉德)⁹⁶⁾에서는 총본산의 실현을 위하여 또 한층 더 노력을 해주기를 충심(衷心)으로서 갈망하는 바이다.

〈출전 : 李鍾郁, 「總本산의 實現과 朝鮮佛敎의 將來」, 『佛敎時報』 제42호, 1941년 4월 1일, 2쪽〉

4) 전첩(戰捷)의 봄

대동아건설과 한 가지 우리 제국의 전첩(戰捷)의 봄을 봉영(奉迎)하여 시시각각으로 세계 인류로 하여금 시명(時命)의 시정(是正)을 하게하고 그 분(分)에 자안(自安)해서 신의 대도(大道)와 불타(佛陀)의 본분을 심체(深體)하게 하는 것은 우리 황도불교(皇道佛敎)의 종도(宗徒)된 직분이며 또한 제국신민으로서의 보국애의 적성인가 생각합니다.

동아의 봄과 제국의 성절(聖節)을 축하하게 된 의의 다른 이번 봄(今春) 종회 개회벽사(開會偈頌)를 맞이하면서 삼가이 성도(聖禱)를 봉(奉)하여 맞지 않은 바입니다.

특히 국가 총체의 혈탄(血彈)을 모으는 이 대업의 진행 도상(途上)에 있어 국가관념의 본위와 종교관

95) 교시.

96) 침(僉) : 다, 모두, 여러.





념의 시정이 아울러 재정리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선차적(先次的)으로 이번 임시총회를 다달아 중도 일반의 관념 시정을 변(煩)코자 함이다.

국가지상주의, 국가유본주의(國家唯本主義)를 본위로 구체제 관념을 청산하여야 국가 대망에 합치되는 것이며 자유주의는 물론 종교지상주의까지도 구체제 관념이니 이것도 자성하여서 국가를 선위로 삼고 불타정신이 육화(肉化)하도록 종단관념(宗團觀念), 종단지도원리(宗團指導原理)를 세워야 합니다.

특히 종교는 국경이 없다는 관념이 공허(公許)되고 불교사상의 일면에 이른 유사한 관념형(觀念型)이 있는 것으로 사료(史料)하는 것은 크게 오견(誤見)으로 알아야 합니다.

어찌 종단(宗團)에 국경이 없으면 종단에 어찌 종단의 특수한 존재성이 있고, 그 종단의 특색으로 그 종단의 율의(律儀)가 있겠습니까. 자고(自古)로 국가가 모태(母胎)로 하고 그 민족문화를 원태(原胎)로 해서 종단이 커나왔으므로 그 민족의 문화유입과 아울러 종단이 유포되었던 것입니다.

종단의 사상만이 유리(流離)되어 전파된 것이 아니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유포된 것도 이에 기인(基因)된 것이며 인류의 본질을 본위로 하였기 때문에 서로 인류문화의 대강(大綱) 속에서 그중요한 율의(律儀)가 인류생활을 본위로 해서 건설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인류생활의 기능을 전제해서 그 통도율의(通導律儀)가 건설됨도 그 주지(主旨)가 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확호(確乎)한 신념을 국가원기(國家原基)에 세우고 국가대업에 익찬(翼贊)하도록 하여 주었으면 더욱 부탁하는 바입니다. 신라의 사군이충(事君以忠), 임전무퇴(臨戰無退)가 곧 불즉불리(不卽不離)한 국가와의 관계를 여실히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대업으로 대동아건설 도상(途上)에 있어서 국민으로 모든 임무를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 선급한 일로서 법요구(法要件)의 금속물(金屬物)에 있어 특히 예술적 가치나 긴급한 것이 아닌 한 국방헌납을 실행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음 의정(議程)에 따라 의결안도 있게 될 것이므로 먼저 주지(主旨)만을 다음 단(段)에 말할 뿐입니다.

국방자촌 헌납운동 결의안(國防資村獻納運動決議案)으로 다음의 세항(細項)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備參)

목적

각 사찰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철, 동, 청동 또는 황동 등의 금속류는 군(郡) 또는 면(面) 연맹을 통해서 군에 헌납할 것. 단 아래의 것에 한해서는 제외함.

1. 위험 방지상 특히 필요한 것
2. 고등(高等) 미술공예품
3. 특히 유서(由緒)깊은 기념품
4. 법령에 의해 사용되는 것
5. 기타 국보 또는 법령상 지정된 것.





사유

목하 정전 진전(征戰進展)에 수반하여 군사자료의 대량 필수에 비취 각 절에 있는 사장(死藏)금속류를 헌납(獻納)함으로써 본 종도(宗徒)의 적성(赤誠)의 일단(一端)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함에 연유함.

방법

헌납수속 기타에 대해서는 각사(各寺)는 각 관할 연맹의 지시에 따를 것.

기타

위의 헌납기간은 제한이 없고, 헌납할 경우 각 본사는 그 도도(都度) 총본사에 보고할 것.

〈출전 : 廣田鍾郁, 「戰捷의 春」, 『佛敎 新』 제36호, 1942년 5월 1일, 4~6쪽〉

5) 징병제 실시의 영(榮)을 예대(譽戴)하고

제국 징병제의 전문적 연구는 나의 지역이 아니므로 그 상세는 간략히 하거니와 대략 일瞥(一瞥)하면 1873년 1월 10일 제국의 징병령이 발표된 뒤로 지금까지의 제국황군의 조직의 특질과 정신의 견실은 과장한 번필(煩筆)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라도 금차 대전의 진행으로 보아 이미 증명되고 있음이 있다. 실시 이래 1894~1895년, 1904~1905년의 2대 전역(戰役)⁹⁷⁾은 동아에 있어 오고야 말 세계역사 운태(運態)의 작은 서막에 불과하였던 것이나 그 정신적 기초로 보아서는 국기(國基)가 여기서 세워진 것이라 할 것이다. 메이지(明治) 시대는 제국의 화발성시(花發盛時)이면서 큰 결실을 남기고 새 역사의 씨를 뿌린 때라 하리라.

이 광채 있는 역사의 보폭이 넓어짐을 좇아서 그 발이 대만에 반도에 남양(南洋)에 사할린(樺太)에 뻗쳐 다시 북만(北滿)에 남북지(南北支)에 이에 다시 대동아 해상에 점철된 천여 도서와 태국(泰國 : 暹羅) 미얀마(緬甸)이며 인도(印度), 오스트레일리아에 까지 이 역사의 보폭이 넓어지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큰 사인(史人)의 분투와 노력이 전과주옥(全科珠玉)으로 새겨 있고 누전(鏤填)된 관계였다. 국가만반 조직에 간발(間髮)에 잘못이 없이 총체적 진행을 여실히 보이고 있음은 동아의 공영과 제국의 다행으로 보아 민초의 대망이날로 높아가는 때 황화(皇化)의 역내(域內)에 동인(同仁)의 은혜를 베풀게 된 1938년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이 발표되고 5월 8일 각의(閣議)에서 1944년도부터 징병제실시를 행하게 될 것을 준비 진행 중이라 하니 내선일체(內鮮一體), 동아공영이 명실구전(名實俱全)으로 실시됨이라 하겠다. 이 영광을 입게 된 반도 대중은 비로소 이기(利器)를 들고 가장 효과적인 동아 개척의 제일 보초(寶鋏)를 일제히 내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국의 일 여수(黎首)⁹⁸⁾로 동아의 일 민초로서 천의(天意)

97)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컬음.





를 존중하고 성명(聖命)을 온전히 해서 반도인의 남김 없는 천자(天資)를 발휘하게 됨이 아닐까?

경전(經典)에 전거(典據)한 전쟁의 일단(一端)

우리 불교로서 국가와 관계에 대한 것을 경전에 전거해서 이 징병제 축하기념법회의 강설(講說)로서 몇 말을 한 적도 있지만 첫째, 우리 인류는 내심(內心)전쟁, 외부전쟁 이 두 가지 종별(種別)이 있으나 인류 자체가 미숙이요, 상대요, 불완전의 일패상을 가진 만큼 전쟁이란 것이 일초일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백팔번뇌와 싸워 조복(調伏)을 받지 않으면 정심(正心)을 세우지 못해서 난혜(亂慧)와 난상(亂想)에서 본연(本然) 성상(性相)을 닦아 밝힐 수 없고 외계(外界)로는 기(氣)의 변화, 시(時)의 천이(遷移), 물(物)의 부제(不齊), 연(緣)의 각이(各異)로 인하여 상반된 제반사정(諸般事情)과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인류가 있어온 오늘까지 또 있을 미래 때가 다하도록 그 해결에 궁(窮)하고 선도(善導)에 겨를이 없었던 바며 현림성철(賢林聖哲)에 있어 초려(焦慮)하던 바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도 가장 요체(要諦)되는 것은 부전(不戰)이 승(勝)이란 것이 전법(戰法)에 최상승(最上乘)이라 하였고 이것이 자연법(自然法)이요, 시연법(時緣法)을 자기(自機) 성숙기(成熟期)와 합치시키는 뜻인가 합니다. 동양에 병서(兵書) 7경(經)이 모두 부전이승(不戰而勝)으로 주(主)를 한 것이 육도삼략(六韜三略)이며 손무병서(孫武兵書)들이 모두 이 중아사경(中阿舍經)에서 얻어 배운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성철(聖哲)의 일언(一言) 일구(一句)가 철리(哲理) 아님이 없음을 학득(學得)함인가 합니다. 그 말의 원문을 약기(略記)하면 중아사(中阿舍)엔 '이쟁지쟁(以爭止爭)은 경부득지(竟不得止)요 인능지쟁(忍能止爭)'이라 하고, 잡보장경(雜寶藏經)에 말하되 '득승(得勝)도 장증원(長增怨)이요, 패부(敗負)도 즉 증우고(增憂苦)니 승부부쟁(勝負不爭)하면 그 즐거움이 가장 제일이라고 하였으니 결국 전쟁을 피하거나 전쟁을 원리적으로 부인함이 아니라 치자(治者)와 병가(兵家)의 역량과 도략에 따라서 가장 바른 천명을 향(享)하고 큰 선(善)을 세우는 데는 내화(來化)의 방편이 갖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忍)과 부쟁(不爭)이 도를 넘어서 비법(非法)과 불선(不善)이 증장(增長)할 때에는 절복(折伏)과 퇴치(退治)를 말하였으니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에 「약견악미차비법편증장(若見惡未遮非法便增長)」, 승만경(勝鬘經) 「아약득력시피처견중생가절복자절복가섭수자섭수(我若得力時彼處見衆生家折伏者折伏可攝收者攝收)」한 것이 수기(隨機)⁹⁹⁾의 응화(應化)를 말합니다.

경전에 의거한 국민과 국시(國是)의 촌철(寸鐵)

국가란 특정한 인종의 지역과 문화를 한계하고 중심한 결속이며 국군(國君)이란 질서의 위치(位次)이다. 시(始)가 있고 종(終)이 있으며 선(先)이 있고 후(後)가 있고 고(高)가 있고 저(低)가 있는 자연계(自然界)의 위치에서와 동일한 국가조직의 법의(法儀)와 원리가 군(君)을 주제로 함이 근간이요, 핵심입

98) 검은 짐승(黔首). 검은 맨머리라는 뜻으로 일반 백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9) 기회를 따름.





니다. 그래서 자고로 심지관경(心地觀經)에 ‘세간당전이주위주인민지풍악이왕위주(世間堂殿以主爲柱人民之豐樂以王爲主)’라 하였으며, 불설자애경(佛說自愛經)에 ‘국무군유여체무수불가구립(國無君猶如體無首不可久立)’이라 하였고, 이 양자관계의 일단으로 심지관경(心地觀經)에 ‘약유인민능행선심경보인왕(若有人民能行善心敬輔仁王) 존중여불(尊重如佛) 일국안온풍악(一國安穩豐樂)’이라 하여 있습니다. 민(民)으로 나라에 일한 말로는 증일아사경(增一阿舍經) 제3에 ‘위가망일인(爲家忘一人), 위촌망일가(爲村忘一家), 위국망일촌(爲國忘一村) 위신망세간(爲身忘世間)’이라는 것은 개(個)에서 전(全)으로 사신위국(捨身爲國)을 말하였으나 위신망세간(爲身忘世間)의 원의(原意)는 출가인(出家人)으로서 자심(自心)의 투관(透觀)과 자성(自性)의 증득(證得)을 말합니다. 국군(國君)으로서의 화덕(化德)의 일단이 각 경에 많이 있는 가운데 심지관경(心地觀經)에 ‘국왕등시군생여동일자(國王等視群生如同一子), 섭호지심주야불사(攝護之心晝夜不捨) 여시지왕(如是之王) 왕어인(王於人)’이라 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왕화(王化)가 균점(均霑)되고 여수(黎首)에 향하는 평등(平等) 성지(聖旨)가 천의(天意)와 같이 균여(均如)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실정치(王失正治) 인무소의(人無所依) 왕약이정위화(王若以正爲化) 공포불침(恐怖不侵) [심지관경(心地觀經)]

공포(恐怖)(타국침핍(他國侵逼), 자계반역(自界叛逆), 악마질병(惡魔疾病), 국토기근(國土飢饉), 비시시우(非時風雨)……)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전에 전거한 말씀들이 설명(解)이 조루(粗漏)하고 그 뜻(旨)이 미미한 것 같지만 현대의 국가 조직 이념에서 그 국시에 속한 원의만은 균점(均攝)하여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 대의에 비취 준수(遵守)하면 불타(佛陀)의 이상과 국가의 이상이 제행(齊行)되는 것입니다.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조서(詔書) 환발(渙發) 후로 33년을 지나 이제 내선일체, 일시동인이 당초의 성지대로 여실히 실현됨은 시이무의(恃而無疑)임은 지명(至明)이었지만 1944년을 기하여 반도 청년을 동일한 병제(兵制)를 받게 되는 희열은 실로 공구감격(恐懼感激)하여 불감하는 바입니다.

더욱 최신 반도 인구가 2천 4백만에 달한 것을 증전(曾前)¹⁰⁰ 천 3백만에서 다시 2천 2백만이 되던 것에 비하면 천혜(天惠)의 균점(均霑)에서 얻은바 반도의 발전태(發展態)요, 생(生)의 전실(專實)을 말함이 아닌가 합니다.

〈출전 : 廣田鍾郁, 「徵兵制實施의 榮을 譽戴하고」, 『佛敎 新』 제38호, 1942년 7월 1일, 4~6쪽〉

6) 개명주의

대전(大戰)¹⁰¹ 1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황군장병의 노고에 대한 감사는 물론 1억 국민이 일심으로 이 큰 전시(戰時)에 후진(後陣)을 수비해간다는 것은 세계 이목에 놀람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동해 해역에

100)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

101)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을 일컬음.





서구(西歐) 모든 노대국(老大國)들을 여지없이 삭제(索制) 혹은 파쇄(破碎)한 혁혁한 전과는 세계 전사상(戰史上)에 특필될 것이다. 서전(緒戰)에 있어 적의 실력과 전비(戰秘)를 이미 탐구하여 그 약세를 극복하여 인도양과 남태평양 상에서 2대 해상전지(海上戰地)를 버리고 궁서(窮鼠)¹⁰²⁾를 이에 쫓는 것과 같이 막다른 명맥의 선에까지 돌진하였다는 것은 필승의 분수지는 벌써 넘어선 것이다.

영국(英)을 명맥의 선인 인도에까지 그 손발을 물리치게 하면 영국이 거의 괴멸에 임박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상상할 바이다. 미국의 군비확장의 말은 내허(內虛)한 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리 장소(長嘯)¹⁰³⁾할 것은 못된다. 그러나 시기지만(時期遲晚)¹⁰⁴⁾의 혐(嫌)이 없지 아니하다. 결국 영국이 호주와 인도에 떠나 캐나다로 옮겨 영국과 태평양 넘어서 구아(歐亞) 대(對) 미주(米洲)의 2대 진지(陣地)를 구축(構築)하고 만년의 서로의 안택(安宅)을 계(計)하는 어느 저정(著釘)시기로 들지 않을까? 이것이 순조(順調)로 가서 구아(歐亞)의 재건축(再建築)일 것이오. 영국과 미국의 몰락이 결과 짓는 차책(次策)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독일과 소련의 전투에 대해서는 논급(論及)의 필요를 갖지 않으므로 본지(本紙)에 신조(慎調)함이 있고자 하며 이 큰 사실을 중심(中心)하고 사계(斯界) 군사군략가의 성안(成案)이 30, 40년 전에 결정되어 있겠으므로 남루(濫漏)를 불허하는 바일까 한다.

여기까지 추축(樞軸) 제국의 사명이 달성되려면 우리 국민은 좌이자성(坐而自成)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수많은 적이 눈을 뜨고 있고 해양(海洋)노도(怒濤)가 음험(陰險)을 더하고 있는 것은 해양(海若)이 무슨 희생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호주의 완점(完占)과 인도의 완립(完立)까지 우리 황군의 임무가 남아있고 서쪽으로 서아(西阿)¹⁰⁵⁾와 영국 본토(本土)의 완점(完占)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의 임무가 남아있으니 지중해상의 황파(荒波)가 아직 인류의 큰 비참한 혈조(血潮)를 맞보고야 말 것은 남은 과제이다.

이 양대 전역(戰役)만으로도 천우(天佑)와 신조(神助)의 명가호력(冥加護力)도 기다리는 바이지만 1억 국민이 개병(皆兵)의 정신 이래 대동아 건설, 아시아 자위자건(自衛自建)을 위하여 역사적인 대결투가 있어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큰 성업에 모두 군신이 되어 아시아 대륙에 대동아건설 신(神)의 높은 탑이 히말라야와 백두상(白頭上) 이상으로 높아질 때까지 원계(遠計)와 홍도(鴻圖)있는 포부로서 오직 혈탄(血彈)되어 우주의 참된 꽃으로 피어날 것을 맹서하는 것이 신흥 대동아의 역군(役軍)이며 어능위하(御稜威下)에 수행되고 있는 이 대전(大戰)을 통하여 참된 충의감(忠義感)이라고 하겠다. 개병주의(皆兵主義)가 잠연(潛然)한 말이 아니고 모두 변방 육로의 수만 천,¹⁰⁶⁾ 해상의 수만 해리에 걸친 전선의 수비자가 될 각오라만 이 성은에 답하고 홍도(鴻圖)의 계승이 되리라 생각한다.

〈출전 : 廣田鍾郁, 「皆兵主義」, 『佛教新』 제43호, 1942년 12월 1일, 3~5쪽〉

102) 쫓겨서 궁지에 몰린 쥐.

103) 휘파람을 길게 불.

104) 지만(遲晚) : 옛날에 죄인이 자백하여 복종할 때에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105) 서아프리카.

106) 阡=km.





7) 사상선도 · 종교보국

이번에 『금강저(金剛杵)』가 그 내용을 충실히 하고, 지면을 쇠신함에 즈음하여, 그 장래를 축복함과 동시에, 겸해서 평소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게 된 것은 참으로 흔쾌 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되돌아보면, 『금강저』가 창간 된 것은 벌써 26년째. 우리 종(宗)의 유일한 학술적인 잡지로서 춘풍추우 끊임없는 건투를 이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금할 수가 없는 동시에 주간(主幹) 여러분의 진력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전쟁에 나아가는 초 비상시국! 적도 이남의 대양, 또는 북극의 얼음바다 속에서 우리 황군의 육해 정예는 모든 간난신고에도 견디며, 대동아공영권건설의 간성(干城)으로서 용전분투, 능위(稜威) 아래에 혁혁한 공전의 대 전과를 확대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후방의 1억 국민은 그들의 심신의 단결을 도모하고 전선의 충용 무쌍한 장병의 사기를 고취하고, 후방확보의 대 결심을 굳건 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국책에 부응하여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서 종래의 『금강저』도 그 구각에서 선탈(蟬脫)하여 사상 선도의 종교보국에 재출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왕년의 개인문제에 대한 사소한 사건의 게재 등은 일체 청산하고 애오라지 시국의 인식, 종지(宗旨)의 거양과 학술의 연구 등에 주력하여, 명실 모두 종문의 유일한 학도잡지가 되도록 기대 해 마지 않는 바이다.

〈출전 : 廣田鍾郁, 『思想善導 · 宗教報國』, 『金剛杵』 제26호, 1943년 1월 25일, 75~76쪽〉



8) 성전필승과 불일증휘(佛日增輝)

태고사(太古寺) 종무총장(宗務總長) 광전종욱(廣田鍾郁)

황위(皇威) 팔굉(八紘)에 찬연히 빛나며 혁혁한 전과는 사해를 제압하고 있는 이때 이에 대동아전쟁 하 제2년의 신춘(新春)을 크나큰 희망과 환희 가운데 맞이함에 있어 반도 불교계의 교직자 및 신녀와 함께 삼가 성수(聖壽)의 만세와 실조(實祚)의 무궁을 봉하(奉賀)하여 받드는 동시에 아울러 황실의 어미영(御彌榮)과 국운의 융창(隆昌)을 기념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회고하건대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¹⁰⁷⁾ 발발 이래 이미 1년여 위로는 황조 황실의 신령을 받들며 용명하옵신 성상(聖上)을 봉양(奉仰)하오며 밑으로 대조(大詔)를 받들은 억조(億兆)의 신민이 육해공(陸海空)의 황군과 같이 연전연승의 정의의 금기(錦旗)를 휘날리는 곳에 북(北)으로는 멀리 '알류산열도(列島)로부터 남(南)으로는 저 멀리 적도(赤道)를 넘어서 호주에 이르기까지 육지로 해양으로 하늘(大空)로 광고(曠古)¹⁰⁸⁾미증유(未曾有)의 대전과를 거두고 있음을 오로지 열성(列星)¹⁰⁹⁾의 어가호(御加護)와 어

107) 1941년 발발한 태평양전쟁.

108) 전례가 없음.





릉위(御稜威)의 신력(神力)에 인함이다. 공구(恐懼)와 감격(感格)을 이기지 못하는 동시에 진충장사(盡忠壯士)의 어력전(御力戰) 분투(奮鬪)에 대하여 감사를 바치며 더욱이 순국령영(殉國靈英)에 대하여 충심(衷心)으로 애도의 적성(赤誠)을 바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병장사(傷兵將士) 각위(各位)의 재기(再起) 봉공(奉公)을 빌며 아울러 이들 용사의 유가족 여러분의 다상(多詳)함을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황공하옵게도 천황 폐하께옵서는 군국다사(軍國多事)의 제정무(際政務) 어다단(御多端)하옵심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6일에 신도, 불교 등 교단 관장 통리자(通理者)에게 사알(賜謁)¹¹⁰⁾의 어사태(御沙汰)¹¹¹⁾를 내리사 협심육력(協心戮力) 종교보국(宗教報國) 하랍시는 어분부(御吩咐)가 계시었고 12월 12일엔 친히 이세로(伊勢路)에 행행(行幸)하옵시어 신궁에 어친배(御親拜)하옵시와 개전(開戰) 1년의 전과를 어봉고(御奉告)하옵시는 동시에 신령의 어가호(御加護)를 어기념(御祈念)하옵시는 성려(聖慮)를 배찰(拜察)하옵시건대 우리들 불도는 황감(惶感)한 나머지 다만 감읍(感泣)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대무변(宏大無邊)한 황은(皇恩)에 감분흥기(感奮興起)하여 청사(靑史)에 빛나는 황국의 일원으로서의 영예를 뼈 속에 깊이 새겨서 성전필승(聖戰必勝) 목적완수(目的完遂)에 매진하는 동시에 흥선포교(興禪布教) 불교증휘(佛敎增輝)를 기하려는 결심을 갖기 바라는 바입니다.

〈출전 : 廣田鍾郁, 「聖戰必勝과 佛日增輝」, 『佛敎時報』 제90호, 1943년 1월 15일, 3쪽〉

9) 종정유시(宗正諭示)를 봉하여

공구(恐懼)하옵게도 선전(宣戰)의 대조(大詔)¹¹²⁾를 환발(渙發)¹¹³⁾하옵시서 우리 황군(皇軍) 정예는 어능위 하에 태평양 상에 있어서 결사분전이 착착 전과를 거두게 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 본 종도(宗徒)의 정신진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12일 종정(宗正) 예하(猊下)께옵서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에 즈음하여 종도(宗徒)에게 고향'이란 유시(諭示)를 선포하심에 대해서 선선 종도에 이미 통달하였거니와 종도 일반은 대조 어지(御旨)를 심체(深體)하고 종정 유시를 명패(銘佩)¹¹⁴⁾하여 위로 황은(皇恩)에 보답하고 아래로 출정 장병에 노고를 위자(慰藉)¹¹⁵⁾하는 의미에서 다음의 실천요목을 본산 주지완(住持宛)으로 지시한 바도 있지만은 더욱 그 실시행에 철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저축(貯蓄)실행으로의 적극화

각 사(各寺) 1942년도 예산에 대하여 저축실행의 중점주의로서 이 경리(經理)에 당하여는 깃긴(喫

109)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

110) 임금이 신하에게 알현할 기회를 줌.

111) 사태 : 물건이 주체할 수 없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일.

112) 조칙(詔勅), 조서(詔書).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113) 임금의 명령을 세상에 널리 알리던 일.

114) 고마움을 마음 속 깊이 새겨 간직함. 명심(銘心).

115) 위로하고 도와줌.





緊)¹¹⁶을 요한 사업이외에는 그 경비를 타관(他款)에 활용함이 없이 필히 국민저축운동에 협력해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저금할 것.

2. 필승 기도법회의 개최

대동아전쟁 필승기원법회에 대해서는 지난 1941년 12월 15일 및 동(同) 24일부터 30일까지 삼가히 거행하여 마쳤지만 다시 수시로 기도 지시를 하려고 하는 바이다.

3. 민중사상 선도의 적극화

직원 또는 유위(有爲) 청년승려로 하여금 정회(町會)에 역원(役員) 또는 애국반 지도역 등에 나아가 총력운동을 익찬(翼贊)함과 동시에 국민사상 선도에 노력할 것을 특히 포교에 종사하는 자는 한층 성의를 다할 것 (중략)

5. 노동보국의 거행

청장년 승려로서 청년대 편입한 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노동봉사에 참가할 것

6. 시국에 순응할 시설의 급속 실현

현하 시국 중대함에 있어서 각종 관영시설에 협력이 필요한 체신사무(遞信事務)의 일부 (전신별배(電信別配) 또는 서신의 국외배달중지 등) 중지예 시급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은 담당 관할 당국의 인가를 받아 사서함을 설치하여 통신의 민속(敏速)을 도모할 것(사서함 또는 수신소 설치의 장소는 총본사에 보고) (후략)

〈출전 : 廣田鍾郁, 「宗正諭示를 奉하여」, 『佛敎 新』 제33호, 1942년 2월 1일, 4~5쪽〉



10)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검선일여(劍禪一如)의 투철을 바라노라

조선불교 조계종 태고사(太古寺) 종무총장(宗務總長) 광전종욱(廣田鍾郁)

사람이 그만한 힘과 그만한 책무를 가지고도 그 것을 발휘할 기연(機緣)¹¹⁷이 없어 초목과 더불어 덧없이 사라지고만 일이 많이 있었다. 이제 우리 반도는 징병제 실시로 황민 최고의 책무를 봉답(奉答) 완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어찌 반도 청년 당사자인 청장년들만의 영예리오. 반도의 노약(老若)은 물론 제 불보살(佛菩薩)과 반도산하가 다함께 기꺼워하고 동시에 감읍하여 마지않는 일이다. 그러나 결코 감격 감읍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할 심신의 견고한 태도로 정의의 총검을 다투어 잡고서야 한다. 조선의 불교는 수입 이래로 호국정신을 가지고 내려온 사실(史實)이 있고 더욱이 신라의 고승 원광법사(圓光法師)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법훈(法訓)을 세워 국가를 위하여 일하였다. 그리고 불교는 자비를 주지(主旨)로 삼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비는 검(劍)과 통하는 것이다. 이 전통과 검의 자비심을 가지고 7천여 승려와 아울러 반도 민중은 검선일여(劍禪一如)의 정신에 투철하여 용약

116) 아주 긴요함.

117) 어떤 기회를 통하여 맺어진 인연.





군문(勇躍軍門)에 달려가 젊음이의 지성과 충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출전 : 廣田鍾郁, 「徵兵制實施에 對하여 劍禪一如의 透徹을 바라노라」,
『佛敎時報』 제97호, 1943년 8월 15일, 2쪽〉

9. 박윤진(朴允進)

1) 불교의 전쟁관

1. 불교와 12월 8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향해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고 웅규(雄叫)한 부처님이 보제수(菩提樹)아래 금강좌상에서 12월 8일 새벽에 ‘명성(明星)’을 보고 확철대오(廓徹大悟)한 정각(正覺)의 광명은 황황(煌煌)한 등화(燈火)가 되고,焰焰(燄燄)한 거화(炬火)가 되어 춘풍추우(春風秋雨) 3천여 년 동안 혼돈한 장야(長夜)의 어둠을 조파(照破)하였으니 이것은 완연히 ‘출세간(出世間)’의 역사적 개선(凱旋)이었다. ‘쇼펜하우어’의 ‘싸움이 없으면 성인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부처님의 일생은 정말 싸움의 역사요, 승리의 기록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인도(五印度)에 군림하는 대설산(大雪山) 아래서 고행림(苦行林)의 백전(百戰)은 인간 싯다르타 태자(悉達太子)로 하여금 종(縱)으로 3세를 통하고 횡(橫)으로 10방(十方)을 두루(遍)한 성중성(聖中聖)인 불타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런데 1941년 12월 8일 오전 11시 40분에 ‘선전(宣戰)의 대조(大詔)’ 발발 직후 도조(東條)수상이 ‘대조(大詔)를 봉배(奉拜)하옵고’ 라는 제하(題下)에 ‘마이크’를 통해서 근엄하고도 냉호(凜乎)한 어조로 1. 개전의 도의적 의의, 2. 필승의 신념을 견지할 것, 3. 진중보국의 대정신을 받칠 것 등의 열렬한 결의를 명백히 하였거니와 이날 미영(米英) 양국에 대한 선전은 드디어 태평양, 대서양의 광란노도(狂亂怒濤)가 팽배하게 일어나 건곤일척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발발된 것이다. 이 대동아전쟁은 남방 모든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영의 폭정을 절대 배격해서 대동아공영권을 확립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도의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니 이 사실을 ‘세간(世間)’의 세기적 성전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단에서 12월 8일을 ‘성도일(成道日)’로 정하고 연연세세에 기념하여 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1억 국민은 세계사적 의의를 가진 12월 8일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진호(鎭護)국가와 불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단에서 맞이하는 12월 8일은 ‘출세간(出世間)’의 대발견을 기념하는 날이고, 국내에서 맞이하는 12월 8일은 ‘세간(世間)’의 재건설 즉 세계유신(世界維新)을 의의 있게 명패(銘佩)하는 날인 점에서 ‘세간’, ‘출세간’이 한 가지 12월 8일로 신기원(新紀元)을 만든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전이든지 권수(卷首)에 ‘황도공고(皇圖鞏固) 제도하창(帝道遐昌)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常轉)’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불교는 호국의 종교이었다. 이 점에서 진언중(眞言宗)





개조(開祖) 홍법대사(弘法大師)가 순화(淳和)천황께 바친 주상문(奏上文)중에 ‘생생위폐하지법성(生生爲陛下之法城), 세세작폐하지법장(世世作陛下之法將)’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세세생생(世世生生)’에 호국을 서원(誓願)한 것이고 일련종(日蓮宗) 개조(開祖) 일련상인(日蓮上人)의 국가 관념이 얼마나 강하였던 것은 ‘수호국가론(守護國家論)’과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음으로 조계종(曹溪宗) 노덕(老德)인 휴정대사(休靜大師 : 四溟大師)의 근왕(勤王)은 일반이 주지하는 사실로서 이조(李朝) 선조(宣祖) 25년 6월 23일에 휴정대사가 칼을 잡고 행재소(行在所)에 진알(進謁)하니 선조께서 하교하시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네가 가히 홍제(弘濟)하겠는가’ 하심으로 대사는 체읍배명(涕泣拜命)하되 ‘국내 승도가 늙고 병들어 행오(行伍)에 끼지 못할 사람은 재지(在地)에서 분수(焚修)하여 신조(神助)를 빌게하고 그 나머지는 신이 통솔하고 군전(軍前)에 나와서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고 대사는 드디어 팔도(八道)에 통론(通論)하여 의승군(義僧軍)을 모집한 결과 송운(松雲), 사명대사(四溟大師)의 7백 승군을 비롯해서 5천여 인을 친솔(親率)하고 경비(警備)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 수 있으니 고승(高僧)도 국난이 있을 때에는 위국망구(爲國忘軀)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이렇게 종조(宗祖)도 노덕(老德)도 ‘황도공고(皇圖鞏固) 제도하창(帝道遐昌)’에는 나라를 위하고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사은(四恩)의 하나인 국왕은(國王恩)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다.

3. 불교의 계율정신

계율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계율의 목적은 악생활(惡生活)을 떠나서 수도의 목적인 해탈로 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는 금지적 조항을 주로 해서 소극적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면(裏面)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도의 선사(善事)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가한 비구(比丘)는 첫째 음계(淫戒), 둘째 도계(盜戒), 셋째 살계(殺戒), 넷째 대망어계(大妄語戒), 다섯째 음주계(飲酒戒)를 준수해 가면서 수도하는 것이 원칙인데 불교에서 전쟁을 긍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의문을 가질지는 모르나 티벳어(西藏語)의 세계적 권위인 하구혜해(河口慧海)씨의 저서 『재가불교(在家佛教)』에 의하면 ‘불교는 절대로 비전주의(非戰主義)가 아니다. 악마의 횡포를 배제하고, 국민 도탄의 고통(苦患)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불교는 전쟁을 시인(是認)하였다. 혹은 외국인이 무법의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국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분기(奮起)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이다. 부처님의 대 자비심은 일체 중생을 적자와 같이 하므로 적의 불법에 대하기를 마치 내자(乃子)¹¹⁸⁾의 폭력(暴戾)¹¹⁹⁾에 대하는 것과 같이 불쌍하지마는 다른 해독(害毒)을 막기 위해서 자비의 칼을 빼서 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출전 : 朴允進 「佛敎의 戰爭觀」, 『춘추』 제14권 제1호, 1943년 1월, 102~103쪽〉

118) 그 아들.

119) 인도(人道)에서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2) 학도징집연기제도 철폐 문제

반도학도의 특별지원병 문제

반도의 유지제씨(有志諸氏)와 사상지도부대인 종교단체를 총동원하여서 반도인의 30년 전사(前事)로부터 이후 반도인의 전 장래를 엄숙히 토구(討究)할 호기를 주어 은원(恩怨)¹²⁰⁾을 서로서로 잇고 뚜렷한 인류의 대역사적 진도(進途) 앞에 소녀적 인명석신(吝命惜身)을 버리자는 대방제씨(大方諸氏)의 광장설(廣長舌)를 듣게 되었다. 단순히 전국의 35만의 학도 중 반도인의 5천명 학도 문제로만이 아니고 반도 지식청년의 전부며 지도부대의 전부로 보아 과평(過評)이 아닌 관계로 이들의 정신적 자발적 태도와 의지를 견실하게 하고자함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후(事後)의 희망을 종합함과 동시에 전의(戰意)와 최대 능률과 지도정신은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을 통해서 거짓 없는 맹세를 상호간 약속하고자 함이다. 각자의 환경은 처지에 대한 명확한 해안(解案)을 갖지 못하고 저회(低廻)하는 정신의 일면을 버리고 공약(共約)하는 천지신명에 생과 사를 맡겨달라는 부탁이던 것이다. 하늘에 땅에 서시(序時)의 약속이 있음은 아니나, 구차한 인간에 있어 약속과 이유와 희망이 口는 것이므로 약속의 암시를 엿보는 행동 그것까지 충천봉지(忠天捧地)의 대인(大人)적 무인(武人)적 사명적 시인(時人)의 태도는 아니다. 남의 말과 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남의 유(誘)와 설(說)을 기다림이 없이 벌써 여러분의 시명(時命)은 어느 정도로 이미 결정적 운세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 때 생과 사만이 아니고 세세생생(世世生生)의 인과적 관계 약속이 있는 한 보수(報酬)없는 행동(行)의 소사(所使)가 없고 공(功)이 없는 인류의 혈제(血祭)가 없던 것이다. 혈전봉천(血戰奉天)의 뒤에는 사람이 부여하는 사복사명(賜福賜命)보다도 만유신명(萬有神明)과 제천성중(諸天聖衆)에 아우른 필유천적무형(必由天的無形)의 약속이 있어진 것이다. 과연 천(天)의 명(命)과 불(佛)의 축(囑)을 배(拜)한 일국의 장상(將相)도 애민의 원모(愍慕)¹²¹⁾가 없지 아니 할 것인 즉, 하물며 일국의 자부(慈父)이옵신 천황폐하께옵서는 2천 6백 만의 반도적자를 위하여 그 소원이 저버림이 없을 것이니 제군은 보천보국(報天報國)의 일념으로서 나아가 싸우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권촉(勸囑)이 또한 취설(贅舌)¹²²⁾일지도 알지만 다시 휴지(休紙)를 더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대동아 민족해방과 통우사족(通右斯族)의 역사적 존엄을 위해서 동양문화의 결사적 보존과 그 발전을 위해서 일대(一代)의 제군의 희생엔 만대(萬代)의 광명과 환수(還酬)¹²³⁾가 오는 것이다.

대일본제국의 번영은 곧 동아 모든 민족의 공영(共榮)일 것이요, 국한된 한 민족만이 전제되지 아니한 것은 대조(大詔)의 성지(聖旨)를 심체(深體)하여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조는 너무 보수에 대한 시야가 짧은 관계로 개아(個我)의 의도나 목적 의식 외에 큰 사물(賜物)을 봉대(奉戴)하지 못하였으며 역사(歷史)의외의 큰 조복(造福)을 힘쓰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우주적

120) 은혜와 원한.

121) 무정한 것을 원망하면서도 오히려 사모함.

122) 군말.

123) 돌아올 보답.



큰 수확을 감히 뜻하지 못하고 단순히 협소한 천견박지(淺見薄志)한 좌수우봉(左授右捧)의 급성(急性)에서 천하의 경륜(經綸)과 만대의 조복(造福)을 짓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군은 약속 앞에서 만들어진 행동은 우주적 큰 조복일 수는 없다. 성자의 무위(無爲)의 덕일 수는 없다. 그저 건아(建亞)와 아시아 지령(地靈)의 유촉(遺囑)¹²⁴⁾만 받아 그 해방에 힘쓰라.

(출전 : 朴允進 「學徒徵集延期制度 撤廢問題」, 『佛敎 新』 제56호, 1944년 1월 25일, 19~20쪽)

10. 임원길(林原吉)

1) 종문(宗門)의 동량으로서

“物不平則鳴”이라는 것은 옛날 사람이 이미 도파(道破)한 말이었다. 물론 과도기에 처한 조선불교의 현상에 대하여, 누구라도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만 행동이 아니며 공동 책임이며, 따라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시대의 요구에 따르는 조선불교의 통제기구가 조직되고, 조선불교도의 전체가 이것을 옹호하고 협력해서, 이것을 위하여 봉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도 또 그것에 심기를 전환하여 이러한 신 기구의 요구명령에 부응하는 무아정신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에서도 또 대동아건설의 신 목표 아래에 총력을 올려서 신체제를 확립하고 국민 전체를 하여금 자유주의,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전체주의, 공익우선주의로 전향하여 일군(一君)만민의 대의(大義) 아래에 대정익찬(大政翼贊)의 정견(正見)과 정근(正勤)을 해서, 각각 그 일터에서 온 능력을 발휘하여 신도(臣道)의 실천을 받들게 하며, 이러한 일터 봉공의 실천도(實踐道)가 전체이며 즉 개(個), 개(個)는 즉 전체의 연대적인 정신적인 지도라는 것을 믿는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국정신의 실현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를 위한 활동이 즉 불교를 위한 활동이며, 불교를 위한 활동이 즉 국가를 위한 활동인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때를 놓쳐서, 생각을 잘 못하고 심기(心機) 전환이 지둔(遲頓)되었을 때는 그 만큼 국가의 손실, 불교의 손실, 사회의 손실, 자신의 손실이 클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불평은 평화의 반대편에 있으며 사업진행에 다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성취할 때에는 반드시 화합협동을 주로 함으로서 그 성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대하장퇴(大夏將頹)에 지팡이 하나로 난탱(難撐)¹²⁵⁾라는 격언이 있는 것이다. 과연 중력(衆力)이 집중하지 않으면 대하(大廈)의 퇴세(頹勢)를 만회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불교의 융성도 또 일치단결을 첫째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결력을 공고하게 하는데 는 반드시 불평을 포기할 것이며 불평을 포기하는 데는 반드시 정견(正見)을 해야 할 것이다. 정견을 확립하는 데는 반드시 종교

124) 죽은 뒤의 일을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125) 큰 누각이 퇴락하는 것을 막대기 하나로 지탱한다.





가로서의 반성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종교가로서의 반성이 즉 법열(法悅)의 생활이며 감사의 생활이며, 평화의 표현일 것이다, 여러분의 각성이 진실로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이것이 즉 대 보살의 무아행(無我行)인 것과 동시에 국가를 보호하고 불교를 옹립하며 사회를 구제하고, 자신을 구하는 무외시(無畏施)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깊이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전환을 철저히 하고 심신을 하여금 국가와 종문에 바치고, 국가의 간성(干城)종문(宗門)의 동량(棟梁)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출전 : 林原吉, 「宗門의 棟梁으로서」, 『金剛杵』 제26호, 1943년 1월 25일, 76~77쪽〉

11. 『조선불교조계종보』의 친일협력 관련 기사 발췌(1942~1945)

1) 『불교 신』¹²⁶⁾ 제32집(1942년 1월) —군용기 헌납, 제2회 중앙총회, 황군장병감사 관계

[1-1]

군용비행기 헌납에 관한 결의안

목적

군용폭격기 1대, 1942년 2월까지 군부에 헌납코자 한다.

이유

우리 조선불교조계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초 비상시국에 즈음하여, 황은에 보답하며 받들고, 아울러 황군장병에게 감사를 위하여 적성(赤誠)의 일단을 표시하고자 한다.

방법

1. 헌납기 기금 5만 3천 엔으로 한다.

2. 각출방법

이상의 기금 5만 엔을 각 본말사의 법정지가(地價)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할당했으나, 이것의 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본사로 하여금 먼저 본말의 승니, 직원 및 신도로부터 다음 항의 부담률에 의하여, 각출을 받은 후 부족한 것은 이것을 사유(寺有)토지 법정지가에 나누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한다.

126) 『조선불교조계종보』는 1942년 2월부터 『불교 신』의 권별 별도잡지로 나온 것이다. 1)항의 내용은 『조선불교조계종보』로 편찬되기 바로 직전인 1942년 1월에 『불교 신』에 수록된 유사한 내용인데, 참고로 수록하였다.



3. 각출금의 종류 및 그 부담율

- 1) 승려의 헌납금 1인에 대하여 최저 1엔 이상 10엔까지.
 - 2) 사무(寺務)직원 및 부속기관직원의 의무헌금 월봉의 1할 이상.
 - 3) 신도의 헌납금 : 1명에 대하여 10전 이상.
 - 4) 사찰경비로부터 보조 : 전기 3항의 수입차감부족액은 각 사 법정지가에 할당하고 나누어서 부과한다.
4. 기금접수장소 : 총본사태고사 중무원
5. 각출금접수기간 : 1941년 2월 말일까지 이상 이상의 결의를 청구한다.

[1-2]

조선불교조계종 제2회 중앙종회 개최

(1941년 11월 17일 총본사태고사 대응전에서)

- 순서 -

- 국민의례
 1. 궁성요배
 2. 묵념
 3. 황국신민의 서사제창
- 개회(삼구의) 중무총장
- 계(桂) 사회교육과장 연설(演述)
- 임원선거
- 종정 선시(宣示)
- 중무총장 중무방침 지시
- 각 부장의 부무(部務)상황 보고
- 황군에 대한 감사결의 및 전몰장병에 대한 경조(敬弔)결의안
- 토의해야 할 의안
 - 1) 종(宗)법안
 - (1) 종회법
 - (2) 승규(僧規)법안
 - (3) 상별법안
 - 2) 1942년도 총본사태고사 수지예산
- 기타 사항
- 폐회



[1-3]

황군장병에 관한 감사결의안

성전 바로 4년 반 동안, 우리 충용 무쌍한 육해공의 장병 여러분은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비바람을 견디며 분전용투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전과를 거두며, 능위 아래 국위를 안팎에 떨쳤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감격하는 바인 것이다. 이제야 세계정세가 다단하며 더욱 중대함을 더하는 이러한 때에 간난을 극복하고, 흥아의 성업을 완수함으로써 세계영원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황국의 사명으로서 첫째 여러분의 노력에 기대는 것이 많으며, 그 노고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감사의 성의를 표시하며 아울러 장병 여러분의 용투를 비는 바이다.

이상 결의함.

목적

전몰장병에 대한 경조(敬弔)결의안

우리들 조선불교조계종 회원 일동은 이번 성전에 따라서 용전감투하며 목숨을 군국에 바친 황군장병의 영령에 대하여 심후(深厚)한 경조의 뜻을 표한다.

이상 결의한다.

〈출전 : 『佛敎 新』 제32집, 1942년 1월 50쪽〉

2) 제1호(1942년 2월) -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 종정유시(宗正諭示), 전첩축하행사 관계

[2-1]

유고(諭告)

선전대조(宣戰大詔)의 환발(渙發)에 즈음하여 종도(宗徒)에게 고함

천황폐하께서는 외람되게도 대조를 환발하시어, 다년간 동아의 화란(禍亂)을 조장하고, 동양제패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폭도 미, 영에 대하여 응징의 군대를 일으키셨다. 삼가 조칙(詔勅)을 받아오시고 황공 감격해 마지않는 것과 동시에 숙연해서 온몸의 피가 끓어오름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충용 무쌍한 육해공의 정예는 능위 아래 개전 수일 만에 동정서벌(東征西伐) 적의 진공(進攻)작전의 근거지를 남김 없이 격양(擊攘)하여 태평양의, 완전히 그 면모를 일변시켰다는 첩보를 듣고 참으로 기뻐마지 않습니다.





생각하건대 이번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 영 적성(敵性)의 마수를 동야의 전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하고, 지나사변을 완수하며 대동야공영권을 확립함으로써 동양영원의 평화를 유지하며, 제국의 자존(自存)자위(自衛)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제야 황국의 용체(隆替)를 결정할 때, 우리 반도 불교도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 있는 봉공을 하여 몸과 마음을 국난에 바쳐서 결사보국의 대의에 바침으로써 천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천혜의 호기로 생각한다.

우리 조계종 법려(法侶) 및 신도 여러분은 항상 무적 황군을 신뢰함과 동시에 관현의 시책에 잘 복종해서, 능위 아래에 각각 그 소임을 다하면서 불제자인 본분을 다하여 내선일체의 아름다움을 거두어 신도(臣道)를 실천함으로써 후방의 철벽을 지키며 대조의 성지에 봉답할 것을 약속하자.

일선이나 후방 모두 충군애국의 철석같은 적심(赤心)을 바쳐서 싸울 때 불조(佛祖)는 항상 황국을 지키며 우리를 가호할 것이다.

1941년 12월 13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종사 산천중원(山川重遠)

[2-2]

통첩

조총서(曹總庶) 제90호

1941년 12월 1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종정유시(宗正諭示)에 관한 건

외람되게도 선전의 대조환발이 있자마자 황군의 정예는, 능위 아래 태평양 상에서 결사용전하여 착실히 전과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할 즈음에 본 종도의 정신진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늘 종정 예하(猘下)로부터 “선전대조의 환발에 즈음하여 종도에게 고함”이라는 유시를 선포하게 된 것을 여기에 통달하게 된 것은 귀 관내의 일반에게 적절히 전달하시어, 또 이것에 따라 실천해야 할 요강을 다음과 같이 지시함으로써 이것의 실시를 철저하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저축실행의 적극화

각 사찰이 1942년도 예산실행에 대해서는 저축실행의 중점주의로서 이것의 경리를 말아야 하나, 불급불요의 사업은 이것을 연기하여 그 비용은 다른 항목에 유용하지 말고 반드시 국민저축운동에 협력해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저금을 할 것.



2. 필승기도법회의 개최
황군무운장구기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집행예정의 기원법요를 집행한 후, 24일부터 30일까지 전승기도회를 근수(謹修)할 것.
3. 국방헌금 및 군인유가족원호의 강화
국방헌금, 상병위문 및 출정군인유가족원호에 대해서는 장래 한 층 강화할 것.
4. 민중사상선도의 적극화
부락인접 사찰에 머물며 살고 있는 승니(僧尼) 또는 시정에 거주하는 승려를 하여금 자진해서 정회(町會)의 임원 또는 애국반 지도역을 맡고 총력운동을 익찬함과 함께 국민사상선도에 힘쓸 것. 특히 포교에 종사하는 자는 더 한 층 성의로써 말도록 지시가 있었음.
5. 근로봉국(奉國)의 실행
청장년 승려로서 청년대에 편입한 자 또는 근로보국대에 편입된 자를 제외된 자는 반드시 근로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할 것.
6. 시국에 순응하는 시설의 급속실현
최근 시국이 중대해집에 따라서 각종 관영시설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특히 체신사무의 일부(전화별배 또 서신의 국외 배달증지 등)증지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사 및 중요 말사에서는 소관 국의 인가를 받아서 사서함 또는 수신소를 설치하여 소속원으로 하여금 매일 또는 격일에 이것의 수신을 하게 할 것(사서함 또는 수신소설치의 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할 것).

1941년 12월 5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중무총장 광전중육

[2-3]

싱가폴 함락을 즈음해서의 전첩축하행사에 관한 일

(내용을 생략함)¹²⁷⁾

건명	앞	날짜	발송처
△중내 승니조사에 관한 건	각 본산	1941.7.28.	중무총장
△중보기사 보고의 건	동	1942.1.10	동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평의원 개선에 관한 건	각 본산	1942.1.7.	중무총장
△매8일 대조봉대일 설정에 아울러	동	1942.1.7.	동

127) 원문 표기 그대로임.

필승기원에 관한 건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1호, 1942년 2월, 1~3쪽〉

3) 제2호(1942년 2월)¹²⁸⁾ - 대조봉대일, 태고사법 시행, 군용기헌납 관계

[3-1]

조총서(曹總庶) 제127호

1942년 1월 21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¹²⁹⁾

31본사(本寺) 주지 앞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 따르는 필승기원에 관한 건

이번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 설정에 관해서는 이미 국민총력 각 도 연맹회장으로부터 이것의 실시 요강 등이 지시된 것으로 사료하나, 우리 중에서는 이러한 즘음에 종도 일반에 대해서 필승불패의 신념을 가일층 공고하게 할 필요에 대하여 귀사 및 귀 관내 말사(포교소를 포함)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필승기원 법요의 집행이 있으시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매월 8일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8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9시
2. 장소 각사 및 포교소
3. 법요 명칭 대동아전쟁필승기원 법요
4. 기간 1942년 2월부터 대동아전쟁 완수까지
5. 법요 식순 종래의 예에 의할 것

128)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1942년 2월에 발행되었다.

129)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3-2]

조총서(曹總庶) 제23호
1942년 1월 28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태고사법 시행 철저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작년 1월 14일 자로써 통달해 두었던 바, 이것의 실시가 아직 철저하지 못하여 종무집행상 지장이 적지 않음으로써 태종법 제124조에 규정된 사유(寺有)재산처분의 허가 또는 본 말사 주지의 취직 및 사법(寺法) 개정 기타인가에 관한 사항의 출원에 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종정의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시며 또 모든 제출 및 보고는 그 부분(副本) 만을 종정에게 제출하기로 되었으므로 특히 포교에 관한 제출서류는 꼭 4통씩을 갖추어 총본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태고사법 실시에 대해서는 관계처로부터 지시가 있었으므로, 인가사항을 통해 종정의 승인서 첨부 없이는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 해량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첨언합니다.

[3-3]

1942년 1월 31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앞

군용기 헌납에 관한 건

이번 본 종에서 애국기 헌납운동을 맞이하여 기금을 모집토록 한 데 대하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예정기한 한 달 전에 목표액을 훨씬 돌파하여 오늘 다음과 같이 헌납식을 거행하게 된 것은 경하해 마지않으며,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하시고 이상 보고드립니다.

- 다음 -

- 헌납기의 종류, 명명 및 그 대금
97식 전투기 한 대의 대금 5만 3천엔. 특히 군의 호의로 조선불교호라고 명명했다(별도 국방헌금,

일금 5백2십6엔(84전).

－ 헌납식의 일시 및 장소

1942년 1월 31일 오후 2시 조선군사령부에서 광전종욱 이하 2명이 참가하여 헌납식을 거행했다.

[3-4]

1942년 2월 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

31본사(本寺) 주지 앞

대조봉대일식(大詔奉戴日式) 차례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해서는 관계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지시가 있었으므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대조봉대일의 조서(詔書) 봉독식 차례

- － 경례
- － 궁성요배
- － 국가합창
- － 조서봉독
- － 필승기념(祈念)(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하여 필승기념)
- － 훈화
- － 황국신민의 서사제창
- － 경례

－ 비고 －

1. 경례는 국기에 대하여 하며, 국기의 게양이나 걸어놓지 않을 때는 임석한 최고 지위자에 대하여 또는 참가자 상화간의 예의로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참가자 다수로 하여금 옥외에서 할 경우에는 마지막 경례 앞에 “천황폐하 만세 봉창”을 더 할 것.
(이상)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2호, 1942년 2월, 4~5쪽〉



4) 제4호(1942년 4월) -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53호

1942년 3월 9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태종사 산천중원(山川重遠, 야마가와 주켄)¹³⁰⁾

중앙종회원 앞

임시종회 소집에 관한 건

교육 및 포교에 관한 중법안의 협찬 및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비용에 요하는 기채안의 의결을 위하여 태고사법 제 5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중앙종회를 소집한다.

추가로 회기 중의 법요집행이 있을 예정에 대해서 의식용의 가사, 장삼 및 흰 버선 등을 휴대해서 출석하도록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1942년 3월 25일 오전 9시
2. 장소 경성부 수송정 44 태고사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4호, 1942년 4월, 1쪽〉



5) 제5호(1942년 6월) - 국어강습회 관계

조총서(曹總庶) 131호

1942년 5월 5일

조선불교조계종 흥분사태고사

종무총장 광전종욱(廣田鍾郁, 히로다)¹³¹⁾

절 주지 앞

반도 2천 4백만 민중으로 하여금 국어생활을 실천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국어전해운동은 시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번 도지사회의 이래, 국민총력연맹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 걸쳐 현재 이것의 전개를 서두르고 있으나, 우리 조계종에서는 이러한 때에 스스로 나아가서 이 운동에 가담하고 이러한 목표

130) 방한암(方漢岩)의 창씨명.

131) 이종욱(李鍾郁)의 창씨명.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 조선의 종래의 각 사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귀 관내의 각 절 및 포교소에 이러한 취지를 철저히 시달하고 이것의 실행에 만유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통달한다.

추가로 본 건 운동실시에 대해서 강습회 등 개최의 경우에는 관내 경찰관서 또는 군, 면연맹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또 강습회 인가를 요할 때는 적법한 수속을 하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점언합니다.

- 다음 -

1, 사찰(본사 및 말사) 또는 포교당에서는 일제히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인접한 부락민을 수용하도록 국어강습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 단 강습회의의 개최회수는 제한하지 않음.

1. 강습회장은 반드시 사찰 또는 포교당에 한한다.
2. 강사는 별도로 초빙하거나 또는 사찰직원 혹은 포교사에 위촉할 것.
3.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할 것.
4. 수강자의 인원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5. 교재(국어 교본)는 당국의 지휘에 따르고 적절히 선택할 것. 경우에 따라서는 총본사에서 이것의 알선을 맡을 수가 있다.
6. 강습회의의 소요경비는 사찰의 부담으로 하고 사찰경비예산 중에서 포교비 또는 교육비의 관(款)으로부터 지불하기로 한다.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5호, 1942년 6월, 1~2쪽〉

6) 제6호(1942년 7월) -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조총서(曹總庶) 143호

1942년 5월 12일 종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조선 징병제도 실시에 즈음해서의 기원행사에 관한 건

5월 8일의 각의에서 결정이 있었던 1944년도부터 우리 조선에 징병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은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이를 즈음하여 본종에서는 감격 속에 성수(聖壽)의 무궁을 축도하며 황군의 무운장구를 빌기 위하여 종내 각 사찰을 통해서 일제히 다음과 같이 기원행사를 거행하기로 되었으므로,





귀 관내 각 사찰(본 말사 및 포교당)에 앞 취지를 철저히 시달하고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행사명칭 조선징병제도실시 축하기원 법회
2. 실행기일 1942년 5월 17일 오전 8시
3. 행사순서 종전의 기원법요의 전례에 의할 것.

기원문 중에는 반드시 천황폐하의 성수만세를 받들어 쓰고,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용사의 영령에 감사를 기입할 것.

4. 참가자는 사찰에 머물고 있는 자는 물론, 되도록이면 사찰 부근의 부락민 및 소속신도를 하여금 많이 참가시킬 것.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6호, 1942년 7월, 8~9쪽〉

7) 제7호(1942년 8월) -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조총서(曹總庶) 206호

1942년 6월 25일 중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지나사변 5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동아민족의 영원한 안녕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나사변 발발 이래 제국은 거대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사변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일로 성업완수에 매진해 왔으나, 작년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에 의하여 시국이 더욱 중대하게 장기화하게 되었다, 후방국민의 한 층의 결의로써 지나사변을 포함한 대동아전쟁의 완수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때에 본종에서는 제1선의 황군의 부단한 노력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받듦과 함께 종도에 대하여 순국보국의 정신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오는 7월 7일 지나사변 5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종내 각 사찰에서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황군장병위령 법요를 근수(謹修)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귀 본사 및 말사(각 포교당을 포함)에서 그날 오전 10시를 기하여 일제히 기념법회를 집행하도록 조치하심을 바라고, 또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의 요령의 시달이 있었으므로 실시하시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앞 기원법회의 차례는 이미 통보한 법요식순에 준거하여 실시하도록 만약을 위하여 첩언합니다.

- 다음 -

1. 7월 1일부터 한 주 동안 및 7월 8일을 지나사변 5주년 기념주간으로 하고 각개 행사시설을 통하여 앞 취지를 보급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
2. 사변기념일에는 집집마다(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등을 포함) 국기를 게양할 것.
3. 7월 7일 정오를 기하여 앞 취지를 가다듬은 1분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할 것.
4. 7월 8일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의 상회(常會) 등에서도 앞 취지의 주지(周知)에 힘 쓸 것.
5. 군인원호회와 서로 협력하여 재조선부대 및 군인유가족의 위로 및 위문을 할 것.
6. 가능한 지방에서는 강연회, 영화회 등을 개최할 것.
그것을 개최하는데 있어 군 관계의 강사위촉을 필요로 할 때는 그 고장의 관계 군에 의뢰할 것.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7호, 1942년 8월, 19~20쪽〉

8) 제8호(1942년 9월) - 국방 자재 헌납, 국어강습회 관계

시국행사

○ 국방자재헌납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대본사 고운사에서는 5월 16일 다음 자재를 당국에 헌납했다.

불기(佛器) 2개, 양은 쟁반 2개, 불발우(佛鉢盂) 1개, 작은 종 1개, 요령(搖鈴) 2개, 광금(光金) 3개, 국이(局耳) 3개, 태□□□자 8개.

○ 국어강습회 개설

평안북도 연변군 북신현면 대본산 묘향산 보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보현사 심검당
- 수용인원 30명
- 개강 연월일 1942년 7월 1일
- 개강 예정 연월일 동년 12월 말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대본산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어강습회를 개최했다.



— 다음 —

- 강습회장 월정사 용금루
- 수용인원 24명
- 개강 연월일 1942년 6월 11일
- 개강 예정 연월일 동년 11월 30일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8호, 1942년 9월 15쪽〉

9) 제9호(1942년 10월) -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종(宗) 공문
총서(總庶) 제292호
1942년 9월 2일 종무총장
각 본사 주지 앞

종무타합회 소집에 관한 건

이번에 당 총본사에서 별지 요항에 의하여 표제의 타합회를 소집하기로 되었음에 대해서는 회원파견 및 경비를 지불하시도록 부탁하오며, 특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특별행사거행 및 회의준비의 사정상 필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항목에 대하여 수배해 주시도록 만일을 위하여 거듭 알립니다.

— 다음 —

1. 회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요 참가에 필수적인 복장(조선옷 및 장삼, 가사, 흰 버선 등)을 휴대시킬 것.
2. 회원 파견에 대해서는 출석자의 직명, 성명(대리의 경우에는 그 사유)을 갖추어 9월 25일까지 회신이 있을 것.
3. 육군병원위문금 10엔은 9월 25일까지 총본사에 도착하도록 송금할 것. 회원을 파견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앞 위문금 부담액은 반드시 송금할 것.

종무타합회 개최 요항

1. 취지

전국(戰局)의 진전에 따라 중대화 해가고 있는 시국에 즈음하여, 각 본사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순교보국의 정신을 진작시키며 또 총본사와의 유기적인 연락을 긴밀 또한 원활하게 함으로써 종무의 간편하고 민첩하게 함을 도모코자 한다.

2. 명칭

종무타합회

3. 회원자격

본사의 감무에 한한다. 단, 감무가 결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사주지가 삼직(三職) 또는 종무관계자에 대해서 적당히 결정하여 파견할 것.

4. 일시

1942년 9월 29일부터 동 30일까지로 한다.

5. 회의장

경성부 수송정 44 총본사 태고사

6. 회의 순서

추후 결정한다.

7. 회의 중의 특별행사

- 1) 조선신궁 참배
- 2)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위령제 근수(謹修)
- 3) 용산육군병원 위문

8. 경비의 지불방법

- 1) 회원의 여비는 당해 본사부담으로 한다.
- 2) 회의 및 특별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총본사의 부담으로 한다.
- 3) 육군병원 위문금은 한 사람에게 대하여 10엔으로 하고 해당 본말사의 공동사업비의 부담으로 한다.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9호, 1942년 10월, 16~17쪽〉

10) 제10호(1942년 11월) - 시국불교강연, 종무타합회 관계

[10-1]

○ 시국불교강연

재단법인 조선불교협회 주최로 모인 내선(內鮮) 승려가 서로 제휴하여 불교순회강연회 실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일시	장소	연제	강사	청중 수	비고
9월 2일 오후 2시부터 동 4시 반	장전극장 (長箭劇場)	시국과 불교 지성과 감사	김하동화(金河東華) 염전광화(鹽田慈光)	300명	
동 3일 오후 8시부터 동 10시 반	강릉경찰서 연무관	"	"	250	
동 7일	청주상공장려관 강당	"	"	300	
동 8일	대전 서본원사(西本願寺)	"	"	150	
동 9일	공주고녀교 강당	"	"	350	
동 1일	인천 서본원사 교회당	대동아전 건설과 우리 각오/성전완수와 불교	구전묵전(駒田默全) 김성상철(金城相哲)	200	
동 2일	수원 신평(新豐) 국민학교	"	"	200	
동 5일	개성공화당	"	"	200	
동 6일 오후 7시 강당	해주 육(旭)고녀교	"	"	200	
동 8일	사리원 공화당	"	"	500	
동 2일	이리 동본원사(東本願寺)	불교로부터 본 대동아전쟁과 우리의 소원, 황도불교의 선양과 광명생활	흑전혜해(黑田惠海) 금□□냉(金□□冷)	150	
동 3일	전주 서본원사	"	"	250	
동 4일 오후 2시	남원읍 광한루	"	"	100	
동 5일	전주 서본원사	"	"	250	
동 4일 오후 2시	남원읍 광한루	"	"	100	
동 5일	여수읍사무소 금성방(金城方)	"	"	100	
동 6일	순천읍 공회당	"	"	50	

동 7일 오후 3시 반	광주중앙 공주국교 강당	"	"	300	
동 1일	김천경천사(慶泉寺)	대동일심 참을성	천도혜광(川島惠光) 중원소성(中原溯城)	200	
동 2일	대구 공회당	"	"	500	
동 4일 오후 2시	포항 철원사(哲願寺)	"	"	200	
동 5일	울산국교 강당	"	"	300	
동 8일 오후 7시 반	부산공생회(共生會) 강당	"	"	250	
동 9일	마산국교 강당	"	"	50	
동 2일	정주본원사 출장소	일본불교의 성격/ 대동아전쟁과 일본의 사명	관철웅(關哲雄) 덕광윤(德光允)	30	
동 3일 오후 1시	정주극장	"	"	100	
동 오후 8시	선천연무관	"	"	200	
동 4일	신의주 공회당	"	"	250	
동 5일	의주극장	"	"	300	
동 9일 오후 1시	강계극장	"	"	200	
동 11일 오전 10시	안주동본원사 출장소	"	"	70	
동 12일 오후 1시 공회당	진남포	"	"	150	

[10-2]

○ 종무타합회

1942년 9월 1일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산천중원(山川重遠, 야마카와 주켄)¹³²⁾은 1942년 9월 29일부터 동월 30일까지 경성부 수송정 44번지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太古寺)에서 종무타합회를 개최한 바 의정 순서 및 출석회원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종무타합회 순서

제1일 9월 29일(화요일)

132) 방한암(方漢岩)의 창씨명.

<오전의 부>

- 1) 조선신궁 참배 일동
- 2) 황군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 위령제 근수(勤修) 일동

<오후의 부>

- 1) 국민의례 일동
 - (1) 궁성요배
 - (2) 묵념
 - (3)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2) 개회 [삼귀의례(三歸儀禮)] 일동
- 3) 훈시 계(桂)¹³³⁾ 사회교육과장
- 4) 인사 임(林)¹³⁴⁾ 조선불교협회장
- 5) 강연 카바(蒲) 육군중령

제2일 9월 30일(수요일)

<오전의 부>

- 1) 만주불교시찰담 신포우(神寶) 종교주임
- 2) 종무총장 훈시 광전(廣田) 총장¹³⁵⁾
- 3) 영화(본부에서) 일동

<오후의 부>

- 1) 용산육군병원 위문 대표자 4명
- 2) 각 부장지시 3부장
- 3) 총본사 수증(受贈)토지소유권 이전
금일 진행상황 보고청취 회원일동
- 4) 폐회(사홍서원(四弘誓願) 제창) 이상

2. 출석회원 명부

본사별(本寺別)	직명	성명
봉은사	감무	목호광일(木戶光一)
용주사	감사	송원순도(松園淳道)
봉선사	법무	상산원성(商山元盛)
전등사	주지	김성정택(金城正澤)

133) 계광순(桂琬淳)을 말함.

134) 임원길(林原吉, 하야시)을 말함. 임석진(林錫珍)의 창씨명.

135) 광전중육(廣田鍾郁, 히로다 쇼이쿠). 이중육(李鍾郁)의 창씨명.

법주사	법무	서산정해(西山定海)
마곡사	감무	풍도의광(豊嶋義光)
위봉사	감사	김해재수(金海在洙)
보석사	감무	김광석농(金光石農)
대흥사	감무	국택지준(國澤智俊)
백양사		결석
송광사	감무	대산홍순(大山淳弘)
선암사		결석
화엄사		결석
동화사	법무	금성지무(金城志武)
은해사	감무	무산광차(武杉光次)
고운사		결석
금룡사	감사	풍천문웅(豊川文雄)
지림사	감무	소본행택(沼本幸澤)
해인사	감무	산본성관(山本性觀)
통도사	감무	목하승부(木下勝夫)
범어사	감무	금환강사(金丸剛士)
패엽사	감무	대평우일(大平宇一)
성불사	감무	평원천오(平原天午)
영명사	감사	백천만호(白川萬鎬)
보현사	법무	삼산도원(三山道原)
건봉사	감사	송원충길(松原忠吉)
유점사	감무	권동회원(權東會源)
월정사	감무	려산영기(厲山英起)
석왕사	감무	해원경부(海原耕夫)
귀주사	법무	길원평부(吉原平富)

3. 조선신궁참배

9월 29일 오전 9시 30분 광전 중무총장 이하 중무 직원일동 및 출석회원 등 32명이 태고사를 비를 무릅쓰고 출발, 동 10시 10분에 조선신궁에 참배, 동 10시 50분에 회의장에 귀환했음.

4. 황군의 무운장구 기원 및 전몰장병의 위령제를 근수(謹修)

같은 날 오전 11시 정각 태고사 대응전에서 법주 광전중옥 총장의 집례로써 중무직원 일동, 출석회원 전원 및 태고사 소속 신도 40여 명이 참가하여 기원 및 위령법요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근수하고 동

12시에 끝 마쳤음.

법요순서

- 개회사
- 명고(鳴鼓)
- 국민의례
- 삼귀의(三歸依)
- 창혼(唱魂)
- 경례 일동
- 착어(着語)
- 헌좌개(獻座偈)

我今敬設寶嚴座 奉獻戰歿英靈前
願登寶座照義光 萬劫一如鎮護國

- 제문 아래와 같다.

- 입정(入定)
- 공양(供養) 진언(眞言)
- 독경 심경(心經) 삼편(三遍)
- 분향
- 배송(拜送)

罷散偈 十方諸佛刹 莊嚴悉圓滿
願須歸靖國 恆念國威光

- 법주 퇴석
- 대중 퇴석
- 폐식

제문(祭文)

유(維)

1942년 9월 29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산 태고사 법법(乘法)사문(沙門) 광전중욱(廣田鍾郁).

謹以香茶庶羞之奠，代衆敬祭于支那事變，長鼓峰事件，及大東亞戰爭，戰歿忠義將兵列位英靈之下，伏以國不自威，威之由杆，杆不自救，效之由用，用不自用，用由將兵，兵不自兵，維山忠義，今次聖戰惟我出征，皇軍將兵，挺身征伐，一死報國，國威益偈，武運增長，神切超助，不遑枚舉，命盡留神，身死殘名，忠勇千秋，義溢萬代，與日同照，與海共汪，銃後國民，執不欽慕，感慈謹茲，弔不慰靈，第當本宗三十一本山，靈務會同，宗務打合之辰，聊薰葬儀，庶賜歆顧，伏惟尚饗。

제1일 오후의 부

5. 국민의례

오후 1시 10분 사회교육과장 임석 하에 오오타니(大谷) 서무서기의 선창으로써 일동이 총 기립하여 동쪽의 궁성을 향하여 받들며 최경례를 하고, 계속해서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물영령에게 감사를 위하여 1분간 묵념을 올린 뒤 고다(香田) 서무부장의 선창으로써 황국신민의 서사제창을 했다.

6. 개회(삼귀의례 및 개회사)

기노시타(木下)(통도사 감무)사(師) 선창으로써 일동 불단을 향하여 삼귀의(三歸依)의 예를 드리고 각자 착석을 하자 고다(香田) 서무부장이 등단.

“오늘 각 본사(本寺) 감무(監務)의 종무타합회를 개최함에 있어, 여러분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원방(遠方)으로부터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종무당국자로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종무총장의 지명에 의하여 본 회의의 사회를 맡기로 되었으나,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노력을 하며, 사회자라는 이름의 중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지금부터 계(桂) 사회교육과장 임(林) 조선불교협회장 및 카바(蒲) 중령의 이야기가 있겠으므로 여러분은 조용히 근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7. 계(桂) 사회교육과장 훈시요지

오후1시 40분부터 동 4시30분까지 계(桂) 과장으로부터와 임(林) 협회장 및 카바(蒲) 중령이 별항처럼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의 회동에 즈음하여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생각하나, 종교문제에 관하여 불교지식이 빈약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매우 뜻밖의 느낌이 없지도 않으나, 다행히 제가 종교행정 사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사무 상의 감상의 일단을 말하며 여러분의 참고에 보탬이 되고자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의 임무에 취임한 이래 어떤 방법으로서 종교를 지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신도(神道)나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취급해 왔던 것이나,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포교 및 활약상황을 일별(一覽)할 때, 신도(神道)는 아직 역사가 짧은 관계로 당연히 그냥 두고, 다음으로 기독교는 지식계급을 포착하고 있는 중에도 원기 왕성한 청장년층이 많으며, 이것은 오로지 그 활약이 알맞은 것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학교를 세워서 교육사업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자선사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이나 교화기관으로써 그 마음을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 쪽은 이것보다 우수한 교리나 우수한 이경(理境)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뒤지는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불교 쪽에서는 기독교 쪽과 같이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는 지식계급 층의 청장년의 마음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대의 변천은 반드시 그 융성을 고정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



의 사상이 격멸되는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나 정신은 물론 동양사상에 걸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사상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 민족의 두뇌에 흘러 들어와서 깊이 침투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유교사상이 도덕률의 규범으로서 인류생활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나, 그런데도 종교상의 신앙심으로서 함양되고 굳게 축조된 것은 불교 이상으로 나온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홀로 조선에서만이 아니고 그 연원을 거슬러 지나나 인도에서도 특히 대서(大書)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완성된 정도로 보면 즉 우리 일본 불교가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옹호하고, 다라서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서 국가의 기대에 따르도록 여러분이 책임을 갖고 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한 사람의 사견이 아니고 널리 총독부 전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당국으로서 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여러분의 중임(重任)을 보다 낮게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나, 이것은 결코 압박을 한다든가 혹은 그 자유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뜻하는 바를 잘 살펴서 협력 일치하여 총본사(總本寺)의 지도에 따름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불교가 떨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두 세 가지의 결합과 아울러 진흥책으로서의 두 세 가지를 이야기 하고자 상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날의 불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계급의 젊은이를 잡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1 파 간의 투쟁인 것입니다. 재산을 중심으로 한 투쟁, 권리를 중심으로 한 투쟁 등은 요는 겸양의 정신, 복종의 사상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지(住持)에게 복종하는 것을 부처에 복종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무리 하찮은 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지위에 오른 이상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존경하고 이것에 종순(從順)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불교적인 활동이 시사에 맞도록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불교를 옹호하는 사유라는 것은 불교 그 자체가 아니며, 불교가 민중을 선도하고 불교교리가 지금의 사상태세나 오늘날의 실제생활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을 옹호하기 때문에 민중과 고락을 함께하고 시운(時運)의 추이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이것은 오히려 첫 번째에 이야기해야 할 것이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의 철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환기의 반도 민중에게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어의 상용(常用)인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소학교의 아동마저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나, 홀로 불교만이 심산유곡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잘 분투 활약하여 모든 생활이 내선일체에 걸맞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선불교가 제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조선불교는 당국을 순진하게 신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견(異見)이 있으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상관없이 중무총장을 거쳐서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선사찰의 중심이며, 또한 실권자이기 때문에 조선불교를 잘 이끌어서 국가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은 바입니다. (끝)

8. 임(林) 불교협회장 연설요지

조선불교는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현재 총본사의 구현을 보기에 이르러 발전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맞아 여러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불교의 선포(宣布)에 노력함과 동시에 일반에게 불교신자로 하여금 보다 낮게 참다운 불교의 진의를 이해시키는데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랫동안의 관습을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기본만이라도 용감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각오를 굳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해 드릴 첫째 요지인 것입니다. 둘째에는 전쟁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나사변¹³⁶⁾에 시작하여 대동아전쟁이 되어서, 황군장병은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커다란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1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필승의 신념으로써 매진하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공영권 내의 몇 억의 주민정신의 생활을 관장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으나, 불교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봉공정신으로써 민중정신 작흥(作興)을 맡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의 징병제도 실시인데, 이것은 반도민중이 가장 명확하게 대군(大君)의 적자(赤子)가 된다는 것으로, 이 징병제의 완수에는 첫째로 황국신민의 연성인 것입니다. 연성이란 책상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인 것도 아니며, 일상생활 그 자체가 즉 연성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어 전부 이해운동이 필요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절에서는 강습회 등을 열어서 국어전해운동에 노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나 아직도 하고 있지 않는 절 쪽에서는 빨리 실행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도 부인들의 계몽운동입니다. 어머니 교육에 지나지 않지만 이 어머니 교육이야말로 징병제도 실시의 완벽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음으로서 이러한 자식이 있다는 것은 군신의 어머니로써 입증된 것이나, 조선은 옛날부터 부인들이 절 참배를 잘한 것처럼 석가님의 가르침이 깊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보아서 여러분은 이들 부인의 계몽운동에 철저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어전해운동과 부인계몽운동은 총독부 당국도 총력연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음으로 정신적인 방면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은 각별히 분기하는 노력으로써 종래의 소극적인 기분을 버리고 용감하게 적극적으로 민중의 지도와 교화에 종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

9. 카바(蒲) 중령 강연요지

“전략(前略)” 성전이 시작된 이래 벌써 6년, 그 전과(戰果)로서는 남방은 적도 직하의 남양 끝까지, 북쪽은 사할린 이북의 아류산군도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지구의 거의 동쪽 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하여 그렇게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는가를 말하자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황실의 능위가 그

136) 중일전쟁을 말함.





렇게 하는 것이나, 그밖에도 1억 국민이 굳게 갖고 있는 바의 일본정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본정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정”, “의”, “참을성”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즉 “인정”이며, 의는 즉 “의리”이며, 참을성은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싸우는데 처음부터 무력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라(野村) 대사로 하여금 간곡하게 외교를 계속한 것은 저 “루즈벨트”에 대한 인정(人情)을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저 미국과 같이 잔혹무도한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투항해 온 적에게는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의리의 정이나, 또 그 외에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효는 즉 충으로서 또 대군에 대한 충은 즉 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일본제국에 태어난 이상 신명(身命)을 국가를 위하여, 천황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이러한 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을성”이란 어떠한 곤궁 결핍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러한 참음과 인내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지나사변의 장개석 조차도 6년간 견디며 지냈다는 것을 보면 그이보다도 훨씬 우수한 미영의 저항은 몇 년이나 계속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혹은 백년이나 2백년이 될는지 예상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신의 “참을성”으로써 시종일관 견디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이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데에 일본정신의 구현이 있는 것입니다. 저 일청·일러전쟁¹³⁷⁾에서 보아도, 이러한 일본정신의 존귀함을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본정신은 천하가 태평할 때는 나타나기 힘들 것 같으나, 일단 유사시에는 숙연하게 나타나나, 마치 벚나무가 꽃 계절 이외에는 아무것도 볼만한 것이 없으나, 하루아침에 꽃 계절이 되면 신선하게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본정신을 무척 잘 체득하시어 이것을 불교를 통하여 민중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자주 종교보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요는 종교의 교리를 통해서 일본정신을 잘 발양(發揚)시키는 것으로, 결코 개인적이고 자利적(自利的)이며 독선적인 수행(修行)만으로써는 도저히 종교보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이러한 정신을 소화시켜서 민중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미신자(未信者)가 있다고 할 때 이를 다만 불교에 귀의(歸依)하도록 하는 포교 방식 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를 하여금 일본정신, 국체의 본의에 투철하도록 하며, 그렇게 해서 일터 봉공의 생각으로써 종교심을 배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944년도부터 징병제도가 실시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조선동포로 하여금 황민화의 가장 첩경이 되는 것으로, 이 광범한 대동아공영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군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준비에 서두르고 있겠지만, 지난 번 그 준비사항의 하나로서 남북선의 민간유지 수백 명을 모아서 그 안에는 부인이 백 명 정도 있었으나,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단지 군사령부 및 지원병훈련소 등을 견학시킬 뿐이었습니다만, 견학방법은 매우 감격해서 만족하는 감정을 안고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쪼록 조선 민중의 사정을 잘 이해하셔서 종교심, 신앙심이 모자라는 조선동포에 대하여 구각을 탈피하고, 정신(挺身)하는 모범을 제시하여 분투 진력하셔서 참다운 종교보국의 완벽을 기

137)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말함.



할 것을 염원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

제2일 오전의 부

카가와(香川) 부장

속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포우(神寶) 종교주임의 만주 불교 시찰담이 있겠으므로 근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포우 주임으로부터 별항과 같은 시찰 담이 있었다.

1. 신포우(神寶) 종교주임담 요지

저는 종무총장과 함께 이번에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축하를 위하여 열렸던 만주불교대회에 출석 및 만주불교시찰, 조사를 위하여 만주로 출장했으나, 만주불교사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얻은 바를 말씀 드려서 여러분의 참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생각합니다. 만주국의 약진은 모든 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종교방면에서는 대단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법령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것은 “暫行寺廟及布教者取締規則”이라는 것인데, 공인종교, 유사종교를 불문하고 정부는 모두 이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종교는 민생부에서, 유사종교는 치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지만, 공인종교 및 그 신도수를 말씀드리면 공인종교로서 즉 신도(神道), 불교, 도교, 기독교, 회회교, 유태교의 신도 수는 △신도(神道)신도 61,000명, △불교 5,646,000명 △도교 174,000명 기독교 95,000명 △회회교 113,000명 △유태교 515명 △기타 58,000명 △합계 7,380,000명이 되나, 라마교는 이에 넣지 않은 전 인구 4,300만에 비하여 1할 7부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래의 종교사정은 매우 복잡해서 건국 이전의 불교는 승려의 질이 매우 나빴던 것이었으나, 건국 이후 불교총회를 설립하여 이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척지의 불교시책 및 불교총회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척지의 불교시책

하나의 개척지에는 하나의 교회를 두기로 하고, 내지인 측의 개척지에는 내지불교를 두고, 조선인 측 개척지에는 조선불교를 둔다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나, 개척지에 두는 포교자 즉 승려가 되는 자는 오로지 독경과 좌선만을 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소위 청경야독(淸耕夜讀)과 같은 방식을 취하며, 직접 민중의 현실생활에 뛰어 들어가서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교총회의 일은 무엇이나 하면, 만주의 불교전반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부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면, 협화회를 통해서 민생부에 신청함으로써 하의상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회의 회장은 만주인 승려로서 부회장은 내지인 승려인 것입니다. 다음에 만주국의 특수 사묘(寺廟)는 △신경(新京)의 반야사, 하얼빈의 극락사 기타 봉천(奉天), 금주(錦州), 영구(營口)에 있는 오본산(五本山)이지만 여기에서는 승려의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성이라는 것은 득도(得道)하기만 하면 곧바로 완전한 승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득도 후는 수계(受戒)의 단계를 밟아서 비로소 포교사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2) 재만 조선불교와 장래의 대책

다음으로 조선승려를 양성하는 특수사묘는 현재 만주에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승려의 개인적인 진출에 의하여 세워진 재만 사찰은 70군데쯤의 절이 있으며, 승려는 대강 200명, 신도 약 30,000명 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찰은 특수사묘가 아닌 이상 승려양성도 할 수 없으며, 또 그대로는 장래 발전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간도성의 사람이 제일 많고 인구비율로 보아도, 그 숫자를 보아도 전 재만 수의 대략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승려들은 모두 질이 나빠서 탁발(托鉢) 외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나쁜 짓을 함으로써 현병한테 탁발증을 빼앗기는 등 또 일정한 제복이 없음으로서 당국에서는 단속에 매우 곤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간도에 특수 사묘를 설치하거나 감독부를 두어서 승려를 양성하는 한편 이를 감독하는 것이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묘의 건설에는 약 8만 엔의 경비가 필요하나, 조선불교 측에서 3만 엔을 부담해주면 만주 측이 5만 엔을 각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에서 연구 중이나 안이 완성하는 대로 총본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께전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길(延吉), 길림(吉林), 봉천(奉天) 방면에도 조선불교의 발전은 상당히 불만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도 크게 분발하여 조선불교의 만주진출에 노력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3) 총본사의 순종(順從)에 관해서

종래 조선내의 조선불교가 하는 방식은 건설적인 것인지 파괴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의 그것을 보아도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총본사가 설립된 오늘날에 이것 저것 잔소리를 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있으나 아무리 훌륭한 인물일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총본사에 대한 의무나 기타를 다하지 않는 절이 있다면 그 절의 승려는 총본사의 간부에 추천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건설적인 정신으로써 조선불교 발전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별항과 같은 혼시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일동이 본부에 와서 시국에 관한 영화를 관람했다.

2. 중무총장 훈시

여기에 31본사 감무 여러분의 회동을 하게 된 것은 정전(征戰)하에서 시국인식의 재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하며 또 총본사가 수증(受贈)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기타사항 등 당면한 중무에 관하여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야 대동아전쟁은 능위 아래에 황군의 무용과 국민의 적성(赤誠)에 의하여 세계전사사상 유례가 없는 대 전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단계에서 착실하게 그 큰 발자취를 나아가고 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감격하는 바입니다만, 폭적(暴敵)미영은 아직도 집요한 항전을 계속하고 있음으로써 전국의 앞길이 갑자기 역전하기 쉬움으로서 우리 국민 되는 자는 한층 이후의 신국면에 맞추도록 정신체제동원의 재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성전완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국이 중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카바(蒲) 중령의 이야기에 의하여 잘 이해하신대로이며 이것의 설명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시국대응책에 대해서 약간의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1) 시국대응의 시책

시국대응의 시책은 국민총력연맹에서 통제실행중이나 본종사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기타에 대해서도 각 사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종에서는 지나사면 발발 이래 국방헌금 및 비행기헌납 등 약 십수 만 엔의 헌금을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국방헌금, 황군위문금품헌납, 금속류의 공출, 국방자재헌납, 저축여행, 출정군인유가족방문 및 군사원호 등 물질방면에 있어서 여러 시책을 힘이 닿는 한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속류 회수운동의 협력에 대해서는 이번 봄 중앙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으나 사찰 내에 있는 불필요한 사장된 금속은 이번 기회에 꼭 헌납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종래 각 사찰에서 실행해 온 것이나 이후 한층 이러한 일에 열성을 다하여 조석분수(朝夕焚修)의 상축(上祝) 및 황군의 무운장구기원은 물론 매월 다조봉대일(大詔奉戴日)의 기원(祈願)법요(法要) 또는 각 군사기념일에 즈음하는 기원 및 전몰영령제 등의 여러 행사는 빠짐없이 실시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 행사의 거행은 홀로 우리 종도(宗徒)인자들의 성은(聖恩)보답(報答)의 본분을 다하는 것뿐 만아니라 이것의 영향은 일반 민중에게 침투하여 황국신민인 본의를 알게 하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어보급운동인데 우리 종(宗)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가하고 실천궁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각 본사(本寺)에서 시달해 두어서 현재 그 발달한 운동상황의 보고에 접해나가고 있으나, 금후의 이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한층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명후년에 우리 반도민중이 향유해야 할 징병제 실시에서도 국어보급이 있어야 참다운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임(林) 조선불교협회장의 이야기에든 바와 같이 동 협회에서는 지난번부터 각지에서 불교 순회강연회를 개최하여 시국 및 불교 강연행각을 하였던 바 그 후 보고에 의하면 강사인 내선승려는 순회강연 기간 내에서 시중 행왕좌와(行往座臥)를 함께 하고, 연단에 서서는 어깨를 견주며 이구동성으로 황도불교정신을 고취(鼓吹)하며 전시하의 반도민중의 심전개발(心田開發)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예상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인 동시에 특히 앞 강연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본 절에 대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강연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층 여러분의 협력이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총본사 유지와 본말사의 의무

우리 조선불교도의 다년간 요망에 의하여 설립된 총본사는 본부의 간곡한 지도와 각 본말사의 흡연(翕然)¹³⁸⁾한 향응에 의하여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된 것은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재산 달성의 목적으로써 하는 각 사찰부터 기부가 있었던 사유(寺有)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수속에 대해서 이제 겨우 2할 7부의 진보를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된 바입니다. 각 사찰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이러한 수속의 진행이 조금 완만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한 성의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수속을 하는 데는 본사 주지의 회동이 있을 때마다 가끔 최촉을 해 두었으나, 실제 사무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이후 한층의 노력을 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꼭 완전히 마치도록 부탁드립니다.

138) 한 곳으로 모여 드는 모양, 일치하는 모양.





원래 총본사를 유지하는 데는 본사 및 말사에서 그 의무를 가진다고 태고사법에 명문이 되어 있으며, 또 각 사찰에서도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찰 또는 일부 승려사이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는 자가 없지도 않으나, 이것은 완전히 오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한 시도 빨리 그 인식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본사와 각 본말사와의 관계는 종래 중앙에서 여러 연락기관과 지방 사찰과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이러한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태고사법 종법 및 종령 등 사찰 및 승려를 다루는 여러 법규에 대해서 이후 우리 종도는 잘 이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3) 흥학(興學)과 포교

대체로 한 종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포교 흥학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본종에 있어서 재래의 강원(講院)교육제도는 현재의 정열에 비추어 한층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온 것으로서 일찍이 이것의 관계 종법 안을 각 위원에게 위촉하여 기초를 잡도록 했으나, 그것의 인가 신청은 곧 정부로부터 학제개혁안이 발표될 때까지 임시로 보류되었습니다. 또 종래 각 사찰에서 아무런 통제적인 지도목표도 없이 산발적으로 자유기분으로써 지내고 있던 중견 승려의 중학 정도 이상의 학교교육제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총본사에서 이러한 대책을 연구 중인 바, 가까운 장래에 중앙에서 이러한 통제를 실시할 방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혜화전문학교의 시설비 분양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본사주지타합회에서 의결 된 바도 있으나, 앞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각 본말사에서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꼭 각출하셔서 만유감(萬遺憾)이 없도록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포교에 대해서는 포교당정 리, 포교사 연성 및 포교당 기본재산제 확립 등 여러 문제에 걸쳐서 현재 조사 연구 중이나, 포교당기본재산제 확립에 있어서는 각 설립 사찰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4) 만주국에의 개교(開敎)

이번 만주불교대회 출석 및 만주국에서의 조선불교시찰을 위하여 신경, 길림, 하얼빈, 연길, 대련(大連) 및 봉천 각지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주에의 조선불교진출에 대해서는 가는 곳마다의 관민이 크게 희망하는 것이 있었으며 특히 간도방면에서는 조선동포가 약 80만이 이주하고 있는 관계로 간도에 본종 특수사묘(寺廟)를 창립해 달라는 요청이 그 곳 관민으로부터 아무쪼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현재 만주 각지에 산재해 있는 80 여 조선계 사묘의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본종 개교(開敎)감독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본부의 지도아래 연구 중이나, 이것이 실현할 경우에는 종래 우리 조선불교조계종의 만주진출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주국정부 당국자와도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5) 승풍진숙(僧風振肅)

요즘 중무직원 및 승려 간에 분규를 야기시키는 사찰이 있으나, 이것은 필경 승규(僧規)의 난잡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으로 크게 승풍진숙(僧風振肅)의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숙진(肅振)하는 방법은 평소 승려 자신의 연성(鍊成)에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후





여러분은 한 층 그 지도에 유감이 없도록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교유(教諭)에 따르지 않는 승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선량한 자를 위하여 단연코 이들 불량 승려는 이후 모조리 징계에 처하여 사찰분쟁을 근절시킬 방침이오니 여러분은 이후 사문(寺門)평화유지 및 승려품위 향상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일반 승려의 기강숙정방침의 일단을 제시한 것이나, 이에 따르는 중무중추에 있는 여러분은 특히 심신을 단련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동시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순량(淳良)한 사풍(寺風)을 보존하여 숙연한 승기(僧紀)를 진작해서 전시하의 반도 불교의 특색을 구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어(結語)

마지막에 와서 특히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억 국민은 통틀어 물심양면을 집결해서, 이번 세기적인 대 성전의 완수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 봉착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민중교도의 사명을 짊어진 우리 조선불교조계종 7천 법도는 신명을 폐하에게 바쳐서 멸사봉공 신도(臣道)실천으로써 성지(聖旨)에 따라 받들 것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중무에 과내서 각 소관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지시가 있을 것임으로써 여러분이 잘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총본사방침을 체득하고 사찰사무의 실천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

오후의 부

1. 육군병원 위문

오후 1시 카가와(香川) 서무부장, 대산순홍(大山淳弘), (송광사 감무), 금환강사(金丸剛士), (범어사 감무), 송원순도(松園淳道), (용주사 감사) 회원 일등을 대표하여 위문금 2백 80엔(30본사 중 선암·고운 2개사 결석)을 지참하고 용산 육군병원을 위문하고 앞과 같은 흥병금을 헌납하였다.

2. 부장지시

오후 2시 일동이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계속해서 부장 지시사항이 있었으며, 본부로부터 유우키(結城)와 미나미(南) 양씨가 입장(臨場)했다.

서무부장 주의사항 요약

- 1) 총본사의 시달 사항은 신속하고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것.
- 2) 본말사법 개정(인가승인) 신청 지급 제출할 것.
- 3) 사찰 이전의 경우의 수증(受贈)재산은 이전 허가가 있을 후 곧바로 이전 수속을 할 것.
- 4) 사찰 및 포교당에서는 반드시 종보를 구독할 것.
- 5) 주지취직 인가(또는 승인) 신청은 주지 또는 임시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내게 할 것. 앞 신청서에 는 반드시 본인의 호적등본(초본은 불요)을 첨부할 것.





- 6) 본사(本寺)에서 말사주지 후보자를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고사(考査)한 뒤에 결정할 것.
- 7) 각 본말사 주지 명부를 오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할 것(별지양식 참조).
- 8) 포교사 채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정(宗正)의 임명을 받을 것.
- 9) 사유림(寺有林)별채 허가신청서에는 반드시 그해 연도의 수지에산서를 첨부할 것. 단 별채대금의 수지 관항(款項)의 기입이 있어야 한다.
- 10) 요구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정 앞으로 승인 신청을 첨부할 것. 단 신청사 주지로 하여금 신청시킬 것.
- 11) 포교에 관하여 본부에 제출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서류는 모두 총본사 경유를 받을 것.
- 12) 시국 및 학사(學事)에 관한 통계를 오는 10월 말 일 까지 제출할 것.
- 13) 사유(寺有)토지처분허가(승인)신청서류에는 반드시 토지대장등본 3통을 첨부할 것.

교무부장 주의사항 요항

- 1) 도첩(度牒)¹³⁹⁾ 급부신청서에는 국민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또는 출신학교장의 졸업증명서 첨부여행(勵行)할 것.
- 2) 총본사 설립 이전에 득도한 도첩의 급부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도첩 재교부를 하도록 신청하게 할 것. 단 수수료의 한도는 수수료 규정에 따르도록 할 것(별지 양식 참조).
- 3) 포교당재산제 확립을 도모할 것.
- 4) 포교 사업실태를 보고할 것(별지 양식 참조).
- 5) 안거성만(安居成萬) 보고를 지금 제출할 것(증서교부가 팔요한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첨부하도록 할 것).
- 6) 설계(說戒) 및 결제(結制)에 대해서는 승규법(僧規法)이 정하는 대로 수속을 밟을 것.
- 7) 「불교」지 구독을 여행할 것.
- 8) 승적부(僧籍簿) 정리를 여행할 것.
 - (1) 미제출의 사찰은 조속히 제출할 것.
 - (2) 신상이동, 행해(行解)경력 등 이동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3) 1942년 6월 20일 조계종령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적자 및 승규법 제13조에 의한 휴적자에 대한 조치는 10월 말 일까지 할 것.
- 9) 사찰에서 해화전문으로 학생을 파견할 경우는 신중하게 전형할 것. 별과 지원자라고 할지라도 국민학교 졸업 및 졸업 이상인 자라야 할 것을 요한다.

139) 승려증명서.



재무부장 주의사항 요항

- 1) 총본사 토지등기수속은 금년 내에 완료할 것.
등기 불허가의 사유는 상세하게 총본사에 신고할 것.
- 2) 임시중비납입을 이행할 것(1941년도분과 함께).
사유림(寺有林) 입목(立木) 매매계약 보고를 독려할 것(위와 같음).
- 3) 분납수수료를 납입하도록 독려할 것.
- 4) 체납금 정리를 여행할 것.
등기 필 사찰에서는 1941년 가을 소작료를 시급히 납입할 것.
- 5) 이번 가을 총본사 토지소작료 징수에 관하여 특히 감독상 수입증가를 도모할 것.
- 6) 사유림 시업안의 미결사찰에서는 조속 시업계획을 편성할 것.
- 7) 명년도에는 사유림 별채를 적정하게 또 확장함으로써 수입의 증가를 도모할 것.
- 8) 사유(寺有) 재산대장을 제출할 것.
- 9) 「불교」지 구독대금의 징수를 철저히 여행할 것.

3. 총본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수속 진행상황 보고청취

오오타니(大谷) 서무서기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바, 각 사 대표로부터 별표와 같이 대답이 있었다.

각 사의 등기수속진행상황 보고요지

봉은사 신록사 이외 전부 서류를 총본사에 인도했습니다.

용주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봉선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전등사 화장사를 제외하고 전부 끝냈습니다.

법주사 반 이상 끝냈습니다.

마곡사 서류전부를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위봉사 연내에 완전히 끝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보석사 2개사 몫의 서류는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기타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대흥사 본 절 분은 완료했으나 기타는 대서인에게 위탁했습니다.

백양사 결석.

송광사 3개 절 분은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다른 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선암사 결석.

화엄사 결석.

동화사 본 절 분은 끝내고 수반지(首班地) 일부의 서류는 대서인에게 위탁하고 방등지(方等地)는 미제입니다.

진해사 본 절 분은 끝냈으나 말사 분도 10월 이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운사 결석.

금룡사 현재 착수 중이나 희망사 몫만은 되돌려 살 예정으로 착수 미제입니다.

지림사 본 절은 연내 완료의 예정, 말사에서는 오어사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해인사 본 절 분은 서류를 위탁하고 말사 분은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통도사 본말사 분은 함께 10월 말 이내에 완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본 절 분은 완료하고 7개 말사 분은 현재 수속 중입니다.

패엽사 현재 진행 중이나 1개사 만이 사고에 인하여 착수가 미제입니다.

성불사 1개사는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영명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법흥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현사 본 절 및 말사의 일부는 끝났으나 다른 것은 10월 이내에 끝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봉사 신흥사 분은 끝냈으나 다른 것은 10월 말 이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점사 연말 이내에는 완전히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전부 완제.

석왕사 전부 완제

귀주사 10월 말 이내에 완료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의견

대산(大山)(송광사 감무) 뒷날 참고로 하기 위하여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뒷날 이러한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시일의 여유를 주시고, 지방의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도 많이 있으나 시간관계로 말씀드릴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원(海原)(석왕사 감무) 또 중무 통제상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각 도의 주최 하에 각 본말사의 내지불교시찰이 상당히 실시되고 있으나, 이 이후에는 총본사에서 이것의 통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장 유효하게 하도록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천(豊川)(금룡사 감사) 각 군 면으로부터 금속류 공출에 대해서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전(廣田) 총장 공출명령이 있으면 기쁘게 내어 주십시오. 불구(佛具)라 할지라도 대용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부에 계출이 끝난 불구(佛具)나 기타에 대해서는 꼭 조선총독에게 허가를 받도록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본부의 희망입니다. 하는 김에 범종(梵鐘)만은 보류해 두고 싶은데, 많이 있는 것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5. 폐회

〈출전 : 『朝鮮佛敎曹溪宗報』 제10호, 1942년 11월, 3~4 · 7~22쪽〉





11) 제12호(1943년 1월) -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조총서(曹總庶) 제348호

1942년 11월 19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 중무총장 광전중육

각 본사(本寺) 주지 앞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12월 8일 대동아전쟁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대조(大詔) 환발(煥發) 당초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전쟁완수의 결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내용, 그 계통으로부터 통첩이 있는 바, 본종에서는 당일 오전 9시를 기하여 황군의 무운장구기원 및 전몰장병영령 법요를 엄수하기로 되었음에 대하여, 귀 사 관내의 말사 및 포교당에서 일제히 다음과 같이 법요집행을 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추가로 법요식순은 미리 통달해 둔대로 법요식순에 따라서 하기 바란다.

〈출전 : 『朝鮮佛教曹溪宗報』 제12호, 1943년 1월 11쪽〉



12) 제13호(1943년 2월) - 제4회 중앙종회, 헌납 관계

[12-1]

유시(諭示)

1942년 11월 5일 중앙종회 개회 및 폐회에 즈음하여 종정 예하(猘下)로부터 다음과 같은 유시(諭示)가 있었다.

유시(개회식)

여기에 제 4회 중앙종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제사(諸師)를 하여금 종기(宗機)를 논의하시는 데 대하여 사회의 일단을 말하고자 한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래, 능위(稜威) 아래에 황군장병은 분전역투하여 혁혁한 대 전과를 거두고, 황위를 안팎에 선양해 가고 있으며, 우리가 다 함께 감사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총본사 설립도 이제 2년, 아직 전시에 적응해야 할 태세의 완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유감 된 일이나,





그 뒤로 감독관청의 간곡한 지도와 여러분의 멸사봉공에 의하여 그 기초가 착실히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은 경하해 마지않는 바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포교에 관한 종법(宗法)안 기타 의정은 현재 본종에서 초미(焦眉)의 긴급한 일로 이것의 결정 실행은 신도(臣道) 실천, 종력(宗力) 신장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 종(宗)으로 하여금, 황도불교의 대도에 철저함에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은 이 노납(老衲 : 늙은 중)의 충정을 잘 체득하고 종문의 실황을 살펴서 이번 토의에서 공론이나 용담(冗談)은 일체 배제하고 전원이 협심, 중론을 통합함으로써 익찬(翼贊)총회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

유시(폐회식)

이제 제 4회 중앙총회의 폐회를 명령한다.

능위(稜威) 아래에 우리 총회의 회의가, 불조(佛祖)의 가호와 당국의 비호를 받아서 회기 중에 아무런 지장 없이 예정 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경하해 마지않고, 특히 여러분이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기 3일에 걸쳐서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전물영령의 위령법요를 올리거나 혹은 군영을 위문하고 또한 중대한 의사를 토론하신 노고에 대하여서는 이 노승이 깊이 감사해 마지않는 바이다. 여러분의 이 노고는 곧바로 지방 사문(寺門)에 영향을 주며 정전(征戰)하 종도로 하여금 시간(時艱)을 극복하는 귀감에 충분할 것이다.

바라옵건대 여러분이 귀산(歸山) 후에는 사중(寺衆)을 독려해서 총본사의 지휘명령에 잘 향응(響應)시켜서 성전완수에 총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성지(聖旨)에 봉답할 것을.

[12-2]

시국행사

총본사에서서는 12월 8일 대동아전쟁 발발 제2년째의 대조봉대일(大詔奉戴日)에 그 전에 각 사찰부터 기탁이 있는 황군위문 상자 수입의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내 경성 종로경찰서를 통하여 군부에 헌납했다.

— 다음 —

일금 229엔 81전 명세는 다음과 같다.

금 20엔 29전	총본사태고사 황군 위문함 수입
금 8엔	만주국 대련 불교부인회원
금 31엔 90전	경북 청도군 태산사
금 22엔	함남 이원군 복흥사

